

忠南文化

제5호 2001년

全國文化院聯合會 忠清南道支會

지역 문화 선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 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 문화 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 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 감수성의 역량이 곧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 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당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 문화 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 문화와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 문화 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 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 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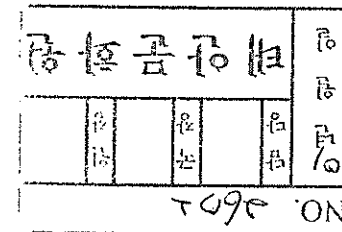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자생적 문화 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 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 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 지역 문화 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 정부와 지역 자치 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995. 1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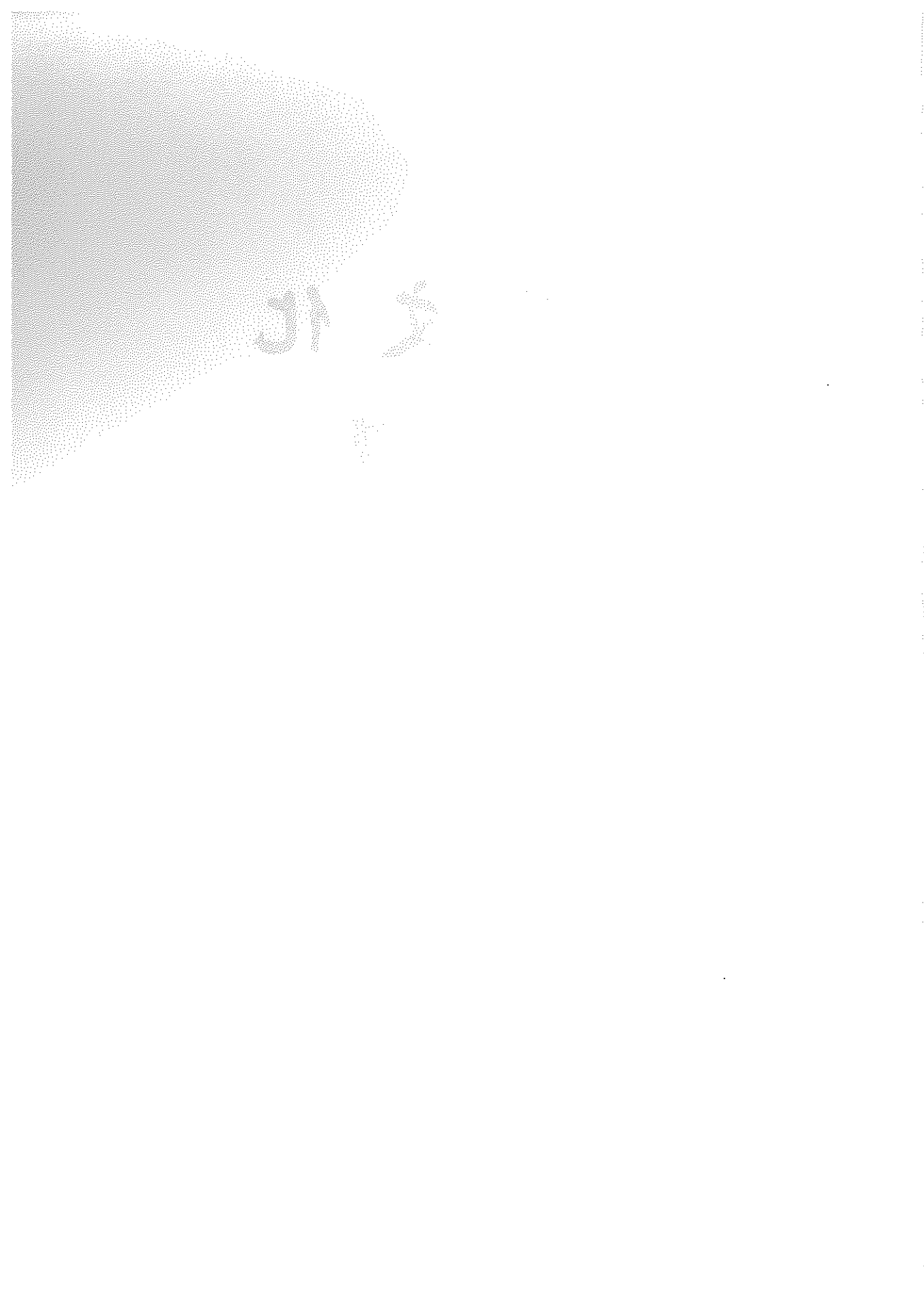
지역문화행정전문가 일동



忠南文化

제5호 2001년

全國文化院聯合會 忠清南道支會



▶ 차례

- 발간사
지방문화가 살아야 문화가 산다 · 김현구/전국문화원연합회충남도지회장 4
- 축간사
문화는 민족의 내일을 밝혀주는 빛이며 양식이다 · 심대평/충청남도지사 6
- 충남의 향토사연구
白江 · 周留城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 황의천/대전문화원 회원 8
- 충남의 인물
도침(道琛) (?~661) · 예산문화원 60
沃坡 李鍾一 선생에 대하여 · 박춘석/청운대학교 겸임교수 62
의춘부원군충장공(宜春府院君忠壯公) 남이흥(南以興) 장군 · 당진문화원 74
- 충남의 민속
직산의 거북놀이 · 성환문화원 77
봉양리 장승제 및 산신제 · 아우내문화원 91
- 충남의 전설
천안삼거리Ⅱ · 천안문화원 93
미륵 모퉁이 · 대천문화원 96
- 충남의 문화재
서산마애삼존불상 · 서산문화원 99
국가지정문화재 제218호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 논산문화원 101
- 충남의 향토문화축제
금산인삼축제 · 금산문화원 105
제17회 도원문화제 · 조치원문화원 109
- 문화칼럼
유혹하는 유해환경과 청소년문화 · 노홍래/서천문화원 부원장 116
청양의 산하 · 安鍾日/청양문화원장 119
문화가 우리에게 부여한 것들 · 구제기/시인 · 충남문인협회장 135
- 2001년도 충청남도 문화예술인대회 수상자 명단 139
- 제45회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 140
- 2001년 충남도지회 활동상황 144
- 충청남도 각 문화원 활동상황 147

지방문화가 살아야 문화가 산다

충남문화 2001



김 현 구
도지회장

문화관광부에서 선포한 2001년 '지역문화의 해'도 어느새 지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강조해왔습니다. 國際競爭力을 갖는 商品은 제조업에서 文化로 변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만큼 문화는 중요한 國家産業이며, 文化를 暢達하고 繼承, 發展시킬 課題를 안고 있는 우리 문화가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문화의 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情報化와 지식기반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듯 정보화와 지식기반의 表現方式은 문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는 그래서 그 시대의 表現양식이요, 사회상이기도 합니다.

최근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의 상품이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자동차나 반도체가 아닌 바로 문화입니다. '한류'로 대변되는 한국문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이미 관심 차원이 아닌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문화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문화가 대대로 이어지고 국가적인 경

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화의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문화의 뿌리,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며 생활이요,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지역문화가 지역주민들에게 굳건히 자리를 잡을 때 한 나라의 문화 또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문화의 발굴과 창조는 세계화의 潮流를 逆行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를 主導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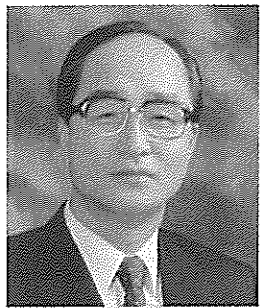
지역문화의 해를 보낸 우리 충남 문화인들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 鄉土祝祭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각 문화원들의 활동도 왕성해 각종 評價에서 우수한 成績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지역문화를 가꾸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모든 이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해 다져온 文化活動의 基盤을 한층 강화해 진정한 지역문화의 創出者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지역문화의 해는 지났지만 지역문화는 언제나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2001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충남문화' 제5호를 發刊하기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자료를 협조해 주신 도내 각 문화원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 12

문화는 민족의 내일을 밝혀주는 빛이며 양식이다



심 대 평
충청남도지사

금년도 우리 지역의 문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충남문화」 5집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지역의 향토문화 창달과 문화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전국문화원연합회충남도지회 김현구 지회장님을 비롯한 17개 문화원 가족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찬란한 백제문화를 간직하고 충효예절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장에서 우리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를 알리는 책자를 발간하는 일이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매회마다 실리는 충실하고 새로운 자료는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이나 일반인, 학생들에게도 좋은 자료로 활용되리라 믿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말로는 「문화는 민족의 내일을 밝혀주는 빛이며 양식이다」라고 문화의 가치를 말했을 만큼 그 나라의 문화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 민족의 전통문화는 그 나라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아 우리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문화 또한 정보화에 쉽게 물들고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 지

역 문화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道가 문화의 고장이라는 긍지를 살리면서 새로운 지방문화 창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착수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또한 21C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이버 지방문화원 구축사업도 금년내에 마무리하여 내년부터는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향토민속자료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원 가족 여러분 모두가 정성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료수집과 집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원도지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발간되는 「충남문화」 5집이 향토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1. 12

白江 · 周留城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황 의 천 | 대천문화원회원, 충남해양과학고 교사

목 차

I. 머리말

II.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견해

1. 한산 · 금강설
2. 부안 · 동진강설
3. 연기 · 안성천설
4. 홍성 · 아산만설
5. 비인 · 진잠 · 금강설
6. 서산 · 금강설

III. 백강의 위치

IV.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한 견해

V. 주류성의 위치

VI. 맺는말

〈참고문헌〉

I. 머리글

660년 나 · 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한 후 백제의 전지역에서 부흥운동이 활발히 일어났고, 부흥군은 泗沘城과 熊津城을 방어하던 新羅軍과 唐軍을 크게 위협하였다.

이 백제 부흥운동의 주요 거점은 任存城과 周留城 이었다. 任存城은 오늘날 충남 예산군 대흥면의 봉수산성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豐王의 王城 이었던 周留城의 위치문제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일제시대의 일인 사학자, 그리고 해방후의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꾸준히 연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정설로 인정되는 곳이 없이 여러 견해만이 분분할 뿐이다. 현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화를 선양하려는 지역민의 욕구가 반영되어 일부지역의 향토사가들도 열심히 연구하여 나름대로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게된 가장 큰 원인은 三國史記에서 '周留城은 이름은 있지만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이라고 기록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 周留城 위치에 대한 여러 견해 속에서 우리나라 원로 사학자로서의 권위 때문인지 몰라도 李丙熙의 한산 건지산성설이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리고 많은 학자들이 동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산 건지산성은 최근의 발굴 결과 고려시대의 성으로 판정되어 주류성으로서의 설득력이 약화된 상황이다.¹⁾

백제부흥운동과 관련된 지명 중 그 위치를 오늘날 정확히 알 수 있는 곳은 泗沘熊津任存城 熊津江 정도뿐이어서 여러 가지의 다른 견해가 많이 나타나고있는 것이다.

三國史記나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등의 諸史書에서 '나 · 당군이 주류성을 공격하기 위해 웅진에서 육군은 육로로 가고, 수군은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만나 주류성을 공격한다'는 내용으로 보아서 白江과 周留城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白江은 백제 멸망시에는 당군이 침공하여 사비성으로 들어온 곳이며, 백제 부흥운동시에는 주류성을 공격하기 위해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간 나 · 당의 수군이 백강의 어귀에서 부흥군을 돕기 위해 바다를 건너온 왜의 수군과 2일에 걸친 大海戰을 벌여 승리함으로써 周留城을 점령하고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곳이다.

이렇게 백제 부흥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白江도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되어 왔었으니 주류성의 위치구명을 위한 선결문제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

1) 충청매장문화재연구소, 「한산건지산성 발굴약보고서」-유인물-, 1997.

나 백강의 위치문제도 주류성의 위치문제와 함께 여러 가지 견해가 대두되고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이러한 先學들의 여러 견해나 주장들 중 일부 인정하기 어려운 의문점이 많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白江·周留城의 위치 비정에 관한 제 견해를 고찰해 보고, 관련사료의 면밀한 재검토 분석과 현장답사, 그리고 당시의 정황배경 이해와 先學들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白江의 위치가 충남 보령시 熊川川임을 구명해 보고, 이어서 이러한 白江의 위치와 관련시켜 周留城이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산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추정해 보고자한다.

지금까지 주류성 위치에 대한 여러 학설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또다시 周留城 保寧說을 주장함은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였다는 다른 향토사학자나 학계의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주류성 위치구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고, 주류성 위치 구명에 기여한다면 필자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다.

II. 지금까지의 여러가지 견해

1. 한산·금강설

이병도(李丙燾)²⁾박사로 대표되는 한산 건지산성(乾芝山城)설은 기록에 나오는 熊津江 伎伐浦 白江은 모두 오늘날의 금강이나 금강하구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백강은 금강 하류이고, 기벌포는 금강하구 즉 백강하구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견해에서 출발하고있는 것이다.

금강은 泗泚나 熊津으로 통하는 요충이므로 백제 멸망후 백제지역을 방어하기 위하여 사비나 웅진에 주둔하는 唐軍과, 이들을 지원하는 唐軍을 차단하려면 금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지킴의 요충은 금강하구의 韓山이 적지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그 동안 정설화 되다시피 되어 많은 동조자들이 형성되었다.³⁾

2) 震檀學會編, 『韓國史』, 古代篇, 을유문화사, 1959. p508, p514.

3)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83.

심정보, 『백제 부흥군의 주요 거점에 관한 연구』, 『백제연구』14, 충남대 백제연구소, 1983.

심정보, 『白江의 위치에 대하여』, 『韓國上古史學報』, 韓國上古史學會, 1989.

이기백, 『한국사 신론』, 일조각, 198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 1990.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등이 있다.

임제시대 한산설을 주장한 일인학자는 즈다 사우기찌(津田左右吉), 『百濟戰役地理考』, 『朝鮮歴史地理』1, 1923.

이케우지 히로시(池内宏), 『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地理歴史報告』14, 1934. 등이 있다.

2. 부안·동진강설⁴⁾

전영래(全榮來)교수로 대표되는 부안 위금암산성(位金巖山城)설은 웅진강은 금강으로 보고 白江은 東津江, 伎伐浦는 東津江하구로 본 것이다. 백제 멸망시 소정방이 거느린 당군이 웅진강에 들어서려다 百濟兵의 저항이 심하므로 남하하여 진흥뿐인 기벌포(동진강 하구)에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한 후 북상하여 웅진강 하구의 백제군을 격파하고 사비성으로 진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백제부흥운동시에는 금강(웅진)에서 동진강(백강)으로 나·당의 수군이 진격하여 부안의 위금암산성(주류성)을 공략하였다는 것이다.

백강의 위치 고증을 위하여 地名언어 추정을 많이 하였다. 동진강 하구의 계화도(界火島)가 있는데 이것을 '지불'이라고 해석하여 기벌포, 지벌포와 비슷한 이름이라고 하였다. 또한 동진강의 "東"은 "白"의 轉寫이기 때문에 동진강과 백강은 같은 지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부안지방에 있었던 欣良買縣도 백강의 뜻을 가진 마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였다.

부안 위금암산성은 일본서기에 나오는 주류성의 지리적 조건, 즉 주변의 토지가 척박하고 전답이 멀기 때문에 농경이나 양잠에 부적합하다는 조건에 잘 어울리는 산악지역이며, 부흥군 지도자였던 福信이 숨어있었다고 추정되는 동굴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부안지역이 주류성 지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안설은 노도양 교수⁵⁾, 변인석 교수⁶⁾, 이도학 교수⁷⁾ 그리고 군산의 향토사학자 김중규씨⁸⁾등이 동조하고있다.

3. 연기·안성천설⁹⁾

4) 전영래, 『위금(주류)산성 관련 지표조사 보고서』, 부안군, 1995.

5) 盧道陽, 『靑坡集』, 명지대출판부.

6) 변인석, 『백강·백강구의 역사지리적 고찰』, 한울, 1994.

7) 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임제시대 부안설을 주장한 일인 학자는 고오다(小田省吾), 『朝鮮史大系』(上世史), 1927.

이마니시류(今西龍), 『白江考』, 『百濟史研究』1934. 등이 있다.

8) 김중규, 『당나라군의 백제공격 루트 확인 연구』, 『전국향토문화연구논문발표대회수상논문집 CD』, 전국문화원연합회, 2000. 김중규씨는 부안 주류성설에 동조하면서 백강과 기벌포와 웅진강은 모두 금강이라 하고있다.

9) 김재봉, 『백제 주류성의 연구』, 연기군, 1995.

연기설은 신채호, 안재홍, 황의돈도 제기하였다.

운동에 나오는 豆良尹城(豆陵尹城)을 주류성과 동일지명으로 보았다. 燕岐의 백제시대 지명이 두잉지현(豆仍只縣)이었기 때문에 두랑윤성과 두잉지현은 발음상 같은 지명으로 생각되므로 연기군에 주류성이 위치한다는 것이다. 두잉지현이 백제 때는 '두렁이 고을'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날은 연기 당산성 아래에 '누렁이 고을'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진다고 하였다.

일본서기의 기록 중에 '西部 任存城에서는 福信이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中部 久麻怒利城(혹은 都都岐留山)에서는 余自進이 봉기하였다'¹⁰⁾는 내용이 있는데, '中部久麻怒利城'이라는 명칭에서 '中部'는 당시의 공주 연기 일원을 포함하는 광역 행정구역이었으며, '구마노리'는 공주 '곰나루'의 변형이며, 그러니 중부에 속한 구마노리성으로 해석해야 하며, 또한 도도기류산은 주류성이기 때문에 중부행정구역에 속했던 공주 연기지방에 주류성이 있다는 내용이 된다고 하였다.

또 삼국사기 등에 보이는 백제부흥운동기간 중 신라에서 웅진이나 사비지역으로의 수송로가 부흥운동군에 의해 차단되고, 신라가 고구려의 南界를 공략하는데 부흥운동군 때문에 상당히 견제 받았다는 내용은 부흥운동의 거점인 주류성이 연기지방에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660년 백제멸망시의 웅진강 백강 기벌포는 지금의 금강이나 금강하구로 보아야 하고, 백제 부흥운동당시 부흥군 구원을 위해 온 왜 수군과 주류성 공격을 하기 위해 웅진강으로부터 백강으로 온 나·당의 수군이 해전을 벌였던 白江口는 아산만에서 조금 들어간 안성천 하구의 白石浦로 보았다. 그리고 안성천을 백강으로 보았는데 이는 백제 건국지가 천안 직산 부근일 수 있으므로 그 당시 안성천은 百濟江으로 불렸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또 안성천이 '현들강'으로도 불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백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백제멸망시의 백강과 백제 부흥운동시의 백강은 별개로 보는 견해이다.

4. 홍성 · 아산만설¹¹⁾

洪城의 향토사학자 박성흥(朴性興)씨가 주장하는 홍성 학산성(鶴山城)과 주변의 여러 성을 망라한 홍성 주류성설은 金正浩가 大東地誌에서 홍주목이 백제의 주류성이라고 하

10) 日本書記 齊明記 6년 9월조 : 於是西部恩率鬼室福信赫然發憤據任射岐山(或本云北任叙利山)遂率余自進據中部久麻怒利城(或本云都都岐留山)

11) 朴性興, 『洪州 周留城考』, 홍성군, 1995.
朴性興, 『周留城考』, 『향토문화연구논문총서』, 한국문화원연합회, 1992.

는데서 출발한다. 鶴城을 중심으로 주변에 인접한 山城群을 포함하면 일본서기에서 말하는 주류성의 지리적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으며, 특히 鶴城은 백제당시에는 '두루성'이라고 불렸을 것인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쓰루'라고 적고 중국식 한자로는 周留城이라고 적은 것이 분명하므로 확성은 주류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방에서는 두루성을 한자로 轉寫하면서 두루미 학(鶴)자를 써서 鶴城이라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홍성지역은 당시 신라의 西北部 지역이므로 삼국사기 등의 기록에 福信과 道琛이 부흥운동을 일으키니 西北部가 모두 호응하였다는 기록과도 일치된다는 것이다.

백강의 위치문제에 대하여는 연기설과 마찬가지로 백제 멸망당시의 백강과 부흥운동 당시의 백강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설명이 없다. 즉 660년의 백강과 웅진강은 현재의 금강이며, 663년의 백강은 아산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당군과 일본수군이 접전한 白江口海戰은 당진군 석문면의 흰 차돌바위가 많이 있는 차돌백이 마을 앞의 연해안에서 있었던 일이라 하였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백강과 동일지명으로 註記된 長嶺 只伐浦, 孫梁을 당진의 해안지역에서 고증하였다. 당진군 석문면의 80m의 암맥이 있는 곳이 장암, 당진군 고대면의 지섬(只島)을 지별포, 당진군 고대면 장항리의 '솔양이'라는 지명이 손량(孫梁)이라고 고증하였다. 그리고 백강구 해전 후 唐의 劉仁軌가 왜군의 시체를 모아 매장하였다는 사실이 기록에 나오는데, 이 무덤을 당진군 고대면의 '막무데미'로 불리는 곳으로 고증하였다.

5. 비인(比仁) · 진잠(鎭岑) · 금강설¹²⁾

지현영(池憲英)교수가 주장하는 비인 · 진잠설은 부흥군과 왜군 때문에 신라로부터 사비성과 웅진성에 이르는 수송로가 위협받았다는 기록과, 서부지역에서 부흥운동이 크게 전개되었고, 백강(금강)유역의 서해안지역 항구에서 가까워야 한다는 조건을 고려하여 비인과 진잠의 두 곳에 주류성이 있었다는 견해이다.

웅진강, 백강, 백강구는 현재의 금강으로 보고 주류성은 웅진강→백강→백강구의 밖에 위치하는 향만이며, 산이 높고 험준하며 계곡이 깊고, 금강의 右岸 즉 서천군 지역인 곳을 만족시키는 비인 일원의 비인읍성, 월명산성 관적곡산성 불당곡산성 등을 주목하였다. 모래로 된 庇仁灣을 주류항으로 보고 여기가 부흥군의 대외 통로역할을 하였다고 주장

12) 池憲英, 「豆良尹城에 대하여」, 『백제연구』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2.

한다. 그리고 신라와 웅진 사비간의 통로를 차단하려면 주류성은 내륙에도 있어야 하는데 삼국사기의 '支羅城(或云 周留城)'으로 기록된 곳이 진잠의 山長山城이라는 것이다.

6. 서산·금강설¹³⁾

瑞山の 향토사학자 이은우(李殷佑)씨가 주장하였다. 17세기 초 서산지방의 私撰邑誌인 『湖山錄』에 상왕산성(象王山城)은 象王이 쌓은 성이며, 신라와 백제가 다툰 때 왕이라 칭하는 자가 이 산성에 있었다는 기록, 이 성은 상왕 지대원년(象王地大元年)에 쌓은 것 같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성이 周留城이며, 특히 地大원년은 일본의 天智2년(662년)의 글자모양이 비슷하게 변형되어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백제 부흥운동의 연대에도 일치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류성에서의 부흥운동은 승려 도침이 중심이 되었으므로 보원사지 주변 100여 개 사찰에 있는 승려세력이 중심이 된 것이며, 부흥운동이 서북쪽의 호응을 받았다는 사실과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통일신라 때 이 지역은 가야산에 西陳을 설치하고 춘추로 大祭를 지낸 중요한 지역이며, 군왕골이라는 지명, 보원사지 입구의 돌무더기가 전쟁용이었다는 전설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였다. 또한 현 고평저수지가 옛 軍莊洞 마을이며, 성벽의 길이가 백제 부흥운동거점들 중에서 가장 긴 약 6000m정도에 이르러 많은 군사를 수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白江 白江口 熊津江 伎伐浦 白沙 등은 錦江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당군과 일본수군의 白江口 海戰은 주류성 근처(서산)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지 않고 현재의 금강하구 부근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Ⅲ. 白江의 위치

白江의 위치를 구명하기 위해 白江 熊津(江) 伎伐浦와 관련된 관계 사료를 백제 멸망 시(가 그룹)와, 백제 부흥운동 당시(나 그룹)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¹⁴⁾

13) 이은우, 「서산지방의 백제 역사」, 『瑞山文化』11호, 1999.

14) Ⅲ장과 V장의 자료 중 『三國史記』는 李丙巖 譯 을유문화사刊 1983, 『三國遺史』는 李民樹 譯 을유문화사刊 1993, 『日本書紀』는 成殷九 譯 정음사刊 1987, 기타 중국 史籍는 충청남도刊 『百濟歷史』1995 부록편, 전영래 앞의 글, 심정보 「백강의 위치에 대하여」에서 참고하였다.

(가)

① 三國史記 百濟本紀 武寧王 卽位 春正月

佐平 苜加據加林城叛王帥兵馬至牛頭城命 抒率解明討之苜加出降王斬之投於白江

좌평 백가가 가림성에 거하여 반역하니 왕이 병마를 거느리고 우두성에 이르러 한술 해명에 명하여 치게 하였다. 백가가 나와 항복하니 왕이 그를 베어 백강에 던졌다.

② 三國史記 百濟本紀 義慈王 16년 3월

佐平成忠(或云淨忠)極諫王怒囚之獄中…成忠痰死臨終上書曰…若異國兵來陸路不使過沈峴水軍不使入伎伐浦之岸.

좌평 성충이 극간하니 왕이 노하여 옥중에 가두었다. …성충이 죽음에 임하여 글을 올려 말하기를…다른 나라의 군사가 쳐들어오면 육로에서는 침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을 기벌포 연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오.

③ 三國史記 百濟本紀 義慈王 20년

佐平興首得罪流竄古馬彌知之縣遣人間之曰事急矣如之何而可乎興首曰唐兵既衆師律嚴明況與新羅共謀犄角若對陳於平原廣野勝敗未可知也白江(或云伎伐浦)炭峴(或云沈峴)我國之要路也 …使唐兵不得入白江羅人未得過炭峴…大臣不信曰…莫若使唐兵入白江沿流而不得方舟羅軍升炭峴由徑而不得并馬…又聞唐羅兵已過白江炭峴遣將軍 堵伯帥死士五千出黃山與羅兵戰…堵伯死之…於時合兵禦熊津口瀕江屯兵定方出左涯乘山而陳與之戰我軍大敗王師乘潮舳艫銜尾進鼓而 譚定方將步騎直趨都城一舍止

좌평 흥수가 죄를 얻어 고마미지현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어 일이 급하니 어쩌면 좋겠느냐? 고 물었다. 흥수가 말하기를 당병은 수가 많고 군율이 엄명하고 신라와 공모하여 각각의 세를 이루고있으니 만일 평원광야에서 싸우면 승패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백강(혹은 기벌포)과 탄현(혹은 침현)은 아국의 요로이다. …당병으로 하여금 백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인으로 하여금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라 …대신들이 불신하여 말하기를 …당병으로 하여금 백강으로 들어와서 흐름에 따라 배를 정렬할 수 없게 하고, 신라군은 탄현에 올라서 小路를 따라 말을 정렬할 수 없게 한다음 (공격한다). …그러던 중 나·당의 군사가 이미 백강과 탄현을 거쳤다는 말을 듣고 장군 계백으로 하여금 결사대 오천을 거느리고 나아가 신라군과 싸웠게 하였으나 계백이 전사하였다. 이에 군사를 합하여 웅진구를 막고 강변에 군사를 둔수케 하였다. 정방이 강의 좌편언덕으로 나와 산에 올라 진을 치니 아군이 싸워서 대패하였다. 당군이 조수를 타고 배를 연

달아 내키며 북을 치고 떠들어댔다. 정방이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도성으로 직향하여 —숨쬔 되는 곳에서 머물렀다.

④ 三國史記 新羅本紀 太宗武烈王 7년 7월 9일

庾信等進軍於黃山之原百濟將軍堵伯擁兵而至…百濟衆大敗堵伯死之…是日定方與副摠官金仁問等到伎伐浦遇百濟兵逆擊大敗之.

유신 등이 황산벌에 이르니 백제장군 계백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백제군사가 대패하고 계백은 전사하였다. 이날 정방과 부총관 김인문은 기벌포에 도달하여 백제병을 만나 이를 크게 무찔렀다.

⑤ 三國史記 列傳 金庾信(中) 太宗大王 7년 6월

大王與太子法敏將伐百濟大發兵至南川而營時入唐請師波珍浪金仁問與唐大將軍蘇定方劉伯英領兵十三萬過海到德物島先遣從者文泉來告王命太子與將軍庾信眞珠天存等以大船一艘載兵士會之太子遣將軍蘇定方定方謂太子曰吾由海路太子等陸行以七月十日會于百濟王都泗泚之城太子來告大王率將士行至沙羅之停將軍蘇定方金仁問等沿海入依(依當作伎)伐浦海岸泥濘陷不可行乃布柳席以出師唐羅合擊百濟滅之.

대왕이 법민과 함께 백제를 정벌하려고 크게 군사를 출동하여 남천에 이르러 진영을 베풀었다. 이때 당에 들어가 청병하던 파진찬 김인문이 당의 대장군 소정방 유백영과 함께 군사 13만을 거느리고 해상을 거쳐 덕물도에 와서 먼저 종자 문천을 보내어 알리니 왕이 태자와 장군 김유신 진주 천존 등을 명하여 큰배 일백 척에 군사를 싣고 가서 회합케 하였다. 태자가 장군 소정방을 만나서 정방이 태자에게 이르기를 나는 해로로 가고 태자는 육로로 가서 7월10일에 백제의 왕도 사비성에서 함께 모이자 고 하였다. 태자가 와서 고하니 대왕은 장사들을 거느리고 사라의 군영에 이르렀다. 장군 소정방 김인문 등이 연해안을 따라 의(기)벌포로 들어왔는데 해안이 진흙탕이어서 빠지므로 다닐 수 없으므로 버들자리를 펴서 군사들을 나오게 하였다. 결국 당군과 신라군이 연합하여 백제를 쳐서 멸하였다.

⑥ 三國遺史 太宗春秋公

佐平成忠極諫…若異國兵來陸路不使過炭峴(一云沈峴百濟要害地之)水軍不使入伎伐浦(卽長岳並又孫梁一作只火浦又白江)…佐平與首得罪流竄古馬彌知之縣遣人間之曰事急矣如之何與首曰大概如佐平成忠之說

좌평 성충이 극간 하였다. …만약 다른 나라 군사가 오거든 육로는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에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좌평 홍수가 죄를 짓고 고마미 지현에 귀양가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 일이 급하니 어찌하면 좋은가 하니 홍수가 대체로 좌평 성충의 말과 같습니다.

⑦ 舊唐書 列傳 蘇定方

顯慶五年率師討百濟定方自城山濟海至熊津江口賊屯兵據江定方升東岸乘山而陳與之大戰揚帆蓋海相續而至賊師敗績死者數千人

현경 5년 소정방이 백제를 치기 위해 성산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웅진강구에 이르니, 적의 둔병들이 강에 의지하여 진을 치고있었다. 정방이 東岸으로 나와서 산에 올라 진을 치고 싸워 크게 이기니 적들이 패하여 죽은 자가 수 천 명이였다.

⑧ 新唐書 列傳 蘇烈

率師討百濟自城山濟海至熊津口賊瀕屯兵定方出左涯升乘山而陳與之戰賊敗死者數千人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치기 위해 성산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웅진강구에 이르니, 강가에 적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소정방이 좌측언덕으로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산에 진을 치고 싸우니 적들이 패하여 죽은 자가 수 천 명이였다.

⑨ 新唐書 東夷傳 百濟

顯慶五年…蘇定方…自城山濟海百濟守熊津口定方縱擊虜大敗…

현경 5년 소정방이 성산으로부터 바다를 건너니 백제가 웅진구를 지키고 있음에 소정방이 군사를 보내어 치니 적들이 크게 패하였다.

⑩ 資治通鑑 唐紀16年 高宗

蘇定方引兵自城山濟海百濟據熊津江口以拒之定方進擊破之

소정방이 군사를 거느리고 성산으로부터 바다를 건너니 백제가 웅진강구에 의지하여 방어하고 있으므로 소정방이 진격하여 이를 격퇴하였다.

(나)

① 三國史記 百濟本記 義慈王

遂與仁願之衆相合士氣大振於時諸將議所向或曰加林城水陸之合先擊之仁軌曰加林險而固攻則傷士守則曠日周留城…於時仁師仁願及新羅王金法敏帥陸軍以進仁軌及別帥杜爽夫餘隆帥水軍及糧船自熊津江往白江以會陸軍同趣周留城遇倭人白江口四戰皆克焚其舟四百艘煙焰灼天海水爲丹

드디어 인원의 군대와 합치니 사기가 크게 떨치었다. 이에 諸將이 갈 방향을 의논하였는데 혹자는 가림성은 수륙의 요충이니 먼저 이를 치자. 하였다. 인제가 말하기를 가림은 험고하여 치면 군사를 상할 것이요, 지키면 오래 지탱할 것이다. 주류성은 백제의 소굴이니 무리가 많이 모여있다. …이에 인사와 인원 및 신라왕 김법민이 육군을 거느리고 향하고, 유인케 및 별장 두상 부여용은 수군과 양선을 이끌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만나 함께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구에서 왜인을 만나 네 번 싸워 모두 이기고 배 4백 척을 불태우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붉게 하고 해수가 빨간해졌다.

② 舊唐書 劉仁軌傳

將軍孫仁師率兵浮海以爲之援仁師既與仁軌等相合兵士氣大振於時諸將會議或曰加林城水陸之衝請先擊之仁軌曰加林險固急攻則傷損戰士固守則用日持久不如先攻周留城…於時仁師仁願及新羅王金法敏帥陸軍以進仁軌乃別率杜爽夫餘隆率水軍及糧船自熊津江往白江會陸軍同趣周留城仁軌遇倭兵白江之口四戰捷焚其舟四百艘煙焰灼天海水皆赤賊衆大潰餘豐脫身而徒獲其寶劍…一時並降百濟諸城皆復歸順賊首遲受信舉任存城不降

장군 손인사가 구원을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 드디어 인제의 군대와 합치니 사기가 크게 떨치었다. 이에 諸將이 갈 방향을 의논하였는데 혹자는 가림성은 수륙의 요충이니 먼저 이를 치자. 하였다. 인제가 말하기를 가림은 험고하여 치면 군사를 상할 것이요, 지키면 오래 지탱할 것이다. 주류성은 백제의 소굴이니 무리가 많이 모여있다. …이에 인사와 인원 및 신라왕 김법민이 육군을 거느리고 향하고, 유인케 및 별장 두상 부여용은 수군과 量船을 이끌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만나 함께 주류성으로 갔다. 인제는 백강구에서 왜병을 만나 네 번 싸워 모두 이기고 배 4백 척을 불태우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붉게 하고 해수가 빨간해졌다. 적들이 궤멸하니 부여 풍은 도망하고 보검을 획득하였다. …이때 백제의 모든 성이 항복하였으나 임존성의 지수신은 항복을 하지 않았다.

③ 舊唐書 東夷 百濟傳

於時仁師仁願及新羅王金法敏帥陸軍進劉仁軌乃別帥杜爽夫餘隆率水軍及糧船自熊津江往

白江以會陸軍同趣周留城仁軌遇夫餘豐之衆於白江之口四戰皆捷焚其舟四百艘賊衆大潰

이때에 인사와 인원 및 신라왕 김법민이 육군을 거느리고 향하고, 유인케 및 별장 두상 부여용은 수군과 量船을 이끌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만나 함께 주류성으로 갔다. 인제는 백강구에서 부여풍의 군사를 만나 네 번 싸워 모두 이기고 배 4백 척을 불태우니 적군이 크게 궤멸되었다.

④新唐書 本紀 高宗 龍朔3年

九月戊午孫仁師及百濟戰于白江敗之

9월 무오에 손인사가 백제군과 백강에서 전투하여 이를 패퇴시켰다.

⑤新唐書 劉仁軌傳

於時仁師仁願及法敏帥陸軍以進仁軌乃別率杜爽夫餘隆繇熊津江白江會之遇倭人白江口四戰皆克焚四百海水爲丹皆餘豐脫身徒獲其寶劍

이때에 인사와 인원 및 법민이 육군을 거느리고 향하고, 유인케 및 별장 두상 부여용은 수군과 量船을 이끌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만나기로 했는데, 인제는 백강구에서 왜인군사를 만나 네 번 싸워 모두 이기고 배 4백 척을 불태우니 해수가 빨개졌고 부여풍이 도주하니 그 보검을 획득하였다.

⑥新唐書 東夷 百濟傳

仁願已得齊兵士氣進乃與新羅王金法敏率步騎而遣劉仁軌率舟師自熊津江偕進趣周留城豐衆屯白江口四遇皆克火四百艘

인원이 병사들의 사기를 돋우어 진격하고 신라왕 김법민이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나가고 유인케는 수군을 웅진강으로부터 거느리고 나아가 함께 주류성을 공격하니 풍왕의 군사들이 백강구를 지키고 있음에 4번 싸워 모두 이기고 배 4백 척을 불살랐다.

⑦資治通鑑 唐紀 高宗 龍朔3年

於時仁師仁願與新羅王金法敏將陸軍以進仁軌與別將杜爽夫餘隆將水軍及糧船自熊津入白江以會陸軍同趣周留城遇倭兵於白江口四戰皆捷焚其舟四百艘煙炎灼天海水皆赤

이때 인사와 인원은 신라왕 김법민과 더불어 육군을 거느리고 진격하고 인제와 별장 두상 부여용은 수군과 양선을 거느리고 웅진으로부터 백강으로 들어가서 육군과 만나 함께 주류성으로

진격하다가 왜병을 백강구에서 만나 네 번 싸워 모두 이기고 그 배 4백 척을 불태우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붉게 하고 해수가 빨간해졌다.

⑧ 日本書記 天智天皇 2年 8日

於是百濟知賊所計謂諸將曰今聞大日本國之救將盧原君臣率健兒萬餘正當越海而至願諸將軍等應預圖之我欲自往待饗白村戊戌(17日)賊將至於州柔繞其王城大唐軍將率戰船一百七十艘陳烈於白村江戊申(27日)日軍船師初至者與大唐船師合戰日本國不利而退大唐堅陳而守己酉(28日)日本諸將與百濟王不觀氣象而相謂之曰我等爭先彼應自退更率日本亂伍中軍之卒進打大唐軍大唐便自左右夾船繞戰須臾之際官軍敗走續赴水溺死者衆艫舳不得廻旋朴市田來津仰天而誓切齒而嗔殺數十人於焉戰死是時百濟王豐璋與數人乘船逃去高麗九月丁巳(7日)百濟周柔城始降於唐.

이때 백제는 적의 계략을 알고 장군들에게 대일본국 구원군 장군 노원군신이 일만여 용사를 거느리고 지금이라도 바다를 건너온다는 것이다. 원컨대 장군들은 미리 계략을 세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백촌까지 가서 그곳에서 구원군을 영접할 것이다. 고 말하였다. 17일에 적의 장군은 주유에 이르러 왕성을 포위하였다. 한편 당의 군장은 군선 170척을 이끌고 백촌강에 전열을 구축하였다. 27일에 일본군선 중 선착한 것과 당의 軍船이 회전하였다. 일본은 패퇴하고 당은 전열을 고수하였다. 28일에 일본의 장군들과 백제의 왕은 기상을 잘 관측하지 않고 우리편이 앞을 다투고 공격하여 가면 상대는 스스로 퇴각하여 갈 것이다 하고 협의하고 일본의 중군의 병력을 이끌고 선대를 잘 정비하지도 않은 채 진격하여 이미 진을 굳게 한 당군에 공세를 가하였다. 그랬더니 당군은 좌우에서 배를 내어 이를 사격하고 포위 공격하였다. 잠시 사이 일본군은 패하고 많은 자가 물에 빠져 익사하고 뱃머리를 돌릴 수도 없었다. 박시전래진은 하늘을 보며 우러러 맹세하고 이를 갈며 성을 내어 부르짖고 수십 인을 죽였으나 드디어 전사하고 말았다. 이때 백제왕 풍장은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배를 타고 고려로 도주하였다. 9월7일 백제의 주유성은 당에 항복하였다.

위에서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白江의 위치를 추정해 보도록 한다.

삼국사기 (가)-②의 기록과 (가)-③의 기록에 의하면 분명히 倭伐浦와 白江은 다르다. 즉 (가)-②에서 성충은 다른 나라의 군사가 쳐들어오면 “육로는 沈峴을 지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倭伐浦之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한 반면에, (가)-③에서 홍수는 “白江과 炭峴은 나라의 요충지이니 당군으로 하여금 白江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군

은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있다. 똑같은 시기에 같은 史書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대 전략가 신하들이 국가의 요충지를 전혀 다른 용어, 즉 성충은 ‘倭伐浦’로 홍수는 ‘白江’으로 사용한 것은 분명히 倭伐浦와 白江은 다른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③에 의하면 성충과 홍수의 충고를 무시한 후 백제는 나·당군이 白江과 炭峴을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계백의 오천 결사대를 황산벌에 보내 싸우게 하였으나 패배하고, 이어서 군사를 모아 熊津口에서 방어하도록 하니, 당군을 이끌고 백제로 오던 소정방이 熊津口에서 백제군을 격파하고 사비도성으로 직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가)-④에 의하면 소정방과 김인문이 기벌포에 도착하여 백제군을 물리쳤는데 (가)-⑤에 의하면 기벌포 해안이 진흥벌 이어서 소정방 김인문군은 버들자리를 깔고 상륙하여 백제군을 물리쳤다고 하고있다. 이렇게 본다면 백제가 방어한 熊津口와 나·당군이 도착한 倭伐浦는 동일 지점, 즉 현재의 금강하구인 것이다. 또한 (가)-⑦⑧⑨⑩의 중국측 기록도 웅진구에 도착하여 백제군과 전투하였다고 기록하고있다.

금강을 중국측은 熊津口로 썼고 이것을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며, 신라는 금강하구를 倭伐浦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熊津口와 倭伐浦는 금강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白江이 倭伐浦, 熊津江과 함께 오늘날 錦江으로 인식되었는가?

이것은 (가)-③의 삼국사기 기록에 ‘白江(혹은 倭伐浦)’라는 撰者의 註記와, (가)-⑥의 삼국유사에 ‘倭伐浦(즉 長嶺, 또는 孫梁, 또는 只火浦, 白江)’이라는 註記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기가 좀 빠른 (가)-②의 성충의 말에서는 沈峴과 倭伐浦에 주기가 없는 반면, 4년 후에 나타난 (가)-③의 홍수의 말에서는 성충의 말을 註記하고 있는데, 이는 사건 500년 후의 撰者가 성충과 홍수가 말한 지명을 같은 곳으로 생각하여 예단 착각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년 사이에 나라의 중요 요충지의 지명이 변경될 리가 없을 뿐 아니라, 나라의 전략가로서 한 곳의 요충지를 서로 다른 명칭으로 부를리 없기 때문이다. 홍수의 말에서 홍수가 요충지로 직접 지명한 곳은 ‘白江’이며, ‘倭伐浦’는 어디까지나 후세 撰者의 註記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은 모두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가)-⑥의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를 참고로 해서 기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성충의 말이 沈峴이 아닌 炭峴으로 바뀌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가)-⑥의 삼국유사 기록에서는 홍수의 말은 구체성이 없이 ‘대체로 성충의 말과 같다’고 한 것으로 보아도 삼국유사가 제대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삼국사기를 옮겨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의 자료들에서 註記된 부분인 成忠(淨忠), 炭現(沈

現), 伎伐浦(依伐浦) 등은 여러 異本의 史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동일 인물이나 동일 지명인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비슷하거나 한자의 모양이 비슷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伎伐浦(白江)는 어떤 관련성도 없다. 결국 三國史記나 三國遺史에서 백강이 기벌포 웅진강과 동일지점으로 인식된 것은 500년 전의 사실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撰者의 오류인 것이다.

금강은 백제시대부터 熊津이나 泗泚河로 알려져 있다. 다음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翰苑』蕃夷部 百濟條에는

熊津河 源出國 東界 西南流經國北 百里又西流入海 廣處三百步 라하였고

『三國史記』百濟本紀 의자왕 19년조에는

오월에 왕도의 서남쪽 泗布河에 큰 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길이가 3丈이었다.

『三國史記』百濟本紀 의자왕 20년조에는

2월에 泗泚河의 물이 핏빛처럼 붉었다 고 하였고,

『世宗實錄地理志』충청도조에는

大川은 熊津이다. 공주에서 금강이 되고 부여에서 고성진(古省津)이 되고, 임천에서 고다진(古多津)이 되며 진포(鎭浦)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라고 하였고,

『東國輿地勝覽』옥천군 산천조에

공주에 이르러 금강이 되고 웅진이 되며 부여에 이르러 백마강이 되고 임천 석성 양읍의 경계에 이르러 고성진이 되며 서천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고 하였고,

『東國輿地勝覽』부여군 산천조에서는

고성진은 곧 泗泚河이며 부소산 아래에 있다 고 하였고,

『大東地志』부여 산천조에서는

白馬江은 부여 서쪽 5리에 있는데 금강의 하류이며, 백제에서는 기벌포라 칭하였고 또는 泗泚河(泗자하)라고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백제시대 금강은 熊津이었고 부여부근은 泗泚河라고도 하였으며, 조선시대 들어와서 부여 부근을 白馬江이라고 호칭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조선 후기 편찬된 『충청도읍지』서천군조에는 長岩津은 白江에서 근원이 되어 나온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白馬江을 白江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 후기에는 오늘날처럼 白馬江과 白江 伎伐浦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삼국사기에서 잘못 註記된 내용을 인식한 결과이다.

그러면 삼국사기는 왜 白江을 伎伐浦라고 註記하였을까?

이것은 백제 멸망이후에 생긴 白馬江 즉 금강을 白江과 혼동한 결과로 보인다. 세종실록지리지의 부여현조와 동국여지승람 부여현 고적조에 의하면 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온 소정방이 白馬를 가지고 龍을 낚았다는 전설 때문에 부여 부근의 금강을 백마강이라고 하였다는 것¹⁵⁾을 보면 백마강의 명칭은 백제 멸망 후 고려시대부터 크게 유행한 것이 틀림없다. 고려·조선시대의 사실을 기록한 世宗實錄地理志나 東國輿地勝覽 등의 지리지에 나오는 금강연안의 고을 古跡條나 山川條 그 어디에도 白馬江은 있어도 白江의 흔적은 없다.

고려 중기인 12세기에 쓰여진 삼국사기의 白江은 白馬江을 혼동한 결과이며, 따라서 熊津江은 錦江이고 금강하구에 기벌포가 있으며 백강은 웅진강 즉 금강이나 기벌포와는 또 다른 강임이 명백하다.¹⁶⁾

그러면 白江은 어디인가?

(가)-③에서 홍수가 백강을 방어하라고 했는데 백제 조정에서는 이곳을 방어하지 않고 있다가 당나라 군사와 신라군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말을 듣고 장군 계백으로 하여금 결사대 5천을 거느리고 황산벌에 나가 싸우게 하였으나 패배하였고, 이에 군사를 합하여 웅진구를 막고 강변에 군사를 屯戍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가)-⑤에 의하면 소정방은 13만 대군을 이끌고 산동반도에서 德勿島(현 경기도 남양만의 덕적도)에 이르러 신라군의 영접을 받은 후 신라군과 7월10일에 사비성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해로로 남하하여 웅진구(기벌포)에 상륙한다. 그러니 소정방의 唐軍이 熊津口에 이르기 전에 이미 白江에 들어섰기 때문에 백제에서는 이미 백강을 지났다고 하였으며, 백제는 그 다음에 웅진구를 방어하고 있었으니, 당군은 기벌포에서 백제군과 전투를 벌였던 것이다. 소정방의 진로로 보아서 백강은 웅진구(금강)의 북쪽에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모든 연구자들은 (가)-③의 “나·당군이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말을

15) 세종실록지리지 부여현조: 민간에 전하기를 소정방이 백제를 칠 때 비바람이 갑자기 닥쳐서 흰말(白馬)로써 미끼를 삼아 용을 낚은 후 쳐 이겼으므로 강을 백마(白馬) 바위를 조룡대(釣龍臺)라 하였다 한다.

동국여지승람 부여현 고적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할 때 강에 임하여 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홀연히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므로 흰말로 미끼를 만들어 용 한 마리를 낚아 얻으니 잠깐 사이에 날이 개어 드디어 군사가 강을 건너 공격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강을 백마강이라 하고 바위는 조룡대라 일렀다.

16) 만의 하나라도 금강하류가 백강이고 웅진구는 금강을 거슬러 올라간 林川이나 江京근방이라 한다 해도 각종 지리지에 금강하구가 백강이라는 지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웅진구가 금강을 거슬러 올라간 林川이나 江京근방이라 한다면 소정방이 상륙할 때 진흙땀이었기 때문에 버들리를 깔고 군사를 상륙시켜야만 했던 큰 진흙벌 지형과 일치되지 못하며, 나·당전쟁 말기 신라장군 時得이 당군을 물리친 기벌포 전투가 강경이나 임천 근처의 좁은 강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가)-①에서 무령왕이 加林城에서 배반한 苗加를 쳐서 白江에 던졌다는 것은 무령왕이 직접 금강유역 가림성(임천)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두성(위치미상)으로 가서 해명으로 하여금 평정하게 한 것이니 반드시 금강유역으로 간 것으로 볼 수 없다.

듣고(又聞唐羅兵已過白江炭峴)”라는 내용을 간과하고 있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백강의 위치구명에 대한 결정적 단서가 제공된다고 생각한다.

덕적도 남쪽이며 금강의 북쪽 강으로서 부여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충지는 어디인가. 이곳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의 熊川川인 것이다.

웅천천 하구의 역사·지리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웅천천은 성주산과 부여군 외산면의 만수산에서 발원하여 감입곡류를 하면서 서해바다로 유입되는 36km에 이르는 하천이다. 현재 이 하천의 상류에 보령댐이 건설되었고 하류지역인 웅천 지역에는 퇴적평야가 형성되었다. 과거에는 ‘大川’으로 불리어지면서¹⁷⁾ 이 고장의 젖줄역할을 하던 강이다. 웅천천의 하구는 19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간척사업으로 농경지화 하였으며 현재는 웅천천 하구에서 서천군 서면까지 연결하는 부사방조제가 건설되어 완전히 육지로 되었다. 그러나 간척이전에는 웅천천 하구가 천혜의 포구역할을 하였고, 하구 바깥쪽은 바다가 육지로 들어온 깊숙한 灣口를 이루었다. 이렇게 灣口가 형성된 곳에서 안쪽으로 들어온 웅천천 하구의 포구는 천혜의 요충지가 되었다.¹⁸⁾(그림1. 2 지도 참고)

그러면 웅천천 하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천혜의 요충지였음을 시사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통일신라시대 웅천천 상류의 성주산에 선문9산 중의 하나인 聖住寺가 세워졌는데, 이 성주사는 백제시대에는 烏舍寺라는 절이었다. 오합사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등의 문헌에 나타나고 있으며, 聖住寺 寺蹟記에서 성주사의 전신이 오합사라고 지적하고있으며 최근의 성주사지 발굴조사에서도 백제시대의 가람지와 유물이 확인되었다.¹⁹⁾

성주사 사적기에는 백제 혜왕의 아들 법왕이 전쟁에서 죽은 병사의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오합사를 지었는데 이것이 성주선원이라고 하고있으며, 삼국유사에는 의자왕 19년에 크고 붉은 말이 오합사에 나타나 밤낮으로 여섯 번이나 절을 돌았다고 기록하고있으며, 삼국사기에는 의자왕 15년에 붉은 말이 북악의 오합사에 나타나 울면서 절을 돌다가 수일만에 죽었다고 하는 등 백제멸망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를 오합사와 연관하여 기

17) 동국여지승람 남포현조 : 대천은 본현 남쪽 20리 지점에 있으며, 그 근원이 성주산에서 나와서 靑淵浦로 들어간다. 청연포는 본현 남쪽 23리 지점에 있으니 大川의 하류이다. 彌造浦는 본현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18) 19세기 초 웅천 수부리의 유학자 李禮煥의 蘭菊齋集에 “熊湖弟子稍知義理之可貴”라고 한 것으로 보아 현재는 농경지화되어 있는 웅천천 하구의 평야가 과거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천혜의 항포구였음을 알 수 있다.

19) 충남대학교 박물관, 『聖住寺』, 1999.

록하고 있다. 사적기의 기록대로 전쟁에서 죽은 병사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사찰이라면 백제시대 보령 이곳 남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지역보다 컸으며, 백제 멸망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난 점²⁰⁾이라든가, 祠堂的 성격의 願刹이라든가 하는 점은 군사적 성격이 강하고 나라의 존망과 관련 있는 호국사찰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절이 사비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이 곳 서해안 보령의 寺浦縣 지역에 세워졌다는 것은 백제시대 이 지역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때 오합사의 관문으로 웅천천 하구의 포구가 寺浦로 불리면서, 대외통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의 성주사는 禪門9산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禪宗불교를 크게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거대한 사찰이었다. 성주사 사적기의 성주사 건물을 살펴보면 ‘梅檀林 9칸’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전단은 有香木材로 동남아의 자바나 수마트라에서 생산되었다. 紫檀이라 불리는 이것은 홍덕왕 때 수입을 금지한 사치품이었다²¹⁾ 이러한 전단으로 지은 건물이 성주사에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해외무역을 통해서 유입시키는 귀족이나 지방 호족의 해상 관문으로 웅천천 하구가 큰 포구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고려말에는 왜구 침입으로 우리 나라 해안이 황폐화 될 때, 이곳 웅천천 일대에도 우왕 때인 1380년에 왜구가 쳐들어와서 10여 년 동안 황폐화되었고 백성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리하여 1390년(공양왕2년) 웅천천 포구 상류 8km지점에 藍浦鎮城을 쌓고 병마사를 파견하여 흩어진 백성을 불러모았다.²²⁾ 이것으로 보아 10여 년 동안 왜구들이 웅천천 하구의 포구에 배를 정박시키고 이곳을 교두보로 삼아 내륙지역을 약탈하였음을 알 수 있다.²³⁾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이 웅천천 하구의 포구에 수군기지가 들어선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右道 水軍萬戶가 藍浦縣의 龜井에 머무른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미 고려말 이

20)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백제 멸망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들에 관한 기록은 거의 중앙에서 일어난 현상이며 지방에서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다.

21) 曹凡煥「朗慈無染과 聖住山門」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22)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 : 本縣百濟寺浦縣新羅改今名爲西林郡領縣高麗顯宗戊午移屬嘉林縣任內復置藍務洪武十三年庚申因倭寇人物四散庚午始置鎮城招集流亡本朝 太廟六年丁丑始治鎮兵馬使兼判縣事.

고려사 지리지나 세종실록지리지의 충청도 각 고을 소개에서 왜구의 침입으로 큰 피해를 본 고을은 남포현만 기록되어있다. 다른 고을도 왜구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포현만 기록된 것을 보면 남포가 왜구들의 주요 거점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3) 금강하구에도 고려말 倭寇 500여 척이 정박하여 이 곳을 교두보로 삼고 약탈을 자행하자 최무선이 화약으로 물리친 진포대첩이 있었고, 그 무리들을 추격하여 이성계가 남원에서 물리친 황산대첩이 있었다. 이것으로 보면 고려 말 금강 하구와 웅천천 하구는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왜구의 교두보였던 것이다.

전이나 조선초기에도 수군기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 이후에는 이 웅천천 하구의 광암 부락에 忠清水營(본영: 충남 보령 오천) 휘하의 馬梁鎭이 설치되고 첨절제사(중3품)가 파견되어 왜구침입 방비와 조운선의 안내 역할을 하였으며, 중종10년(1510)에 馬梁鎭城이 축조되었다.²⁴⁾ 그러나 이 마량진은 효종 때 이곳이 배대기가 불편하다고 하여 건너편 庇仁의 도둔반도 끝단으로 진을 이전하였다. 그리하여 이곳이 마량진으로 불리어졌는데 원래 이곳도 마량진 휘하의 戍자리가 있었던 곳이다. 조선후기에 들어와서는 웅천천 하구가 군사적 기능은 없어졌지만 계속 청연포 미조포 등의 포구가 발달하였다.

이렇게 오합사와 성주사의 관문, 왜구의 교두보, 수군기지 설치 등의 역사적 정황을 통해 볼 때 웅천천 하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웅천천 하구는 금강하구와 함께 백제시대 사비도성으로 통하는 중요한 통로였던 것이다. 때문에 홍수가 당군이 백강(웅천천)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건의한 사실과 부합된다. 그리하여 당의 소정방 13만 대군은 서해안을 내려오다가 이곳 웅천천 하구에 일부의 병력을 상륙시키고 배는 하구의 포구에 정박시켜 놓고 서쪽으로부터 사비도성을 포위 압박하기 위해 부여로 진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의 주력부대는 소정방이 직접 지휘하여 熊津口(금강하구)로 향하였던 것이다. 13만 대군을 한꺼번에 웅진구로 가서 사비로 진격하는 것 보다, 나누어서 사비도성을 공격하는 것이 군사작전상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 (가)-③과 같이 白江 즉 熊川川은 사비도성으로 통하는 요충지였으나 백제에서 방어하지 아니했으므로 큰 전투 없이 唐軍은 쉽게 사비로 진격하였고, 또 당군측에서는 주력부대가 아니었으므로 전투상황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그림3 참고)

이곳에서 부여까지는 약 40여km로 웅천천을 따라 웅천 분지를 거슬러 올라가 미산면 평라리로 해서 홍산 방면으로 나가서 부여로 진격하면 험한 산과 강과 같은 장애물이 없이 부여의 서쪽을 압박해 갈 수 있는 요충이 된다. 고대에 군사들의 이동로가 하천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부여로의 진격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충남 서남부 지역에서 사비성이나 웅진성으로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통로는 부여군 홍산을 경유해야 되는데 홍산 방향은 이미 사비로 진입하는 통로로 지적된바 있다²⁵⁾.

그리고 663년 주류성을 공격하기 위해 온 당 수군과, 백제 부흥군을 돕기 위해 온 왜 수군이 접전한 白江口(白村江) 海戰은 이 웅천천 하구 밖의 灣口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

24) 조선시대 웅천천 하구의 馬梁鎭 관할 하에 금강하구에도 長巖鎭(舒川浦營)이 설치되었다.

25) 徐程錫, 「아산지역의 산성」, 『史學論叢』 박명국교수정년기념논문집, 1994.

26) 유승광, 「서천지역 백제 산성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유원재, 「사비도성의 방비체제에 대하여」, 『공주교대 논총』 24, 1988, 유승광 위의 글에서 재인용.

인다.²⁷⁾

여기서 백제말기의 역사상황과 관련된 천방사(千房寺)전설과 白江(웅천천)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옥구현조에

전해지는 말에, 신라 장군 김유신이 백제를 침공하고자 당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자 당나라에서 소정방으로 하여금 배로 12만 군사를 인솔하고 가게 했다. (그가) 도착하여 산밑에 정박하려고 하는데, 안개가 짙게 끼어 천지가 뿌연게 어두웠다. 그래서 (김유신이) 산신령께 '만약 안개를 거두어 주신다면 모름지기 천 채의 절을 지어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라며 기도를 올렸다. 그러고 나자 그날로 하늘이 맑아졌다. 그런 뒤 산에 올라가 주위를 둘러보니 산세가 아주 좁아 도저히 천 채의 절을 세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돌 천 개를 배열하여 절 모양만을 갖추고 한 채의 절을 짓고는 이름을 천방사라고 했다. 그 뒤에 선림사로 이름을 고쳤으며, 고려 숙종 때에 근신을 보내 중수하고 불상을 모셨다. 지금은 다시 천방사라고 부르고 있다.²⁸⁾

위 사실은 관련 역사적 사실로 보아 신라 김유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소정방의 唐軍이 금강하구(웅진구)를 통하여 백제를 침공하면서 난관을 겪고, 그것을 어렵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전설이다.

충남대 黃仁德 교수의 연구²⁹⁾에 의하여 백제말기의 당군 침공역사와 관련된 이러한 千房寺 전설은 전북 군산시 소룡동, 충남 서천군 시초면, 충남 보령시 미산면, 충남 청양군 대치면, 충남 예산군 대술면·공주군 유구면에 나타남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황인덕 교수는 千房寺 전설이 충남 서쪽에 치우쳐 있으면서 남쪽에 서·북쪽으로 뻗어 올라가면서 배치되고 있음은 백제 부흥군 활동이 심화되어 나갔던 지역적 상황과 일치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전북 군산과 서천 시초는 660년 당군의 웅진강 진격과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백제 부흥운동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였다. 보령 미산은 본고의 주류성 보령설(수부리산성), 청양 대치와 공주 유구·예산 대술은 임존성 부흥운동과 연관시킬 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27) 이때 주류성에 있던 백제 豐王이 왜의 구원군을 마중하기 위하여 白村에 갔다고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삼국사기 문무왕조에는 白沙로 나옴, (나)-⑧ 참조) 白沙(白村)는 오늘날 서천군 마서면의 백사장 마을(이곳은 웅천천 하구에서 20여 km)이나, 서천군 서면 지역(이 곳은 거의 모래지역이며 동백정 해수욕장, 춘장대 해수욕장 등이 있음)으로 보인다.

28) "...謠傳 新羅將金庾信 欲攻百濟 請兵于唐 唐使薛定方將船率十二萬 來泊于山下 烟霧蔽暗 天地晦冥 禱于山靈 若使開霽 當建千寺以奉佛 即日天地清明 因登山周覽 勢甚窄狹 不可建千寺 只排千石以象寺 建一寺號千房 後改稱禪林 高麗肅宗時 遣近臣重修佛像 今復號千房"

29) 黃仁德, 「천방사(千房寺) 전설과 백제말기 역사상황」, 『백제연구』 3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

특히 황인덕 교수는 주류성 보령설 백강 웅천천설을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령 미산의 천방사 전설이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 추정은 필자의 보령 주류성설과 백강 웅천천설로 증명된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곳은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의 千房寺이다. 이 곳은 웅천천 상류로서 현재는 보령댐 수몰지구가 되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 곳의 천방사는 주류성(수부리 산성)부흥군 토벌과 관련하여 처음 나타난 전설이라기 보다는, 앞에서 말한 대로 소정방 당군의 일부가 백강(웅천천)에 상륙하여 부여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백제 호국사찰 烏舍寺의 승려세력이나 주변의 저항세력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처음 나타난 전설이 분명하다. 이 千房寺의 남쪽과 북쪽 5km지점에 수부리산성과 성주사(오합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1995년 공주대학교의 발굴조사에 의해서도 이 천방사지의 상한 연대가 백제말기에서 통일신라 초기임이 확인되었다.³⁰⁾

따라서 웅천천 상류에 금강하구와 비슷한 천방사 전설이 있고, 고고학적으로 시기가 확인되었음은 소정방의 당군 일부가 웅천천에 상륙하여 사비도성으로 진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며, 웅천천이 白江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³¹⁾

백강과 관련하여 都守熙교수³²⁾는 ‘白’의 언어학적 풀이를 하였다. 첫째는 白의 백제어 主釋은 ‘슌’이라 하였으며, 둘째 ‘백’의 副釋은 ‘伯’과 통용되는 의미인 ‘大’ ‘長’의 의미를 지닌 語辭로 추정하였다. 이 두 가지의 결과를 웅천천에 적용시켜 보면 웅천천이 백강이라는 지명 언어적 시사를 보여준다.

백을 ‘슌’으로 보면 이 ‘슌’과 관련된 지명은 웅천천 하구의 백제시대 지명이 寺浦(또는 沙浦)³³⁾이며, 웅천천 하구의 노천리가 사그네 마을인데 조선시대에는 沙川里라 하였고, 수부리의 수부리산성을 넘어 남포로 넘어가는 고개가 沙峴(새아니 재)이며, 성동리 산성 옆의 삼재, 미산면 평라리의 새재가 있다. 웅천천 하구 주산면 신구리 일대의 과거 명칭이 新村里였는데 新은 沙에서 변화된 것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白村이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웅천천 옆의 수부리산성이 있는 잔미산은 지금 栢山으로 불리기도 한다.

30) 공주대학교 박물관, 『千房遺蹟』, 1996.

31) 황인덕 교수는 앞의 글에서 구체적으로는 지적하지는 않고 나·당군이 4방향에서 사비성으로 진격하였음을 말하고 있는데, 최소한 당군의 진격로 중의 하나가 금강과 웅천천 하구였음을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32) 都守熙, 『백제어 白·熊·泗批·伎伐에 대하여』, 『백제연구』14,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1983.

이 글에서 도수화는 白을 슌으로 보면 사비가 백강이며, 백을 大나 長으로 보면 긴강=금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지명 언어적으로 보아 백강이 금강이라 한다면 본고의 II장에서 지적하였듯이 백제말망시나 부흥운동시 등장하는 백강과는 정황이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백제말망이나 부흥운동시의 백강은 금강과는 同名異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3) 동국여지승람 남포현 연혁조

‘白’의 의미를 ‘大’(크다), ‘長’(길다)의 의미로 보았을 때 웅천천을 과거에 고유명칭으로 ‘한내’라 불렀고 한자어로는 ‘大川’³⁴⁾으로 표기하였으니 그 의미가 연결된다.

또한 輕部慈恩³⁵⁾과 都守熙³⁶⁾는 ‘熊’을 ‘크다’라는 의미로 보고, 백제어에서 熊 = 白 = 伯 = 錦으로 변화된 것이므로 모두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³⁷⁾. 현재의 熊川이 과거에는 ‘한내’ ‘大川’으로 불리었는데 이 웅천천 하구에 웅천읍 구룡리 쪽에서 흘러오는 냇물인 ‘곰내’ 즉 ‘熊川’이 웅천천 하구와 합류한다. 이 곰내는 이 곳의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불려온 이름이다. 현재는 대천이라는 행정지명이 이웃 대천시로 옮겨가면서 이 곳의 행정지명과 한내(大川)는 ‘熊川’과 ‘熊川川’으로 바뀌어 불리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백제시대에도 이 웅천천과 그 하구가 ‘한내’와 ‘곰내’의 두 가지 지명으로 불리어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최근까지도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백제시대 공주의 ‘곰나루’ ‘고마나루’라는 우리말 지명이 ‘熊津’으로 漢釋되어 모든 史書에 기록되어지면서 이 곳 보령 웅천천 하구의 ‘곰내’는 공주와 같은 熊津이나 熊川으로 漢釋하여 기록할 수 없으므로 熊의 또 다른 의미인 白江으로 漢釋하여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고려시대 공주 熊津은 다시 언어변화를 가져오면서 白江이 이미 있으니 白江으로 쓰지 못하고 錦江으로 불리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³⁸⁾. 따라서 웅천천 하구는 백제시대 漢釋지명이 ‘白江’이었음이 틀림없다.

결론적으로 웅진은 금강이며 기벌포는 웅진의 하구 즉 금강하구이며, 백강은 웅천천 하구인 것이다.

IV.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한 견해

1. 한산·금강설

한산 주류성설은 웅진강 백강 기벌포가 금강이나 금강 하구를 말하는 것으로부터 성립한다.

34) 동국여지승람 남포현 산천조 및 조선후기의 각종 지리지.

35) 輕部慈恩, 『百濟遺蹟の研究』, 吉川文館, 1971. 都守熙의 앞의 글에서 재인용.

36) 都守熙, 앞의 글.

37) 都守熙와 沈正輔는 이렇게 변화되어 같은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으므로 熊津 = 白江 = 錦江으로 볼 수 있어서 오늘날의 錦江이 白江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錦江은 백제시대 白江이 아니고 熊津으로 표기되었고, 熊津 = 白江은 고려시대 이후 백마강이 잘못 기록된 것임을 앞에서 증명하였다.

38) 都守熙는 앞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요컨대 ‘고마나루(熊津)’가 縮約되어 ‘곰나루’가 된 후에 ‘곰’을 한자로 音寫한 것이 錦(江)일 것이며(고려시대), ‘熊’의 原意야 여찌되었던 그것이 현실적으로 ‘곰’이라 불리고, 그 강이 大江이고 보니 마치 大江이란 의미로 쓰인 漢江처럼 ‘큰강’이라는 의미로 音譯하여 기록한 것이 곧 錦江일 것이다.」

沈正輔³⁹⁾교수는 한산 주류성설을 지지하면서 웅진강 백강이 현재의 금강이라고 하였다. 과거 중국에서는 강의 명칭을 발원지로부터 강 하구까지를 통칭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중간 중간의 그곳 나루명칭이 곧 그곳의 강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에 널리 알려진 웅진은 중국에서 금강을 통칭하는 말로 쓰여졌고, 백강은 부여 부근의 泗泚河를 한자로 표현하여 쓴 것이라고 하였다. 즉 백강은 백마강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고 사비하의 한자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지리지를 보면 錦江(熊津)이 부여부근에서 泗泚河가 되고, 또는 白馬江이 된다는 내용은 있어도 白江이 된다는 내용은 없다. 熊津이나 白江이 중국측의 기록이고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史書에 인용해서 썼다고 하면 조선시대에 熊津이 ‘곰나루’라는 명칭이 아닌 ‘熊津’으로 표기되는 것처럼, ‘사비하’라는 명칭과 함께 ‘白江’이라는 한자명칭이 나와야 할 것이다. 더구나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19년조에 ‘泗泚河에 큰 물고기가 나타나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백제시대 사비하를 백강으로 漢釋했다는 심정보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심정보 교수가 말한 대로 백강을 금강하류 유역으로 본다면 금강하구를 660년 백제멸망시 소정방이 상륙할 때는 웅진구 또는 기벌포라 기록하고, 663년 나·당군의 주류성 공격 시에는 백강 이라고 기록하여,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중국사서에 같은 지점을 다르게 기록하고있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또 「自熊津江往白江」을 沈 교수의 해석대로「웅진부근의 강으로부터 사비부근의 백강으로 가서」로 해석하면 웅진강은 부여의 위쪽이 되는데 660년 당군의 상륙지점은 부여의 위쪽이 되므로 또한 심정보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만약 웅진강이 부여 위쪽이고, 그 아래쪽이 백강이라 한다면 백제본기 의자왕조의 “당군이 백강을 이미 지났다는 소식을 듣고 백제는 웅진구를 방어하였고 이 웅진구(기벌포)에서 당군과 백제군이 전투하였다”는 정황이 성립되지 않는다.

군산의 향토사학자 김중규씨는 「당나라군의 백제공격 루트에 대한 연구」에서 심정보 교수와 비슷한 웅진강(구)=기벌포=백강=금강(하구)을 주장하고 있다.

(① 660년-필자 주)웅진강구라는 명칭은 우리측 자료에는 기벌포 백강이라고 적고 있으나, 중국의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등의 자료에는 오직 웅진강구 혹은 웅진구라고 적고 있다. 중국인

들이 금강을 처음 알았을 때의 명칭인 “곰나루”를 한자로 熊津이라고 적은 이두식 표현으로 금강 즉 웅진강이라는 명칭을 중국에서는 금강을 가리키는 고유명사화하여 적음으로서 우리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② 663년-필자 주)舊唐書 유인계전을 보면 “웅진강으로부터 백강으로 나아가 육군과 합류하여 함께 주류성으로 갔다.”는 내용은 강이 길 경우 통상 강의 이름은 지나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데, 옛 곰나루 즉 웅진성 부근의 금강은 웅진강이라 불리었지만, 금강이 사비성을 지나면서 금강의 하류는 백강 혹은 기벌포라 불리었던 것...

①의 주장에서 웅진구와 기벌포가 금강 하구라는 것은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웅진구·기벌포와 함께 백강도 금강하구라 한다면, 또 ②에서와 같이 사비성(부여)아래 부분 금강을 백강으로 불렀다면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20년조의 “백제에서 이미 나.당의 군사가 이미 백강과 탄현을 지났다는 말을 듣고 군사를 합하여 웅진구를 막고 강변에 군사를 둔수케 하였다”라는 기록의 정황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②의 경우에 있어서 사비 위쪽은 웅진강이 되고 아래쪽은 백강이 된다면 금강하구는 백강구가 되지 웅진구가 될 수 없다. 또한 중국측 기록은 금강하구를 웅진구로 쓰고, 우리측 기록은 백강으로 한 것이라 한다면 소정방의 백제침공시 상륙지점 전투는 금강하류라 할 수 있으나, 663년 나·당군의 주류성 공격시 당군과 왜군의 해전장소는 중국측 기록이나 우리측 기록에 웅진구나 기벌포는 없고, 중국이나 우리측 기록 모두에 똑같이 백강 전투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따라서 熊津江과 白江은 별개의 강인 것이다.

2. 부안·동진강설

부안 주류성설은 웅진강과 백강은 서로 다른 지점이고(이점은 필자도 동의함) 기벌포는 웅진강 하구가 아니고 백강의 하구라는 조건에서 성립한다.

전영래 교수⁴⁰⁾는 熊津江은 錦江이고 白江과 岐伐浦는 전북 東津江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660년의 소정방군의 기벌포(백강) 상륙은 동진강하구에서 있었던 것이며, 동진강하구에 당군이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 웅진구(금강하구)로 북상하여 웅진구에 진을 치고 있는 백제군을 배후에서 공격하여 물리치고 금강을 거슬러 올라가 사비도성

39) 沈正輔, 「百濟復興軍의 主要 據點에 關한 研究」, 『百濟研究』14, 충남대백제연구소, 1983.

으로 진격하였다는 것이다. 즉 당시 당군의 진로는 산동반도를 출발하여 경기도 남양만의 덕물도(덕적도)에서 신라군의 영접을 받고 바다로 남하하여 웅진구를 지나 동진강하구에 상륙하였다는 것이다. 남하 도중에 웅진강에 들어서려다 백제군의 저항이 심하므로 연해 남하하여 기벌포(백강하구 즉 동진강)에 올라섰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앞의 (가)-③의 자료에서 백제 조정에서 당군이 이미 백강을 지나고 신라군이 이미 탄현을 지났다는 말을 듣고 계백을 황산벌에 보내 신라군을 맞게 하고, 군사를 모아 웅진구를 방어하게 하였다는 내용과 맞지 않는다. 이 경우는 웅진구에 당군이 도착하기 전에 백강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백강은 웅진구 북쪽에 있어야 한다. 백제군이 웅진구를 방어하고 있었으므로 소정방은 웅진구(기벌포)에서 백제군과 싸웠던 것이다.

따라서 백강은 웅진구 북쪽에서 부여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충이고 통로인 웅천천 하구이다.

3. 연기 · 안성천설

연기 주류성설에서는 660년의 백강과 663년의 백강(백촌강)은 별개의 강이라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즉 백강은 同名異處라고 하는 것이다. 즉 660년의 백강 웅진강 기벌포는 금강이나 금강하구이고, 663년의 백강은 경기도 쪽에서 南流하여 아산만으로 흐르는 안성천이라는 것이다.

앞의 (나)-①의 삼국사기에서 주류성을 공격하기 위해 「自熊津江往白江」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웅진에서 육로로 육군은 쉽게 연기의 전의지구로 갈 수 있지만, 수군과 군량을 실은 船團은 금강을 남하하여 장항을 돌아 서해를 거슬러 올라오는 비효율적 항해를 해야 한다. 전의지구가 주류성이고 웅진에서 토벌군이 출발한다면 거리상으로 육로가 훨씬 유리하다.

또한 중국이나 우리 나라의 史書에 비슷한 시기인 660년이나 663년에 똑같이 백강으로 표기되는데 이것을 다른 별개의 강으로 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김재봉씨는 왜 그것이 서로 별개의 강인지 전국에 백강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 이외에 별다른 설명이 없어 이해하기 어렵다.

주류성의 백제 부흥군 세력 때문에 웅진 · 사비와 신라간의 교통이 차단될 정도였다는

40) 전영래, 앞의 책.

점과, 주류성의 다른 명칭으로 보이는 일본서기의 中部 久麻怒利城(或本云 都都岐留山)⁴¹⁾은 중부에 구마노리성 즉 주류성이 있다는 말이므로 연기지구에 주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류성의 백제 부흥군 때문에 신라와 백제의 교통로가 위협받았다는 구체적 기록이 없는 상태이고, 이때의 부흥군은 백제의 전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신라와 백제의 교통로 위협은 꼭 주류성의 백제 부흥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日本書記의 '余自進據中部久麻怒利城(或本云都都岐留山)'에서 중부 구마노리성은 熊津城이고 도도기류산은 周留城이라는 것이 현재 거의 일치된 견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김재봉씨 해석대로 '중부구마노리성에 속한 주류성'으로 해석하여 두 지명을 종속개념으로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 이것이 註記상의 오류가 아니라면 "여자인이 중부구마노리성에서 봉기하였는데 어느 책에서는 도도기류산에서 봉기하였다고도 한다."로 하여 두 지명을 동등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을 것이다.⁴²⁾

또한 서부 입존성에서는 福信이 중부 구마노리성에서는 余自進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다⁴³⁾는 내용에서 중부가 충남 내륙지역을 가리키는 당시의 광역의 행정구역이고, 구마노리성은 중부에 속한 지명이고, 구마노리성이 주류성이라 한다면 주류성은 중부인 연기지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中部'는 단순한 중부지방이었는지, 그 당시의 지방행정구역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豆陵尹城과 周留城은 음이 닮았으므로 동일지명으로 볼 것이며, 豆陵尹城을 豆仍只縣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豆仍只縣은 오늘날의 연기이고, 悅己縣(或云 豆陵尹城)은 오늘날 정산이다. 김재봉씨는 두릉윤성과 두릉윤성은 주류성을 가리키는 같은 지명인데 삼국사기에서 열기현에 두릉윤성을 기록한 것은 연기현에 두릉윤성을 표기해야 할 것을 잘못 표기한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삼국사기 문무왕 3년조에 의하면 신라의 공격을 받은 성으로 두릉윤성과 주류성이 각자 나란히 기록되어 있으니⁴⁴⁾ 두릉윤성과 주류성은 별개이다.

41) 日本書記 齊明記 6년 9월조 : 於是西部恩率鬼室福信赫然發憤據任射岐山(或本云北任殺利山)達率余自進據中部久麻怒利城(或本云都都岐留山)

42) 구마노리성(도도기류성)에 대하여 전영래 교수는 구마노리성은 웅진이며, 도도기류성은 都留岐의 誤寫로 주류성이 맞는데, 주류성이 전북에 있으니 중부구마노리성은 잘못 誤記된 것이며, 다만 중부라 함은 중방이니 전북지방이라고 하였다. 한편 박성홍씨는 구마노리성을 홍성읍의 고모리성(古毛里城)이라고 해석하였다.

43) 주 37과 같음.

44)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上) 3年 2月 : 王領金庾信等二十八(一云三十)將軍與之合攻豆陵(一作良)尹城周留城等諸城皆之下...

4. 홍성 · 아산만설

홍성 주류성설은 연기설과 마찬가지로 660년의 백강과 663년의 백강은 서로 다른 별개의 강, 즉 同名異處로 본다. 663년의 백강은 아산만으로 보았는데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이 아산만의 지명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바다물이 희게 보였기 때문에 백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였다.

박성홍씨는 660년의 백강을 금강이나 금강하류로 보면서, 663년의 백강 또는 백촌강이 아산만입을 증명하기 위해 삼국유사에서 660년의 백강이나 기벌포의 다른 명칭으로 註記된 長嶺 只伐浦 孫梁 등을 당진군 앞 바다에서 비정하는 것⁴⁵⁾은 모순이다. 왜냐하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백강 기벌포는 663년 나·당군의 주류성 공격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660년 백제 의자왕 때의 당군 방어를 논의하는 내용에서 나온다(삼국유사 太宗春秋公條). 따라서 삼국유사의 백강은 660년의 백강과 관계 있는 것이고 박성홍씨의 주장대로 한다면 금강에 해당된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의 백강·기벌포의 다른 명칭인 只伐浦를 당진 앞 바다의 당진군 고대면 장항리 只島의 옛 포구로 고증하면서 이 只伐浦가 660년의 기벌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없다. 만약 기벌포와 지벌포가 같다고 한다면 660년 당군의 상륙이 당진군의 只島 포구에서 있었던 것이 되고, 기벌포는 금강하구이고 지벌포는 당진 只島라고 하여 기벌포와 지벌포가 다르다고 한다면 삼국유사의 내용과 모순이 된다.

연기설과 마찬가지로 나·당군의 주류성 공격시 수군이 웅진에서 아산만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5. 비인 · 진잠 · 금강설

한산설과 마찬가지로 금강하구가 백강이며 백제부흥군을 돕기 위해온 왜 수군과 주류성을 공격하기 위해 웅진으로부터 백강으로 온 나·당의 연합수군이 접전한 백강구 해전은 금강하구에서 일어났다고 하였다. 웅진에서 주류성 공격을 위해 온 나·당의 육군에 의해 비인(주류성)의 동쪽이 포위된 상태에서 부흥군과 일본군은 상대적으로 자신들보다 열세라고 여긴 나·당의 수군을 선공하기 위해 비인 앞 바다를 출항해서 장항 앞

45) 박성홍, 앞의 책 pp69-78

바다로 가서 나·당 수군을 공격하였으나 패배하였다고 하였다. 이때의 왜 수군은 앞의 (나)-⑧의 일본서기 天智天皇 2년 계해조의 구원군이 아닌, 天智天皇 원년에 이미 와 있던 朴市田來進 등의 수군이었다고 하였다.

금강하구가 백강이 될 수 없음은 한산설에서 이미 지적한 바이며, 나·당의 육군에 의해 주류성(비인)이 포위된 상태에서 비인 앞 바다에 있는 함선에 군사를 싣고 출항하여 금강하구까지 가서, 나·당의 수군과 싸운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작전으로 보인다.

또한 진잠의 산장산성으로 추정되는 支羅城을 내륙의 주류성으로 보았을 때 이 지라성은 662년 7월에 당군에 의하여 함락되는데⁴⁶⁾ 주류성은 663년 9월에 함락되므로 지라성을 주류성으로 볼 수 없다.

6. 서산 · 금강설

백강 웅진강 기벌포 등은 금강하구이지 이것을 다른 곳에 비정하는 것은 牽強附會라고 하였다. 나·당군의 주류성 공격시 당군과 왜 수군의 白江口戰은 장항 앞 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주류성의 부흥군을 도우러 온 일본군이 서산 상왕산성과 멀리 떨어진 금강 하구에 상륙하려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나)-①의 기록대로 서산 상왕산성을 나·당군이 정벌하려면 왜 금강(백강)하류로 가서 육군과 수군이 합류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조⁴⁷⁾ 「南方已定廻軍北伐任存城」에서 임존성의 북쪽인 상왕산성은 방향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은우씨는 “남방이 평정되니 군사를 다시 원위치로 돌렸다가 다시 북쪽의 임존성을 공격하였다”라고 해석하는데 이해하기 어렵다.

호산록의 기록도 부흥운동 후 1000여 년 후에 기록된 것으로 내용에 구체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46) 舊唐書 唐 高宗 龍朔二年 東夷百濟傳 : 龍朔二年 七月仁願仁軌等率留鎮之兵大破福信餘衆於熊津之東拔其支羅城及尹城大山沙井等柵殺獲甚衆...

47) 至龍朔三年總管孫仁師領兵來救府城新羅兵馬亦發同征行至周留城下此時倭國船兵來助百濟倭船千艘停在白沙百濟精驕岸上守船新羅驍驍爲漢前鋒先破岸陳周留失陷遂即降下南方已定廻軍北伐任存一城執迷下降...

용삭3년 총관 손인사가 군사를 거느리고 웅진부성을來救할 때에 신라의 병마도 출동 함께 가서 주류성하에 다다랐다. 이때 왜국의 船兵이 와서 백제를 도울새 왜선 천척은 백사에 停在하고 백제의 精驕는 岸上에서 그 船艦을 수호하였다. 신라의 驍驍가 당의 前鋒이 되어 먼저 백제의 岸陳을 깨뜨리니 주류성은 실망하여 드디어 곧 항복하였다. 남쪽이 이미 평정되자 군을 돌이키어 북쪽을 칠새 임존성이 항복하지 않으므로...

V. 주류성의 위치

주류성은 백제 부흥군의 중심 거점⁴⁸⁾이며, 왕성(王城)⁴⁹⁾이기도 하였지만 당의 원군이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기에 용이하고 일본과의 원활한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요충지이다.⁵⁰⁾

주류성의 위치조건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자료제시가 앞부분과 반복되지만 이해를 위하여 제시한다

① 三國史記 百濟本記 義慈王

遂與仁願之衆相合士氣大振於時諸將議所向或曰加林城水陸之合先擊之仁軌曰加林險而固攻則傷士守則曠日周留城…於時仁師仁願及新羅王金法敏帥陸軍以進仁軌及別帥杜爽夫餘隆帥水軍及糧船自熊津江往白江以會陸軍同趣周留城遇倭人白江口四戰皆克焚其舟四百艘煙焰灼天海水爲丹

드디어 인원의 군대와 합치니 사기가 크게 떨치었다. 이에 諸將이 갈 방향을 의논하였는데 하나는 가림성은 수륙의 요충이니 먼저 이를 치자. 하였다. 인궐이 말하기를 가림은 험고하여 치면 군사를 상할 것이요, 지키면 오래 지탱할 것이다. 주류성은 백제의 소굴이니 무리가 많이 모여있다. …이에 인사와 인원 및 신라왕 김법민이 육군을 거느리고 향하고, 유인궐 및 별장 두상 부여융은 수군과 양선을 이끌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만나 함께 주류성으로 갔다. 백강구에서 왜인을 만나 네 번 싸워 모두 이기고 배 4백 척을 불태우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붉게 하고 해수가 빨간 해졌다.

② 舊唐書 劉仁軌傳

於時仁師仁願及新羅王金法敏帥陸軍以進仁軌乃別率杜爽夫餘隆率水軍及糧船自熊津江往白江會陸軍同趣周留城仁軌遇倭兵白江之口四戰捷焚其舟四百艘煙焰灼天海水皆赤

이에 인사와 인원 및 신라왕 김법민이 육군을 거느리고 향하고, 유인궐 및 별장 두상 부여융은 수군과 量船을 이끌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만나 함께 주류성으로 갔다. 인궐은

48) 舊唐書 列傳 劉仁軌：或曰 加林城水陸之衝請先擊之 仁軌曰 加林險固急攻則傷損戰士固守則用日持久不如先攻周留城 周留賊之巢穴群兇所聚 除惡務本 須拔其源 若剋 周留 則諸城自下 에서 주류성을 적의 巢穴(근거지)라 하였다.

49) 日本書記 天智天皇 2年 8月 戊戌(17일)條：賊將至於州 柔統其王城 大唐軍將 率戰船一百七十 艘陳列於白村江이라 하여 주류(주류성)을 왕성이라 하고있다.

50) 심정보, 앞의 글

백강구에서 왜병을 만나 네 번 싸워 모두 이기고 배 4백 척을 불태우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붉게 하고 해수가 빨간해졌다.

③ 舊唐書 東夷 百濟傳

於時仁師仁願及新羅王金法敏帥陸軍進劉仁軌乃別帥杜爽夫餘隆率水軍及糧船自熊津江往白江以會陸軍同趣周留城仁軌遇夫餘豐之衆於白江之口四戰皆捷焚其舟四百艘賊衆大潰

이때에 인사와 인원 및 신라왕 김법민이 육군을 거느리고 향하고, 유인궐 및 별장 두상 부여융은 수군과 量船을 이끌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만나 함께 주류성으로 갔다. 인궐은 백강구에서 부여풍의 군사를 만나 네 번 싸워 모두 이기고 배 4백 척을 불태우니 적군이 크게 궤멸되었다.

④ 新唐書 劉仁軌傳

於時仁師仁願及法敏帥陸軍以進仁軌乃別率杜爽夫餘隆繇熊津江白江會之遇倭人白江口四戰皆克焚四百海水爲丹

이때에 인사와 인원 및 법민이 육군을 거느리고 향하고, 유인궐 및 별장 두상 부여융은 수군과 量船을 이끌고 웅진강에서 백강으로 가서 육군과 만나기로 했는데, 인궐은 백강구에서 왜인군사를 만나 네 번 싸워 모두 이기고 배 4백 척을 불태우니 해수가 빨개졌다.

⑤ 新唐書 東夷 百濟傳

仁願已得齊兵士氣進乃與新羅王金法敏率步騎而遣劉仁軌率舟師自熊津江偕進趨周留城豐衆屯白江口四遇皆克火四百艘

인원이 병사들의 사기를 돋우어 진격하고 신라왕 김법민이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나가고 유인궐은 수군을 웅진강으로부터 거느리고 나아가 함께 주류성을 공격하니 풍왕의 군사들이 백강구를 지키고 있음에 4번 싸워 모두 이기고 배 4백 척을 불살랐다.

⑥ 資治通鑑 唐紀 高宗 龍朔3年

於時仁師仁願與新羅王金法敏將陸軍以進仁軌與別將杜爽夫餘隆將水軍及糧船自熊津入白江以會陸軍同趣周留城遇倭兵於白江口四戰皆捷焚其舟四百艘煙炎灼天海水皆赤

이때 인사와 인원은 신라왕 김법민과 더불어 육군을 거느리고 진격하고 인궐과 별장 두상 부여융은 수군과 양선을 거느리고 웅진으로부터 백강으로 들어가서 육군과 만나 함께 주류성으로

진격하다가 왜병을 백강구에서 만나 네 번 싸워 모두 이기고 그 배 4백 척을 불태우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붉게 하고 해수가 빨간해졌다.

⑦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條

至龍朔三年總管孫仁師領兵來救府城新羅兵馬亦發同征行至周留城下此時倭國船兵來助百濟倭船千艘停在白沙百濟精驥岸上守船新羅驍驍爲漢前鋒先破岸陳周留失膽遂即降下南方已定廻軍北伐任存一城執迷下降...

용삭3년 총관 손인사가 군사를 거느리고 웅진부성을來救할 때에 신라의 병마도 출동 함께 가서 주류성에 다다랐다. 이때 왜국의 船兵이 와서 백제를 도울새 왜선 천 척은 백사에 停在하고 백제의 精騎는 岸上에서 그 船艦을 수호하였다. 신라의 요驍驍가 당의 前鋒이 되어 먼저 백제의 岸陳을 깨뜨리니 주류성은 실망하여 드디어 곧 항복하였다. 남쪽이 이미 평정되자 군을 돌이켜 북쪽을 칠새 임존성이 항복하지 않으므로...

⑧ 日本書記 天地天皇 元年

元年十二月丙戌朔 百濟豐璋 其臣佐平福信等 與狹井連(關名) 朴市田來津議曰 此州柔者 遠隔田畝 土地磽确 非農柔之地 是拒戰之場 此焉久處 民可飢饉 今可遷於避城 避城者西北帶以古連且涇之水 東南拒深泥巨堰之防 繞以周田 決渠降雨華實之毛則三韓之上腴焉 衣食之源 則二儀之隩區矣 雖曰地卑 豈不遷歟 於是朴市田來津 獨進而諫曰 避城與敵所在之間 一夜可行 相近茲甚 若有不慮其悔難及者矣 夫飢者後也 亡者先也 今敵所以不妄來者 州柔設置山險盡爲防禦 山峻高而谿隘守易攻難之故也 若處卑地何以國居而不搖動及今日乎 遂不聽諫而都避城...二年二月丙戌 新羅人燒燔南畔四州 并取安德等要地於是避城去賊近 故勢不能居 乃還居於州柔如田來津之所計

천지원년(662)12월 백제왕 풍장과 복신 등은 사이노무라지 에치노다구쓰와 협의하여 우리들이 지금 있는 주류는 전답에서 먼 곳이며, 토지가 척박하여 양잠이나 농사에 적합한 토지가 아니다. 이곳은 전쟁에서 방어를 위한 장소이다. 이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백성이 기근이 들기 때문에 피성으로 가야한다. 피성은 서북으로 고연단경의 물이 떠처럼 돌고 동남은 심니거언의 제방이 지키고 있다. 주위는 한 면이 밭으로 비가 잘 내리고 작물이 잘 되는 점에서 삼한에서 가장 풍요한 곳이며 의식의 근원이라 할만큼 풍요한 곳이다. 평지이기는 하나 어찌 옮기지 않을 수 있으리오 하였다. 에치노다구쓰가 홀로 간하였다. 「피성과 적이 있는 곳은 하루밤 사이에 오갈 수 있는 거리이다. 만약 공격을 받을 때 후회해도 늦다. 사람의 굶주림보다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

요하지 않은가? 지금 적이 함부로 공격하여 오지 않는 것은 주류가 험난한 여러 산을 방벽으로 삼고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 지키기 쉽고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이 평지이면 어찌 지금까지 수비를 견고히 할 수 있었겠는가?」 하였다. 그러나 풍장 등은 드디어 이 간언을 듣지 않고 피성으로 도읍을 옮기었다. ... 663년 2월 신라가 백제남부의 4주를 태우고 안덕 등 요지를 점령하였다. 피성은 적지에 가깝고 세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에치노다구쓰의 의견대로 다시 주류로 돌아가게 되었다.

위의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주류성의 위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흥군의 거점이며 王城이고, 당의 원군이 내륙 熊津이나 泗沘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기에 용이하고 일본과의 원활한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요충지이다.

둘째 白江과 가깝고 서해안쪽에 있다.

세째 산이 험하고 골짜기가 깊은 방어의 요새지이며 농경지가 많지 않다.

네째 任存城이 있는 예산군 대흥의 남쪽이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강을 웅천천으로 비정하면 주류성은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의 수부리산성으로 비정된다. 이 수부리 산성의 서쪽 산사면 마을을 주민들은 '두루니' (한자로는 杜鳴里)로 불려왔는데 주류성과 관련 있는 지명으로 보인다.

우선 수부리 산성의 현재 상황과 지리적 배경을 살펴본다.

이 산성은 웅천천 하구 즉 白江口에서 동북쪽으로 약 10km 내륙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주산과 옥마산에서 떨어진 산줄기인 329m의 봉화산 산정과, 416m의 잔미산 산정을 연결하여 양쪽 산의 험준한 계곡을 둘러싼 약 2800m의 석성과 토성으로 연결된 거대한 포곡식 산성이다⁵¹⁾.

일본서기에서 '州柔設置山險盡爲防禦 山峻高而谿隘守易攻難之故也' 라고 한 것처럼 골짜기는 험준하고 깊어 물이 풍부하고 성의 정상부에 건물지로 추측되는 평탄지가 있다.

51) 양쪽 봉우리(잔미산과 봉화산)를 둘러싸고 그中间的 잘록한 부분에 계곡과 연결된 문지가 있는 등 전체적 성의 형태가 예산 대흥의 임존성(봉수산성)과 아주 비슷하다. 『보령군지』1991에 의하면 繩聯文이 찍힌 토기파편이 봉화산 쪽에서 나오고 있고, 조선시대의 磁器片들도 나오고 있으므로 이 산성은 백제 때 축조되어 조선시대까지 간헐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門止부분에 무너진 돌무더기만 남아있는데 百濟文化開發研究院 刊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11輯』에 의하면 옛날에는 네모진 큰 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주민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다.

잔미산(416m)과 봉화산(326m)은 이 근방에서는 가장 높은 산에 속하고, 이 두 산의 정상
을 둘러싼 계곡은 협준하고 깊은데 마을 사람들은 이 계곡을 은골(隱谷)이라고 부른다.

주향은 동남향으로 웅천천을 향하고 있다. 계곡 아래의 입구 즉 문지 부분은 돌무더기
가 더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약간 평지이기 때문에 더 튼튼히 쌓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산성의 남쪽 봉우리인 416m의 잔미산 정상부에는 조선시대 玉眉峰 봉수대
가 위치하였던 곳이다. 지금도 그 유지가 확연히 남아있다. 이 옥미봉 봉수대는 남쪽으
로는 비인의 칠지산 봉수대와 북쪽으로는 충청 수영의 조침산 봉수대에 연결되는 곳이
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남쪽 방향의 웅천천 하구(백강구), 웅천灣口, 비인쪽의 서해바다
가 한눈에 조망되고, 북쪽으로도 바다가 한눈에 조망될 뿐만 아니라, 이 지점은 이 근방
에서는 가장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내륙 쪽의 육지도 한눈에 조망되는 곳이다. 그리고
동북쪽으로는 옥마산(601.6m) 성주산(680.4m)으로 산줄기가 이어지는 천협의 요새지이
다.⁵²⁾

이 수부리산성에서 동쪽으로 전방 3km지점에 운봉산(337m)이 있는데 이 운봉산의 북
사면 계곡을 둘러싼 약 1450m의 성동리 산성이 수부리 산성과 똑같은 포곡식 산성이면
서 주향이 북서향 이어서 웅천천을 경계로 수부리산성과 서로 마주보고 있다. 성동리 산
성의 너머에는 창암리 산성 황율리산성 삼곡리산성이 있어 수부리산성이나 성동리 산성
의 동쪽 배후 방어기지 역할을 하고, 수부리 산성의 뒤, 즉 북쪽으로는 달산리 산성과
대봉산성이 배후 방어기지 역할을 하고, 남쪽으로는 대천리 산성이 있어서 방어기지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전체적으로 수부리 산성을 중심으로 한 방어구조가 완벽함
을 알 수 있다.⁵³⁾

원래 이 수부리산성은 산성 바로 아래의 고대 藍浦縣(백제 때는 寺浦縣)의 치소를 보
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고대 군사들의
이동로가 하천을 따라 이루어진 점을 생각하면 이곳은 서해안쪽에서 백제의 사비도성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 웅천천 하구의 천혜의 포구를 이용하여 倭國이나 다
른 국가로의 대외 통로역할을 하기에 유리한 곳이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에도 중요
한 역할을 한 곳 이기에 이곳을 중심으로 관방시설이 갖추어졌던 것이다.

두 번째로 수부리산성의 역사상의 대외 통로적 정황을 살펴본다.

52) 일제시대에 간행된 『全國遺蹟總覽』에는 聖佳山城으로 기록되어있다.(충청남도, 문화유적총람, 1991에서 재인용) 이것은 협
준한 성주산 줄기가 이어진 까닭에 성주산성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53) 『보령군지』 1991.에는 수부리산성을 둘러싼 산성들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日本 大阪府 富田林市에는 南河內 最古의 河內新堂烏舍寺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
은 백제 오합사의 창건시기인 7세기 초에 조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합사라는 사명은 사
역 북서방향에 인접한 ‘ヲガンジ(오간지)址’에서 연유된 명칭인데 藤澤一夫는 ‘ヲガン
ジ(오간지)가 백제 오합사의 音讀과 같으며 사지에서 출토되는 기와가 백제계인 것에
주목해 사명을 오합사로 추정하였다. 이후 河內新堂烏舍寺址는 백제 오합사⁵⁴⁾와의 관련
성이 주목되어 왔다.⁵⁵⁾ 또한 일본서기에도 신라 때 선문9산중 하나인 성주사의 전신이었
던 백제 烏舍寺 기록⁵⁶⁾이 나온다.

이렇게 일본에 오합사가 있다는 내용과 일본서기에 오합사 기록이 나오는 것은 보령
남포 烏舍寺에 일본 승려들이 내왕하였거나, 아니면 오합사가 일본과 많은 교류가 있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때 일본과의 통로는 수부리산성 10km 서남쪽의 웅천천 하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수부리산성은 일본과의 원활한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이 된
다.

일본서기에는 백제 부흥운동 기간중인 660~663년 사이에 부흥군에게 5회에 걸친 원군
파견 기록이 나온다.⁵⁷⁾ 백제가 신라에 정복당한 상태에서 3년 간의 짧은 기간동안 왜의
원군이 5회 이상 백제지역에 파견되어지고 왕래를 했었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확보된
서해안 쪽의 교통요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웅천천 하구와 수부리 산성지역은 백
제시대에 남포의 중심지였었는데⁵⁸⁾ 남포가 항구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지명 자체에서도
알 수 있겠거니와 고대 일본의 求道僧 圓仁이 중국에서 귀국하는 길에 西熊州근처를 지
났다는 그의 저술 入唐求法巡禮行記와, 충남 보령지역 근처에 있는 남포는 중국과 교역
을 하기에 유리한 지역⁵⁹⁾이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로 볼 때 웅천천 하구 수부리산성지역
은 고대 동아시아 해상 교통로의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Ⅲ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웅천천 하구는 금강하구와 함께 고려말 단순한 왜구의 약탈지역이 아닌
왜구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54) 烏舍寺는 삼국사기 등의 기록에 烏舍寺 烏舍寺 등으로 나오기도 한다.

55) 충남대학교 박물관, 『聖佳寺』성주사발굴보고서, 1998, p41.

56) 일본서기 濟明4年 백제가 신라를 토벌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한말이 오합사 사찰의 金堂을 行道하기를 낮과 밤을 쉬지 않
았다. 오직 풀을 먹을때만 그쳤다.(百濟伐新羅還 時馬自行道於寺金堂 晝夜勿息 唯食草時止(或本云 至庚申年 爲敵所滅之應
也)

57) 齊明8월(661) 大花下阿曇比遲夫連등의 장수를 파견하여 백제 구원. 齊明9월(661) 왕자 豐璋을 군사5천을 호위시켜 본국에
송환하니 복신등이 국정 위양. 天智元年3월(662) 고구려 구원위해 百濟遺臣거지 疏留城(都都岐留山)에 군대를 파견하니 당
은 고구려의 南界를 신라는 西界를 공격하지 못하였고, 天智元年(662년)5월 군선 170척으로 豐璋구원. 天智2년(663)8월 군
선 400척으로 백제 구원.

58) 황의진, 「남포현 치소의 이동에 관한 연구」, 『제33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수상논문집』, 1998, 전국문화원연합회.

59) 曹凡煥, 앞의 논문.

이러한 요충지에 백제부흥운동의 중심거점인 주류성이 위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기록에 나오는 백제 부흥운동의 주요 거점은 嘉林城(부여林川), 周留城, 그리고 任存城(예산大興)이다. 嘉林城은 금강을 이용한 부흥군의 대외통로 역할을 하면서 왜의 원군을 맞이할 수 있고 당나라 등의 신라 지원세력의 泗泚都城 접근을 차단하면서 사비도성의 남부를 압박 할 수 있는 곳이며, 任存城은 공주 부여와의 거리가 똑같이 90리로 서북쪽에서 삼고천을 통로로 이용하면서 웅진과 사비를 압박 할 수 있는 곳이다. 周留城(웅천 수부리산성)은 남쪽의 嘉林城과 북쪽의 任存城의 중간, 즉 서해안 중부지역에서 왜의 지원을 받으면서 唐軍이 웅천천 하구의 바다로부터 사비도성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사비도성을 압박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림성 수부리산성 임존성이 웅진이나 사비도성을 서부 쪽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형국이 된다.

세 번째로 임존성의 위치와 관련된 수부리산성의 위치이다. 임존성은 오늘날 충남 예산군 대흥면의 봉수산성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三國史記 文武王條에

… 周留失膽遂即降下南方已定廻軍北伐任存一城執迷下降 …

여기서 주류성과 임존성은 남북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수부리 산성은 예산 대흥의 남쪽이며 직선거리로 40km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네 번째로 수부리산성 지역의 정치적 배경을 살펴본다.

수부리산성의 아래쪽에는 과거 남포현(백제 때의 寺浦縣) 치소가 있었는데 이곳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치소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沙峴, 동북으로는 牛峙(우리티), 남으로는 삼재, 서쪽으로는 대천리에 四大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반경은 4km가 넘는다. 이 남포현 치소에는 세종실록지리지에 고려말에 317보의 藍浦鎮城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전설은 크기나 위치로 보아 남포진성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아마도 백제 부흥운동시 豐王의 王城으로 수부리산성 성동리산성 대천리산성을 연결하여 柵을 설치하고 문을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수많은 백제 유민들과 부흥군이 풍왕과 함께 왜의 지원을 받으면서 3년 동안 버티는 중심지였다면 단순히 크고 험준한 산성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산성은 어디까지나 유사시의 방어용이기 때문에 평시에는 군사들이나 백성들의 생활무대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수부리산성 성동리산성 아래의 웅천천 주변의 농경지가 평소의 생활무대가 되

었으므로 주변을 책을 설치하여 보호하였을 것이고 유사시에는 수부리산성이나 성동리산성에 들어가 방어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주사 사적기에 신라 문성왕(재위 839-857)이 無染大師가 駐席하는 성주사를 賜額하면서 무염대사에게 하는 말이 나온다.

「문성대왕이 자주 神筆을 내리면서 말하기를 熊州는 바닷가에 접한 변방으로 사람들의 성품이 흉악하고 거만스럽다. 짐이 꾸짖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였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禪師가 이미 불법이 뛰어나고 도덕이 감당 할 만 하여 사람들이 저절로 禪을 행하였다. 짐이 매우 기뻐 禪道로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좌표로 삼기를 청한다.」

문성왕의 이 말은 웅천주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것을 김현창의 난(821)난과 관련시켜 볼 수도 있겠지만 공주를 중심으로 난이 전개되었던 점으로 생각하면 웅천주 변방 성주사가 있는 해안 남포지역에 거주하는 무염대사에게 문성왕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마도 약 200여 년 전의 남포 주류성 부흥운동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부흥운동 200여 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신라는 백제 유민을 포함한 이 지역 지방세력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복신과 함께 부흥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도침의 신분이 승려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찰, 특히 전쟁에서 죽은 병사의 원혼을 달래는 願刹로서 군사적 성격이 강하였던 남포 성주사의 전신 오합사의 승려 세력이 주류성 부흥운동에 크게 가담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성주사 낭해화상백월보광탑비에는 당시 山中宰相이던 김흔이 무염대사에게 성주사에 거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말이 나온다.

「그 사이에 큰불이 나서 절이 반쯤 재가되어 버렸는데 어질고 명철한 분이 아니면 누가 능히 없어진 것을 일으키고 끊어진 것을 이을 수 있겠습니까?」

백제의 호국사찰이었던 오합사가 화재로 인하여 절이 거의 폐허화되어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 화재 시기와 원인은 구체적으로 언급치 않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백제부흥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흥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 지역의 백제와 부흥군의 정신적 거점이었던 烏舍寺 역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⁶⁰⁾

다섯 번째로 수부리산성의 서해안과 관계된 배경을 살펴본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조(앞의(나)-③과 IV의 ①)에 의하면 663년 웅진에서 주류성 토벌을 위해 나·당의 연합군이 육군은 육로로, 수군과 量船은 웅진강(금강)에서 백강(웅천천)으로 가서 육군과 합세하기로 하고 출발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주류성 공략을 위해 육군뿐 아니라 수군이 동원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류성이 해안 쪽에 가까워서 수군이 바다쪽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수·륙군에 의한 주류성 공략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때 백제 부흥군을 도우려는 왜의 수군이 도착할 예정임을 알고있던 풍왕은 白村(白沙)에 마중을 나간다. 이 白沙는 서천군 마서면의 白沙마을이나, 서천군 서면의 도둔곶일 가능성이 크다. 백사마을은 웅천만구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고, 도둔곶은 웅천만구의 남쪽 부분을 이루는 지형이다.

백사 마을이나 도둔곶은 모래로 되어있는 해안지대인데 특히 도둔곶은 현재 춘장대, 동백정 해수욕장이 발달될 정도로 온통 모래지대이며, 육지가 바다 쪽으로 뻗도록 내민 부분이어서 왜 수군을 영접하기에 아주 좋을 뿐 아니라, 이곳은 조선시대 충청수영의 마량진 관할의 戌자리가 있었고 이어서 마량진 본영이 옮겨져 설치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군사적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곳이다.

龍朔3년에 唐將 孫仁師가 군사를 거느리고 熊津府城을 來救할 때에 신라의 병마도 출동 함께 가서 周留城下에 다다르니, 이때 倭國의 船兵이 와서 백제를 돕는데 왜선 천 척은 白沙에 停在하고 백제의 精騎는 岸上에서 그 船艦을 수호하였다. 신라의 驍驍가 당의 前鋒이 되어 먼저 백제의 岸陳을 깨뜨리니 주류성은 실망하여 드디어 곧 항복하였다.⁶¹⁾

라는 舊唐書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왜선을 수호한 백제 岸上은 비인의 불당곡산성과 그 주변 산성으로 추정된다. 이 산성들은 백제시대 비인 해안을 방어하던 백제 산성들⁶²⁾이면서 왜 수군이 停在한 白沙로 추정되는 도둔곶 해안이나 서천군 마서면의 白沙마을의 바로 안쪽에 위치하며, 또 웅천천 하구의 남쪽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 산성들

60) 양승룡, 「金立之의 聖住寺碑」, 1994.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에서 750-800 사이에 화재가 있 었던 것으로 보았고, 김수태, 「성 주사의 역사적 고찰」, 『聖住寺』성주사 발굴보고서, 1998. 충남대학교 박물관,은 화재를 김현창의 난 시기로 보았다.

그러나 김현창의 난이 공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점을 감안하면 웅천주 변방의 절이 진압과정에서 화재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1) 주 47 참조

62) 유승광, 『서천지역의 백제산성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은 지현영 교수가 주류성으로 비정한⁶³⁾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부리산성의 서남방을 방어하고, 웅천천 하구 남쪽 부분의 방어를 담당할 수 있는 요충지적 위치이다.

백사에 상륙한 왜군은 웅천천 하구에 이미 전열을 구축한 唐軍을 격파해야 그 내륙 동북쪽의 주류성을 구원할 수 있으므로 웅천천 하구의 웅천灣口에 진격해 갔다. 2일에 걸친 당 수군과 왜 수군의 이 白江口 海戰에서 왜 수군은 크게 패하고 말았다. 왜 수군이 기상을 살피지 않고 진격하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 곳의 조수간만의 차를 감안하지 않은 작전 때문으로 보인다. 이곳의 해수운동은 서해안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특히 썰물 때는 갯벌이 많이 드러난다. 그리하여 지금은 부사방조제가 건설되었다. 백강구(웅천천 하구)에서의 백강구전 결과를 전하는 諸史書의 내용에 '海水爲丹'이라 한 것처럼 강 하구의 바다 쪽에서 일어난 해전이였다.

이때 나·당의 육군은 웅진에서 주류성으로 진격 중에 豆良尹城에서 부흥군과 싸워 이기는데⁶⁴⁾ 이 두량윤성의 위치는 주류성 위치비정에 관한 제 학설에 따라 분분하다. 그러나 古山子 金正浩, 沈正輔 교수, 朴性興씨의 비정이 일치하는 정산(定山)의 계봉산성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정산의 두량윤성이 함락되고 육군은 정산→은산→홍산→남포(주류성)으로 진격하여 주류성을 포위하고 서남쪽으로 내려가 白沙에 停在하고 있던 왜선을 수호하는 백제 岸陳(비인 불당곡산성과 주변산성 등)을 무너뜨리고, 수군은 왜의 해군을 격파하여 수·륙군이 연합하여 주류성을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정산 은산 홍산 남포는 조선시대 荊産八區商務社라는 보부상단의 순환 시장권에 속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호왕래가 용이한 곳이다. 또한 이때의 나·당육군의 진로는 조선시대 공주에 察訪을 둔 利仁道와 일치한다.

백강구에서의 패배로 왜군의 구원이 실패하고 육군의 포위 속에서 주류성은 마침내 663년 9월 7일 함락되고 만다.

여섯 번째로 避城遷都와 수부리산성(주류성)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일본서기(앞의 IV-⑧참고)에 의하면 662년 豐王과 福信 등은 주류성에서 본거지를 잠시 피성(避城)으로 옮겼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는데 피성의 위치도 주류성 위치비정에 따라 분분하다. 그러나 이병도 전영래 등의 많은 학자들의 비정이 일치하는 전북김제가 타당성이 있다. 일본서기에서 지적하는 제방(벽골제)의 존재와, 넓은 평야지대가 일치하고, 피성은 원래 적과의 거리가 하루 밤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남방4주가 신라

63) 지현영, 앞의 글.

64) 三國史記 文武王 龍朔3年條 王領金庚信等二十八將軍與之合功豆陵(一作良)尹城周留城等諸城皆下之

군에게 점령됨으로 인하여 적지에 가깝고 세력을 유지할 수 없어 다시 주류성으로 온다고 하였다.

이 일본서기에 나오는 남방4주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상)3년 2월조의 신라가 공격하여 점령한 곳과 일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거열성(居列城-현 거창), 거물성(居勿城-남원), 안덕성(安德城-은진), 사평성(沙平城-未詳)인바⁶⁵⁾ 이들은 거의 피성으로 비정 되는 김제의 동남방이다. 동남쪽의 신라세력에게 압박 받음으로 인하여 김제(피성)에서 주류성으로 도로 돌아온 것이다(그림5 참조)

피성으로의 천도는 왜의 도움을 좀더 가까이 에서 받을 수 있고 식량을 확보하기가 유리하다는 점이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성(전북 김제)와 주류성(수부리산성)과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70여km 정도여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특히 백제 부흥운동시 왜가 몇 차례에 걸쳐 웅천천 하구에 원군을 파견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웅천천 하구 이남의 서해안은 왜나 부흥군이 제해권을 가졌든지 최소한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해로를 통하여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일곱 번째로 나·당군에 의해 주류성이 함락된 직후 백제 유민과 일본 패잔병의 움직임과 수부리산성(주류성)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우선 다음 日本書記의 내용을 살펴본다.

天智二年癸亥九月辛亥丁巳(七日)百濟州柔城始降於唐是時國人相謂之曰州柔降矣事無奈何百濟之名絕于今日丘墓之所豈能復往但可往於禮城會日本軍將等相謀事機所要遂教本在枕腹岐城之妻子等令知去國之心辛酉(十一日)發途於牟婁癸亥(十三日)至禮城甲戌(二十四日)日本船師及佐平余自信達率木素貴子·谷那晉首·憶禮福留竝國民等至於禮城明日發船始向日本

9월7일 쓰누성(州柔城)은 드디어 당군에 항복하였다. 이때 백제사람들은 쓰누(州柔)가 항복하였으니 어찌 할 수 없다. 백제이름도 오늘로 끊어질 것이다. 조상의 묘가 있는 땅에도 두 번 다

65) 三國史記 新羅本紀 文武王 3年 2月: 欽純天存領兵攻取百濟居列城斬首七百餘級又攻居勿城沙平城降之又攻德安城斬首一千七十級.

(흥순과 친준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의 거열성을 공격하여 7백 여급을 참수하고 또 거열성과 사평성을 쳐서 항복 받고 또 덕안성을 쳐서 적 1070급을 베었다.)

박성홍씨는 남방4주 중 사평성을 현재의 당진군 신평이라고 하면서 피성을 백제 때 혜성이라 부른 면천이라 하였다. 신평(피성)이 신라 수군에 의해 공격받음으로 인하여 서북쪽이 압박 받음으로서 다시 흥성(주류성)으로 돌아왔다고 하였다.

김제봉씨는 피성을 경기도 안성이라고 하였다.

시 못 오게 되었다. 이후에는 테레성에 가서 일본의 장군들과 만나 필요한 대책을 세울 뿐이다. 라고 서로 말하고 침복지성(枕腹岐城)에 체류하여둔 처자들을 타일러 나라를 떠날 것을 결심하였다. 9월11일에 그들은 무테를 출발하였다. 9월13일 테레에 이르렀다. 9월24일 일본군선과 좌평 여자신, 달술 모구소기시, 고구나신스, 오구라후구루, 거기에 백제나라 백성들이 테레성에 이르렀다. 다음날(9월25일) 배를 띄워 처음으로 일본으로 향하였다.

여기서 백제유민들과 일본패잔병들이 집결하여 일본으로 떠난 출발지점인 테레성의 위치적 성격은 주류성 주변의 백제 부흥운동에 동조하였던 백제인들이 일본장수들이 있는 일본군의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곳이며, 대규모의 함정이 정박하면서 인원을 승선시키고 일본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보아 주류성 함락이전부터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하여 일본 수군이 드나들던 요충지임이 분명하다⁶⁶⁾. 그리고 테레성을 훈차(訓借)하여 사포성(寺浦城)이라 한 것⁶⁷⁾은 이 글의 앞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웅천천 하구의 요충지적 위치와 연관시켜 백제시대 사포현 지역의 대외적 통로였던 웅천천 하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웅천천 하구는 수부리산성(주류성) 남쪽 약 10km 지점이다.

그러면 나·당군에 의해 주류성이 함락됨으로 인해 점령된, 寺浦縣의 웅천천 하구를 통해 백제유민과 일본 패잔병이 출항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나·당군의 입장에서 주류성 주변의 백제 부흥운동에 동조하는 세력과 주류성에 근거지를 둔 일본세력을 몰아냄으로서 이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초토화작전이 아닌 온건적 회유적 방법을 동원함으로서 멸망한 백제인들의 반발을 약화시키고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백제부흥운동 진압시 나·당군의 회유적 방법은 663년 두솔성(豆率城)의 일본병과 백제병이 항복하였을 때 문무왕이 관용을 베풀므로써, 훗날 김정호(金正浩)가 대동지지에서 일명 자비성(一名 慈悲城)이라고 칭하였다는 것과, 당의 장수 유인궤(劉仁軌)가 白江海戰에서 전사한 일본장정들의 시신을 모아 묻어 주고 조제(弔祭)를 지내준 일⁶⁸⁾, 주류성 함락 8개월 후인 664년 5월 백제를 점령하고 있던 당의 장수 유인원(劉仁願)은 일본에 사신을 파견⁶⁹⁾한 상황을 감안하면 백제 유민과 일본 패잔병의 테레성 출발은

66) 이점과 관련하여 일본의 池内宏교수도 「테레성은 白江의 해전에 참가한 일본군의 근거지였던 것 같다」고 하였다.(박성홍, 앞의 책 P114에서 재인용)

67) 김제봉, 앞의 책, P31.

68) 박성홍, 앞의 책, P120.

69) 日本書記, 天智天皇 3년 5월조

나·당군의 목인 내지는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유민들과 일본 패잔병들과 장수들이⁷⁰⁾ 일본으로 가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많은 배와 식량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인데 갑자기 패전하여, 나·당군 몰래 이동하여 어느 이름 없는 항구에서 이것들을 10여일 동안 준비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혹시 일본해군이 패전을 미리 대비하여 어느 곳에 미리 대규모의 배를 준비해 두었다면 모를까. 따라서 배는 백강해전에서 파손되지 않은 것을 모으고, 파손된 것은 고치고, 식량 등의 준비에 나·당군의 목인 내지는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주류성이 함락되자 희망을 잃어버린 주류성 주변의 백제부흥운동 동조 세력들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일본군이 있는 주류성 주변의 사포현으로 모여들었고, 이들 처리문제에 고심하던 나·당군은 이들 유민들과 주류성 전투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주변으로 피신한 일본병과 장수들을 회유하여 사포항 즉 웅천천 하구를 통하여 일본으로 출항시킨 것이다. 그 준비 기간이 약 17일 걸린 것이다. 따라서 태례성은 백제시대의 사포현이고 배들이 출항한 곳은 사포현의 웅천천 하구이며, 이 웅천천 하구의 대외적 기능을 이용한 곳이 웅천 수부리산성이기 때문에 주류성은 웅천 수부리산성인 것이다.⁷¹⁾

여덟 번 제로 수부리산성(주류성)과 백제 풍왕(豐王)의 고구려 망명과 관련된 정황을 살펴본다.

日本書記 天智元年 3일조에 의하면 당과 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니 倭가 고구려에 구원군을 파견하여 獲留城에 머물게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⁷²⁾ 여기서 倭의 구원군이 머문 獲留城은 주류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류성은 고구려와의 연관성도 가지는데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은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

日本書記에 의하면 663년 8월 백강 해전에서 패배한 풍왕은 배를 타고 고구려로 망명한다.⁷³⁾ 백제멸망 전에 일본에 가 있다가 백제 멸망 후 왜의 도움을 받으며 돌아와서 부

흥군의 왕으로 추대된 풍왕이 백강해전 패배 후 다른 백제의 유민들처럼 일본으로 다시 망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로 망명하였다는 것은 주류성의 백제 부흥군에 倭 세력의 도움 뿐 아니라, 고구려 세력의 도움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⁷⁴⁾ 부흥군의 국왕인 풍왕이 단신으로 고구려로 망명 하였다고 보다는 부흥군내의 고구려 세력들의 중용과 안내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수부리산성(주류성)지역의 부흥군이 倭 뿐 아니라 고구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은 무엇인가? 수부리산성 이웃에 선문9산중의 하나인 성주사지가 있는데, 이 성주사의 전신이 백제 오합사(烏合寺)임은 앞에서 말한 대로이다. 그런데 聖住寺寺蹟記의 내용을 통해보면 오합사의 건립연대는 서기 599년이고, 건립이유는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라고 하였기 때문에 큰 전쟁을 겪고 난 후 국가적 차원에서 세운 호국사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서기599년 이 오합사를 세우게 한 전쟁은 무엇이였을까? 삼국사기를 검토해 보면 599년 오합사 창건 이전의 전투로는 598년 9월(위덕왕 45년 9월)조의 다음과 같은 高句麗戰 이외에는 달리 비정할 전쟁이 없다.⁷⁵⁾

王使長史王辯那 入隋朝獻(중략) 高句麗 頗知其事 以兵侵掠國境

따라서 598년의 고구려군의 백제 침략과 그 격퇴가 오합사 창건의 동기로 간주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신라가 한강유역을 완전 점령한 상태에서 육로로는 고구려가 백제를 침략할 수 없다. 이 경우는 해로를 통한 침략이라는 것이 훨씬 설득력을 가진다. 결국 고구려군은 해로로 남하하여 사비도성을 쉽게 압박할 수 있는 요충지인 웅천천 하구로 들어와 오합사지 주변에서 백제군과 싸웠고, 백제는 이곳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전몰한 장병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戰場의 근처이면서⁷⁶⁾ 나라의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에 호국사찰 오합사를 세워 국가를 지탱해 주는 호국정신의 상징으로 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⁷⁷⁾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의 전몰장병을 위한 호국 사찰이라면 사비도성

70) 이때 일본으로 건너간 인원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일본의 依田豊씨는 약 5천5백 명 이상이라 하고있다(박성홍, 앞의 책 P119에서 재인용). 그러면 배 한 척에 100명을 태운다 하면 55척 이상의 대규모 함대를 구성해야 한다.

71) 출항지점인 태례성의 위치에 관하여 부안설을 주장하는 진영래 교수는 남해안의 전남 보성군 오성면 일대라고 하고, 홍성설을 주장하는 박성홍씨는 충남 당진군의 기지시로, 서산설을 주장하는 이은우씨는 충남 서산시 지곡면의 壯美城으로, 연기설을 주장하는 김제봉씨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일대를 나름대로 지명언어적 설명과 일본어의 倭借나 訓借 등을 통해 고증하고 각 주류성으로 비정하는 곳에서 9월 8일부터 9월13일 까지 이동 할 수 있는 거리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곳이 주류성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그동안의 대외적 통로였는지 하는 점은 설명이 없다. 일본서기에서 9월24일 태례성에 일본 군선이 왔다는 것은 주류성 주변에서 파손되지 않은 배와 수리된 배들이 드디어 집결되었다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군선과 패잔병들이 24일 도착하여 25일 출발했다는 것은 사포이외의 다른 곳에서 미리 출항준비를 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일본수군이 패전에 대비하여 미리 어느 곳에 수많은 배들과 식량 등을 숨겨놓았거나, 일본에서 준비된 구원용 배가 연락을 받고 왔다는 것이 되는데, 백강해전에서 제해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17일 동안에 일본에서 수많은 구원용 배가 왔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72) 是月唐人新羅人伐高麗高麗乞救國家仍遣軍將據 獲留城由是唐人不復略其南界新羅不獲輸其西鹽

73) 是時百濟王豐璋與數人乘船逃去高麗(앞의 제Ⅲ 장 (나) ㉔)의 일본서기 천지 2년 8월조 참조)

7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 1990, p517

75) 이도학, 『泗洲時代 百濟의 4方界山과 護國寺刹의 成立』, 『百濟研究』20, 충남대백제문화연구소, 1989.

76) 이도학 교수도, 위의 글에서 “烏合寺址는 西海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어쩌면 이곳은 海路를 통해 상륙한 고구려군과 백제군의 戰場이 아닌지 모르겠다. 상식적으로는 당시 고구려의 對 百濟 陸路侵攻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77) 夏五月 馬入北岳烏合寺鳴迴佛宇數日死(삼국사기 의자왕15년조)

顯慶四年己未百濟烏合寺亦云烏合寺有大赤馬晝夜六時遶寺行道(삼국유사 태종춘추공조)

百濟伐新羅還時馬自行道於寺金堂晝夜勿息唯食草時止(일본서기 제명4년조)

이와 같이 오합사와 관련하여 백제멸망과 관계된 기사가 나오는 것은 오합사가 백제의 흥망과 관련된 호국사찰임을 알려 주는 것이다.

주위에 세우던지 그 전투지역에 세우는 것이 상식적인데, 사비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 세워진 것은 이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고구려에서 사비성의 관문이며 백제의 요충지로 생각하여 해로로 침략하게 된 웅천천 하구와 수부리 산성지역이었기 때문에 백제부흥운동당시에도 해로를 통한 고구려의 지원이 가능하였고, 해전에서 패한 豐王을 데리고 海路로 고구려에 망명하게 한 것이다.

V. 맺는말

지금까지 白江 周留城의 위치 추정을 위하여 종래의 여러 학설을 검토해 보고, 관련사료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당시의 정황을 추정해 보았으며, 현지 답사를 통한 적용을 시도하여 보았다. 그 동안 주류성 찾기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온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白江과 周留城 위치비정에 관한 본 연구의 미흡한 점은 좀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백제 멸망시와 백제 부흥운동시 등장하는 熊津江 伎伐浦 白江의 오늘날 위치는 熊津江은 錦江이고, 伎伐浦는 錦江하구이지만, 白江은 錦江과는 별개의 강이다. 이 白江은 白馬江이라는 명칭이 백제 멸망 후 생겨났기 때문에 후대의 史家들이 면밀한 검토 없이 白馬江(錦江)과 동일지점으로 誤認하고 기록한 것이다. 白江은 保寧 熊川川 하구이다.

따라서 660년 소정방의 당군은 산둥반도에서 덕물도(더적도)를 거쳐 남하하다가 그 일부의 부대를 熊川川 하구에 상륙시켜 夫餘 서쪽을 압박하면서 夫餘로 진격하였고, 주력부대는 소정방 자신이 직접 지휘하여 錦江하구의 伎伐浦로 들어가 신라군과 합세하여 夫餘로 진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663년 熊津에서 주류성으로 출발한 나·당의 水軍은 공주의 금강에서 長項을 돌아 保寧 熊川川 하구(白江)로 와서 부흥군을 돕기 위해 온 倭 수군과 熊川灣口에서 白江口 海戰을 벌였고, 여기서 승리한 나·당군은 周留城(수부리산성)을 점령하는데 성공한다.

2. 周留城은 웅천천 하구(白江口)에서 내륙 동북쪽 약 10km에 위치하는 잔미산과 봉화산의 정상을 둘러싼 약 2800m의 포곡식 수부리산성이다. 百濟時代부터 西海岸으로 통하

는 통로이고, 부여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점이며, 성동리산성 대천리산성 삼곡리산성 창암리산성 황률리산성 달산리산성 대봉산성이 주위에서 옹위하고 있는 험준한 요새지다. 부흥운동당시 사비성 남쪽 금강유역의 嘉林城, 사비성 중부의 周留城(수부리산성), 사비성 북부의 任存城이 사비성을 압박하는 형국을 취하였던 것이다.

3. 변인석 교수⁷⁸⁾도 지적했듯이 白江·周留城의 위치 연구는 당시 諸史書의 정황과 지형 등을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고 접근시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지 몇 가지 세부적으로 부합되는 점만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기존의 여러 연구를 참고하고, 諸史書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당시의 정황을 이해하고, 웅천천하구·수부리산성의 역사적 배경과 위치 지형 등의 현재적 상황을 고찰하여 종합적인 비교 접근의 방법으로 白江·周留城의 위치 구명을 시도한 것이다.

78) 변인석,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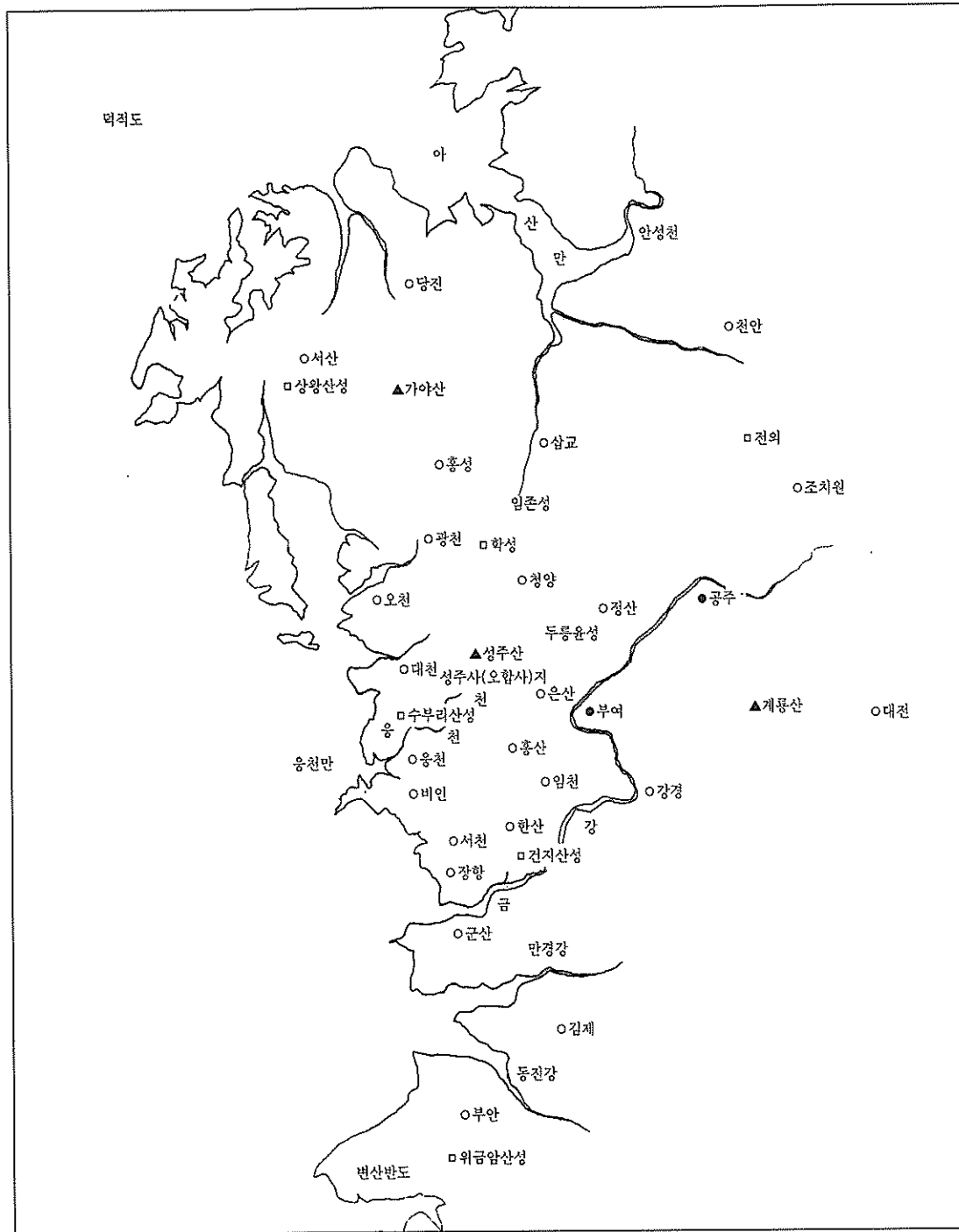
【참고문헌】

- 李丙燾 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83.
 李民樹 譯 『三國遺史』, 을유문화사, 1993.
 成殷九 譯 『日本書記』, 정음사, 1987.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성주사사적기」
 최영성, 『四山碑銘』, 아세아문화사, 1997.
 진단학회편 『한국사』 고대편, 을유문화사, 1959.
 심정보, 「백제부흥군의주요거점에 관한 연구」, 『백제연구14』,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1983.
 교육부, 『고등학교국사』, 199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 1990.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87.
 전영래, 『우금(주류)산성관련 지표조사 보고서』, 부안군, 1995.
 변인석, 「백강. 백강구의 역사지리적 고찰」, 한울, 1994.
 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이도학, 「泗沘時代 百濟의 4方界山과 護國寺刹의 成立」, 『百濟研究』20, 충남대백제연구소, 1989.
 충청남도, 『백제의 역사』, 1995.
 김재봉, 『백제 주류성의 연구』, 연기군, 1995.
 박성홍, 『홍주주류성고』, 홍성군, 1995.
 「주류성고」, 『향토문화연구총서』, 한국문화원연합회, 1992.
 지현영, 「豆良尹城에 대하여」, 『백제연구3』,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2.
 이은우, 「서산지방의 백제역사」, 『瑞山文化』, 11호, 1999.
 황의천, 「남포현 치소의 이동에 관한 연구」, 『제33회향토문화연구발표회수상논문집』, 전국문화원연합회, 1998.
 충남대학교박물관, 『성주사』, 1999.
 유승광, 『서천지역 백제산성 연구』, 공주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4.
 조범환, 『낭해무염과 성주산문』,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도수희, 「백제어 白·熊·泗沘·伎伐에 대하여」, 『백제연구14』, 충남대학교 백제연구

소, 1983.

- 황인덕, 「천방사(千房寺)전설과 백제말기 역사상황」, 『백제연구3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00.
 공주대학교 박물관, 『千房遺蹟』, 1996
 보령군지편찬위원회, 『보령군지』, 1991.
 양승률, 『김입지의 성주사비』, 충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4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의 문화유적11』-보령시편- 1997.
 충청남도, 『문화유적총람(성곽관아편)』, 1991
 충청매장문화재연구소, 「한산건지산성발굴약보고서 유인물」, 1997.
 예산향토사연구회, 『任存城百濟復興軍戰史』, 1989.
 김종규, 「당나라군의 백제 공격 루트 확인연구」,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수상논문집 CD』, 전국문화원연합회,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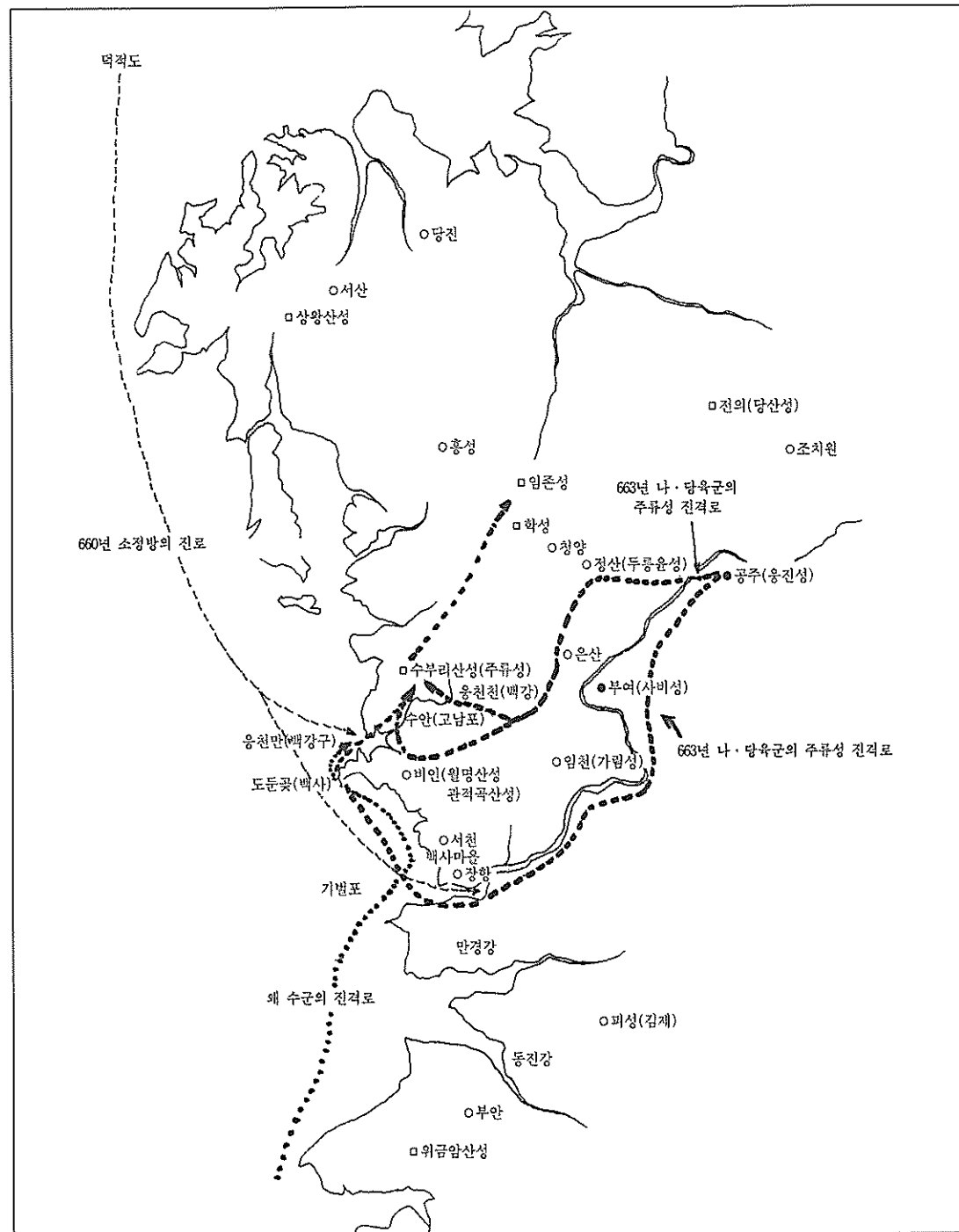
【그림1】 연구지역의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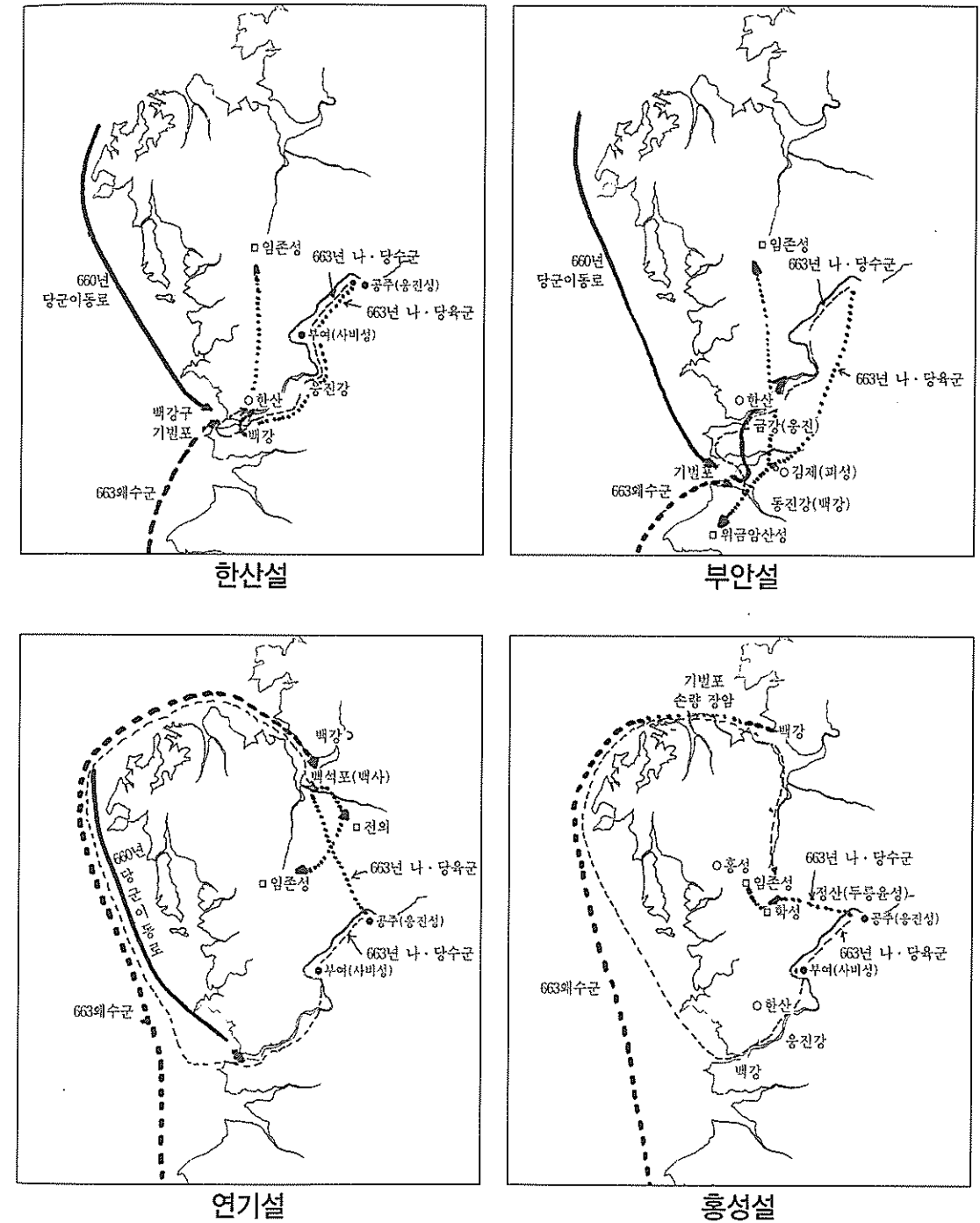
【그림2】 웅천천·수부리산성 지역의 상세도



[그림3] 660-663년의 주요 군사 이동로



[그림4] 660-663년의 주요 군사 이동로 비교



앞의 【그림4】에서 한산설은 백강을 금강하류로 보기 때문에 663년 웅진을 출발한 나·당의 수군과 육군이 금강하구까지 내려와서 서로 만나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형국이 된다.

부안설은 동진강 하구를 백강과 기벌포로 보기 때문에 660년의 당군의 최초 상륙지점이 금강 아래가 되는데 이는 당군이 백강을 지난 후 백제가 웅진구를 방어했다는 내용과 시간적으로 설명이 어렵다.

연기설은 백강을 안성천으로 보기 때문에 663년 보급품을 실은 나·당수군이 웅진에서 전의간의 아주 가까운 거리를 두고 서해를 한바퀴 도는 비효율적 이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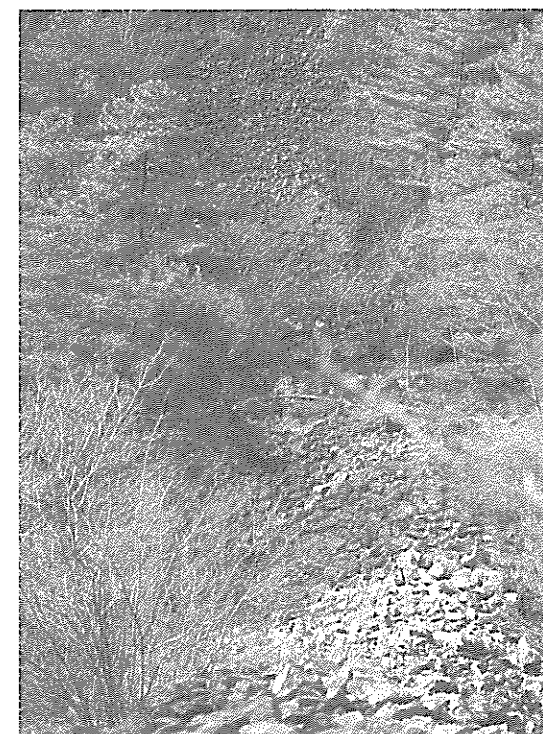
홍성설은 백강을 아산만으로 보기 때문에 웅진 홍성간의 가까운 거리를 두고 양곡을 실은 나·당 수군이 서해를 한바퀴 도는 비효율적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림5】 피성(避城)천도



〈사진1〉 성동리산성에서 바라본 수부리산성 원경



〈사진2〉 수부리산성 문지 부근 모습

도침 (道琛) (?~661)

예 산 문 화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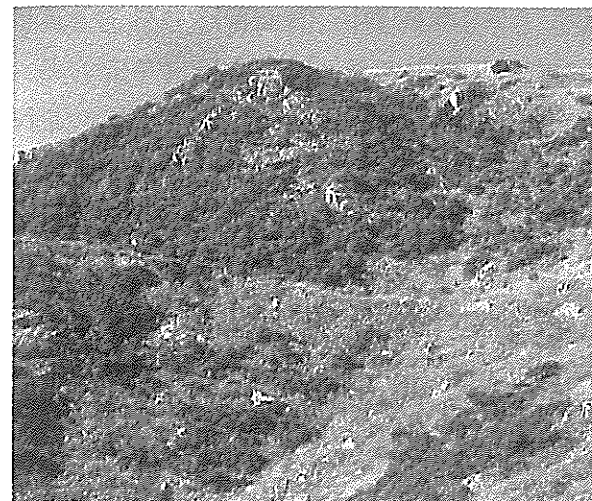
백제 말엽의 사람으로 백제가 멸망한 후 부흥운동에 가담한 승려이다.

도침이 과연 어디에서 출생하였나는 밝혀진바 없으나 대흥 봉수산 기슭에 있는 대련사가 도침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지금의 대련사 터에는 백제시대의 기와편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 옛 대련사터는 마사리 박흥 장군 묘소 부근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한다.

도침은 그 당시 상당히 높은 신분계층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임존성과 주류성 부근의 사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승려였을 것으로도 추측되고 그 힘으로 왕족 복신과 함께 일본에 있던 왕자 부여풍(扶餘豐)을 맞아다가 왕으로 삼아 당나라로 압송된 의자왕을 대신하여 백제의 왕통을 이었다. 나·당 연합군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부흥운동을 펼치며 주류성(한산?)에 부흥군의 근거지를 만들고 독립국가의 면모를 갖추었다. 도침은 스스로 영군장군(領軍將軍), 복신은 상잠장군(霜岑將軍)이라 칭하고 백제의 유민들을 모아 임존성(대흥)에 웅거하여 기세를 떨쳤다.

처음의 부흥운동은 도침이 주류성을 근거로 하여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복신은 임존성을 근거하여, 부여 자진은 웅진성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나 복신과 도침을 중심으로 점차 통합된 부흥운동이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당나라 장군 유인궤에게 “당이 신라와 약속하기를 백제사람들은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모두 죽인 뒤에 신라에 넘겨주려 하고 있으니 어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야 있겠는가?”하고 말할 정도로 기세를 떨쳤다. 또한 백제부흥군이 수도 많고 사기도 높은 것을 믿고 당장 유인궤가 보낸 사신을 그 관직이 낮다하여 답서조차 주지 않는 고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다.



임존성

백제부흥군은 날로 기세가 높아 사비성을 포위하여 당군을 궁지에 몰아넣기도 하였으며 대전부근의 지라성, 사정성, 웅산성, 진현성 등에 웅거하면서 신라군이 웅진(공주)과 사비(부여)로 통하는 양도를 끊어 나당연합군을 괴롭혔으나 끝내 사비성은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신라 문무왕의 친정으로 인하여 백제 부흥군의 거점이 무너지며 사비성 부근의 20여성이 다시 당에 항복하여 부흥군의 세력은

점차 쇠약하여졌다. 거기에 자진, 복신, 도침 등 세 장수의 세력다툼은 내부적 분열 양상마저 나타난다.

먼저 자진을 유인궤와 내통한 혐의로 처형한 복신은 도침마저 처형시켜 버린다. 그 배경은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도침이 당나라 장군 유인궤에게 보낸 서한이나 유인궤가 보낸 사신에 대한 교만한 태도는 그의 개인적인 무력기반이 만만치 않았음을 생각하게 하며 문헌에도 도침이 복신보다 앞서 기록되어 그의 세력이 복신을 능가하였던 증거를 볼 수도 있다. 그리하여 복신과의 지휘권 다툼으로 복신의 분노를 사 도침이 살해된 것으로 추측된다.

沃坡李鍾一先生에 대하여

- 민족대표 33인중의 1인 -

박 춘 석 | 청운대학교 겸임교수

1. 서론

옥파이종일 선생은 1858년 11월 6일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의 닻개(碇浦)에서 성주이씨(星州李氏)인 교환(敎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일찍 고향에서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머리가 매우 명석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그를 추종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일찍 호를 옥파(沃坡)라 했는데, 그 뒤 천도교에 입교(1905)한 다음 묵암(默菴)이란 도호(道號)를 받았으며, 이밖에도 필명으로 천연자(天然子) 중고산인(中舉散人) 중현(中軒) 삼일자(三一子) 등이라 했다.

옥파선생은 일찍 15세 때에 청운의 뜻을 품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1873) 다음 해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후 1882년에는 박영효(朴泳孝) 수신사를 따라 일본(日本)에 건너 갔었는데, 당시의 일본사회의 개화된 실상을 목격하고 귀국하였다.

옥파선생은 이때부터 마음의 한 구석에서 개화사상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적으로 개화이념의 영향을 받은 것은 그 뒤로 16년 후인 1898년에 雲養金允植先生으로부터 이다.

김윤식선생은 당시 대한학자였는데, 옥파선생은 그의 계동(桂洞) 자택에서 개화사상에 대해 공부하고 사제간의 인연¹⁾을 맺었던 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열강의 각축전 속에 국운이 앞날을 예측할수 없을 만큼 누란의 위기에

1) 옥파비망록 권 1 광무 2년(1898) 1월 23일

붕착했던 구한말(舊韓末), 이때 옥파선생은 분연히 일어나 구국운동의 선두에 나섰다.

우선 고루한 구습을 타파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개화사상과 자강의식을 고취시키고 계몽하기 위해 순 한글로 된 「제국신문」을 창간하였던 것이다.

또한 옥파선생은 오늘의 새마을 운동에 해당하는 이른바 신촌운동(新村運動)을 제창하여 「국민의 의타적이고 보수적인 정신을 개조하여 진취적이며 활성화된 국민의식의 재구성」을 추구하였다.

이같이 선각자로서의 뛰어난 탐구력과 총명한 재질을 지닌 옥파선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외교 등 각 방면에 걸쳐 경종일세(警鍾一世)의 직필을 구사하지 않은 곳이 없다.²⁾

특히 옥파선생은 신학계통의 학문을 전수하여 이를 실천하였으니, 즉 새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신교육을 실시하여 인재양성은 물론, 여성교육의 필요성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한편, 발달한 서양의 물질문명을 받아들여 조국 근대화를 촉진시켜 국력을 신장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옥파선생은 독야청청한 지조와 새로운 행동으로 68년 간의 생애를 통해 애국애족의 일념에 한 점의 하자도 없었으며, 더구나 3·1독립운동에 즈음하여 일본강점하의 삼엄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각 요로에 배부한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1독립운동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생각할 때 이 33인의 이름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이 33인의 이름은 우리 근대사의 위치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자리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중 일부 인사들이 변절 또는 좌절하였으니,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 볼 때 33인 중의 한 사람이었던 옥파이종일 선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의아심마저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제국주의의 총칼과 맞서 싸우며 오로지 구국일념 속에서 한스런 일생을 마친 고결한 분이였다.

이미 100여년 전에 제창한 옥파선생의 포부와 애국사상은 오늘에 이르러 더욱 새롭게 빛나고, 또한 후인들에게도 길이 목탁이 되고 아울러 불멸의 상징으로서 민족의 지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2) 이병도 「신촌정신으로 민족의 실리추구」 옥파 이종일선생 논설집 1

특히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정신 계발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옥파선생은 3·1 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로서의 직접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낭독한 독립운동가이며, 따라서 언론인, 종교인, 한글학자, 교육자 그리고 여성운동의 선구자요, 뛰어난 민족주의자로서의 투철한 애국사상가였다.

2. 독립운동가로서의 옥파

옥파선생의 독립사상을 행동화의 길로 더욱 치닫게 하고, 아울러 대한의 독립을 열망케 한 것은 1910년의 9월 말경부터였다.

월남선생의 권유로 독립당에 가입³⁾하였고, 또한 보성사 내에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해 비밀결사로 천도구국단⁴⁾을 조직하고 단장에 취임하였는데, 이때 명예총재로는 손병희, 부단장 김홍규, 그리고 총무로 장효근이 선출되었다.

그 후 1919년 1월 22일 고종황제 독살사건으로 인해 민중이 격분하여 절치부심하고 있을 때, 옥파선생은 이제야말로 우리의 숙원인 민족주의 민중시위 구국운동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기회에 민중시위 구국운동을 전개하는데 진정한 민중운동으로 떠나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독립선언서를 신명을 바쳐 인쇄하기로 결심하고 옥파 이종일, 장효근, 최남선, 김홍규, 신영구⁵⁾ 등과 보성사에서 문을 굳게 잠그고 비밀리에 인쇄에 들어갔는데, 우선 1차로 25,000장(1919. 2. 25)을 인쇄하여 천도교본부로 운반하여 보관하고, 이를 뒤인 27일에는 다시 2차로 1만장을 증쇄하여 모두 3만 5천장을 인쇄하였다.

이렇게 독립선언서의 인쇄를 성공리에 마친 옥파선생은 28일 저녁에 손병희씨 댁에 찾아가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날인하고 집에 돌아왔으나 「잠이 오지 않는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 몹시 마음이 설레인다」고 술회하고 있는데, 옥파 비망록에 따르면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임을 세계만방에 선언하고 국민들은 만세를 고창하는 성스러운 날이다. 오늘의 거사가 기필코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라고 기도하였다.

3) 옥파비망록 광무 3년(1899) 4월 14일

4) 상계서 1913년 8월 31일 조

5) 상계서 1919년 2월 20일 조

3월 1일은 토요일이며 날씨도 청명하고 따뜻했다. 옥파선생은 태화관에서 의암 손병희씨의 지시를 받고, 즉 독립선언서를 직접 인쇄하고 배부하였으니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라고 해서 옥파 선생은 낭랑한 목소리로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하고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이때 손병희는 최린에게 일본 경무총감부에 전화로 소재를 알리게 하고 당당하게 스스로 잡혀가는 것을 자청했다.⁶⁾ 그리고 이갑성을 총독부에 보내어 독립선언서를 제출케 하고, 종로경찰서에는 다시 인편을 보내어 알려주었다.

의암의 이같은 처사에 일부 대표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으나, 천도교의 대표들은 대부분 의암의 지시를 따랐으며, 그리고 기독교의 대표들은 차려놓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예수께 기도만 올리면서 경건하고 긴장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같이 거사의 내용을 알린 약 20여분 뒤에 일본경찰이 5대의 트럭과 수 십명이 달려와 삼시간에 태화관을 포위하였다. 이때 의암은 태연자약한 자세와 선골풍으로 일경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용운은 「오늘의 우리 모임은 곧 독립만세를 고창하여 독립을 쟁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장서고 민중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을 바쳐 자주독립국이 될 것을 기약하고자 여기 모인 것이니 정정당당하게 최후의 1인까지 독립쟁취를 위해 싸웁시다」⁷⁾ 라고 낭랑한 목소리로 외쳤다.

뒤이어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3창하고 민족대표 일동은 의암을 선두로 일경(日本警察)에게 체포되어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어 갔다.

이렇게 연행되어 간 일행 중에는 일경의 혹독한 고문으로 견디지 못해 일부 인사들이 변절하고 있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손병희, 오세창, 권동진, 최린, 이승훈, 한용운, 이명룡, 홍병기, 권병덕, 김창준 등은 의연한 기백을 보여 기분이 상쾌하다고 옥파선생은 자기의 비망록에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옥파선생은 불의와 부정을 보고는 참지 못하는 결벽성이 있어서 비겁한 자들의 소행을 그냥 보고 있는 위인이 아니었다.

독립만세운동 후 즉시 체포되어 구속되었으나, 일경의 심문에서 옥파선생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신명을 다바쳐 계속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였다.⁸⁾」

6) 상계서 1919년 3월 1일 조

7) 상계서 1919년 3월 1일 조

8) 상계서 1919년 3월 1일 조

이때 일경으로부터 「이종일이라는 자는 지독한 악질이다」라는 욕설을 들었다. 또한 그들로부터 민족대표가 된 동기를 말하라고 하니 옥파선생은 「나는 제국신문 사장으로 10년간 실무까지 맡았으므로 항상 민족사상을 견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강점하였으니 독립국이 되는게 나의 소원이다. 그렇게 되려면 독립선언서 대표자의 한 사람이 되어 민중을 편안하게 이끌어야 하겠다는 결심으로 가담했다」고 주저치 않고 힘주어 대답했다.

그 후 재판 결과 구속된 일행 중 이종일, 손병희, 최린, 오세창, 권동진, 이승훈, 한용운, 함태영, 김창준 등은 3년의 최고형을 언도 받고 복역 중에 만기 3개월 앞두고 2년 9개월 만에 가출옥되었는데, 이때 옥파선생을 비롯하여 오세창, 권동진, 최린, 김창준, 함태영, 한용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출옥된 옥파는 조금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다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자주독립선언문⁹⁾을 손수 작성하여 기미3·1독립운동 3주년이 되는 날인 1921년 3월 1일에 재차 시위를 벌릴 계획이었으나, 인쇄 중에 일경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 제2의 자주독립선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대한은 당당한 자주독립국이며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의 으뜸가는 국민이다」로 시작하여 「우리들의 독립 투쟁은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보성사 사원들은 다시 봉기하여 조국독립을 위해 최후까지 목숨을 바칠 것을 결의하고 선언한다」라고 하였다.

이어 「우리의 국혼이 건전하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꺾기해서 일본을 축출해야 하며 그리고 사회주의 풍조를 불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우리의 전진에는 광영과 행복이 있을 뿐이니 속히 이 독립운동의 대열에 모두 참가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이는 매우 희망적이고 설득이 있는 선언문이다.

이 자주독립선언문은 순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데 모두 726자로 되어 있다. 기미독립선언문에 비하여 그 내용이 더욱 절실하고 또 자주독립을 절실히 갈구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즉 독립이란 단어를 13번이나 되풀이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기미독립선언문에서는 단 3번 밖에 사용치 않았다.

9) 자주독립선언문(제2독립선언문)

3. 언론인으로서의 옥파

옥파 이종일 선생은 1898년 8월에 제국신문을 창간하여 10년간 경영하여 오다 결국 일제(日帝)에 의하여 강제 폐간 당하고 말았는데, 이 제국신문은 당시 우리 사회가 한문을 숭상하고 한글을 언문(諺文)이라 천시하여 외면하던 때에 선각자의 혜안으로 과감히 한글 전용의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상의 일간신문을 창간했다는 것은 앞을 내다 본 선각자의 창의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제국신문을 발행하기 위해 약 8개월 간의 치밀한 계획과 연구를 거듭하였는데, 최초로 신문 발행에 관해 상의한 사람은 유영석이었다.

유영석과 신문 발행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문 간행의 목적을 옥파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생각컨대 국가의 개명과 개화를 위해서는 신문만한 것이 없고 또한 국가의 주인으로서 민중이 으뜸이므로 우리들의 사명이 더욱 중차대하다고 하였다. 또 독립신문은 민중을 선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녀자 층을 개명케 하는 데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니 만약 내가 앞으로 신문을 발행한다면 기필코 창간호부터 부녀자의 계몽지로 시작하겠다¹⁰⁾」고 다짐하였다.

이같이 부녀자를 대상으로 신문 간행을 꾀한 것은 우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부녀자인데 그들은 한문 지식이 거의 없는 하층계급에 속해 있으므로 이들을 한글로 계도함으로써 막대한 여성 자원을 국가발전에 활용하고자 함이었다.

이같이 미개한 국민을 개화시키는 매체로서는 무엇보다도 신문만한 것이 없음을 옥파 선생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또한 신문이란 문명과 개화를 촉진시키는 도구로서 필요한 것이며, 나아가 국민대중을 홍보하는데 가장 긴요한 것으로서 신문만한 것이 없다고 했으며¹¹⁾ 그리고 서재필을 방문하여 시국관에 대해 환담하는 과정에서, 서씨가 말하기를 민권은 곧 국민의 권리이며 정도이므로 이를 고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힘을 다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서 신문을 창간하는 것이 제일이니 힘을 다해 신문을 발행하라고 강조했다.¹²⁾

옥파선생은 앞에서 언급한 유영석을 비롯하여 최린, 이종면, 이종문, 정교, 장지연, 유

10) 옥파비망록 권1 광무 2년(1898) 1월 10일 조

11) 옥파비망록 권1 광무 2년(1898) 4월 30일 조

12) 옥파비망록 권1 광무 2년(1898) 4월 28일 조

반, 남궁억, 윤치호, 장효근 등과 장기간 숙의한 끝에 마침내 1898년 8월 8일 자로 제국신문의 창간호를 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신문이 나왔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발행의 일간 신문으로서는 3번째¹³⁾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같이 제국신문의 여성 계몽 효과는 상상 밖의 놀라운 것이었다. 창간 당시 2천부를 발행한 것이 불과 3개월만에 3천 5백부로 증간되었으니 특히 독립협회 회원의 홍보지 역할을 할 정도로 그 위세가 당당하였으니 당시의 고종황제께서도 제국신문의 논조와 그 사명감의 지대함을 알고 발행자인 옥파 이종일 선생을 치하하였다.¹⁴⁾

이처럼 제국신문이 여성계몽에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3·1독립운동 당시 수많은 여성들이 피를 뿌리고 고초를 겪었는데 이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빛날 이름들이 있으니, 그는 유관순을 비롯하여 김마리아, 오현주, 오현관, 이정숙, 이신애¹⁵⁾ 등을 우선 들 수 있다.

독립운동에 참가했다 하여 일경에 체포된 여성들이 무려 400여명에 달했다고 하니, 이는 당시의 여성운동이 방대하였음을 단적으로 말하여 주는 것이고 또한 그 저력은 오로지 제국신문의 선구적인 여성계몽 및 그 계도에 힘입은 까닭이었다.

옥파 선생은 제국신문을 창간 그의 발행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이 밖에도 대한황성신문, 독립신문, 대한신보, 만세보,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천도교월보과장 등을 거치면서 국민계몽을 위한 많은 글을 집필함으로써 그의 언론 상은 국민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어 갔던 것이다.

특히 그의 춘추필법의 예리한 필봉은 당시 부패부정을 일삼는 집권층을 놀라게 하였으며,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한구석의 막힘도 없는 옥파의 필치는 국민들에게 널리 회자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청고하고 예리한 옥파의 사필 논법은 절망의 문턱 앞에 섰던 구한말의 우리 사회에 등불이 되었으며, 그리고 국가의 앞날을 제시하는 청사진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제국신문은 당시의 계몽적인 기능면에서 국민들에게 새롭고 희망적인 큰 힘을 부여해 주었던 것이다. 옥파 선생은 논설을 통해 국민의 진로를 계도하고 아울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언론, 군사, 외교 그리고 여성문제는 물론 정신문화면에서도 직필을 구사하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따라서 옥파의 논설은 올바른 비판과 대안의 제시

로 국가흥隆의 추진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4. 교육자로서의 옥파

옥파 이종일 선생은 나라가 개화하고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면 교육 이외의 좋은 길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민권이 바로 국권인 까닭에 민력을 기르고 봉건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중 계몽학교를 설립하여 인재육성을 선행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옥파 선생은 국력배양의 지름길은 오로지 교육밖에 없음을 굳게 믿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1898년 11월 서울에 흥화학교를 세웠으며, 다시 3년 뒤인 1901년에는 국문학교를 건립하고 이어 보성학교(1905)와 보광학교(1908) 교장에 취임하여 직접 교육활동에 힘을 쏟았다.

당시의 우리 사회상이 인재육성과 재능개발이 시급함을 절감하고 이렇게 몸소 교육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또한 옥파 선생은 교사는 효모역할을 해야 한다고 교사론을 주장하였는데, 교육을 이렇게 비유하였다. 교육은 국권의 뿌리가 되고 지식은 나무의 줄기가 되며, 따라서 국권은 다시 나무의 열매나 다름없다고 하였다. 교사는 이러한 교육이라는 나무를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자라나고 뿌리가 튼튼하며 열매가 풍성하게 잘 열리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또한 직접 가꾸는 육림인이나 다름없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교육풍토라는 분위기의 청탁이나 맛, 그 화채 그리고 방향까지를 결정하는 효모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하였다. 교사 각자가 누룩의 구실을 하면 머지 않아 교육 전체를 바꾸어 놓을 만큼 그 역할은 대단히 큰 것이라고 말했다.¹⁶⁾

그리고 옥파 선생은 특히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 중에서도 가정교육이 첫째가는 교육으로서 이것은 의를 존중하는 인간으로의 형성을 위한 부모들의 노력이 절대 필요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아울러 옥파 선생은 부모들의 언행은 물론이지만 가정에서 듣고 보는 가운데 자연히 익히고 깨우치는 것이 많으므로, 엄격한 가훈으로 또는 가법으로 가정이 지닌 교육적 분위기와 가풍의 중요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

예로부터 위대한 인물은 이같은 가법이 엄격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3) 최준 「지조의 언론인 옥파 이종일 선생」 옥파 이종일 선생 논설집 1

14) 옥파비망록 권1 광무 2년(1898) 10월 2일 조

15) 옥파비망록 권1 광무 2년(1919) 12월 24일

16) 김용호 「옥파 이종일 연구」 1984 교학사

17) 상계서

또한 옥파 선생은 어린이의 성장과 육아법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는데, 특히 어릴 때의 가정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강조하며,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장난을 좋아하며 몸을 움직이고 싶어하는데 이는 자연의 이치이니 금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장난이 지나칠 때는 미리 이를 금지시키고, 그 대신 숫자놀이, 그림 조각 맞추는 법, 나뭇가지로 성을 쌓고 집 짓는 법 등을 가르쳐야 한다. 이는 사고력을 기르며 합산과 나눗셈을 가르쳐서 슬기의 문을 열리게 해야 한다.

또 목마와 종이, 연(紙鳶) 그리고 어름치기 등의 놀이를 해서 신체를 단련시켜야 한다.(지덕체→전인교육) 아울러 식사하고 잠자는 시간은 일정 시간을 정해서 이를 어기지 않도록 하고, 말과 행동과 어른 공경하는 예절과 친구 사귀는 법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곤 하였다.

5. 한글학자로서의 옥파

옥파 선생은 앞에서 언급한 제국신문을 순 한글로 발행하였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가 한글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옥파 선생은 1909년 9월 대한제국 국문연구소의 연구원에 피임되어 한글연구에 전념하였다. 그는 한글의 실용주의적인 견해를 주장하였는데, 다른 학자들이 고전이나 범자 기원설을 주장한 것에 반하여 옥파 선생은 발음기관설을 주장하였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1904)되기 전의 옥파의 이 기관설은 놀라운 탁견이었다고 남광우 교수는 언급하였다.

「ㅇ, ㅅ, ㅈ, ㅊ, ㅋ」 등의 5자를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가획 가점하여 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아울러 「후, 치, 아, 설, 순음」이 각각 발음기관설을 상징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옥파 선생의 언문의 해¹⁸⁾에 따르면 천음(초성) 24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천음 24자

5 음			천 음	형 상 (발 음)
궁	토	후음	ㅇ ㅁ ㅎ ㅎ	목구멍형상. 소리가 목구멍서 남, 이의 형상. 소리가 잇사이서 남
상	금	치음	ㅅ ㅈ ㅊ ㅊ	이의 형상. 소리가 잇사이에서 남
각	목	아음	ㅈ ㅊ ㅊ ㅈ	어금니형상. 소리가 어금니쪽에서 남
치	화	설음	ㄴ ㄷ ㄷ ㄴ	말린혀의 형상. 혀의 움직임으로 소리남
오	수	순음	ㅁ ㅇ ㅂ ㅂ	입술의 형상. 입술의 움직임으로 소리남

(2) 지음 11자

ㅇ ㅣ ㅡ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ㅜ (이음 이으오우아야어요유야여)는 궁이요 토는 목구멍 소리이며 이 지음 11자를 기본으로 여기에 가점 가획하여 만든 것이다.

(3) 인음 8자

ㅇ ㅅ ㅈ ㅊ ㅋ ㅌ ㄴ ㄷ (응웃옥은은을음읍)의 인음 8자는 바로 천음의 분자이면서 다만 그 음만을 달리하여 천과 지의 끝 위치에 있어서 천의 도를 행하며 지의 덕을 세워 가는 곳마다 융합되며 베푸는 곳마다 변화해서 천지인(3재)의 합일하는 대본이며 대공로자인 것이다.

대개 이 3음은 모두 다 천 5, 지 2라는 7자에 기인하여 변해서 35자가 되고 두 번 다시 변하여 43음이 되어 서로 부합하면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면서 각기 그 글자를 이루고, 글자마다 음을 달리하여 천언만어(千言萬語)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또한 옥파 선생은 한글의 교수법을 연구하여 종래의 「가가거겨」 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천음(ㅈ ㅊ ㅊ ㅈ……)고 지음(ㅏ ㅑ ㅓ ㅕ……)의 글자를 합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교수법이었다.

이같이 우리 한글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연구함으로서 주시경 선생보다도 10여년이 앞선 것이라 하니, 이는 한글학자로서의 명분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8) 천도교회월보 4권 39호

특히, 「한글」이란 명칭을 옥파 선생이 최초로 사용했다고 하니, 이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히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옥파 선생은 우리 한글만으로 모든 학문이 가능한데 왜 한글을 소홀히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어려운 한문을 배우다가 다 깨우치기도 전에 한문속에서 늪어버리게 되니, 어느 겨를에 새 학문을 배울 시간이 있느냐고 한탄하기도 하였다.

옥파 선생은 국문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제목으로 제국신문(1900. 1. 10)에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도 국문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한문과 비교하면 국문이 훨씬 편리하고 과학적인 이치로 짜여져 있어 배우기도 쉽고, 한문보다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가히 세계의 글 중에서 으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온 국민은 모두 국문을 힘써 사용하고 연구해서 발전시키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훌륭한 글이 될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쉬운 한글을 언문 또는 아녀자의 글이라 천시하고, 배우기 어렵고 쓰기 힘들며 말을 만들기도 어려운 한문만 글로 여겨 정부 문서나 통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한자로만 쓰고 있다.

우리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하였는데 자모음을 구별해서 즉 「ㄱ ㄴ ㄷ……」 등 17자의 자음과 「ㅏ ㅑ ㅓ……」 등 11자의 모음을 만들어 이것이 합해져야 글자가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음은 입안의 소리나는 곳에 따라 입술에서 나는 소리, 혀에서 목구멍에서 잇 사이에서 등 다섯 군데 소리가 달라서 입 모양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모음도 입 벌리는 정도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각각 자음과 합해져 하나의 글자가 된다.(ㄱ과 ㅏ가 합해서 「구」가 되고, 구에다 ㅓ를 더해 「귀」를 만들고, 귀에다 ㅓ 받침을 해서 「권」이 된다)

이렇게 한글은 이치가 분명하고 말을 만드는 방법이 과학적이므로 우리는 비록 언문이라 천시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한글의 정묘함을 칭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글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책도 많이 만들고 신문도 간행해서 문맹한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을 팽개쳐 둔 채로 있다. 가령 동서양 사기성전이나 법률장정 등을 모두 한글로 번역해 사람들이 읽기 쉽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 형편을 알게 되고, 또 좋은 책을 읽어 행실을 바르게 가지려 노력하고, 다른 나라의 사정을 알고 경쟁심이 일어나 나라를 위해 힘쓸 것이니 참으로 보람있는 일이라 하겠다.

배우기 어려운 한문에 매달려 과거시험에 급제하는 것만 성공으로 알고, 다른 사업을

할 여유가 없었으니 어떻게 나라가 발전할 것인가.

위의 말은 한문을 숭상하지 말고 배척하며, 한글만 공부하는데 힘쓰란 말이 아니고, 한글도 한문과 같이 중하게 여겨서 널리 쓰고 연구해서 발전시키면 한글이 세계에 빛남과 아울러 나라도 명예롭고 부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옥파 선생은 대한협회보 제2호에서 「국문을 논함」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 국문은 28자만으로도 천언만어를 능히 만들어 낼 수 있는 신기한 글자로서 그 배우는 법도 역시 쉬워서 하루 이틀이나 4, 5일 동안이면 그 뜻을 환히 깨닫고 책을 대하면 수월하게 읽을 수 있으니, 그 편리하고 알기 쉬운 것은 세계 여러 나라 글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역설하였다.

6. 결 론

옥파 선생은 1858년에 출생하여 1925년 타계할 때까지 일생을 오로지 나라 사랑의 일념으로 헌신한 보기드문 애국운동가였다.

특히 언론을 통해 국민을 계도하였는데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직필을 구사하여 사회개혁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같은 다방면에 걸친 내용을 모두 고찰함이 당연한 것이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일일이 논급하지 못하고 본론에서 우선 옥파 선생의 독립사상을 비롯하여 언론, 교육, 한글 등에 관한 분야만 언급한 것은 필자로서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새마을 운동의 근간인 「신촌정신」을 비롯하여 실학 및 종교사상을 다루지 못한 점은 몹시 아쉽지만 다음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한가지 다행스런 일은 지난 1979년 2월에 옥파 이종일 선생의 생가를 발견(필자 발견)하고, 이어 옥파추모사업원복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동안 생가를 복원하고 사우(충애사)와 기념관 및 관리실 등을 세워, 그의 고결한 애국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 받들기 위해 매년 3·1절 행사를 충애사 앞 광장에서 엄숙하게 거행하고 있다.

의춘부원군충장공(宜春府院君忠壯公)

남이흥(南以興) 장군

당진문화원



충장공 남이흥 장군은 선조 9년(서기 1576년) 7월 27일(양력 9월 10일), 자는 사호(士豪), 호는 성은(城隱), 시호는 충장(忠壯)이고 부친은 임진왜란 때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의천부원군(宜川府院君) 유(瑜)이다.

선조 35년(서기 1602년) 27세에 마침내 알성무과 한후 28세 선전관경 비변사랑청에 등용, 29세 장연현감으로 부임하여서는 전부터 내려오는 가혹한 정사를 뿌리뽑고 간교한 아전을 엄히 다스려 현민들로 하여금 태평성세(泰平盛世)를 누리게 하였다. 이때 안문어사(按問御使)가 장계로서 이러한 사실을 왕께 알려 선조께서 친히 상을 내리셨다.

32세에 비변랑이 되고, 33세에 의주판관(종5품)을 제수 받아 재임 중에는 3년 간에 걸쳐 전부터 쌓여 있는 적폐를 깨끗이 제거하였으므로 변방의 인심이 일신(一新)되었다. 35세에 용천 군수(종4품) 제수

받고, 36세 직(職)에서 사임하였다. 이때 백사 이항복(白沙 李恒福)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이 체찰사(體察使)로서 부(府)를 두고 덕망이 탁월하고, 능력 있는 무관을 수하에 모으고 있었는데 공도 또한 이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 해에 부령부사를 제수 받았다. 공은 이 곳에서 병기를 정리하여 갖추고, 군

량을 비축하여 육진(六鎭) 중에서 부령(富寧)을 제일가는 부로 만들었다. 어사(御使)가 와서 실정을 검열하였는데 모든 것이 빈틈없이 정비되었음을 보고 임금께 장계를 올려서 통정대부(정3품 당상관)로 승진하였다.

부령부사 재임시 치적(治績)에 공이 많았고 징계를 출몰하던 외적(外賊)들을 소탕한 공이 인정되어 다시 가선대부(종2품)에 올랐다. 이어 부총관경 포도대장, 군기사제조를 제수 받았다.

40세에 공홍병마 절도사(충청병마절도사)를 제수받았다.(공홍은 공주와 홍성, 실질적으로 충청도를 말함) 재임 중에 호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엄명을 내려 난폭한 행위를 막았으므로 영속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이즈음 이이첨의 하인들이 그 주인의 권세를 등에 얹고 양민들을 괴롭히는 등 난폭한 행동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이속(吏屬)들도 이이첨의 세도에 눌려 감히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였다. 공이 그 정황을 알게 됨에 가차없이 그들을 붙들여 죄상이 악독한 놈을 엄히 다스려 장살(杖殺)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니 지금까지 시달림을 받아오던 양민들은 모두 다 쾌재를 불렀다. 이때 대사헌이 이이첨의 사주를 받아 임금께 탄론을 제기하였으나 임금은 공의 치적이나 일의 경위를 충분히 참작하시어 문책함이 없이 다만 직위에서 물러나게만 하였다.

42세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겸 진주목사를 제수받았다. 재임시 축석루(矗石樓)를 중건하였는바 이를 축하하는 시문이 지금도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또한 의곡사는 북쪽 비봉산 가운데에 있었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불타버렸으므로 공은 산승성간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복원토록 하였다. 진양지(晉陽誌)에 명관 남이흥은 정사를 맑고 엄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정충신(鄭忠信)의 북천록(北遷錄)에는 '1618년 4월 13일 남병사 이흥은 천리길에 전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북청에 유배중인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을 문안케 하고 귀한 남쪽의 선물을 보냈다고 한다. 오성(鰲城)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와 같았다'는 기록이 있다.

44세 구성부사 겸 평안도 방어사를 제수 받았다.

본시 구성 땅은 토질이 척박하고 백성이 드물게 살고 있었으며 산적들이 들끓어 예사로 관고를 털어 가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공이 부임한 지 한달 만에 모든 정사가 안정되고 고을 백성들도 편히 살게 되었다. 일한 연유로 해서 1620년에 송덕비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비문에는 미막일삭 은중백년(未滿一朔 恩重百年)이라 쓰여졌다. 그 뜻은 한달이 채 되질 않아서 그 은혜는 백년보다 무겁다는 뜻으로써 공의 치적이 단 시일 내에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났는가를 단적으로 표시해주는 산 증거라 하겠다.

45세에 평안도 방어사 겸 안주목사를 역임하고 1622년 47세에 자헌대부(정2품)로 승진하였다.

1624년 인조 2년 49세에 중군대장으로 평안도 병마절도사 겸 부원수인 이괄의 난을 평정하였다. 조정은 진무 1등공신 의춘군을 봉하고 승록대부(종1품)를 제수하였다.

1627년 인조 5년에 3도 부원수겸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계실 때 후금(청국)의 3만6천대군이 침공함에 정묘호란의 마지막 전장이었던 안주성 싸움에서 3천여명의 군사로 혼신을 다하여 독전 분투하였지만 중과부적으로 마침내 성안으로 많은 적을 끌어들이고 화약고에 점화하여 자폭으로 최후를 마쳤다. 그 날이 1627년 정묘 1월 21일이고 충장공 연세 52세이니 역전의 원수로서 이렇듯 살신위국 함은 전사에 보기도문 충절이라 하겠다.

이괄의 난을 평정한 남이홍 장군은 갈성분위출기효력진무일등공신(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一等功臣)을 책봉하시고 승록대부종일품(崇祿大夫從一品) 삼자(三資 : 세자가지위)로 특별히 승진시키고 의춘군(宜春君)을 봉하여 장획(藏獲 : 장은 남자 노비, 획은 여자 노비)과 전택을 하사(下賜 : 내려줌) 하시었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 경사(현 서울)로 불리어 비변사 당상(備邊司 堂上)을 겸하게 되었다.

이괄의 난을 평정하고 논공행상(論功行賞 : 의논하여 상을 줌)함에 있어 당시 공을 인정받아 갈성분위출기효력진무공신(竭誠奮威出氣效力振武一等功臣)이 된 자는 32인이었다. 한편 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우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 허목(許穆)이 글을 쓴 신도비(神道碑)가 광주군 중부면 탄리 공의 묘하(墓下)에 있었는데 1971년 천묘시(遷墓時)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 충장사(忠壯祠) 입구에 옮겨 세웠다.

배(配) 정경부인 하동정씨(貞敬夫人 河東鄭氏)는 승지(承旨) 희적(熙績 : 하동부원군 정인지의 6대손)의 따님이시며 1576년 병자 생이요 1657년 丁酉 7월 20일 82세로 돌아가시었다.

공(公)의 제사는 음 1월 21일이며 배위(配位)의 제사는 음 7월 20일이다. 1월 1일과 추석에는 차례(茶禮)를 지내고 한식(寒食)과 9월 9일 중양절(重陽節)에는 절사(節祀)를 지낸다.

1970년 유물 일부가 문화관광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971년에는 의천군 남유 장군과 충장공 남이홍군 묘소를 성남시에서 이 곳 충장사 옆으로 천묘하고 1981년에 모충관(유물관)을 건립하였으며, 1984년에는 충장공 묘역 일원이 충청남도지정 문화재(기념물 52호)로 지정되었다. 모충관에 당시의 갑옷내피, 곤룡포, 사패절목 등 500여점의 유물이 있고 60여점의 교지(敎旨)가 전시되어 있다.

직산의 거북놀이

성 환 문 화 원

1. 거북놀이의 노래

거북은 우리 민족의 전설이나 신화속에 자주 등장하는 인간과 매우 친근감을 주는 수륙양생 동물이다.

거북은 또한 천수를 누린다는 장수동물로 십장생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조상들은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용왕의 아들이 곧 거북이라 믿고 1년에 한 번씩은 용왕의 아들 거북이로 하여금 가뭄과 홍수를 막을 수 있고 집안의 모든 액을 물리쳐 주어 안과태평 할 수 있다는 거북송배의 무속적인 신앙에서 거북놀이가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거북놀이는 신라 문무왕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문무왕은 외침을 막고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죽어서 용왕이 되었다고 하며 용왕이 된 문무왕은 해상으로 침입해 오는 적은 막을 수 있으나 대륙에서 침입하는 적은 막을 수 없어 수륙양생하는 거북이를 보내 매년 8월 한가위 날 밤에 달이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서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백성들과 함께 음주가무로 즐겁으로써 국민의 단합과 국가의 번영을 기하는 놀이를 행하게 되었다 한다. 일종의 국방체육 형식의 놀이로 실시되었다 한다.

고려 현종께서는 백성의 무병장수와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민정을 살피기 위해 직산골에 머물으셨다가 어렴풋이 잠이 들었는데 500년 묵은 거북이가 나타나 자신을 위해 주면 “모든 잡신을 몰아내고 가뭄과 홍수를 막고 무병장수하여 부락의 안녕과 태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니라”하고 계시해 주고 바닷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기이하게 여긴 현종은 지금의 입장면 구덕리(신타리) 마을에 이르렀을때(온조가 백제

를 건국했다는 위례성 밑이 됨) 그 마을이 마치 거북모양으로 생긴 것을 알고 그 부락에서부터 거북놀이를 했다는 전설로 전해온다.

또한 현재 구덕리(龜德里—新德里)에 살고 계신 심상수(沈相秀, 80세) 옹은 위례산 용샘으로부터 위례산의 명기를 받은 거북이가 이 곳까지 온 것을 발견한 부락 사람들은 심상치 않은 징조라고 생각하고 거북이를 위하여 즐겁게 하기 위해 거북놀이를 시작했다는 전설이 전해 온다고 증언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전파된 거북놀이는 각 마을로 보급되었고 세월이 오래 흐르면서 점차 부락공동의 집단놀리로 발전하여 부락민 전체가 참여하게 된 것이다.

거북놀이를 할 때 거북이는 각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데 어쩌다 들리지 않고 지나치게 되면 그 집 주인은 황급히 달려와 억지로라도 거북놀이패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썼다 한다. 이것은 거북이가 자신의 집을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집안의 액운이 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보면 거북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신격화된 하나의 토속신앙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가가호호 방문하여 놀이를 하면 어느 가정이고간에 즐겁게 거북이를 맞이하여 주며 많은 음식 그리고 곡식(주로 쌀)을 내놓는데 이 때 거두어진 곡식은 마을 공동으로 우물을 파거나 상여를 준비하거나 등 마을기금으로 쓰여졌다 한다.

조선말에 와서는 권세가들이 무자비한 착취로 굶주린 서민의 아이들이 이 거북놀이를 하여 얻은 떡과 음식으로 배고픔을 달랬다는 슬픈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으며 왜정때는 이 놀이가 끊겼다가 1945년 8·15 광복 후에 다시 재생되어 필자(황서규)도 한때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 놀이의 형태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이 놀이는 경기도 여주, 이천, 용인, 광주, 평택 등 경기지방과 충청도의 입장, 직산, 청주, 진천, 아산, 홍성, 전라남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까지 전파되어 실시했다.

입장의 거북놀이와 직산의 거북놀이는 유래가 같이 전해올 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곳으로 거북놀이의 형태나 만들기, 놀이의 순서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농악 상쇠의 덕담이나 고사반이 다른 점이 많다. 이것은 상쇠의 기능이나 또는 그 지방의 환경, 특유의 풍습에 의해 그러한 듯 느껴진다.

2. 거북이 만들기과 놀이 구성

추석때가 되면 오곡이 무르익어 농촌 사람들이 마음이 풍성할 뿐 아니라 즐거운 거북

놀이 준비에 청소년들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추석날 성묘를 마치면 점심먹는 것도 잊은 채 한데 모여 수수밭으로 향한다. 이때쯤이면 수수알은 통통 여물어 고개를 숙였는데 청소년들은 수수나무에 매달려 수수알을 따기에 바쁘다.

수숫잎을 한아름씩 따서 엮어 거북이를 만들고, 수행원들의 몸에 두루기 위해 너도나도 한아름씩 따 수수알을 한데 모아 이영윽기에 바쁘다. 그러다 보면 점심먹을 시간도 잊는다.

1) 거북놀이 인원구성

- ① 농기(農旗) 1명 : 무명바지, 저고리, 짚신, 고깔, 두가지색(청, 홍)의 띠를 두른다.
 - ② 영기(令旗) 2명 : 짚신, 고깔, 등걸잠뱅이, 청·청띠
 - ③ 용기(龍旗) 2명 : 청룡, 황룡, 등걸잠뱅이, 짚신, 3개 색띠, 고깔, 허리띠(청, 홍)
 - ④ 질라래비(길잡이) 1명 : 등걸잠뱅이, 수숫잎으로 만든 우장, 수숫잎 빗자루
 - ⑤ 양반 2명 : 정자관, 백색도포, 수염, 담뱃대(장죽), 부채
 - ⑥ 수행원들 : 주로 소년들이며 각기 수숫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두르고 용수를 만들어 쓴다. 인원이 많을수록 놀이를 한층 즐겁게 할 수 있고 동네 청소년들의 참여의식과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다.
 - ⑦ 거북이 : 거북이의 등은 수숫잎으로 엮어서 부록에 제시한 것과 같이 만들기도 하고 땃방석을 뒤집어쓰는 것으로 대용하기도 한다. 앞·뒤로 각각 한사람씩 들어가 앞사람은 거북이의 머리역할을 하고, 뒷사람은 거북이의 꼬리 역할을 한다.
 - ⑧ 농악대(상쇠 1명) : 부포상모(꽃 3개 부착), 등걸잠뱅이, 3색띠, 짚신
 - ⑨ 농악대(부쇠 1명) : 나비상모, 등걸잠뱅이, 3색띠, 짚신
 - ⑩ 징 2명 : 등걸잠뱅이, 고깔, 등걸잠뱅이, 짚신
 - ⑪ 북 2명 : 패랭이, 3색띠, 등걸잠뱅이, 짚신
 - ⑫ 장고 2명 : 고깔, 3색띠, 등걸잠뱅이, 짚신
 - ⑬ 소고 6명 : 등걸잠뱅이, 3색띠, 짚신, 나비상토(꽃 3개 부착)
 - ⑭ 호적 2명 : 바지저고리, 2색띠, 머리에 수건, 짚신
 - ⑮ 의사와 간호사 각 1명 : 의사와 간호사 복장
- ※ 농악대의 숫자는 많을수록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

2) 거북이 만들기

거북이를 만드는 방법은 일정한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거북이와 흡사하게 형태를 만드는데 두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움직이고 춤을 서서히 몸을 흔들어 추기에 적당하게 하면 된다.

몸체는 땃방석 위에다 수숫잎을 엮어 만들기도 하고 다른 재료(대나무,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거북이의 형태를 꾸미면 될 것이다. 머리는 작고 길쭉한 소쿠리를 사용하면 되겠고, 눈과 코를 적당히 표시한다. 꼬리는 대나무에 수숫잎을 비껴서 매어 머리, 몸통, 꼬리가 각각 움직일 수 있으면 될 것이다.

거북이의 머리가 움직일 수 있고 아래턱은 송판으로 별도 제작하여 움직일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부록에 제시된 모양으로 만들면 된다.

3) 거북놀이의 실제

농기, 영기, 용기 등 기수를 선두로 질라래비가 거북이를 이끌고 그 뒤에 양반, 수행인 등 수십명이 뒤를 따르며 또 그 뒤에 농악이 따르고 구경꾼들이 뒤를 따라 장관을 이룬다.

이 대열은 마을 입구 넓은 장소에서 길놀이가 시작된다.

길놀이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거북놀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동시에 마을 수호신인 장승 앞에 도착하면 마을의 안녕과 생업의 번영을 비는 놀이를 한바탕 벌인다.

이때 농악은 길군악으로 행진을 하고 굿거리 장단으로 놀이굿을 한다. 직산면의 소재지 군서리와 군동리는 무려 500여호의 집촌으로서 성황당이 마을 입구 동서남북으로 있었으니 마을의 수호신을 보호하는 무속적인 신앙심은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장승굿

마을 입구 장승앞에 거북놀이꾼이 도착하면 거북이를 가운데 두고 농악대와 일동은 반원형으로 자연스럽게 서고 농악에 맞춰 춤을 추며 놀이를 한다.

이어서 농악이 인사 가락을 치면 일동이 거북이에게 인사를 하고 거북의 둘레를 돌다가 상쇠가 이끄는 대로 길을 가면서 행진(길군악)을 한다.

(2) 우물굿(샘굿, 용왕굿)

마을 공동우물에 도착하며 상쇠의 신호로 농악이 그치고 샘굿이 시작된다.

상쇠 : 아! 우물고사를 드리는데 사람들은 물을 먹어야 하는 법

일동 : 아! 그렇고 말구요.

상쇠 : 용왕님, 용왕님, 사해용왕 광년왕, 남해용왕 광덕왕, 서해용왕 광진왕, 북해용왕 광태왕

일동 : 예(큰소리로 대답)

상쇠 : 7년 대한 가뭄에도 물이나 팔팔 내주오.

9년 장마 홍수에도 물이나 맑게 해주오.

일동 : 그렇구 말구요.

상쇠 : 동에는 청연수, 서에는 백연수, 남에는 정연수, 북에는 흑연수, 중앙에는 황연수. 이 물로 밥을 지으면 1년 열두달 과년 열숙달 3백65일 내내 갈지라도 근심 걱정 삼재팔란 하나없이 천지 점지하여 주소서.

상쇠의 가락에 맞추어 소고는 제자리에서 뛰고 주위 사람들은 「얼씨구 좋다」 「절씨구」 등 말로 흥을 돋구며 춤을 추다가 농악이 끝나면

상쇠 : 뚫어라, 뚫어라, 물구멍만 뚫어라. 물주시오, 물주시오, 사해 물주시오 한다.

거북이는 장단에 맞추어 머리를 흔들며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농악이 그치면 우물을 향해 모두 세 번 절을 한다.

우물에 절을 하고 일동은 어느 집 대문 앞으로 간다. 대문 앞에 서면 그때 질라래비는 덕담을 늘어 놓는다.

(3) 수문장굿(문굿)

자! 천석 거북이 들어갑니다.

만석 거북이 들어갑니다.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오고

- 開門萬福來 -

땅을 쓸면 황금이 쏟아져 나오니

- 掃地萬金出 -

대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하면 주인은 빨리 나와 대문을 활짝 열어준다.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상쇠는 한바탕 마당굿을 친다.

이때 거북은 마당을 뒹뒹뒹 한바퀴 돌면서 비틀비틀 하다가 쓰러진다.

• 질라래비 : 쉬~ 하고 손을 저어 춤과 농악을 중단시킨다.

조용해진 후 주인을 향하여 “이 거북이가 동해를 건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곳까지

오느라고 괴로해서 병이 났나 봅니다.”

- 질라래비 : (거북이의 머리, 몸통 등을 만져보고 흔들어 보다가 무릎을 치며) 이 거북이가 피를 부리는구나. 아! 여보게
- 일동 : 예(큰 소리로)
- 질라래비 : 이 거북이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아.
- 일동 : 침을 주어야지.
- 질라래비 : 뭐 침을 주어? 그럼 무슨 침을 줄까?
- 어느 한 대원 : 대침을 주어야지.
- 질라래비 : 뭐 동침이라구?
- 대원 : 대침!
- 질라래비 : 은침이라구?
- 대원 : 대침이야, 대침!
- 질라래비 : 금침?
- 일동 : 대침!(크게)
- 질라래비 : 아~ 대침. 대침을 주라구.

가지고 있던 수숫잎 비 손잡이로 거북이의 궁둥이 부분을 힘차게 찌르면 거북이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움직이며 머리를 길게 빼었다 넣었다 하며 사람들을 이리 저리 쳐다보며 물으려고 하는 듯 다가선다.

여러 대원들은 춤을 추며 달려드는 거북이를 향해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백석거북 놀아라.
천석거북 놀아라.
만량거북 놀아라.
즐겁게 받으시고,
마음답게 받으시고,
형그럽게 받으시고,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실컷 놀고 놀아보자.
형그럽게 놀아보자.
천금 만냥 빌어주소.

우리 거북님 빌어주소.

모두가 거북님의 덕택일세.

나라님의 만수무강

백성들의 만사태평

이때에는 여의대통

거북님아…… 거북님아……”

(이때 거북이는 슬금슬금 거닐면서 기쁜 표정으로 거닌다)라고 늘어 놓고 다시 타이르는 말을 잇는다.

“거북아 거북아 이때 문전에 들어 왔으니

마당돌고 울안돌고

조선국 울릉도 깊고 깊은 물에

둥이 둥실 띄울지어다.”

하며 마당을 한바퀴 돌아 문턱에서 다시 큰절을 시킨 다음 부엌으로 들어가 일동은

“누르세 누르세, 조왕지신 누르세” 외치며 상쇠는 조왕굿을 한다.

(4) 조왕굿

조왕님 조왕님 3만 6천 성주대신

8만 4천 제대조왕

3불제석 산신님네

산신국사 토지지신

조상부모 영혼님네

조왕님, 조왕님

“검은 술에 화식을 익혀 먹을 때도 아무 거침없이 수복다남 부귀영화 내려주소서”라는 덕담을 한다. 그러면서 부엌바닥을 밟다가 가락에 맞춰서 계속해서

“누르세 누르세 조왕지신 누르세”

하면서 상쇠의 앞장에 의해 장독대 옆에 있는 터주가리(결실이 좋은 벼씨를 담은 항아리를 짚으로 묶어서 띄워 놓은 것)로 다가선다.

그런 후 거북놀이패는 터주가리를 가운데 두고 빙 둘러서서 상쇠의 가락에 맞춰 춤을 춘다. 상쇠의 신호로 농악을 멈추고

(5) 터주굿

• 상쇠 : “누르세 누르세
터주지신 누르세
누르세 누르세
터주지신 누르세”
질레비는 수숫잎 비를 들고 집뒗똥을 싹싹 쓸고 다니고 거북이는 그 뒤를 따라 다닌다.
놀이꾼들은 농악 가락에 맞춰 터주가리 주위를 돌면서
“잡귀 잡신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땅을 밟고 상쇠는 이어
“말을 먹이면 용마가 되고,
소를 먹이면 억대우가 되고,
닭을 먹이며 봉황이 되고,
개를 먹이면 마구할미
청 썩사리 네눈박이 되어,
이집 문간 중방에 턱을 걸고
오시는 손님 받아 들이고,
가시는 손님 불러 들이고,
컹컹짖는 소리 이근방 만전복록
이택으로 무럭무럭
떠들어 오게 하여 주소서”하며
“제발 제발 좋은 일로 잡귀 잡신들 물러가라” 외치면서 터를 밟는다.
그런 다음 세 번 절을 하고 대청으로 간다.

(6) 대청굿

집을 지켜주는 신이 대청의 대들보 위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돛자리를 펴놓고 상을
놓고 상위에는 쌀이 가득찬 모말이나 양푼(그릇)을 올려 놓고 밥그릇에도 쌀을 가득 담
아 수저에 흰실타래를 감아서 꽃은 후 큰 쌀그릇에 올려놓는다. 또 북어 한 마리를 상위
에 올려 놓는다.

그리고 안마당에서 놀이가 한창 진행되다가 상쇠가 팽과리를 멈춘다.

- 상쇠 : 아! 여보게.
- 일동 : 예(큰소리로)

• 상쇠 : 우리가 이렇게 놀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고사를 드려야지

• 일동 : 아 그렇구 말구요.

상쇠가 차려놓은 고사상 앞에서 고사창을 시작한다. 그러면 북이나 장구는 옆에서 장
단을 도와주고 기타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춘다. 상쇠는 계속해서 고사를 드린다.

전라도라 북악산에 들어가서
재목을 장만하여 두만강에 배를 서너척 불러 띄워
재목 싣고 슬렁슬렁 노를 저어라.
뗏을 올려라 더나오니,
천안하고도 직사네 당도하니
어디 집을 한 채 지어 볼까?
목수를 서넛 불러
어디 한번 기초를 튼튼하게 마련하세
한손에는 자를 들고
한손에는 먹통 들고 재목을 말라 보세.
기둥일랑 여기 놓고
석가랴랑 저기 좋고
마른개질 다했으니
어디 한번 세워보세.
매를 들어 사개통을 때려
튼튼하게 세워 집은 마련되었구나
안세간을 바라보니,
각장 장판 소라반자
수채구녕은 홀린 쌀
굴뚝안에는 굴때장군
돼지업도 드나들고
쪽재비업도 드나들 드니,
○씨 가족에 복을 받고 명을 빌어
자손만대 잘 살으니,
농사도 지어볼까?
입짝 날개도 툭툭치니

저리 천석 쏟아지고
서작 날개로 툭타치니
이리 천석 쏟아지고,
천석 만석 쌓아놓고
자손만대 잘 살거니 걱정마라.
잘못된 건 무릎 밑이다 접어두고
잘된일은 영광의 만세로다.

정월에 드는 액은 이월 영등 막아주고,
이월에 드는 액은 삼월이라 삼짓날 제비 맹맥의로 막아주고,
삼월에 드는 액은 사월 초파일 석가여래 관등놀이로 막아내고,
사월에 드는 액은 오월 단오 그네타는 그네줄로 막아내고,
오월에 드는 액은 유월이라 유두일 밀잼병이로 막아주고,
유월에 드는 액은 칠월이라 칠석날 견우직녀 상봉시에 오작교 다리놓던 가치머리로 막아주고,
칠월에 드는 액은 팔월이라 한가위 햅쌀 송편 많이 빚어 이웃집에 나눠주던 쟁반굽으로 막아주고,
팔월이라 드는 액은 구월이라 구구절에 국화농주 많이 빚어 이웃집에 모셔다가 사당 차리로 막아주고,
구월이라 드는 액은 시월이라 상달인데 좋고 좋은 날 가리어서 시루떡으로 막아주고,
시월에 드는 액은 동짓달이라 돛짓날 동짓팔죽 썰이 쭈어 양손에 죽 퍼들고 중문 대문 드나들며 이리 저리 끼었으니 오는 잠귀 가는 잠귀 뜨거운 팔죽 뒤집어 쓰고 앓다 뜨겁다 도망가자,
동짓달에 드는 액은 선달의 그믐날 흰 떡가래로 막아주고 선달에 드는 액은 내년 정월 열나흘날 오곡밥을 정히 지어 방망이 맞은 북어대가리 백지 한 장에 둘둘 말아 막걸리 한잔 끼얹은 채로 원강에 소멸하니 만사가 대길이요 백사가 여일하고 마음가짐 잡순대로 소원성취 발원이라.
팔방 동루지신 액운 근심걱정 없게 축원하니
동해 용왕 철용이니 수지 용천군
능설 목욕심 목욕조사 범동 범설은 요해 조예 하리라.

설아 석신아 설아 목신아
전차 대신인데 음유국궁 율령사과
있는 애기는 수명장수
없는 애기는 생남하고
칠성님께 비나이니
삼만육천 성주대신
이집가운 돌보시고
지성님도 돌보시어
만복 영광 누리소서.

방정맞다 조나니 콩
혼자 먹었다 돼지철
제비집에는 초록집이
금동아줄 물어다가
말능산에 집을 짓고
집아래를 내려다 보니
빨래 각신 빨래하고,
도토리는 나무가고,
지줄랑은 집을 보고,
옹달 박달 오라버니
거짓 말일랑은 접어두고,
분명하게 말해 주어
이집 가운 영광에 꽃이 피고,
창문에 햇살이 밝게 비치니
분명하게 영광이 왔노니라.
(이상의 고사 덕담은 직산지방의 것으로 주은종(직산 석곡리)씨의 구술을 채록한 것임)
이때 집주인은 고사가 끝날 때까지 정성을 다해 절을 하며 복을 빈다.
거북이는 마당 주위를 어슬렁 어슬렁 기어다니며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의 염원을 알아들은 듯 한다.
놀이꾼 일행과 구경꾼들도 고사지내는 말을 귀담아 들으면 집안이 번성하기를 함께

빌어준다.

고사가 끝나면 상쇠는 세 번 절을 한 후 농악을 친다. 이어서 거북놀이 한패와 구경꾼들의 춤판이 벌어진다.

얼마 후 거북이가 갑자기 푹 쓰러진다.

• 질라래비 : (허둥지둥 어찌할 줄 몰라 하다가) “거북이가 쓰러졌다! 거북이가!”하고 외친다.

• 일동 : 무엇이! 거북이가 쓰러져? 놀이꾼들과 구경꾼들이 놀라서 거북이 주위로 몰려든다.

질라래비는 거북이의 머리도 만져보고 등도 만져보며 이리 저리 황급히 살핀다.

거북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배가 고프다는 시늉을 해 보이며 입을 짹짹 벌리고 고개를 넣었다 빼었다 한다.

• 질라래비 : (고개를 끄덕이고는 고사상 옆에 주인에게로 가서) 우리 거북이가 압록강을 건너서 백두산을 넘어 이곳까지 오느라 배가 고파서 쓰러졌으니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한다.

• 주인 : (미리 준비해온 음식상을 들고 오면서) 먹을 것은 많이 있으니 배불리 드시고 우리집 복이나 많이 빌어 주십시오.(떡과 술, 과일 등을 수북이 담아 내어준다)

질라래비는 음식을 받고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거북이에게로 다가가서 익살을 떨며 주위를 돈다.

그러는 동안 주인은 놀이꾼 대원과 구경꾼들에게도 음식상을 차려준다.

이때 농악은 계속 흥겨운 가락을 쳐준다.

• 질라래비 : 거북아, 이젠 먹을 것이 나왔으니 이 음식을 먹고 춤이나 한 번 추고 가자.

거북이는 알았다는 시늉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상쇠는 술잔을 들어 거북이의 등에 세 번 부은 후 첫잔을 마신다. 질라래비는 송편을 들어 거북이의 입에 넣어주고 술도 따라준다.

놀이꾼들도 구경꾼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으며 잠시 휴식이 이루어진다.

• 질라래비 : “거북아, 이젠 음식도 배불리 먹었으니 춤이나 한바탕 추고 가자.”

거북이는 머리를 끄덕이며 일어선다. 어슬렁 어슬렁 걸어다니며 앉았다 일어섰다 몸운동도 해보고, 입도 벌렸다 오므렸다 해 본다.

상쇠가 더덜덜덜덜덜... 하고 팽가리를 울린다.

거북이가 동쪽을 향해 넘죽 넘죽 네 번 절을 한다. 그런 후에 거북이는 이리저리 뛰면서 놀이판을 정리한다.

긴 목을 빼었다 넣었다 하고 입도 짹짹 벌리고 관객을 물려고 덤비듯 머리를 밀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벌어질 춤판을 위해 장내를 정리하려는 시늉이다.

주인은 음식상을 치우고 법고는 제자리에서 모듬으로 뛰면서 농악을 친다. 거북놀이의 대형은 원을 이루고 중앙에는 질라래비, 거북이, 양반 등이 한데 어울려 논다.

법고는 소고춤을 추며 거북이의 둘레를 돌고 놀이꾼들은 갖가지 춤을 춘다.

놀이가 계속되는 동안 수행원들은 집주인으로부터 고사에 내놓은 곡식, 돈을 받아들고 익살을 부리고, 구경꾼들도 “얼씨구 좋다”하고 소리치며 함께 어울려 계속 춤을 춘다.

한참 놀다가 농악대원이 일렬로 서서 광고가락을 치고 거북이, 질라래비, 양반 수행원 등을 중앙에서 춤을 추고, 소고는 그 둘레를 돌며 구경꾼들과 한데 어울려 춤을 추면서 흥겨움이 절정에 달한다.

한참 놀다가 거북이가 먼저 어슬렁 어슬렁 대문 밖으로 나가고 놀이꾼 일행은 그 뒤를 따라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백석 거북아 놀아라

천석 거북아 놀아라”를 합창하면서 다음 집으로 복을 빌어주기 위해 서서히 떠난다.

이렇게 해서 밤은 깊도록 집집마다 돌며 복을 빌어주고 어울려 즐긴다.



봉양리 장승제 및 산신제

아 우 내 문 화 원

1. 城南面 鳳陽里 한절우 장승제

충남 천안 성남면 소재지인 신사리에서 수신쪽으로 가다가 우측의 현암교를 건너서 들어가면 봉양2리가 나오고 그곳을 지나면 좌측으로는 밤실로 들어가게 되고 우측으로 계속 들어가면 한절우 마을이 나온다. 마을의 입구에는 거목이 있어 숲을 만들고 있다. 어리미제산을 끼고 형성된 한절우 마을은 산 밑에 30여호의 가옥이 모여있는 그림같은 동네다. 마을 입구를 들어서면 우측의 시멘트 전신주에 「西方白帝大將軍」이라 쓴 암장승 2기가 금줄에 묶여 서 있고 5보 정도 더 나아가면 좌측에 「東方靑帝大將軍」이라고 가슴에 묵서한 숫장승 3기가 서있다. 암장승의 옆에는 숫대(오리)가 조금 떨어져 서 있으며 몇기의 썩은 장승이 쓰러져 수풀더미 속에 묻혀 있다.

숫장승도 금년에 새로 깎아서 세운 1기가 형상이 분명할뿐 나머지 2기는 장승을 구별하기 힘들다. 이 한절우 마을의 장승제는 250년정도 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옛날에 아랫동네(봉양2구)에 풍년이 들면 한절우가 흉년이 들고 한절우가 풍년이 들면 봉양2구가 흉년이 들어서 그것을 막기위해 입구에 장승을 세우고 제를 올리게 되었다고 전한다.

정월이 되면 마을의 주민들이 모여서 생기복덕을 가려서 제주를 뽑는다. 제주를 뽑을 때는 부인도 함께 생기복덕을 보아서 부정이 없고 정결하며 나이가 50세 이상된 부인을 정하는데 이는 제물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며 나이가 많은 부인을 뽑는 것은 달거리를 치루지 않는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이다.

제주가 정해지면 축관과 음식을 나눌 유사를 1명 선정해 세운다. 제일 일주일 전에 왼 새끼로 꼬은 금줄을 장승을 세우는 나무에 세바퀴씩을 감고 동리의 입구와 제관의 집



길놀이 모습



질라레비의 열연 모습

문전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퍼서 부정한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고 제관들은 장승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일 목욕하며 술, 담배도 금하며 근신한다.

이 샘물을 퍼서 제에 사용할 술도 담군다. 열나흘날 아침이 되면 동네의 젊은이들이 산에 올라 장승과 솟대를 깎아세울 나무를 베어 오는데 장승은 오리나무로 오리는 소나무로 깎는다. 열나흘 밤 8시경이 되면 제관들과 남자들 중에서 부정이 없는 사람만 제에 참석하는데 제물은 14일 아침 일찍 장에 나가서 사며 흥정을 하지 않는다.

제물은 삼색실과와 포와 떡 돼지머리를 쓰고, 제는 강신→배례→헌작→고축→배례→송신의 순으로 진행되며 가구수마다 소지를 한 장씩 올리기 때문에 제에 소요되는 시간은 2~3시간 정도이다.

제가 끝나면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음복하고 주민들은 제주의 집에 여유있게 마련한 음식으로 잔치를 한다. 한절우에서는 15년전 쯤에 한번 제를 중단하였으며 그 해에 마을의 젊은이가 모심기철에 두명이나 죽어서 그해 칠월 칠석에 제사를 올리고 난 후 매년 거르지 않고 지낸다.

2. 성남면 봉양리 밤실마을 산신제

밤실마을의 산신제는 음력 9월 그믐과 10월 초에 택일을 해서 지낸다. 47호가 모여사는 밤실마을에서는 9월 그믐께가 되면 마을의 유지들이 모여서 택일을 하는데 부정이 들면 연기를 한다. 제를 지낼 제관은 내외의 생기복덕을 가려서 뽑는데 제관 1명, 당주1명과 소염이라고 하여 돼지를 잡고 심부름을 할 사람을 3명정도 선정한다.

당주와 소염은 내외가 함께 제에 참석하며 제수비용은 마을의 기금으로 이용하고 통돼지는 2~3년에 한번씩 사용하는데 그때는 집집마다 염출한다. 제물은 삼색실과와 북어, 탕, 떡, 술을 쓴다. 밤실마을에서는 추가로 되어 있던 산신각을 기와로 엮었는데 80년에 수해로 지붕이 내려 앉아서 스텔트를 엮었다. 1칸의 산제당 안에는 그릇과 술이 있다. 이 마을에서는 제일 3일전서부터 제관이 누구라는 것을 절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가 제에 임하는데 이는 부정을 막기 위함이다. 산신각 안에는 제물만 차려놓고 제는 산신각 위의 산제당에서 지낸다. 제가 끝나고 나면 세대주의 이름을 소지에 적어서 한명 한명 호명을 해가면서 올려준다. 밤나무가 많아서 밤실이라는 이 마을은 현재 47호가 모여 살고 있으며 아직도 산신제를 엄하게 지내고 있다.

천안삼거리 II

천 안 문 화 원

천안삼거리는 삼남으로 통하는 대로이다. 길가에는 주막이 즐비하여 지나는 길손이 쉬어가는 곳이다.

주점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곱게 화장하고 허랑한 남정네를 유혹하였다. 때는 어느 때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삼거리에는 능소라는 기생이 있었다. 능소는 비록 기생의 몸이었으나 지조가 굳어 몸을 곱게 지켜 왔다. 능소는 뜻을 같이 하는 고결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몸을 맡기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능소의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는 삼남의 길손들 입과 입에서 소문으로 퍼져 널리 알려졌다. 그래서 별일도 없는 사람이 능소를 한번 보려고 삼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봉노에 묵어가며 하릴없이 능소를 달래기도 하였다.

이때 전라도에 사는 박현수라는 선비가 개나리붓집을 지고 한양 과거길에 올랐다. 박현수의 개나리 붓집에는 사서삼경의 책과 쌀가루 한봉지가 들어 있다.

박현수 선비는 편모슬하에서 가난하게 살아온 선비지만 머리가 명석하고 열심히 학문을 닦은 처지로 전라도에서 초시(初時)에 급제한 후 서울로 과거를 치르러 가는 길이었다.

박현수 선비는 노자돈이 넉넉한 처지가 아니라 서둘러 길을 재촉하였다. 선비의 얼굴은 초췌하였지만 총명한 눈동자와 준수한 얼굴이 큰 재목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박현수 선비는 여러날을 걸어 천안 삼거리에 이르렀다. 거리를 둘러보니 눈에 띄이는 주막이 있었다. 선비는 가게안에 들어와 마루에 걸터앉아 아픈 다리를 쉬었다. 한참 쉬다 다음 주막에 대고 “이 주막에도 봉노가 있소”하고 물었다. 옛날에는 주막과 봉노(여인숙)를 겸하는게 보통이다. 중국에서도 여관을 찬관(饌館)이라 부르는 이유도 주막과 봉

노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박선비의 묻는 소리에 능소가 안에서 나오며 낭랑한 목소리로 “예. 이 주막도 봉노가 있습니다”하며 박선비를 아래 위로 훑어 보았다. 주막거리에서 잔뼈가 굵어온 능소지만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얼굴이 잘 생겼다가 보다는 너무도 넉넉하고 총명한 얼굴이 능소의 눈을 황홀하게 하였다. 능소가 항상 그려보던 남자가 바로 눈 앞에 서 있는 것이다.

한편 박현수 선비가 능소를 바라보니 요란하게 화장을 한 것도 아니요, 비단으로 칭칭 감은 것도 아닌데 마음을 빨아들이는 정숙한 모습에 그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박현수는 이상적 배필로 그려보았던 여인의 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능소는 손님이 미처 주문을 할 사이도 없이 부엌에 들어가 주안상을 차려 내왔다. 능소가 잔에 맑은 술을 가득 부어 “선비님 목을 축이십시오”하고 권하였다. 박선비는 얼른 술잔을 받지 않으면서 “내게 술값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술을 주시면 어찌하오” 하며 사양하였다.

능소는 “내가 보건대 선비님은 큰 재목이 되실 분입니다. 지금 술값이 없으시면 후일 좋은 날이 오면 그때 주십시오”하며 술을 다시 권하였다.

박선비는 그날 봉노에서 하루를 쉬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노독이 심하여 걸을 수가 없었다. 박선비는 하는 수 없이 며칠 더 유숙하였다.

그러는 동안 박선비와 능소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 깊은 인연을 맺게 되고 백년가약을 약속하였다.

박선비는 그 후 서울로 출발하였다. 꼭 장원급제하여 능소를 맞이하러 오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길을 떠났다. 박선비는 서울에 가서 과거를 보게 되었다. 박선비는 과거명지에 답안을 일필휘지하여 시관에게 제출하였다.

시관이 전 응시생의 시권(試卷 : 답안지)을 거두어 채점에 들어갔다. 박선비의 시권을 둘러본 시관들이 모두 감복하였다. 방을 붙이는 날 박선비가 나가보니 “장원급제 박현수”라 써여 있었다. 박선비는 꿈인가 생시인가 가늠이 가지 않아 살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눈을 비벼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원급제 박현수는 틀림 없었다.

박현수 선비는 사모관대에 어사화를 꽃고 임금님께 사은숙배를 드린 후 삼남 암행어사를 제수받아 남으로 향하였다.

능소는 박선비를 보낸 후 소식이 없으니 궁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그러나 박선비가 신의를 저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 밖이 요란하더니 머리에 어사화를 꽃은 박선비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능소는 반가운 마음에 가슴이 떨렸다. 박선비는 능소의 허리를 두 팔로 안으며 “숙부인 마님 평안 하셨소?” 하며 위로 하였다.

이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천안삼거리 홍타령을 불렀다. 박현수 선비도 능소도 함께 홍타령을 불렀다.

이때 부른 천안삼거리 홍타령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모두 흥겹게 부르게 되었다. 천안삼거리 홍타령은 이렇게 탄생되어 지금도 우리 민족의 민요로 애창되고 있다.



미륵 모퉁이

대 천 문 화 원

보령군 웅천면과 주산면 경계 국도변에 석불이 하나 서 있는데, 석불이 서 있는 이 모퉁이를 미륵 모퉁이라고 한다.

옛날 고려시대 개경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한 선비가 있었다. 그는 벼슬길에 오르는 것보다 책읽기를 좋아해 항상 책을 읽고 있었고, 비록 가난하였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장 잘 접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경을 받았었다. 하루는 우연한 기회에 산에 올랐다가 마침 지나가는 요란스러운 행차를 보고 말하기를

“허허, 이제 마지막 행차로군”

하고 꾸념 비슷하게 한 마디를 했다. 그와 비슷한 처지로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마침 산에 올랐다가, 이 광경을 본 또 한 선비가 그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요. 지금 행차는 마침 큰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 처음 입궐하는 행차인데 마지막 행차라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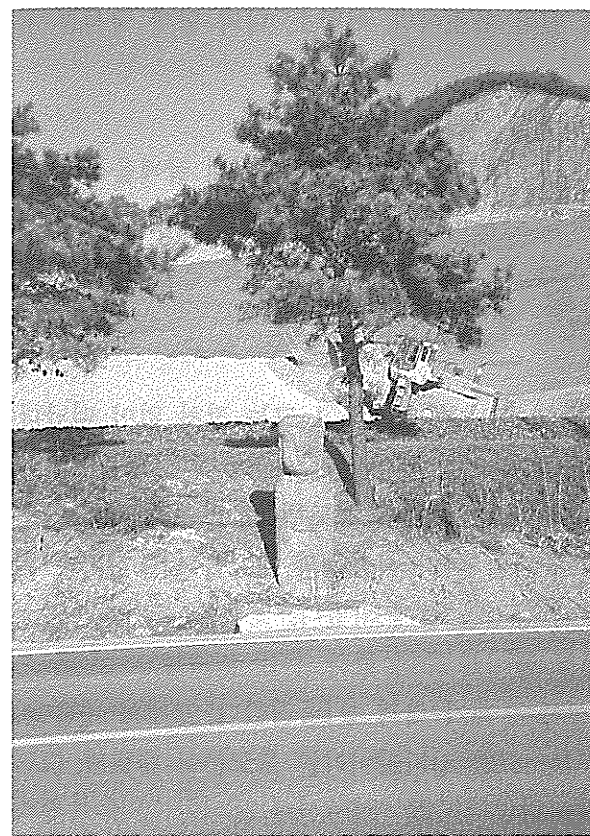
그러나 그는 오히려 빙그레 웃으면서

“꼬리가 길지 않소. 저 대감은 꼬리가 길면 꼬리에게 물려 물러갈 대감이요.”

라고 말하였다. 곁에 있던 선비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선은 행차 구경에 넋을 잃고 있는데, 그는 산을 내려와 집으로 들어 왔다. 그가 집에 들어오자 방안에는 그의 친구인 한 무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무관은 그가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아 오래 기다렸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번 궁중 호위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장수할건가 좀 물어 보러 왔네”

하고 말하여 혼자 싱글벙글 거드름을 떨었다. 그 친구 말을 들은 그는 친구의 얼굴을



듣는 등 마는 등 대문을 열고 나가 버렸다.

그날 친구를 보내놓고 그는 밤늦도록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삼경이 지났을 때였다. 바깥에서 요란스럽게 말이 달려가고 군사들의 달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알아보니 새로 부임한 대감이 칼에 맞아 죽고 친구인 무관도 방패가 되어 싸우다가 죽었다는 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허허.....”

하고 허탈한 웃음을 웃고는 잠을 청했다. 그가 잠을 자고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있을 때였다.

그는 그때서야 조반상을 받고 막 술갈을 들었는데 행차라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요란스럽게 열리더니 여러 대감들에 둘러싸여 한 대감이 들어왔다. 그가 마루에 나서서 마중하며 바라본 즉 그 대감은 며칠 전에 산에서 행차를 구경하던 때 만났던 사람이었다.

그는 한번에 그 얼굴을 살펴보고 조용히 앉았다.

가만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거 웬일인가! 오늘 입궐하면 저녁 때 죽어서 나올 팔자였다. 그러나 친구에게 차마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자네는 오라는데 가지 않아야 여생을 누릴텐데”

하고 여운을 남기자 그 친구는 별떡 일어나서

“그래 맞아, 오라는 곳은 아니야. 그 자들이 내 힘을 부러먹으려는 거지 그래, 됐네.”

하고 문을 차고 나갔다. 그는 친구가 입궐하는 것을 만류하느라고

“이 사람이, 그게 아니야 이 사람아.”

하고 뒤따랐지만 그는 호탕한 웃음으로 얼버무리며 그의 말을

나 이번 국사를 맡게 되어 의논할 것이 있어 왔소이다. 어쨌든, 나와 함께 국사를 볼 생각은 없소?”

하고 대감이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태연하게 발을 꼬고 앉더니

“국사야 남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글썽을시다. 내가 70까지는 편히 살기 위해서 그만 사양하겠소이다.”

하고 돌아앉았다. 그러자 그 대감은 화가 난 듯

“어디 벼슬길에 오르지 않나 두고 봅시다.”

라고 엄포를 놓으며 돌아가 버렸다.

그 대감이 물러가자 그는 바로 붓집을 쥘다. 아내를 앞세우고 그는 정처 없이 떠났다. 그가 천안 삼거리로 지났을 때 개경에서 새로 부임한 대감이 급사하였다는 소문이였다. 그는 다시 길을 재촉하여 충청도 깊숙이 들어왔다. 그는 충청도 남쪽 땅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사람도 사귄 겹 정자나무 아래로 나와 여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의 지혜로운 안목을 알아 찬 이곳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 마을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를 풀이해 주곤 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말대로 모든 문제가 척척 잘 풀려갔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아주 신처럼 따를 때 개경에서는 그를 잡아들이라는 포고문이 내려졌다. 그래서 포리들은 이곳까지 뒤졌다. 그러나 그는 없었다. 그는 성주산에 들어가 몸을 숨겼다. 그 후 늙어서 죽었다. 그가 죽자 그가 살던 집터에 초막은 없어지고 하룻밤 사이에 미륵이 솟아올랐다.

미륵이 솟아오르자 이곳 사람들은 이 미륵이야말로 옛날 우리를 보살펴준 미륵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생시에 살았을 때처럼 따랐다. 미륵에 소원을 빌면 또한 척척 풀려 나갔다. 몸에 신병이 있는 사람이 미륵에 빌면 신병이 바로 나았다. 눈먼 봉사가 미륵 눈알을 파다가 약을 해 마시고 눈을 뗐다. 그래서 지금 미륵은 눈알이 없으며 움푹 파지게 되었다 한다.

웅천 땅에서 최고의 점장으로 통하는 미륵 모퉁이 한 선비의 얘기가 어린 미륵은, 그래서 서민들의 우상이 되었다 한다.

서산마애삼존불상

서 산 문 화 원

서산마애삼존불상(국보 84호)은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에 있는 보원사지 입구 좌측 가야산록의 고란사 왼쪽에 있는 큰 바위 동남면에 조각되어 있다.

특히 이 불상은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미소짓는 모습이 각기 달라서 ‘백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마애삼존불은 백제인의 온화하면서도 낭만적인 기질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빛을 받을 때만 가슴에 와 닿는 미소를 대할 수 있어 자연조명과의 조화에 의한 진가를 보이도록 한 백제인의 슬기가 돋보인다.

연화대좌위에 서있는 당당한 체구의 석가여래입상은 머리 뒤의 보주 미간의 백호공, 초생달 같은 눈썹, 우뚝 솟은 코에 미소 짓는 그 입술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친근감을 자아 내게 한다. 두 어깨에 걸친 옷자락은 양팔에 걸쳐 평행호선으로 주름져 있어 입체감을 느끼게 하며 생동감을 주고 있다.

이 마애삼존불은 6세기 말, 백제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백제 불상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중앙의 석가여래입상은, 특히 반원형의 눈썹, 은행모양으로 뜬 눈, 얇고 넓은 코, 반쯤 벌린 입 등 전체 얼굴 윤곽이 둥글고 풍만해 백제 특유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인상적이다.

왼쪽 제화갈라보살은 머리에 높은 3산관을 쓰고 그 좌우에 장식을 드리웠다. 얼굴모양이 본존에 비해 약간 긴편이며 미소를 띠고 있는데 실눈에 원반형의 입을 약간 벌리고 있다. 목에는 짧은 목걸이를 걸었고 두 손은 가슴앞에서 오른손을 위로 한 채 보주를 잡고 있다. 상체는 벗은 상태이고 발밑에는 이중의 복련을 양각한 좌대가 있으며 머리 뒤에는 보주형의 광배가 있는데 원안에 연꽃 장식만 있을 뿐 불꽃 무늬는 없다.

오른쪽의 미륵보살은 통례에서 벗어난 배치로써 팔부분이 크게 파손됐으나 원형 파악



은 가능하다. 벗은 상반신에는 목에 간단한 목걸이가 있을 뿐이다. 머리에는 높은 관을 썼고 여래나 보살에 비해 목이 긴 편이다. 왼발을 늘어 드리고 오른 발은 왼쪽무릎 위에 얹었으며 왼 손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광배는 우협시보살과 같은 형태이다.

마애삼존불은 양식상의 이례적인 작품으로 중국 남북조 말기인 제주양식을 강하게 느낄 수 있으며 서해안에 가까운 지리적 조건은 마애불의 전래과정을 살피는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육계와 소발 그리고 뜨고 있는 두 눈이 금동불과 다르다. 우리나라

에서 발견된 많은 마애삼존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걸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주변은 산세가 험할 뿐만 아니라 각종 수목이 우거지고 습도가 높은 토양이며 대부분 암석으로 형성되어 바위틈에서 붙어 자생하는 고란초를 볼 수 있다. 고란초는 고사리과에 속하는 식물로 절벽 바위 틈에 나는 상록 양치 식물이며 자갈색의 선형인편에 싸인 뿌리가 옆으로 뻗는다.

국가지정문화재 제218호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논 산 문 화 원

지정번호 : 보물 제218호

소재지 : 논산시 관촉동 254

규모 : 높이 18.12m, 둘레 9.9m

시대 : 고려시대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논산시 관촉동에 있는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반야산 중턱인 관촉사 경내에 있다. 서기 968년(고려 광종 19년)공사를 시작하여 38년 뒤인 서기 1006년(목종9년)에 완성한 이 석상은 관촉사 경내에 동남방을 향하여 서 있으며 신장 18.12m, 둘레 9.9m, 귀의 길이 1.8m, 입 1.06m, 깃의 높이 2.43m이다. 이 거대한 불상은 우리나라 최대의 석불로 손꼽히고 있다.

이 불상앞에는 석등과 석탑이 차례로 서 있고 면상, 수족 등에 실감나는 조각수법을 볼 수 있어서 보물 제218호(1963. 1. 21지정)로 지정되어 있고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입상으로 명칭하고 있으며 은진미륵이라 부르기도 한다.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전설

고려 광종때 어느해 봄이었다. 사제촌(沙第村)에 사는 한 부인이 어느날 반야산에 나물을 뜯으러 갔다. 한참동안 나물을 뜯고 있는데 어디서인지 「응애 응애」하며 어린애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인은 「이런 산중에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리다니」하며 어린애 울



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찾아가 보았다. 그 울음소리는 가까이 갈수록 더욱 또렷하고 신기하게만 들려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어린아기는 보이지 않고 큰돌 하나가 땅에서 솟아오르면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부인은 너무 놀라 곧장 집으로 돌아와 사위에게 「여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큰바위가 땅속으로 솟아오르면서 아기울음 소리를 내니 이것은 기이한 일이니 빨리 관가에게 알리게나」 하였다. 사위는 관가에 찾아가 이 사실을 상세히 보고하여 관가에서는 당에게까지 상주하였다. 그때 광종대왕은 여러 신하들을 조정에 불러 의논을 했다.

왕은 「이것은 필연코 불상을 만들어 세우라는 징조로 하늘이 보내신 것이니 혜명대사는 석불을 조성토록 하여라」하고 령을 내렸다.

혜명대사는 이름있는 석공 수백명을 데리고 바위가 솟아 오르는 반야산으로 찾아갔다. 그리고 연산에서 적당한 돌을 천여명의 인부를 시켜 운반해 놓았으나 그 규모가 거대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세울 도리가 없어 고심을 했다. 혜명대사는 이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몰라서 몹시 걱정하면서 어느날 하루는 사제촌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동자 하나가 흙장난을 하고 놀고 있었다. 혜명은 발걸음을 멈추고 동자의 놀이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부처를 세우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큰돌 하나를 세우고 흙을 그 주위에 쌓아 올린후 몸둥이를 굴려서 그 위에 올리고 또 흙을 전과같이 쌓아 올리고는 굴려서 맨 윗부

분을 올린 다음 주위의 흙을 파내니 돌부처만 남는 것이었다. 혜명은 이 동자의 장난을 보고 비로소 미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마침내 이 거대한 부처를 세웠다고 한다.

그때 그 동자야말로 문수보살(文殊菩薩)로서 잠시 동자의 자태로 화신하여 혜명에게 지혜를 준 것이라 한다. 광종 19년에 시작하여 그후 38년이란 세월에 걸쳐 목종9년에 완성되니 자연석 세토막으로된 한국 제일의 석불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미륵은 전신에 황금을 칠하고 자주빛으로 장식을 했다하는데 당시 중국 송나라에 지안(智眼)이란 명승이 멀리 이곳까지 찾아와 이 미륵에 예배하고 「아, 마치 촛불을 보는 것같이 빛나는 미륵불이구나」하고 감탄한데서 그 근처에 절을 세우고 관촉사(觀燭寺)라 했다하며 후에 다시 관촉사(灌燭寺)라 개칭했다 한다.

논산에서 동쪽으로 4km쯤 떨어져 있는 관촉사는 은진면 반야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고 석조미륵보살입상이 유명해져서 관촉사는 오히려 그 이름이 「恩津미륵절」로 알려질 정도이다.

이 미륵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전설이 또 있다.

고려조때에는 외적의 침략을 수차 받아왔다. 언젠가 북쪽 오랑캐들의 침략이 있을 때였다. 어느날 오랑캐들의 군사들이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 강변에 집결해 있었다. 오랑캐들은 압록강의 수심을 알길 없어 건너오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을 때였다. 이때 마침 스님 한사람이 가사를 입고 삿갓을 쓴채 강을 건너는데 마치 얇은 냇물을 건너듯이 다리만 건어 올리고 건너오고 있었다.

오랑캐들은 스님이 건너오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때 적장은

「보아라, 저기 중이 건너오고 있다. 그곳으로 강을 건너자」 하면서 진군명령을 내렸다.

오랑캐들은 스님이 건너오던 곳으로 우루루 몰려 강물로 뛰어 내려가 강을 건너려 했다. 그러나 멍모르고 그냥 강으로 뛰어들어간 오랑캐들은 수심이 깊어 텅텅모든 모두 물속에 빠져죽고 말았다. 많은 부하를 잃은 적장은 화가 났다.

「그 중을 찾아라」하며 명을 내렸다. 그 중을 찾아 원수를 갚고자 했다. 중을 찾아 낸 적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차고 있던 칼을 빼어 중을 내리쳤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중은 간 곳이 없고 그 중이 쓰고 있던 삿갓 한 쪽만 떨어져 내렸다.

그때 은진의 미륵불은 온몸에 땀이 주루룩 흘러내리고 손에 들고 있던 연화(蓮花)의 빛이 희미해졌고 미륵이 쓰고 있던 갓 한쪽이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그러니까 은진미륵불이 국난을 막으려고 영험을 내어 중으로 화신하여 압록강에 나타

나 우리나라를 쳐들어 오려는 오랑캐들을 몰살시켰다는 것이다.

이래서 은진미륵은 호국불로서도 전하여 오고 있다.

지금도 미륵불상의 갓을 보면 한쪽 귀통이가 떨어져서 꿰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스님으로 변하여 국난을 막기 위하여 압록강에 나타났을 때 오랑캐 장수의 칼에 맞은 흔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설을 간직한 채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논산시 관촉동 반야산 중턱에 거대한 체구를 자랑하는 석불로 묵묵히 서서 미소를 지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자비의 손길을 뻗치어 주고 인간의 희로애락에도 변함없이 많은 가르침과 가치를 심어주며 우리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다.

금산인삼축제

금 산 문 화 원

축제개요

- 기 간 : 2001. 9. 14 ~ 9. 23 (10일간)
- 장 소 : 금산인삼종합전시관 ~ 인삼물류센타 예정부지
- 주 최 : 금산선양위원회 / 주 관 : 금산인삼축제집행위원회
- 후 원 :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2001한국방문의해기획단, 한국관광공사, 충청남도, 금산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제32보병사단, 월컴투코리아, 아리랑TV

축제프로그램

- 관광객이 즐기고 기념으로 간직할 수 있는 「체험이벤트 베스트10」체험코너 운영
 - 테마체험 「인삼캐기」 여행 → 인삼·약초 마을과 연계
 - 전통인삼생산체험(깎기, 말리기, 접기)
 - 인삼·약초요리 60선 건강 여행
 - 관광기념 인삼병 만들어가기
 - 보신용 약초썰기
 - 인삼·약초 다도교실
 - 야생화 심어보기와 야생화 기념품 간직하기
 - 인삼떡만들어먹기

- 초고공예 체험
- 감동·희망체험 이벤트 운영
 - 축제기간중 농악체험 교실의 운영 「대북과 함께하는 하늘과 땅의 소리」
 - 전통민속놀이 참여(널뛰기, 그네뛰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할수 있는 「촛불잔치2001」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읍·면의 날
 - 읍면의날 : 토속음식, 특산품홍보판매코너운영, 민속놀이지연, 자랑거리소개, 화합의 한마당 등
- 다양한 계층의 볼거리 구성
 - 어린이 프로 : 캐릭터와 함께 기념사진 촬영, 어린이 민속놀이, 인삼어린이 선발, 웃는 얼굴 그리기
 - 청소년 프로 : 전국 N세대축제, 전국족구대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세계민속공연(중국, 러시아)
 - 중·장년층 프로 : 품바초청공연, 줄타기, 인삼홍보사절선발KBS전국노래자랑, 자선거대회
 - 노인층 프로 : 은빛한마음축제, 전통민속놀이(「윷놀이, 장기대회」) 시조경창
- 다채로운 문화행사 연출
 - 금산에서만 볼수 있는 전통민속 상시 공연 「농바우끄시기」, 「물떼기농요」, 「탐제」, 「금산농악」 등
 - 인삼을 주제로 한 마당극 연출 : 「강처사 설화마당」 관광객과 함께하는 여러 장르의 「극, 춤」 마당극
 - 국립국악원, 남원민속국악원, 죽심회, 연정국악원의 다양한 「국악공연」
- 다양한 인삼·약초제품의 할인 판매 운영
 - 종합전시관 행사장, 인삼쇼핑센터 판매장, 인삼·약초거리내 판매장 20~50% 할인 판매
 - 생산자가 참여하고 효능 등을 설명하는 할인판매 부스 운영
- 관광객모객 및 지역경제효과
 - 세계적 축제로서의 도약 가시화
 -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및 여행 상품개발에 따른 내방객 증대
→ 645천명 → 817천명 (외국인 3,900명 → 5,100명)

- 매출액 신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인삼·약초, 음식, 숙박, 교통 등 450억원 → 552억원
- 국제인삼교역전을 통한 수출 기반 조성
→ 12개국 46여명의 바이어 내방, 계약 및 상담 238만불 거양 (샘플구입 1,985만불)
→ 85만불상담 → 238만불
- 3년연속 전국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금산인삼축제 성공요인 10가지
 1.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상품
 - 국제인삼교역전에 참가한 인삼약초 관련 업체의 다양한 상품
 - 아셈정찬과 건배주로 진가가 확인된 인삼요리 60가지와 인삼주
 - 인삼약초차개발, 금산인삼약초 관광기념품 브랜드 <아젠다> 등 금산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상품 개발
 2. 가장 한국적인 문화의 진수
 - 600여명의 풍물단이 빛어내는 하늘의 소리
 - 인간문화제의 줄타기, 장터의 애환 품바공연, 웃음바다 마당극, 최고수준국악공연, 농바우끄시기 등 금산고유의 민속, 은빛예술축제 등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연출
 3. 관광객 편익을 위한 축제장 구성
 - 대전 ~ 통영간 고속도로 금산구간 개통과 최고의 고속도로 휴게실 인삼랜드
 - 봉황천변 자전거도로와 원줄 ~ 신대간 외곽도로 개설, 행사장 주변 하천정비
 - 국제인삼물류센터 부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등 수요자 중심의 행사장 구성
 4.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
 - 초고공예, 야생화 및 약초꽃전시, 다도교실, 웃는 얼굴그리기, 우리음식만들어먹기 등 전문 봉사자들의 연출이 돋보임
 - 인삼차 제공 및 화장실 청소까지 굳은 일을 마다 않은 각 기관단체의 헌신적인 참여
 5. 한층 돋보인 체험프로그램
 - 인삼캐기, 깎기, 접기, 음식만들기, 약초썰기 등 금산인삼축제 만의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은 행사기간 내내 인기가 식을 줄 몰라 금산인삼축제를 대표하는 체험 이벤트로 굳게 자리 매김하였으며 전년도에 3배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다녀갔음
 6. 세계최대의 인삼약초시장 관광자원화
 - 1천200여개의 세계 최대의 인삼약초 점포가 밀집돼 있는 시장의 중심의 거리를

차없는 거리로 운영

-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쇼핑공간이 되도록 배려

7. 즐거운 생활스포츠 전국대회 유치

- 하프마라톤, 족구, 자전거대회등 전국규모의 생활 스포츠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

8. 한국고유의 민속놀이 광장마련

- 그네뛰기, 널뛰기,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놀이, 씨름, 장기두기등 가장 한국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공연함으로써 우리 것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웠음

9. 하늘의 축복도 함께한 축제

- 10일간의 행사기간 중 단 하루도 흐린 날없이 쾌청한 날씨가 계속돼 성공적인 축제에 가장 큰 효자

10. 다각적인 입체적 홍보

- 해외언론, 인삼축제 전문사이트, 중앙방송3사 및 계열사, 중앙일간지, 주·월간지,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최고의 집객력 확보

제17회 도원문화제

조 치 원 문 화 원

1. 行事概要

〈도원문화제 유래는〉

농경전서에 신라시대부터 복숭아가 등장한 후 연기군은 1908년부터 복숭아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토질이 황토질로 복숭아 재배에 적합하여 당도가 높아 품종개량으로 우수품질의 복숭아를 생산하여 해외까지 수출하는 등 조치원하면 복숭아로 알려져 85년부터 도원문화제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제17회에 걸쳐 매년 복숭아꽃이 만개한 4월에 도원문화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축제개최 개요〉

- 기간 : 2001. 4. 15(일) ~ 4. 22(일)
- 장소 : 연기문화예술회관 등 관내 일원
- 참가예상인원 : 35,000명
- 행사구성 : 백제대제외 9종목
- 주최 : 도원문화제 추진위원회
- 주관 : 문화예술단체, 사회봉사단체, 농협연기군지부
- 후원 : 연기군, 조치원 경찰서, 연기교육청, 각급 기관단체

〈행사목적〉

- 도원문화제의 선양 - 향토애와 자긍심 고취
- 전통민속행사 발굴 -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
- 범군민대화합 참여 - 지역 번영 및 화합 분위기 조성

〈행사방침〉

- 새로운 세기와 지역문화예술의 해를 맞아 특화된 문화축제로 전략화
- 향토성과 전통에 바탕을 둔 문화축제로 승화
- 순수 민간단체 주관으로 사회봉사단체의 자율참여로 추진 역량 제고
- 사전행사, 번외행사의 내실 있는 개최와 홍보전략의 극대화로 축제 붐 조성

2. 일정별 행사내용

일시	행 사 명	내 용	장 소	주 관 단 체
4.15(일)	백제대제	· 백제대제 봉행	비암사	- 연기군 향토사연구소 - 비암사
4.17(화) (2일간)	가보전시회	· 우리집 가보 전시	군민회관	- 연기군 향토박물관 - 연기라이온스클럽
4.18(수)	푸른음악회	· 인기연예인초청 및 오케스트라 공연	문예회관	- 문화관광부 - 농협중앙회 - 조치원문화원
4.20(금)	복사꽃 아가씨 선발대회	· 진, 선, 미, 정, 숙, 현(6명) ※특별상, 인기상, 포토제닉상 유일관광(신설) · 인기연예인초청 공연	문예회관	- 조치원 문화원 - 연기군 여성단체협의회
	백일장 및 사생대회	· 초·중·고·일반부	충령탑공원	- 예술단체협의회 - 도화로타리클럽 - 조치원로타리클럽
	복사꽃 한마을 거리축제 (2일간)	· 우리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매 · 먹거리 장터 · 군민노래자랑 · 각종 이벤트행사	조치원우체국 ~ 화성슈퍼	- 조치원청년회의소 - 농협중앙회 - 새마을운동연기군지회
4.21(토)	도원배전국 바둑대회(2일간)	· 예선 결선 및 시상	군민회관	- 한국기원조치원지원 - 뉴조치원라이온스클럽
	군민건강 걷기대회	· 한마을 화합 걷기대회 · 청소년 댄스파티 · 각종 경품행사	고려대학교 ~ 군민체육관	- 원조회
4.22(일)	군민체육대회	· 체육행사, 민속행사(24종목)	조치원고 및 보조경기장	- 연기군체육회 - 조치원라이온스클럽 - 농협중앙회

3. 주요성과(총괄)

- 새로운 천년 지역문화예술의 해를 맞아 축제 이미지 특화와 신선한 축제문화를 창출함으로 지역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참여함으로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주민공동체 연대의식 함양과 지역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전통문화 축제로의 가치를 실증함.
- 문화예술회관 개관 관련 대규모 공연 및 도단위 행사를 도원문화제에 집중시켜 홍보활동을 전략화함으로 사전 붐 조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주민 참여도를 배가하였으며, 연기교육청 및 청소년단체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청소년 및 인근지역 주민의 참여와 관심도가 향상되었음.
- 축제의 꽃으로 「백제대제」는 전통불교의식을 재현하였고, 「우리집 가보전시회」는 조상들의 숨결과 뿌리를 찾고 가정의 위상을 정립하는 전통문화행사로 전국적인 관심을 보였음.
- 행사 개최시기 일기와 복사꽃·배꽃 개화가 절정을 이루어 축제 분위기를 빛내고 가족단위 사진담는 모습이 돋보였음.
- ☞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굳건히 다진 향토문화축제로 발전

4. 개선방안(총괄)

1) 복사꽃 아가씨 선발대회

- 참가신청에 제한을 두지 않아 예년보다 미모가 출중하고 입상자 연령도 낮아짐
- 문예회관으로 이전 개최함으로 규모 및 관객이 늘어나 성대한 대회가 이루어짐
- 유명 연예인 초청 공연 등 인기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 각계각층이 다양하게 관람하여 격려와 갈채를 보냄으로 대회장이 화기에애한 분위기였음.

〈잘된 점〉

- 현대 감각에 맞는 의상과 소품을 새로 교체하여 수상자의 품위를 향상시킴
- 심사평이 대체로 공정하여 객관적 인정을 받음

〈개선방안〉

- 복사꽃 아가씨들의 사회봉사 활동 및 대외적인 홍보활동에 적극적인 활동방안 강구

2) 백일장 및 사생대회

- 학교별 또는 가족단위 참여와 후원으로 출전자의 사기가 진작되었고 학생들 수준도 전체적으로 향상되었음.

〈잘된 점〉

- 학생 참가자가 작년도 1,000명에서 2,000여명으로 증가했으며, 연기교육청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도교사의 열의와 정성으로 학생부 수준이 매우 향상됨.

〈개선방안〉

- 주부·한시백일장 등 일반부 및 노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3) 복사골 한마음 거리축제

- 거리축제 상점가의 지역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참여함으로 주인의식을 심어 주었으며, 주민공동체 연대의식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신문화와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21세기 새로운 문화축제로의 가치를 실증함.

〈잘된 점〉

- 축제의 대중화와 통합기능 강화를 위한 축제분위기 조성
 - 민간단체, 지역주민과의 협조체제 유지로 주민참여 여건 조성
 - 무료시식코너, 체험코너 설치, 행사기념품(경품, 뿔지, 퍼클, 모자 등) 제공
- 장년층을 위한 추억의 향수무대 제공
 - 옛장수 품바공연으로 오랜만에 장년층의 춤과 노래 한판에 어우러져 관중들의 열화 같은 성원이 있었음.

〈개선방안〉

- 복숭아 가공식품 판매 부스 운영
 - 복숭아통조림, 당과 등 복숭아 관련 상품을 판매함으로 도원문화제 이미지 부각

4) 도원배 전국 바둑대회

- 연기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는 유일하며, 금년도에는 시상금을 증액하고 한국기원 바둑월간지에 수차례 홍보한 결과 서울, 경남, 전남 등 원정 참가자가 늘어남으로 대부분 조치원에서 2박 3일간 숙식함으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었으며, 도원문화제의 전국적인 홍보에도 기여함.

〈잘된 점〉

- 참가자 및 수상자 수준이 매우 향상됨(아마3단 이상)

〈개선방안〉

- 숙박 및 요식업소에 대한 사전지도로 만족스러운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연기군이 충절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줌

5) 군민건강 걷기대회

- 주관단체의 충분한 사전준비 및 원만한 진행으로 참가자 대부분이 만족했으며, 예년에 비하여 참여계층이 다양화되어 건강하고 화합된 분위기가 충만한 행사였음.

〈잘된 점〉

- 종전의 거리행진 코스에서 등산코스를 삽입함으로 변화 있고 건강한 운동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이정표(예절, 자연보호, 연기정신 구호 등)가 지루함을 달래고 교육효과도 있었음.

〈개선방안〉

- 주민 불거리 제공(다양한 프로그램)

6) 가보전시회

- 가정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가격의 고하를 불문하고 가보로 하여 이를 전시함으로 가족간에 소중한 애착이 생기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며 가족의 소중함, 조상에 대한 뿌리를 알게하는 등 연기정신에 부합되는 행사였으며, 전국에서 처음 있는 전시회로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

<잘된 점>

- 가보전시회를 통해 가보가 없는 가정도 가보 한가지씩 만들겠다는 의욕을 심어줌

<미흡한 점>

- 가보하면 값비싸고 귀중한 물건이다 라는 선입견으로 많은 가정의 참여가 부족했음.
- 한가정 한가보 갖기 권장으로 「충효연기정신」 선양

7) 백제대제

- 백제대제는 유일하게 백제지역에서 개최되는 대제로 이를 문화재로 지정받아 전국적인 대제행사로 승화시켜야 하겠음.

<잘된 점>

- 유교적인 지방이 아닌 석불비상을 시납하여 제를 올림
- 불교제례인 범패의식을 행함
- 백제 역대왕에게 지냈다는 석불비상 명문에 의해 역대왕의 휘장을 들고 행진함

<개선방안>

- 고증을 거쳐 백제대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홍보 활동 전개

5. 기타사항으로

○ 축제 홍보전략 강화

- 축제 개최 3개월 전부터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홍보 실시
- 축제 홍보매체의 다양화 광역화 추진(전국 네트워크 설정)
 - ☞ TV, 신문사, PC, 인터넷 등 홍보
- 축제홍보물의 고품질화 및 홍보 자료집 제작, 배포
 - ☞ 시각 효과가 있는 디자인 개발 - 연기군 상징 캐릭터 활용
- 다중 집합장소 집중홍보(인근지역 포함, 대전, 청주, 천안, 공주 등)
 - ☞ 터미널, 역 등 다중 집합장소
- 편리한 교통 접근성으로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전략 추진
 - ☞ 고속도로, 철도, 국도의 요충으로 인근 도시의 관광객이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도록 대외 홍보계획 수립 추진

○ 사적지와 연계한 행사 추진

- 연기대첩비 공원활용
 - ☞ 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 청소년 행사 추진

유혹하는 유해환경과 청소년문화

노 홍 래 | 서천문화원 부원장

문화란 사회적 제도 속에서 반응(反應)하는 내면적 또는 외면적 행위양식(行爲樣式)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음미해 봄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자각해 보기로 한다.

요즈음 가장 자주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청소년 문화」란 어휘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라디오나 TV프로가 청소년 시절에만 존재하는 그 또래 특유의 꿈과 사랑을 펼쳐보게 하기 위한 명분 아래 「푸른교실」 「학교」 「장학퀴즈」 등등 다각도로 청소년문화 형성과 정착에 심혈을 쏟고 있긴 하나 그 성과는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행하게도 오늘날 청소년 문화가 어떤 것이냐? 우리 사회에도 건전한 청소년문화가 존재하는냐? 하는 물음에 우리는 그저 주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로 여겨진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청소년을 교화시키고 정서를 함양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같기는 하나 오래전부터 거의 한결같아서 기껏해야 단편적인 입시를 위한 교육 내용을 누가 재치있게 찾아내는가 하는 퀴즈 프로나 유명 연예인들에 감동되어 소름끼칠 정도로 괴성을 지르는 장면과 아름다운 우리말 대신 비속어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괴상망칙한 은어(隱語)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은 감동과 감화를 제공하기 위한 드라마의 내용도 턱없는 모험을 그리거나 외국 소설이나 작품을 그대로 번역된 것이 자주 등장하여 우리의 현실과 환경과는 거리가 멀 뿐더러 불가능에 가까운 자유분방한 습성과 모습이 등장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혼돈은 물론 그들의 고민을 풀어 주기는 커녕 오히려 이질감을 느낀다고 하니 사회적 상황에 대한 청소년 특유의 반응양식이 정착되기란 거리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 같이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로부터의 급속한 문화충격과 비약적인 근대화 과정이 가져온 역사적 단절 속에서 주도(主導) 문화가 부재한 채 매스미디어가 상업주의적 대중문화의 상품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따라서 부분문화(部分文化)인 청소년문화 역시 청소년 그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보다는 대중매체에 의해 제공되어지고 청소년문화 내용 역시 상업적 색채와 냄새를 강하게 띠게 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또 하나의 사회현상인 학교사회는 어떠했던가.

당국의 개혁성향은 계속 이어오긴 했으나 확실적인 교육내용과 입시제도의 혼미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교육과정의 형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입시제도이며 학생들 또한 오로지 입시위주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에 「창조성」이란 낱말의 의미를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 역시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 창의력을 계발하여 바로 생각하고 바로 볼 줄 아는 인격적이고 유능한 인간을 양성한다는 본래의 교육적 의도와 목적을 망각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입시교육의 낙오자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본연의 교육자가 되지 못하고 보니 서글픈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천진무구(天真無垢)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유해환경요소가 너무나도 많다. 학교를 중심으로 200미터 이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정문에서 직경 50미터 이내는 「절대 정화구역」이라 하여 극장,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공공목욕탕 및 휴게실, 사행행위장 등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오늘날 있으나 마나하여 죽은 규정이 되어 있으며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발상쯤으로 비웃음을 사기 일쑤다.

이 이외에도 오히려 학교주변을 택하여 성행하는 유해요소들이 수없이 많지만 특히 음란만화 및 비디오테이프를 보여 주고 남녀혼숙까지도 묵인하는 불량만화가게, 폭력물이 주종인 전자오락실,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고 음란 퇴폐쇼를 보여 주는 무허가 디스코클럽 등등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무질서 그대로의 난장판 같은 상황이다.

마치 전환기적 상황속에서 민생치안(民生治安)이 실종된 가운데 질서는 파괴되고 윤리도덕은 땅에 떨어진 채 아수라장이 된 착각을 느끼게 할 때도 가끔 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속에서 칠면피한 인면수심 족속들은 성적으로 자극하고 물질적으로 충동하는 원조교제를 비롯 이들을 유혹하는 음란과 환락업소가 도처에 범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설적인지 모르나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는 오히려 당연한 귀결처럼 느껴지게까지 한다. 이러한 끔찍스럽기만 한 유해환경과 그렇게까지 만든 요인을 그대로 둔 채 우리 청소년

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란다면 이는 물지각한 어른들의 무모한 망상이요 허욕일 수 밖에 없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당연한 말을 누구나 자주 뇌까리면서도 실천에는 아주 궁색한 우리들 지도층 인사나 어른들은 무책임하고도 염치가 없는 무례한이 아닐까 생각된다.

현실은 학교나 교사의 노력만으로 건전하고 성실한 청소년문화를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게 하기엔 너무나 힘에 부치게 된 것 같다.

이에 관계당국은 몇배의 노력으로 행정지도력을 경주해야 하겠고 윤리와 도덕을 망각한 채 배금사상에 눈이 어두웠던 업주들의 발상과 행위를 깨끗하게 씻어 버림은 물론 명랑하고 공정한 밝은 사회로 인도하는 각급 사회단체며 종교인 자원봉사자들이 앞장선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가정과 학교에서는 원만한 대화와 세심한 교육으로 혼연일체가 될 때만이 이 어지러운 난국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에 알맞은 청소년들의 행위양식인 청소년문화가 정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문화가 어떻고 그들의 비행이 어떻다고 탓하기에 앞서 먼저 지도계층의 추락된 도덕성 회복과 아울러 건전하고도 당당한 어른 문화의 정립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때만이 부모로서의 권위와 지도자로서의 신뢰와 명예가 되돌아 올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 청소년들은 건전한 풍토와 아름다운 생활환경 속에서 보람찬 내일을 향해 활기찬 성장을 약속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청양의 산하(靑陽의 山河)

安 鍾 日 | 청양문화원장

1. 산지(山地)

우리나라 척주(脊柱)와 같은 태백산맥(太白山脈)에 오대산(五台山)에서 갈라져 서남(西南)쪽으로 치달은 차령산맥(車嶺山脈)이 우리군 중앙을 통과하였으니 이것이 표고(標高) 561m가 되는 칠갑산(七甲山)이다.

북(北)쪽으로는 사자산(獅子山) 무성산(戊盛山) 도고산(道高山) 광덕산(廣德山) 성거산(聖居山)에 연결되고, 남(南)으로는 만수산(萬壽山) 아미산(峨嵋山), 東으로는 계봉산(鷄鳳山) 미궐산(薇蕨山) 앵봉산(鶯鳳山) 광생산(光生山), 서(西)쪽으로는 구봉산(九峰山) 백월산(白月山) 성주산(聖住山) 그리고 오서산(烏棲山)과 마주하고 있다. 또한 七甲山을 중심으로 하여 靑陽방면을 산서(山西)라 하고 定山방면을 산동(山東)이라고 불러 지리적(地理的) 구분(區分)을 하고 있다.

산동 정산방면은 지맥제약(支脈諸岳)이 솟아 있고 이 지맥 사이에는 정산(定山) 철마장(鐵馬場) 미당(美堂) 중추리(中秋里)등 제분지(諸盆地)를 형성 하였으며 또 지천(芝川)이 금강(錦江)에 주입(注入)하는 곳에서 청양군의 최대의 평야(平野)인 장수평(長壽坪)이 열렸으며 동남변으로는 금강이 흘러 연안평지(沿岸平地)를 이루며 공주군(公州郡)과 부여군(扶餘郡) 사이를 이루고 있다. 산서(山西) 靑陽地域은 사자산(獅子山) 비봉산(飛鳳山) 우산(牛山) 백월산(白月山) 구봉산(九峰山) 관비산(官婢山) 법산(法山) 오서산(烏棲山)등이 역시 칠갑산(七甲山)의 지맥제약(支脈諸岳)들이 솟아 있는데 이들 산악 사이로 고리섬들(古里島坪)이라 하는 청양분지(靑陽盆地)가 평야를 이루고 사자산과 비봉산 사이는 운곡분지(雲谷盆地)가 이루어졌으며 서쪽으로 오서산(烏棲山)이 높이 솟아

있는데 이는 가야산(伽倻山)에서 덕숭산(德崇山) 용봉산(龍鳳山) 여양산(驪陽山) 오서산(烏棲山)으로 계속하는 서해안 지대(西海岸 地帶)의 작은 산맥인바 이 오서산에서 원출(源出)하여 북으로 흐르는 무한천(無限川)을 이루고 있다. 이 분지를 또한 홍주진골(洪州辰谷)이라고도 전해온다. 이와같이 靑陽郡은 지세(地勢)가 七甲山을 두고 山東山西의 특수한 지리적(地理的) 분계(分界)를 이루고 있으며 山東과 山西와는 기후(氣候) 산업(産業) 인문(人文)등에 약간의 차이(差異)가 있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① 七甲山

청양군(靑陽郡)의 주봉(主峰)이며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七甲山은 표고(標高) 561m로 크고 작은 제봉(諸峰)과 여러 계곡(溪谷)을 형성(形成)하고 있는 본군의 분수령(分水嶺)을 만들고 있어 여러 하천(河川)이 이 七甲山에서 원출(源出)한다. 산중에는 삼림(森林)이 우거져서 임산업(林産業)의 요지가 되어 있고 또한 장곡사(長谷寺)와 정혜사(定慧寺)등 명찰(名刹)이 있으며 도림사지(道林寺址)가 남아있다.

② 獅子山

七甲山 북쪽에 있는 사자산(獅子山)은 운곡면(雲谷面) 공주군(公州郡 新豐面)과 경계하는 산악(山岳)인바 역시 성거산(聖居山) 광덕산(廣德山) 차령(車嶺)에서 계속되는 차령산맥(車嶺山脈)에 속하는 산악이다. 이 산은 고준(高峻)하여 임상이 무성하였고 또 회석화강 편마암(灰石花崗片磨岩)으로 형성되어 金, 銀, 銅, 鉛, 亞鉛, 텅스텐 등 광맥이 매장된바 운곡면 신대리와 공주군 신평면에는 금광이 개발되었다. 국사봉(國師峰) 밑 운곡동에는 운곡사지(雲谷寺址)가 있으며 이 동명과 면명은 운곡사에 의하여 되었다. 그리고 이 산악에서 발원하여 하천이 운곡면 북판을 흘러 신양(新陽)을 거쳐 대흥(大興)저수지로 유입하는데 이 하천변으로 운곡분지(雲谷盆地)를 이루고 있다.

③ 大峙

七甲山과 사자산(獅子山) 남쪽에 위치한 크고 작은 산들은 차령산맥(車嶺山脈)의 한줄기 이면서 七甲山의 또 한줄기에 한티(大峙) 고개가 유명하다. 청양과 정산을 연결 짓는 큰 고개로 근대와 와서 도로가 개통되고 또한 터널이 뚫렸지만 대전 도청 소재지를 왕래하는 주요간선 도로 국도36호선인 것이다. 옛부터 고개가 높고 굴곡이 많아서 험한

길로 속칭 충남의 알프스라고들 한다. 이 고개로 인하여 대치리 대치면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곳에서 발원하는 계류(溪流)가 한가닥은 서쪽으로 흘러 청양읍 읍내리에 이르워 상갑리 시전리에서 흐르는 물과 합하여 지천(芝川)을 이루는데 하천변은 대치계곡을 이루고 주정리와 탄정리에서 분지(盆地)를 만들었다. 그 한가닥은 동쪽으로 흘러 천장리와 촌리 미당리 청소리 등지를 거치는 동안 사장항천(射場項川)을 형성하는데 하류는 금강에 합류하고 미당(美堂) 분지(盆地)를 이루었다.

④ 牛山

청양읍 뒤에 솟아 있는 산으로 일명기룡산(一名驕龍山)이라고도 하는데 산줄기의 기암기석(奇岩奇石)이 여기여룡(如驕如龍)하여 산명이 된 것이다. 산용(山容)과 암석이 아름답다워 경치가 좋다. 동익좌맥남단(東翼左脈南端)은 용바위라 하는데 암벽에는 용암(龍巖)이라는 각자(刻字)가 있고 용바위(용배)이라는 동명(洞名)은 이에 의한 것 같다.

서익우맥(西翼右脈) 남단은 인바위라 불리우는데 이 인바위(印巖)라는 동명은 용바위(龍巖)에 대한 대조적인 것에 주목되고 있다. 이 牛山은 본래 청양현(靑陽縣)의 진산(鎭山)으로 성황단(城隍壇) 려단(厲壇)등이 모두 이곳에 있었다. 그리고 산정에는 백제시대(百濟時代)에 축조된 것으로 추측되는 산성지(山城址)가 있다. 최근에는 이 산명을 우성산(牛城山)이라고도 하는데 이 산명은 산성에 의한 것으로 원래의 산명은 아니며 이 산줄기는 절단되어 지천(芝川)을 건너 다시 관비산(官婢山)을 거쳐서 남쪽으로 치달았으며 산 남쪽으로는 고리도평분지(古里島坪盆地)가 펼쳐져 있다.

⑤ 九峰山

남양면 서부와 화성면 동부에 점거하고 있는 산인바 이 산은 노년기(老年期)에 산형(山形)을 형성하고 함금석영맥(含金石英脈)이 있어 약 50여년의 연혁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구봉광산(九峰鑛山)이 전개됐던 것인데 70년대 초반에 폐광됐다.

⑥ 白月山

남양면 서부와 화성면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본군 서남단을 가로 막은 산이다. 노년기 산형을 형성하고 수목이 우거져 임상이 좋다. 산중에는 화정사지(和鼎寺址)가 있어 옛날의 대가람(大伽藍)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⑦ 飛鳳山

비봉면 동부에 있는 산인바 산형여비봉(山形如飛鳳)이라 하여 산명이 된 것인데 이는 풍수지리적(風水地理的)인 명칭이다. 비봉면(飛鳳面)이라는 면명은 이 산명에 의한 것이다. 비봉산은 주민들이 영산시(靈山視)하여 중목리(中墨里)에서는 비봉산신(飛鳳山神)을 제사하는 습속이 있고 그 산신당(山神堂)이 이 산에 있다. 그리고 이 산악 지대에서 흐르는 계류(溪流)는 중목리 사점리를 거쳐 그 하류인 녹평리 장재리 등지에 가남평야(佳南平野)를 이루고 무한천(無限川)에 합류한다.

⑧ 天馬峰

청양읍 서쪽 장승리와 군량리에 접한 고봉인데 그 산형(山形)이 천마안형(天馬鞍形)과 같아 산명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리풍수적(地理風水的)인 명칭이다. 산정에는 원시형으로 보이는 고대토성지(古代土城址)가 있다.

⑨ 官婢山

청양읍의 남쪽에 있는 구능(丘陵)으로 산정에는 토성지(土城址)가 있다. 원시형(原始形)을 한 토성으로서 이 성곽에 의하여 일명 테메산(어떤 물체를 테맨것 같다)이라는 명칭이 있다. 고리도평(古里島坪) 동쪽에는 산이고 산밑에는 지천(芝川)이 흐르며 북으로는 우산(牛山)과 상대하고 동남으로는 또다시 산악으로 연속된다.

⑩ 餘峙

청양읍과 화성면의 경계에 있는 고개로 지금은 국도 36호선인 청양 대천간 도로가 통하고 있어 서해안과 내륙과의 연결되는 요로가 되어 있다. 이 고개 이름을 따라 고개 밑 동명을 여드재(餘峙)라 한다. 여티는 북으로는 비봉면 중앙부를 뚫어 가남평야(佳南平野)까지 산으로 연결되고 남으로는 구봉산과 백월산 그리고 성주산으로 연결되고 있다.

⑩ 아리고개

청양에서 예산과 광천 홍성으로 통하는 도로로 청양읍 학당리에 있는 고개를 아리고개라 한다. 고개는 높지 않으나 이 고개를 기점으로 북은 예산 방면으로 기울고 남은 부여 방면으로 기울어 분수령이 되고 있다.

⑫ 싸리티

청양에서 부여로 통하는 도로인 국도 29호선이다. 남양면 은직리에 위치한 이 고개는 싸리티 고개라 했는데 여기에 터널이 있었으나 도로포장할때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했다. 도로연변에 흐르는 지천에 기암기석(奇巖奇石)이 절벽을 이루고 수목의 우거져 아름다운 풍경을 보이고 있다. 청양읍은 동에는 한티 서에는 여드재 남에는 싸리티 북에는 아리고개등 사방으로 산령을 넘어서 타지역과 통하게 되어 있어서 산간분지에 소개하고 있다.

⑬ 烏棲山

가야산(伽倻山)에서 남쪽으로 뻗은 서해안 산맥(西海岸 山脈)의 주요 산악으로 다음과 같은 고기록(古記錄)이 있으니 이것이 택리지(擇里誌) 호서조(湖西條)이다. 홍주동남(洪州東南) 위대흥 청양 대흥즉백제임존성 자십일읍 병제오서이북 오서이전일맥서남행 위성주산 운운(爲大興 靑陽 大興卽白濟任存城 茲十一邑 並在烏棲以北 烏棲以前一脈西南行爲聖住山 云云)하였고 또 문헌비고 군십구 여지고칠(文獻備考 卷十九 輿地考七)에 오서산일록서지진당산 서유보령현치 운운(烏棲山一麓西至鎮堂上 西有保寧縣治 云云)하였으며 또 홍성군지산악조(洪城郡誌 山岳條)에 보령 청양 홍성삼군지교 광천면 장곡면간기 위오서산 산고해발칠백구십구미돌, 충청사부지거악, 서해선박지라침, 실위본군산악지조종 운운(保寧, 靑陽, 洪城三郡之交 廣川面 長谷里 間起 爲烏棲山 山高海拔七百九十九米突 忠清西郡之巨嶽 西海船舶之羅針 實爲本郡山岳之祖宗 云云)하였다. 오서산(烏棲山), 오성산(五聖山)등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 기록된 것이다. 본군 서남변(西南邊)에 위치 하여 서해의 해풍을 가로 막고 있는 셈이어서 이 산악으로 말미암아 산서보령(山西保寧) 홍성등지와 산동(山東) 靑陽과는 기후의 차이도 있게 된다. 원래 구황실소유(元來舊皇室所有)로 임상(林相)이 좋았으나 난벌로 큰수목이 적다. 청양방면의 이 산악에서 발원(發源)하는 물은 북으로 흘러 무한천(無限川)을 이루고 연변에 화성분지(化城盆地)용천리 평야(龍川里 平野) 가남평야(佳南平野)를 만들어 본군 서부의 비옥(肥沃)한 농토를 이루었다.

⑭ 大朴谷山

정산면 서정리 뒤산인데 조선환여승람 산천조(朝鮮輿勝覽 山川條)에 재군북칠리 즉 구읍진산 내자천안광덕산 운운(在郡 北七里 卽舊邑鎭山 來自天安廣德山 云云)하였다.

이 대박곡산(大朴谷山)은 정산현의 진산(鎭山)이었고 차령산맥(車嶺山脈)에 속하는 산으로 七甲山에 딸린 산악이다. 이 산악에서 흐르는 물은 기도천(箕島川)을 형성하고 정산분지를 통과하여 금강에 주입된다.

⑮ 鷄鳳山

정산면 동쪽 목면 서쪽에 걸쳐 있는 산이 계봉산(鷄鳳山)이다.

정산읍지(定山誌)에 계봉산 일명월백곡산 재현동구리(鷄鳳山 一名曰白谷山 在縣東九里)라 하였다. 그 주봉(主峰)은 정산면 배곡리 후로써 역시 차령산맥(車嶺山脈)에 속하는 것이며 일명 백곡산(白谷山)이라고도 한다. 산정에는 백제시대의 두능윤성(豆陵尹城)의 석축(石築) 성곽(城郭)이 남아 있고 산중에는 계봉사(鷄鳳寺) 있어서 사정(寺庭)에 고려대석탑일기(高麗代石塔一基)가 남아있다. 산록(山麓) 백곡리(白谷里)는 정산고기(定山古基)로 전해온다.

⑯ 鷺鳳山

목면의 남쪽 화양리에 위치한 산으로 정산읍지(定山邑誌)에 앵봉산 재현남십리 사인 청앵봉산(鷺鳳山 在縣南十里 士人稱鷺鳳山)이라 하였다.

⑰ 馬峙

정산면 마티리(定山面 馬峙里)에서 대치면 형산리(大峙面 衡山里)로 통하는 고개로 차령산맥중(車嶺山脈中)에 있는 고개로 한티(大峙)와 같은 큰 고개이다.

2. 河川

하천(河川)은 주로 칠갑산(七甲山) 오서산(烏棲山)등 고준한 산악에서 원출(源出)하여 낮은데로 흐르는데 대개 계류(溪流)이고 더러는 하천 연변에 분지(盆地)를 형성하고 있다. 그 주요 하천을 들면 다음과 같다. 산서(山西) 청양지역은 지천(芝川)이 七甲山에서 원출하여 청양읍동(靑陽邑東)을 거쳐 고리섬들(古里島坪)을 형성하고 다시 칠갑산 남쪽 계곡을 흘러 금강(錦江)에 주입되고 또 무한천(無限川)이 오서산(烏棲山)과 백월산(白月山)에서 원출(源出)하여 북류(北流)하는데 그 연안(沿岸)에 홍주(洪州) 간골 이라하는 분지를 이루고 예산군을 거쳐 아산만으로 흐르고 있다. 산동(山東) 정산 지역은

칠갑산(七甲山)에서 원출한 기도천(箕島川) 사장항천(射場項川) 사천(沙川)등이 정산방면 계분지(諸盆地)를 이루면서 금강(錦江)에 주입되며 그리고 금강이 본군 동남변의 군계를 흐르고 각지에서 흐르는 지천(芝川) 기도천(箕島川) 사장항천(射場項川) 사천(沙川)등을 받으면서 연안평야(沿岸平野)를 형성(形成)하고 있다.

① 芝川

지천(芝川)은 청양군에서 가장 큰 하천이다. 이 지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금강천 원출정산칠갑산 서류지 수석동 위어울항천 과사자산천 경청양현 과서천남류 경금정고역 동절위작천 과백월산천 위사수탄 지정산계위금강천 동입백마도」(문헌비고 권이십 여지고팔)

金剛川 源出定山七甲山 西流至水石洞 爲於乙項川 過獅子山川 經靑陽縣 過西川南流 經金井古驛 東折爲鵲川 過白月山川 爲泗水灘 至定山界爲金剛川 東入白馬渡 (文獻備考 卷二十 輿地考八)

어울항천 월출대터 경군읍남 절지정산현 위금강천 지부여군계 유입금강(조선환여승람 청양군 산천조) 於乙項川 源出大峙 經郡邑南 折至定山縣 爲金剛川 至扶餘郡界 流入錦江(朝鮮 寶興勝藍靑陽郡山川條)

수석동 재군동칠리 어울항천상류 수석절승고명(水石洞 在郡東七里於乙項川上流 水石絶勝故名)

서천 원출군서오리현(西川 源出郡西吾里峴) 류입어울항천 상계서(流入於乙項川 上揭書)

작천 재군동이십리 칠갑산하 죽어울항천하류(鵲川 在郡東二十里 七甲山下 卽於乙項川下流)

금강천 재군남삼십이리 원출청양어울항천 입백마강(錦江川 在郡南三十二里 源出靑陽於乙項川 入白馬江)

이상 기록과 芝川 현황을 살펴보면 七甲山 북부 갑과동(甲坡洞)에서 원출한 계류(溪流)와 七甲山 대치동 오룡동에서 원출한 계류가 군읍 동쪽에서 합류하니 이것이 어울항천(於乙項川)이다. 다시 군읍 남에서 서천(西川)과 합쳐 고리섬들(古里島坪) 분지를 형성하였고 또 남류하여 남양면 금정리 고역지(古驛址)를 거쳐 백월산 구봉산등지에서 흐르는 백월산천(金川)과 합류한다.

다시 온적리 구치리 작천리동 협곡을 흐르며 아름다운 산수경(山水景)을 이루었는데 이곳은 지천구곡(芝川九曲)이라 이루는 작천(鵲川)이다. 이 작천의 하류 장평면(長坪面)에 이르러서는 금강천(錦江川)이라 하는데 이 유역은 본군 최대의 평야 장수평(長壽坪)이 열려 있으며 이 금강천은 금강에 유입되는 바 지천은 상류로부터 어울항천 작천 사

수탄(泗水灘) 강천등으로 색동지며 흐르고 있는 것이다. 유역에는 시전분지(柿田盆地) 대치분지(大峙盆地) 고리도평분지(古里島坪盆地) 장수평분지(長壽坪盆地)등 평지를 이루고 있다.

② 無限川

오서산(烏棲山)과 백월산(白月山)에서 원출복류하여 아산만에 유입되는 하천으로 본군 서변경(西邊境)으로 흐르며 군계를 이루고 있다.

이 무한천(無限川)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돈곳진자백월산지북부동류 경여양고현 좌다보수천 위내천 동북류지대흥군동 우과달천 우북류 위경결천 위무한천 운운(문헌비고 권이십 여지고팔) 頓串津自白月山之北北東流 經黎陽古縣 左過步水川 爲奈川 東北流至大興郡東 右過達川 又北流爲京結川 爲無限川 云云(文獻備考 卷二十 輿地考八)

여양천 재여양현남 원출오서산 입신창현 정포도(동국여지승람 권십구흥주목조) 驪陽川 在驪陽縣南 源出烏棲山 入新昌縣 井浦渡(東國輿地勝覽 卷十九 洪州牧條)

내천 재현동일리 기원유이 일출청양현어호동 일출흥주여양현 입신창현정포 奈川 在縣東一里 其源有二 一出青陽縣於平洞 一出洪州 驪陽縣 入新昌縣井浦(東國輿地勝覽 卷十九 洪州牧條)

내천 재현동일리 기원유이 일출청양어호동 일출흥주여양현 입신창현정포 奈川 在縣東一里 其源有二 一出青陽縣於平洞 一出洪州 驪陽縣 入新昌縣井浦(上揚書 卷二十大 輿縣條)

경결천 재현동북육리 즉내천하류 京結川 在縣東北六里 卽奈川下流(上揚書同條)

무한천 재무한산서 즉흥주여양천하류 매하수창 유거사자산출잠복우천 위인축환 無限川 在無限山西 卽洪州驪陽川下流 每夏水漲 有巨蛇自山出潛伏于川 爲人畜患(上揚書 禮山縣條)

정포도 재현서이십리 즉장포하류 우예산현무한천 합류우차 입면천군범척내포 井浦渡 在縣西二十里 卽獐浦下流 又禮山縣無限川 合流于此 入沔川郡犯斥乃浦(上揚書新昌縣條)

이상과 같이 기록에 의하면 무한천(無限川)은 오서산(烏棲山)과 백월산(白月山)에 원출(源出)하여 수조(數條)의 지류(支流)를 합치며 북류(北流)하고 있는데 지왕에는 본군 비봉면과 홍성군 장곡면 지역의 한토막 고여양현지대(古驪陽縣地帶)를 여양천(驪陽川)이라 하고 예산군 광시면과 대흥면지역을 고대흥현지대(古代興縣地帶)를 내천(奈川)이라 하였으며 다시 하류를 경결천(京結川)이라 하였다. 그리고 예산군읍 서편을 비로서 무한천이라 하여 근래 이 하류를 통칭 무한천이라고 하게 되었다. 이 무한천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 유역에 비대한 분지와 평야를 이루고 있으니 상류로부터 황성분지를 형성하고 다시 용천리 방한리 등에서 용천평야를 만들고 또 녹평리 등지에 가남평야를 이루었다. 이 무한천은 북류를 거듭하는 동안 예당저수지를 거쳐 곡교천(曲橋川) 삽교천(插橋川)등을 합류하여 홍문평야(鴻門平野)를 이루며 아산만(牙山灣)에 주입된다.

③ 箕島川(치섬천)

정산면 대박리에 있는 대박곡산(大朴谷山)에서 원출하여 동남간으로 흐르는 것이 기도천(箕島川)인데 그 유역에는 정산분지를 형성하고 금강(錦江) 반탄진(半灘津)으로 유입되고 있다.

④ 射場項川

七甲山에서 원출하여 동남쪽으로 흐르는데 장평면 미당(美堂) 분지를 이루고 청남면을 거쳐 금강(錦江)의 창강진(滄江津)에 유입된다.

⑤ 沙川

七甲山에서 원출하여 미당분지를 거쳐 사장항천으로 합류했다가 왕진으로 유입된다.

3. 平地

우리군은 지형이 대부분 산지로서 평지(平地)는 적은 편이다. 평지라 하더라도 차령산맥(車嶺山脈)의 주령(主嶺)을 중심으로 동부(東部)와 서부(西部)로 연장되는 지맥(支脈)인 모든 산악(山岳)사이에는 계곡(溪谷)이나 혹은 분지(盆地)로 형성되었다. 지천(芝川)이 흐르는 줄기를 따라 대치계곡(大峙溪谷) 시전계곡(柿田溪谷) 고리도평(古里島坪) 장수평(長壽坪)등이 있고 무한천(無限川)이 흐르는 곳에 화성분지(化城盆地) 용천평야(龍川平野) 가남평야(佳南平野)가 열렸고 기도천(箕島川) 유역에는 정산분지(定山盆地)가 열렸고 사장항천(射場項川)에는 미당분지(美堂盆地)가 열렸다.

① 大溪谷峙

대치면의 대치리 광대리 오룡리 주정리 탄정리 일대의 계곡이다.

七甲山 사이 芝川의 발원처이다.

② 柿田溪谷

대치면 시전리 상갑리 수석리 농소리 이화리 일대인 역시 七甲山中의 芝川 발원처이다. 특히 시전리는 평탄한 분지를 형성하여 농지가 좋다.

③ 古里島坪

군청소재지 앞에 전개된 지천 유역의 분지로 지천과 서천이 합류하는 평지이다. 자고로 비옥한 평야로 이름났고 읍내리 양수장에서 지천의 물로 관수에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읍내리 백천리 교월리 벽천리 적누리 정좌리 군량리 장승리 송방리 남양면 금정리 등 청양읍과 남양면 일부의 농경지가 바로 이 분지인 것이다.

④ 長壽坪

지천의 금강에 합류하는 곳 지천하류(錦江川)에 열린 청양군 최대의 평야이다. 장수평이라는 명칭은 오래전부터 불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장수평에 있는 형제바위라는 지석묘에는 강희갑술이월(康熙甲戌二月) 금강천수평 형제삼석교운운(錦江川壽坪兄弟三石橋云云)한 각자(刻字)가 있으니 강희갑술은 이조숙종이년(肅熙甲戌은 李朝肅宗二年)으로 이때도 이곳 지천을 금강천이라고 이곳 장수평(長壽坪)을 수평이라 하였음을 알수 있다. 장수평은 장평면의 구룡리 관현리 분향리와 청남면 대흥리 인양리 등지에 있는 평야이다. 과거에는 금강의 홍수로 인한 침수지역으로 불모지였던 것인데 근래에 제방을 축조하고 수리시설을 하여 약 1천 정보가 경작지가 옥토화 됐다.

⑤ 化城盆地(龍川平野 住南平野)

오서산과 백월산에서 원출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무한천 연안의 분지와 평야를 이룬 것이 화성분지이다. 이곳이 홍성군 장곡면을 거쳐 흐른다 해서 자고로 홍주긴골이라 불려오던 비옥한 평야로 농경의 좋은 곳으로 이름난 곳이다.

화성분지는 화성면의 산정리 구재리 장계리 화강리 농암리 매산리 신정리 광평리 용당리를 거쳐 흐르는 무한천을 중심으로 그 부근의 평지가 화성분지로 화성면의 농경의 요지인 것이다. 화성면의 용당리 수정리와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산성리에 걸쳐 있는 평야로 돼있으며 가남평야는 비봉면의 녹평리 장재리 강정리등과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등에 걸쳐 있는 평야로 역시 비옥한 토양으로 된 농경이 적지인 것이다.

⑥ 定山盆地

정산 고읍을 중심으로 그 앞에 열린 분지인바 정산면의 서정리 역촌리 광생리등과 목면의 지곡리 대평리 신흥리등에 걸쳐 있는 분지로 기도천(箕島川)은 이곳 농지의 관수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금강에 가까워 홍수기에 치수를 면치 못하던 것이 제방이 축조되어 침수를 방지하고 있다.

⑦ 美堂盆地

정산면 마티리에서 원출하는 하천과 장평면 적곡리에서 원출하는 하천이 합류하는 장평면 미당리를 중심으로 정산면 내초리 와촌리등과 청남면의 지곡리 청소리등에 걸쳐 있는 분지로 역시 농경이 요지이다.

4. 地質

第一節 地質 概觀

靑陽郡의 地質은 花崗片麻岩系 區域에 들어 있다. 本系는 全國的으로 三分之一의 廣大한 면적을 차지한 것으로 그 岩層構造를 살펴보면 暗灰色長石 暗灰色石英 黑雲母(혹은 金色을 띠는)가 그 主要 成分鑛物로 돼 있고 또 少量의 石榴石 藍靑石 電氣石 黑鉛등이 그 副成分鑛物로 形成되었다. 北東에서 南西로 斜走하는 車嶺山脈을 따라 이 花崗片麻岩系가 幅이 약 30킬로미터의 分布를 보이고 있는데 靑陽郡은 이 분포구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本系에 配屬되는 광상중에는 石英脈의 金銀鑛床을 가지고 있어 흔히 저명한 금광이 나타난다. 本郡에는 그러한 광맥이 있어 三光(운곡), 九峰(남양), 梅溪(남양)등은 그 중요한 金銀鑛산지대 였다. 그리고 靑陽重石(장평)도 이에 속하는 石英脈의 광산이었다.

5. 生物

靑陽郡의 植物 生存相을 살펴보면 七甲山 鳥樓山 白月山등의 산악지대와 분지 또는 평야의 저지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植物相은 타지방과 별다름이 없다. 산악지대의 植物相이나 평야지대의 植物相이나 모두 온대성에 속하는 난지식물의 번성을 볼 수 있다.

① 山岳地帶의 植物

七甲산은 車嶺山脈의 주요산봉이요 白月山은 本郡西南의 산이며 鳥樓山은 西海岸지대의名山이며 高岳인바 이들 산악지대의 植物相은 대체로 인근 聖住山 鷄龍山 伽倻山등과 같은 상태를 보이고 있어 百餘科의 植物이 자생 성장하고 있다. 鳥樓山은 林相이 매우 좋았으나 해방후 남벌로 林相이 좋지 못하다. 七甲山은 長谷寺의 寺刹林을 비롯하여 여러곳에 山林이 잘 보호되어 林相이 좋은 편이다.

七甲山과 白月山 鳥樓山の 산악지대 식물의 木本類로는 喬木類로서 소나무, 잣나무, 향나무, 참나무, 갈참나무, 물참나무, 굴피나무, 물푸레나무, 쇠물푸레나무, 생강나무, 소테나무, 자귀나무, 엄나무, 느티나무, 박달나무 등이 있고, 또 산벗나무, 산앵도나무, 복숭아, 독배나무, 아가배나무 등이 있다. 喬木類로서 진달래, 철쭉, 광대싸리, 조록싸리, 짚레나무, 개암나무, 산추나무 등이 있다. 草本類는 유두풀, 왁새풀, 도라지, 잔대, 쪽산마늘(山百合) 붓꽃(燕子花) 지보꽃, 원추리꽃, 할미꽃, 명석딸기 등이 있고 덩쿨蔓類는 산포도(머루)으름, 다래, 더덕, 멧가, 칩, 땡땡이 덩굴등이 있으며, 이밖에 각종 바위웃, 고사리, 송이버섯, 싸리버섯, 갯버섯, 외꽃버섯 등이 많이 나고 있다. 특히 고사리 송이버섯, 싸리버섯은 이 지방의 특산물이다. 七甲山과 白月山, 鳥樓山の 花岡岩 片麻岩등이 풍화작용에 의하여 붕괴된 토양이 덮인 산령과 산곡에는 소나무 자생지가 있고 한편 잡목의 자생지가 있으며 灌木과 덩굴등이 소나무 자생지 또는 잡목 자생지 사이에 있으며 草本類는 나무 없는 곳에 자생성장하고 있다. 특히 七甲山の 잣나무의 자생은 유명한 것이며 東國輿地勝覽 卷十九 靑陽縣條에 海松子가 토산물 기록되어 있으니 靑陽 잣(海松子)은 오래 전 부터 명산이었던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낙엽송 오리나무 리기다등이 조림사업용으로 사용해왔다.

② 低地帶의 植物

低地帶라면 芝川流域으로 林田盆地 大峙盆地 古里坪盆地 長壽坪盆地등이 있고 無限川流域으로는 化城盆地 龍川平野 佳南平野가 있으며 定山방면 4개면은 錦江沿岸에 定山盆地 美堂盆地등이 있다.

이들 盆地와 평야의 植物相을 살피고자 하는데 역시 특수한 상태는 발견할 수 없고 타지방과 별다름이 없다. 木本類로는 일반적인 것으로 槐나무, 참중나무, 옷나무, 개가죽나무, 복나무, 산수유나무, 오동나무, 벽오동나무, 능수버들, 조각자나무, 사철나무, 닥나무, 뽕나무, 산뽕나무, 가새뽕나무, 꾸지뽕나무 등이 있고 또 果實類로는 밤나무, 감나무,

고용나무, 대추나무, 호도나무, 은행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오야나무, 앵도나무, 배나무, 매실나무, 모과나무, 팽나무, 탱자나무 등이 있다. 참중나무는 부락민가 울타리 등에 자생 성장 하는데 키가 크고 꼼꼼하게 잘 자라는 나무이며 木質이 단단하여 가구재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옷나무는 漆材로 사용되 있기 때문에 옛부터 재배가 있었던 모양으로 東國輿地勝覽 卷十八 定山縣條에 의하면 칠(漆)이 토산물로 되었으니 定山방면에는 옷나무 재배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옷나무 재배등은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생도 보기 어려울 정도이니 자고로 韓國漆器는 유명한 것인데 이대로 나가면 漆材가 염려 되지 않을수 없다. 또 닥나무는 제지(韓紙)원료로 재배되었고 뽕나무 꾸지나무 등은 양점을 하기위하여 고대로부터 재배되고 있다. 그리고 定山面 天庄里의 호도, 大峙面 鶴川里의 대추, 雲谷面 孝悌里, 大峙面 柿田里의 감 등은 本郡의 특산물이라 하겠다. 또 雲谷面 位羅里와 靑陽郡 栢川里에서는 구기자(枸杞子)재배가 성행되고 있다. 이밖에 포푸라, 프라다나스, 아까시아, 고네데까시아, 外來樹種이 수입되어 우리나라의 풍토와는 색다른 나무들이 번식되고 있다. 草本類는 참대, 왕대, 시누대, 오죽(烏竹)등이 있어 각처에 군생을 보이고 재배되고 있으나 내륙지방인 관계인지 해안지대와 같이 무성하게 성장되지 않고 있으며 겨우 “비”를 매어 쓰는 용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雜草는 타 지방과 다름없이 기이한 식물은 볼수 없다. 그리고 농가에 “왕굴”재배와 모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왕굴”재배가 성행하여 “돛자리” 花紋席등이 면산지라 하였으나 점차 퇴색되고 수도작으로 그리고 타종의 특용작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 모시 재배에 있어서도 상황을 보이어 靑陽의 白苧布와 春布등을 명산물로 여겨왔던 것이다. 長谷寺 下大雄殿 金銅藥師如來坐像의 腹藏物로 至正六年記가 있는 百苧布가 발견됐으니 靑陽의 苧産은 高麗時代 이전 부터 名産이었던 모양이다. 그리하여 韓山, 鴻山, 扶餘, 林川, 靑陽, 定山, 庇仁 등은 苧産八邑으로 이름났고 이 八邑을 中心으로 裸負商들이 발달하였던 사실도 있다.

그러나 요즘은 화학섬유로 인하여 모시 재배등이 쇠퇴해가고 있다.

③ 觀賞用樹

부락의 주택과 관공서의 정원 또는 화원에는 松柏, 杏檀, 碧梧桐, 紅桃, 碧桃, 木蓮, 牡丹, 映山紅, 芍藥, 蘭草등 정원수와 화초를 식재하고 있고 혹은 못을 파서 蓮花를 심고 楊柳를 심는 일도 있어 東洋的인 美를 취하려는 風土色이 그대로 남아 있다. 定山面西亭里 현재 면사무소 안에 蓮池가 있고 그 연지는 白蓮이 식재되고 있다. 옛날 定山縣 東軒에 있었던 池塘으로 못 가운데는 小島를 築造하고 그곳에는 晚香亭을 構築하여 池水에

는 白蓮을 심었으며 그야말로 우리의 典型的인 庭園美를 보이던 것이다. 槐木나무, 銀杏나무는 그 樹齡이 길고 크게 자라는 나무로 巨樹가 되어 주민들의 亭子나무라하며 가꾸고 있는데 우리지방의 동구나 주택변에 있어 그 아름다운 쉼터로 또는 풍치를 보이고 있다. 植物相에 대하여 특기해야 할 것은 名門巨族들이 住居하는 部落앞에 水口막이라 하여 洞口밖에 줄을 지어 나무를 심어 기르는 風習이 있다. 그는 소나무, 잣나무, 향나무, 수양버들, 왕버들, 槐木나무등 각종 수목을 심기도 하고, 또 이밖에 여러가지 나무가 自生하여 울창한 천연림의 감을 주는데 이는 향토색이 있는 風致를 돋우고 있어 흔하게 古代山水畵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수도 있고 또 松柏과 楊柳는 詩士와 墨客들의 詩題가 또는 畵題가 되기도 했다.

④ 藥草

靑陽地方에는 山岳地帶이어서 野生藥草도 많고 또 農村에서는 부업으로 藥草栽培도 하고 있다. 야생 또는 재배하는 약초는 다음과 같다.

- 山에 自生하는 것 : 창출(蒼朮), 구절초(九節草), 복영(茯苓), 할미꽃, 백두옹(白頭翁), 현삼(玄蔘), 소태나무(苦木), 도라지(桔梗)

- 들에 自生하는 것 : 반하(半夏), 육모초 또는 익모초, 주손이풀, 약쑥, 금은화(金銀花)

- 栽培하는 약초 : 인삼(人蔘), 행인(杏仁), 구기자(枸杞子), 천궁(川芎), 지황(地黃) 이 밖에 白지, 오미자(五味子), 산수유, 박하(薄荷), 택사(澤瀉), 매문동(麥門冬)등이 재배되고 있고 특히 枸杞子是 재배의 적지로서 다량생산 되고 있다.

6. 動植物

靑陽郡의 動植物은 七甲山 獅子山 白月山 烏棲山 같은 山岳地의 산짐승 산새들과 盆地와 平野地帶의 昆虫과 家畜, 錦江, 芝川, 無限川의 담수어등을 열거 할수 있다. 그러나 타지방과 같은 動物相을 하고 있을뿐 특수한 것은 없다.

그런데 여기 動物이 전반을 말하는 것을 약하고 본군에 몇 가지만을 열거해 본다.

산짐승은 토끼, 오소리 등이 살고 있는데 이중 토끼가 가장 많다. 산새로는 산간 지방이기 때문에 많은 종류가 서식하고 있으나 특이한 것은 없다. 숲속에는 꿩이 많고 무성한 森林속에는 딱따구리가 살고 있는데 이는 이 지방의 명물인 것이다. 그리고 봄부터

여름철에 걸쳐서 피꼬리, 소쩍새, 빠꾸기등 후조는 울음소리가 곱고 두견이라 하여 옛부터 詩文에 오르내리는 새로 한때 이 산간지방의 時情을 돕고 있다.

평야와 村落의 候鳥로 春節의 제비와 冬節의 기러기도 철따라 情緒의 감이 된다. 그리고 요즘은 까치는 많으나 까마귀는 줄어 들고 있다.

곤충류(昆虫類)도 많으나 특이한 것은 없고 밀봉(蜜蜂)은 특기해야 할것으로 東國輿地勝覽 卷十八 定山縣條에 의하면 밀봉이 토산물로 되어 있으니 재래종의 벌(蜂)이 많았던 모양이다. 靑陽은 七甲山을 中心으로 하여 蜜源이 좋아 양봉의 적지로 되어 있다. 가축으로는 소, 돼지, 산양, 개, 고양이, 토끼 그리고 닭, 오리, 비둘기 등이 있어 특이한 것이 없고 錦江, 無限川, 芝川과 이들 하천 지류에는 담수어류가 많은데 역시 타지방의 담수어와 같고 특이한 것은 없다.

7. 鳥類

鳥類는 일정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留鳥와 또 기후와 식물등 적지를 찾아 다니는 候鳥가 있는데 후조는 여름철에 와서 살고 가는 夏鳥와 겨울철에 와서 살고 가는 冬鳥가 있다. 留鳥는 년중 향토에 있는 새로 참새, 까치, 까마귀, 꿩, 딱다구리, 부엉이, 매, 소리개, 수리, 등이 있다. 참새, 까치, 까마귀, 꿩등은 우리나라에 많은 수가 서식하고 있어서 때를 지어 나르는 것을 볼수 있다.

참새는 곡물을 먹는 것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많이 입고 있으며 까치와 까마귀는 오작(烏鵲)이라 하여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많았는데 요즘은 그 수가 갑자기 줄어들어 희소한 새가 됐다. 꿩은 색깔이 곱고 고기 맛이 좋아 옛부터 鄉土鳥로 이름이 높아 외국에 수출한 史記도 있으니 한국꿩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딱다구리는 七甲山 白月山 烏棲山등 심산 골짜기에 서식하며 樹林속의 해충을 먹고사는 익조인 것이다.

이밖에 부엉이, 매, 소리개, 수리등은 맹조(猛鳥)이며 작은 새를 잡아먹고 사는 육식조인데 그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8. 候鳥

夏鳥는 여름철이면 우리고장 향토에 와서 살다가 가을철이면 가는 새들이 있으니 제비, 피꼬리, 빠꾸기, 두견이, 소쩍새, 황새등이 있다. 제비는 삼월삼짇날이면 강남에서 온

다는 말이 있지만 봄철에 와서 인가의 집에와서 집을 짓고 새끼를 친다. 그리고 야외 전답주변에 나가 벌레를 잡아다가 새끼를 기르고 먹고 살다가 가을이 되어 찬바람이 불면 떠나간다. 제비는 익조(益鳥)의 하나로 옛부터 사람들의 귀염을 받아왔고 또 고래(古來)로 흥부, 놀부의 제비에 대한 전래설화가 있으니, 이는 향토풍이 있는 줄거리로 제비가 우리나라에 원래한 것은 자세한 년대는 알수 없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임을 알수 있다. 찌꼬리는 산심사월시문앵(山深四月始聞鶯)이라 한바 있거니와 음력 4월경이면 와서 녹음새로 다니며 고운 목소리로 울며 정서를 돋우고 있다. 또 빠꾸기도 같은 때에 와서 역시 숲속에서 울어 사람들의 심정을 혼돈다. 그리고 두견(杜鵑)이는 나름대로 운다.

소쩍새는 자규(子規)로 우리나라에 여름철이면 와서 살고 가는 새들로 야간이면 정적 속에 우는 소리가 정서적이어서 고시문에 많이 보이는 새들이다. 황새는 봄철에 와서 물가의 물고기 우렁등을 잡아 먹고 나무에 집을 짓고 새끼를 치며 가을철에 가는데 곳곳마다 이들의 군서지를 남기고 있다. 이밖에 뜸부기, 따오기등도 이 시절의 후조들이다. 이상 하조(夏鳥)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살다가 가는 후조로 그 역사는 오래된 것 같다. 이 후조들은 따뜻한 지방에서 월동(越冬)하고 하절에 이곳에 와서 살다가 다시 동절이면 남방으로 가는 것으로 살기에 알맞은 기후를 찾기도 하는 것이지만 곤충(昆虫)은 또한 과일(果實)이나 풍성한 곳을 찾아 식물을 구하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동조(冬鳥) 가을철이 되어 서리가 내리면 낙엽이 지게되고 이때에 찾아드는 후조들이 있으니 이것을 동조라고 한다. 기러기, 오리, 학두루미 등과 쭉새, 방울새등이 있다. 기러기는 겨울철에 창공을 일자나 팔자형으로 나르는 것을 볼수 있다. 오리는 색깔이 고운 것으로 강가나 하천등에서 유영하는 것을 볼수 있으며, 기러기, 오리는 모두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물가에 날아와서 떼지어 모여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본군에도 옛날이는 금강연안과 무한천 유역등의 평야지대에 학두루미가 모여 있고 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 있다. 그러나 요즘은 이 학두루미는 이제 보이지 않고 있다.

문화가 우리에게 부여한 것들

구 재 기 | 시인 · 충남문인협회장

‘문화’라는 말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공유(共有)·전달되는 행동 양식 내지 생활 양식의 총체’로서 ‘자연 상태와 대립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극복한 것임’이라고 한다. 또한 ‘언어·풍습·종교·도덕·학문·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를 일컬음이다. 그러다 보면 예술이란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인간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함이 옳지 않을까? 그렇다. ‘문화’란 그 수많은 인간 생활의 모든 것 중에서 습득·공유(共有)·전달되어 와서 오늘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인간 생활의 총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에 관한 한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란 어떻게 전달받아 가장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뒷세대에 전달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문화의 참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명제를 얻을 수 있다.

‘문화란 이를테면 커다란 유기체이다. 이 유기체는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가 전체의 정신에 의거하여 일할 수 있는 장소를 할당해 준다. 그리고 각 개인의 힘은 당연한 일이지만, 전체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측정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가 없는 시대에는 힘이 분산되어 버린다. 그리하여 개인의 힘은 대립되는 힘이나 마찰 저항 때문에 소비되고 만다. 그러므로 개인의 힘이 표현되는 것은 힘껏 뻗 쪽의 길에서가 아니라 마찰 저항을 극복하였을 때 생기는 일인지 모른다’고 L.비트겐슈타인은 [반철학적 단장]에서 말하고 있다. 삶의 가치관에 의하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수없는 마찰의 극복은 분명 새로운 생활의 한 모습을 창조해내곤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새롭게 창조

해내는 생활의 한 모습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4년 [홍주문학]의 탄생은 홍성지방 전체에 미치는 문화적 공헌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팽배해지고 있었던 문화적 욕구가 [홍주문학]의 탄생으로 분출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87년 4월 [홍주문학]이 중심이 되어 발간하기 시작한 [홍주소식]은 매월 50여 쪽의 지면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 등 제 방면에서 가치 있는 생활 모습의 정립을 제시해 왔다.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하여 문학·미술·음악·국악·연극·사진 등 제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결과 홍성의 [만해제]는 홍성 사회인들에게 가치 있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방향 제시해주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찾게 해주었다. 결국 1984년 [홍주문학]의 탄생은 [홍주소식]의 발간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홍성의 문화적 움직임은 결국 [만해제]를 낳았고, [만해제]가 결국 지역 사회인들의 문화적 관심의 열기에 촉매적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미술·음악·연극·국악·사진 등 제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온 것이다. 특히 1987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만해제]에 따른 그 문화적 열기는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부가적 문화 활동은 더욱 거세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는 그러나, 진리와 오류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은 배제할 수 없다. 즉 지방적 시각의 한계는 문화가 모든 것을 포용하여 복합적으로 가치를 추구한다는 근본적 문제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방 의식의 고양에 가져오는 이러한 문제는 근시안적 시각의 타파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언젠가 필자는 [물과 관(管)과, 그리고 예술]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예술에 대하여 말한 바가 있다.

물과 관의 모습에서 세삼 '중용(中庸)'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중용이란 이것도 저것도 모두 받아들일 줄 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흔들리고 '죽대'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중용(中庸)의 도(道)를 가진 사람이 자칫 대부분의 사람으로부터 갈대 같은 사람으로 곧잘 업신여김을 당함은 물론 그 나약함에 알보이는 것도 그러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다. 알보고 업신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마음의 눈이 한껏 멀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중용이란 바로 남이야 어찌 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전혀 변하지 않는 튼튼한 '죽대'를 가질 때에야 가능하다. 물이나 관(管)은 바로 이러한 중용의 덕을 지닌 은인(隱

忍)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예술이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면 문화 또한 중용의 도를 저버릴 수 없다. 중용은 문화에 있어서의 '죽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물흐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문화는 선진 문화로부터 후진 문화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진 문화는 자연스럽게 선진 문화에 의하여 그가 가지는 고유 문화의 영역을 잠식당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을 염려하여 후진 문화가 자신의 문화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다면, 문을 닫아 선진 문화의 유입을 막아버린다면, 그 문화는 영영 제 자리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말 것이다. 문화에 있어서의 묵수(墨守)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후진 문화는 선진문화에 대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화를 선진 문화와의 접합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문화를 한 단계 높일 일이다.

이제 지역 문화는 선진 문화에의 개방의식을 높여야 한다. 선진 문화는 높은 파고를 타고 밀려오는데 막을 재간은 없다. 과감하게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와 함께 내 문화를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은 결국 자신의 문화를 선진화함으로써 제2·제3의 후진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문화의 수출이다. 한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문화인이란 누구든지 그 지방의 문화 사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선진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자신의 지방의 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온갖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화는 분명 걸음으로 드러나기에 한없이 부드럽고 가볍고 맑고 밝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화와 선뜻 가까이 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또 그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문화는 본래부터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는 사람의 정신에 강한 그 어떤 것을 기르게 한다. 물과 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유약하게 보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중용의 덕으로 강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장기균의 [중국철학사]에 나오는 말에 의하면, “물과 같은 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천하에서 가장 유약(柔弱)한 것이지만, 그것을 등글게 하고자 하면 등글게 할 수 있고, 모나게 하고자 하면 모나게 할 수 있고, 높게 하고자 하면 높게 할 수 있고, 내려가게 하고자 하면 내려가게 할 수도 있다. 물은 어떤 환경에서도 능히 적응할 수 있으니 이것이 곧 그의 강한 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문화 또한 그런 의미에서 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지방의 문화는 이와 같이 물과 같은 마음의 부드러움에서 '문화'가 우리에게

부여한 것들을 바로 찾는 데에서 창조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 문화가 가지는 하나의 현상, 하나의 체험, 하나의 모범이 다른 것들을 추방시키는 일은 지방색이 나날에 있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속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지방 문화가 가져야 할 문화에의 격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참다운 문화를 바탕으로 지방문화의 이상화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아니 우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 문화는 스스로 만든 이상에서 벗어나 '너'와 '나'의 가치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참다운 문화의 본질을 바로 함으로써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1년도 충청남도 문화예술인대회 수상자 명단

충청남도지사 표창

- 김 세 영 (아우내문화원)
- 김 창 수 (금산문화원)
- 황 규 영 (조치원문화원)
- 박 창 규 (부여문화원)
- 김 태 영 (홍성문화원)
- 박 재 길 (한국예총 공주지부)
- 정 안 길 (한국예총 부여지부)
- 이 진 자 (한국예총 예산지부)
- 이 영 운 (한국연극협회 충남지회)
- 한 상 복 (한국음악협회 충남지회)
- 김 원 희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지회)

전국문화원연합회장 표창

- 고 봉 택 (청양문화원)
- 정 성 태 (태안문화원)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지회장 표창

- 김 홍 자 (천안문화원)
- 이 병 섭 (성환문화원)
- 임 형 숙 (대천문화원)
- 김 기 영 (서산문화원)
- 김 영 훈 (서천문화원)
- 한 상 봉 (청양문화원)
- 박 순 도 (예산문화원)
- 장 성 용 (당진문화원)

한국예총회장 표창

- 김 면 세 (한국예총 공주지부)
- 정 찬 국 (한국예총 부여지부)
- 유 보 근 (한국예총 공주지부)
- 황 래 목 (충청남도 문화관광과)

한국예총 충남지회장 표창

- 심 현 미 (한국예총 아산지부)
- 신 효 수 (한국예총 서산지부)
- 김 홍 규 (한국예총 논산지부)
- 권 기 복 (한국예총 홍성지부)
- 조 진 행 (한국미술협회 충남지회)
- 문 상 재 (한국문인협회 충남지회)

제45회 충청남도 문화상 시상

▶ 일시 : 2001. 12. 12(수) 10:30

▶ 장소 : 충청남도청 대회의실

▶ 문화상의 취지

우수한 연구·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을 통하여 향토 문화 선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그 공적이 뚜렷한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수상자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고 신 지방문화 창조에 기여

▶ 시상연혁

- 1957년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서 문화상 창설
- 1969년(13회)부터 충청남도로 이관
- 2000년까지 44회에 걸쳐 241명의 수상자 배출

▶ 수상부문(5개분야)

- 학술부문
- 예술부문
- 문학부문
- 지역사회개발부문
- 체육부문

▶ 시상내용

- 수상자에게는 충청남도지사 상패와 부상으로 각 500만원 수여

학술부문 Academic Field



姜 憲 圭

• 1940. 5. 15 生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새미래APT 811동 302호
• 공주대학교 교수

▶ 약력

- 1963. 2 공주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 1968. 2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수료(교육학석사)
- 1966. 8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수료(문학박사)
- 1966. 10~80. 9 서울 오산고 교사, 공주교육대학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 1980. 10~현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조교수·부교수·교수
- 1985. 3~97. 2 백제문화연구소 소장
- 2001. 3~현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육연구원 원장

▶ 공적개요

- 1968년부터 33년간 국어국문학의 분야에 깊은 관심과 광범위한 연구로 국어어원론과 국어사분야에서 110여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우리말 어원연구에 평생을 바쳐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쌓음.
- 1988년 출간된 논문 「韓國語 語源研究史」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계림유사, 향가 등 중세국어의 여러 문헌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어휘들의 어원을 한국, 일본, 중국, 몽고의 많은 옛 문헌 수집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밝혀내어 어원론을 참된 과학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함.
- 또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3차례에 걸쳐 국어학 논문을 발표해 국어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등 국위를 선양하였으며, 특히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사,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회장 등 중책을 맡아 오면서 국어학 발전에 크게 기여함.

예술부문 Arts Field



宋 建 鎬

• 1947. 3. 20 生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313-3
• 우리소리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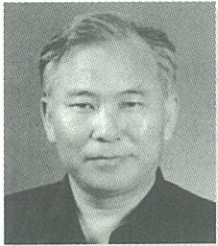
▶ 약력

- 1958. 2 부여초등학교 졸업
- 1966. 8 대전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1967. 3~93. 2 (사)한국국악협회 부여지부 이사, 충남도지회 사무국장
- 1991. 5 백제제례악단 창단 추진위원장
- 1992. 9~2001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충남대표팀 연출(6회 출연)
- 1998. 2~현재 (사)부여문화원 이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여 부지부장
- 1999. 12~현재 우리소리회 회장

▶ 공적개요

- 1990년 한국국악협회 충청남도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부터 부여옛소리 연구회 조직, 지역순회 무료 풍물강습회 개최, 사라져가는 풍장소리, 농요 등 우리소리를 채집함으로써 전통민속놀이 발굴과 체계적인 보존에 남다른 심혈을 기울여 왔음.
- 부여지방에 전래되는 「용정리호상놀이」를 체계적으로 정리·복원하여 1992년 경북 구미에서 개최된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국무총리상 수상, 제35회 당진 「안섬풍어당굿놀이」로 장관상, 제36회 「부여단잡기놀이」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총 6회에 출연하여 상위입상함으로써 충남민속의 우수성을 전국 무대에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
- 민족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순수한 우리가락을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매년 30여회 이상 무료강습회를 실시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순화는 물론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일깨워 주는데 크게 기여.

문학부문 Literature Field



具重會

• 1946. 11. 21 생
• 충남 공주시 신관동 곰나루
APT 104동 407호
• 공주대학교 교수

▶ 약력

- 1971. 2 공주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 1978. 2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수료(문학석사)
- 1987. 2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수료(문학박사)
- 1982. 3~현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조교·조교수·부교수·교수
- 1996. 4~98. 4 공주대학교 부설 정신과학연구소 초대소장
- 1998. 3~2000. 2 (사)한국문인협회 제5대 공주지부장
- 1998. 6~현재 금강민학회 초대회장
- 1999. 11~현재 계룡산산신제보존회 초대회장

▶ 공적개요

- 1980. 10월호 “心象”월간 詩誌에 “은사시나무 울타리” 외 2편의 詩로 문단에 등단한 이후 충남 고유의 정서를 함유한 주옥같은 100여편의 학술논문·문학작품을 저술하였고 활발한 문학비평 활동으로 충남문학을 한 차원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함.
- 1990년부터 충남의 민속문화 연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공주의 민속”, “계룡산산신제 복원 조사보고서”, “삼천궁녀제 연구”를 비롯한 사라져가는 충남민속의 문학적 발굴을 통하여 충남정신문화 실체를 새롭게 조명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몽골의 祭의 문화 “인문사회과학” 및 한국·몽골의 전통문화 비교 등 그 문학적 업적이 뛰어남.
- 1998년 한국문인협회 공주지부장을 비롯한 계룡산산신제 보존회장, 금강민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계룡산 산신제복원 등 충남문학발전과 민속문화연구·복원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함.

지역사회개발부문 Community Development Field



趙昶姬

• 1931. 11. 22 생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산1
• 사회복지법인 덕산신행원 원장

▶ 약력

- 1944. 3 서울 계성초등학교 졸업
- 1998. 2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수료
- 1945. 9~50. 6 서울 성바오로진료소 근무
- 1956. 12~58. 3 인천 해성보육원 보육사
- 1959. 10~60. 6 경남 함양유치원 교사
- 1962. 4~현재 사회복지법인 덕산신행원 원장

▶ 공적개요

- 1945년 성바오로 진료소 사회봉사를 시작으로 1962년 4월 덕산면 시랑리 355번지 포도원의 간이숙소 신생원에 부임하여 사비 5백만원을 들여 30여명의 원생을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로 양육하였으며, 1964년 현대식 시설 건립 이후 1992년 시설 보강을 위한 정부지원 부족분 32백만원을 동료직원 2명과 함께 사비로 부담 건립하는 등 참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회봉사자임.
- 1962년부터 40여년동안 500명의 원생들을 양육하면서 천주교 신앙으로 사랑을 심어 주고, 민속풍물을 통한 특기적성 교육과, 매년 여름방학에는 5일간의 예절 합숙교육을 실시하는 등 참사랑의 가족애로 보살피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당당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 배출시킴.
- 지역 주민들의 마음속 고통을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한 가정문제의 해결과 이웃의 고통받고 있는 병약자를 위한 방문위로와 기도, 그리고 틈틈히 시간을 내어 교도소를 방문 제소자들과 면담을 통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화하는 등 밝고 명량한 건전사회 조성에 헌신하고 있음.

체육부문 Sports Field



陳泰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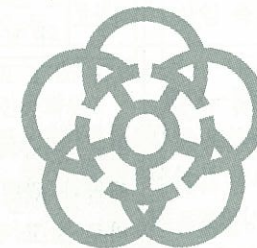
• 1941. 1. 8 생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2-20
• 충남체육고등학교 교장

▶ 약력

- 1959. 3 공주사범학교 졸업
- 1967. 11. 문교부 중등학교 체육교사자격 검정고시 합격
- 1959. 6~88. 2 금남초등학교 교사, 조치원·대전서중학교 교사
- 1988. 3~94. 8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충남체육고등학교 교감
- 1994. 9~97. 2 충청남도교육청 체육교육담당 장학관
- 1997. 3~현재 충남체육고등학교 교장

▶ 공적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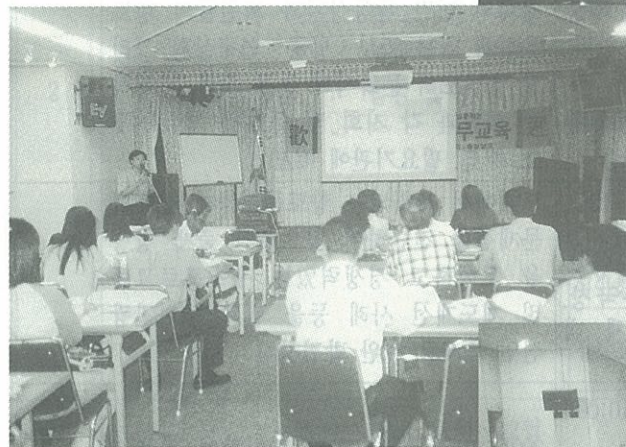
- 1959년 6월 연기 금남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42년간을 초·중·고 교단과 도교육청에 재직하면서 후학양성에 힘써왔으며 그 공로로 1978년 모범교원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고, 학교체육 연구논문 발표대회 5회 입상 등 평생을 충남체육 진흥발전에 최선을 다한 공로자임.
- 1988년 충남도교육청 장학사로 재직시 제24회 서울올림픽 유공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내 고장 체육영재 조기발굴을 위한 교육과 대전광역시 분리 이후 열악한 충남체육의 재도약을 위한 충남체육고 설립을 제안·추진 하였으며, 충남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인 “21세기를 향한 충남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충남체육 발전의 기틀을 다짐.
- 1994년 충남도교육청 장학관, 충남체육고 교장으로 부임 후 제78회 전국체전 6위로 도약, 제79회 전국체전 3위, 제80회 전국체전 4위 입상에 이어 2001년 우리도 천안에서 개최된 제82회 전국체전에서 영예의 종합우승을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함.



2001년 충남도지회 활동상황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문화원중보자 실무 교육	- 일시 : 2001. 8. 24 - 장소 : 천안문화원 - 대상 : 도내 17개 문화원 사무국장 및 회계 담당 간사	향토문화 창달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지방문화원 중사자들의 사업기획능력 배양과 업무능률 제고를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2	향토사 연구 활성화	- 일시 : 2001. 11. 19 - 장소 : 부여문화원 - 대상 : 향토사연구위원, 문화원장, 문화원 임원 및 중사자	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사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국사 정립과 향토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문화원당 1편 이상의 사료연구 논문을 응모받아 7편을 시상하고 이중 최우수, 우수작 4편은 세미나를 개최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명</th> <th>제 목</th> <th>등급</th> </tr> </thead> <tbody> <tr> <td>황의천</td> <td>백강·주류성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td> <td>최우수</td> </tr> <tr> <td>이은우</td> <td>서산지방 시장의 역사</td> <td>우수</td> </tr> <tr> <td>이인화</td> <td>한말 당진 의병전쟁 연구</td> <td>우수</td> </tr> <tr> <td>김창호</td> <td>문헌조사를 통한 향토충신의 행적발굴</td> <td>우수</td> </tr> </tbody> </table>	성명	제 목	등급	황의천	백강·주류성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최우수	이은우	서산지방 시장의 역사	우수	이인화	한말 당진 의병전쟁 연구	우수	김창호	문헌조사를 통한 향토충신의 행적발굴	우수	
성명	제 목	등급																	
황의천	백강·주류성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최우수																	
이은우	서산지방 시장의 역사	우수																	
이인화	한말 당진 의병전쟁 연구	우수																	
김창호	문헌조사를 통한 향토충신의 행적발굴	우수																	
3	역사바로알기	- 일시 : 2001. 11월~12월 - 대상 : 중·고등학교 학생 - 방법 : 충남도내 문화원을 대상으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에 관한 생각을 논문 형식으로 제출받아 시상함.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일본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바로 보고 올바른 사관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의 이면에 깔린 원인과 이유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4	문화원 운영 실태 자체점검	- 일시 : 2001. 11월~12월 - 대상 : 도내 17개문화원 - 방법 : 문화원에 비치해 야 될 문서가 모 두 구비되어 있는 지를 파악하고, 각 문화원의 운영 현황을 파악함	지방문화원의 발전적인 문화활동의 전개 를 위하여 기획, 조직, 시설, 재정, 사업추 진 제규정 제정 시행 등 문화원 운영 전 반에 걸쳐 운영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하 여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 을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 록 함.	
5	해외문화 교류사업	- 일시 : 2001. 6. 13~22 - 장소 : 러시아 등 - 대상 : 도내 17개 문화원장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지구촌화된 현실을 직시하여 국가경쟁력은 문화에서 비롯되 므로 자국 문화의 전통은 유지하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문화발전을 도모하며 상 호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 로써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 창달의 계기를 마련함.	
6	충남문화 (5호) 발간	- 일시 : 2001. 1월~12월 - 대상 : 도내 17개 문화원 - 규격 : 4×6배판 - 수량 : 1,000부 - 내용 : 문화원 활동상황 지역문화 칼럼	충남도지회가 출간하는 『충남문화』는 본 지회의 연간 활동상황과 회원들의 향토 문화에 대한 조사·발굴·연구상황 그리 고 충남도의 문화시책 등을 수록, 간행하 여 회원과 각 지회 및 문화원, 향토연구 소, 개인, 필요기관에 배포.	
7	향토축제 개선을 위한 연수회	- 일시 : 2001. 12. 18~19 - 장소 : 롯데오션캐슬 - 대상 : 시·군축제담당자, 임원, 사무국장, 축제주관단체 대 표자 등	도내에서 개최되는 향토문화축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여 앞으로의 축제 방 향을 모색하고 경쟁력있는 우수프로그램 및 제도개선 사례 등을 발표 문화관광 산업 축제로 보완 발전시킴	
8	지방무형 문화제	- 일시 : 2001. 4. 25 10:00 - 장소 : 당진문화원 - 대상 :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탐방 참석자	2001 지역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전국 9 개도 지방문화제(춤, 창, 민요 등) 공연 개최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계기 마련	
9	전국체전 역도선수 후원사업	- 일시 : 2001. 8월~10월 - 장소 : 공주 영명고등학교 - 대상 : 전국체전에 출전 하는 충남도 역 도선수를 대상으 로 실시함.	2001년 천안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문화원도지회가 역도부분 선수 의 후원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선수들 훈련시 격려차 위문하고 전국체전 경기 시 참석하여 응원함으로써 선수들의 사 기를 진작 및 충남도의 선전을 기원함.	



2001년 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2001 전국체전 성공개최기원 민속놀이 체험행사	- 기간 : 2. 5 ~ 15 (연날리기 2. 10) - 장소 : 천안삼거리공원 - 참여인원 : 1,000여명	2001 전국체전 성공개최기원 민속놀이 (연날리기, 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등) 체험행사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민속 체험의 장으로 연날리기 시연회, 연 제작 교실 등 개최	
2	천안문화사랑 홍보물 교체	- 규모 : 30평 - 장소 : 천안역 역사내 - 기간 : 3. 12 ~ 3. 20	천안역 역사내 문화홍보관으로 설치된 천안문화사랑의 홍보물을 전국체전의 봄 조성작과 함께 천안시의 도시환경 소개를 위한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된 자료, 문화 환경 및 도시현황 등으로 교체 천안의 예술 작품(서예, 서양화, 한국화, 디자인 등) 교체	
3	2001 문화학교	- 기간 : 4월 ~ 12월 - 과목 : 12개 과목 - 수강인원 : 400여명	요일별 개별강좌 기타, 다도, 실내악, 한문, 사진 등 12개과목 유적지순례(5월 22일)-수원 경기박물관, 안성 칠장사 등	
4	수채화 교실	- 기간 : 4월 ~ 12월 (매주 월, 화요일) - 수강인원 : 60명	소묘, 데생, 수채화 초급 및 중급과정 야외스케치 및 전시회 관람 등 년 1회 작품전 실시	12. 27~30 작품전
5	시창작 교실	- 기간 : 4월 ~ 12월 (매주 금요일) - 수강인원 : 25명	예술강좌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론, 수사론, 문장론 등 시창작 강의 년 1회 시집 발간	
6	향토문화자료 17집 "실록속의 천안인(下)" 발간	- 발행일 : 4. 7 - 발행부수 : 1,000부	조선왕조실록 속에 나타난 천안인을 발췌 수록(상, 하권으로 나누어 발간)	상권 2000. 11월 발간
7	한고을 한문화운동 - 여류시인 김부용 추모제	- 일시 : 4. 29(11:00) - 장소 : 광덕산 운조묘역 - 참석 : 100여명	다례, 헌시낭독, 시세계 조명강의 등 문인협회, 향토사연구소, 문화가족, 회원, 천안차인회 회원등 100여명 참석	
8	지역현장 문화시민교육	- 일시 : 6. 8(19:00) - 장소 : 문화의 집 - 참여인원 : 60명	지역주민들의 옳은 생각, 좋은 습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강연회로 지역출신 작가인 최병호 수필가를 초청 일상생활 속에 착근할 수 있는 문화분위기 확산에 기여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9	어머니합창단 운영 -제8회 정기연주회	· 일시 : 6. 14(19:00) · 장소 : 천안시민회관 대강당 · 참여인원 : 1,000여명	천안문화원 노래사랑 문화가족 어머니합창단(레이디스 싱어즈)의 여덟번째 정기연주회 단원 60명, 성악가 특별출연 매주 토요일 오전 합창연습, 영상음악감상	
10	“천안문화” 32호 발간	· 발행일 : 6. 25 · 발행부수 : 1,000부	향토문화정보지로서 상반기 천안지역 문화예술소식, 논단, 장르별 활동, 기획 특집 등 수록	
11	개원 47주년 기념식 및 노래비 제막식	· 일시 : 7. 7(10:30) · 장소 : 삼거리공원 · 참석 : 300여명	기념식(기념사, 축사, 유공문화예술인 표창, 사업보고, 지역문화선언문 낭독, 문화원 송가 합창 등) 및 노래비 제막식, 리셉션 등 실시 기관, 단체장, 일반시민, 문화예술인등 참석	천안삼거리 노래비 제막식
12	“화미회” 수채화전	· 기간 : 7. 7 ~ 12 · 장소 : 전시실 · 참여 : 회원 11명	수채화교실 수강생 중 중급과정을 이수한 11명으로 구성된 “화미회” 세번째 작품전	
13	글짓기 교실	· 일시 : 7. 23 ~ 31 (10:30~12:30) · 대상 : 초등학교 3~6년생 · 인원 : 40명 수강	초등학교 3 ~ 6학년 대상으로 신청접수 후 40명 수강 작문지도, 독서지도, 원고지 작성법 등 강의	
14	향토축제 개선사업	· 일시 : 7. 26(14:00) · 장소 : 문화의 집	향토축제(천안삼거리문화제)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토론회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 위원 등 30여명 참석	
15	지역현장 문화시민교육	· 일시 : 9. 14(19:00) · 장소 : 문화사랑방 · 참여인원 : 100명	지역주민들의 옳은 생각, 좋은 습성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민병달 문화원장을 초청 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선진생활문화 강연회 실시	
16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문학축전 (가을로 떠나는 문학축전)	· 일시 : 10.21(14:00~21:00) · 장소 : 천안문화원내 놀이마당, 야외무대 · 참여인원 : 600여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문학(시창작)강의, 시화전, 시낭송, 동화구연, 클래식기타연주, 라이브가수초청공연, 소설가 박범신 초청문학강연, 모닥불축제 등 1, 2부로 나누어 실시	
17	제31회 학생 글짓기대회	· 일시 : 10.21(10:00~17:00) · 장소 : 천안문화원내 시민공원 · 참여인원 : 600여명	초·중·고생 대상 (학교별 각 10명씩 추천 받아 실시) 당일 심사 후 시상	

사업순위	사 업 명	세 부 사 항	활 동 상 황	비 고
18	강의실 개축공사	· 착공 : 10. 15 · 완공 : 11. 5	옥상층 강의실 개축 공사 문화학교 및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강의실로 사용	
19	향토문화자료 18집 “천안의 향교와 서원·사우” 발간	· 발행일 : 11. 10 · 발행부수 : 1,000부	천안지역의 향교와 서원·사우에 대한 본격 학술연구 조사서로 제1편 ‘천안시의 향교’, 제2편 ‘천안시의 서원·사우’, 제3편 ‘향교의 연혁과 운영실태’로 구분하여 한권의 책으로 엮음.	
20	한마음 실내악단 제8회 정기연주회	· 일시 : 11월 13일(19:00) · 장소 : 천안시민회관 대강당	부설 한마음 실내악단의 제8회 정기연주회로 클래식, 외국민요, 가곡 등 연주 및 특별출연 등 90분간 실시 단원 30명으로 구성 매주 월요일 오전 연습	
21	향토사연구소 운영 “향토연구” 제 12집 발간	· 발행일 : 11. 30 · 발행부수 : 1,000부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정기회지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들의 연구논문 수록	
22	“천안문화” 33호 발간	· 발행일 : 11. 30 · 발행부수 : 1,000부	향토문화정보지로서 하반기 천안지역 문화예술소식, 논단, 장르별 활동, 기획 특집 등 수록	
23	2001 오늘의 천안미술전 - 교수작품 초대전 -	· 기간 : 12. 3 ~ 8(6일간) · 장소 : 전시실 · 출품인원 : 17명	천안지역 관내 대학(단국대, 상명대, 천안공업대학, 호서대, 남서울대) 중 디자인 부문(시각디자인, 공예, 섬유, 요업, 환경조형 등) 교수들을 초청 신청접수 후 30여점 전시	
24	향토사료 조사·수집사업	· 기간 : 년중	문헌(고문서 등) 및 유물 등 각종 자료 및 원고 수집	
25	영상문화교실	· 기간 : 11월~12월	영상자료(DVD, VCD, CD-T, CD 등)구입	
26	향토사료관 운영	· 기간 : 년중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리, 보완 등 각급 학교의 단체관람, 일반시민 등 연중 관람	



2001 전국체전 성공개최 기원
민속놀이 체험행사



여류시인 김부용 추모제



어머니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개원 47주년 기념식 및
천안노래비 제막식



제31회 학생 글짓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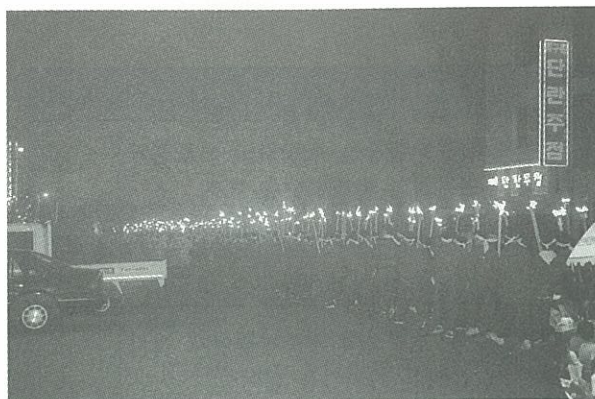


한마음 실내악단 제8회 정기연주회

◆ 2001년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단오절 민속놀이 경연대회	· 일시 : 6월26일~27 · 장소 : 아우내장터 · 참석인원 : 1000여명	전통민속놀이를 재현하여 우리고유의 전통을 되살려 건전한 정신문화를 함양케 함.	
2	우리고장문화 18호 발간	· 일시 : 12월 · 발행처 : 아우내문화원 · 발행수량 : 500부	우리지방의 민속문화재를 연구하고 문화유산의 새로운 인식과 본문화지를 통해 지방 향토자료등을 보존	국내지방문화원 유관기관 단체회원 및 향토사무원, 출향인사에 배포
3	유관순열사순국 추모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	· 일시 : 10월12일 · 장소 : 유관순열사사우 · 참석인원 : 300명	초·중·고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 함으로써 역사의 애국정신을 기르고 창작활동의 기회를 부여함.	
4	축제개선 「민속놀이에 관한 연구」	· 일시 : 10~12월 · 발행처 : 아우내문화원 · 발행수량 : 500부	민족의 얼인 민속놀이를 연구, 발전시켜 계승	국내지방문화원 유관기관 단체회원 및 향토사무원, 출향인사에 배포
5	아우내봉화제	· 일시 : 3월31일 · 장소 : 아우내장터→추모각 · 참석인원 : 약1000명	햇불시위(아우내장터→사적관리소광장) 및 봉화제로 유관순열사의 애국정신을 길이 추모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시민의 단결과 애향심을 함양케함.	
6	청소년 역사탐방	· 일시 : 9월12일 · 장소 : 여주도자기엑스포행사장등3곳 · 참여인원 : 225명	청소년들에게 역사적인현장을 답사케하여 산지식을 터득케함.	
7	문화유산 현장답사	· 일시 : 12월	문화원회원 및 문화활동 유공자를 대상으로 문화유적지를 순례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애착심을 길러줌.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8	해외문화교류	· 일시 : 6. 13~22 · 장소 : 러시아외4개국 · 대상 : 도내17개문화원장등 관계자	선진해외의 문화활동을 탐방하고 비교평가하여 우리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	
9	청소년 문화강좌	· 일시 : 5. 16~17 · 장소 : 한국기계공업진흥회직업전문학교외 1곳	저명교수를 초빙하여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 및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줌	
10	전입주민초청 우리고장 문화 알리는날 운영	· 일시 : 11. 2 · 장소 : 천안시일원 · 참석인원 : 80명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고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깨닫게 하여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높여줌	
11	문화시민교육	· 일시 : 9. 25, 12월 · 장소 : 아우내은빛복지회관 · 참석인원 : 100명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생활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12	내고장 문화인물 발굴	· 일시 : 10월~12월 · 발행처 : 아우내문화원 · 발행부수 : 500부	잊혀지고 있어 전기를 발행하여 업적을 기림	국내지방문화원 유관기관 단체회원 및 향토사무원, 출향인사에 배포
13	장승제보존	· 일시 : 2월 6일(음1월 14) · 장소 : 천안시성남면 봉양3리 · 참석인원 : 약100명	사라져가는 전통민속을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장승제 재현	
14	천안삼거리 노제	· 일시 : 10월 8일 · 장소 : 천안삼거리공원 · 참석인원 : 약1,000명	삼거리문화축제일환으로 천안의 안녕과 시민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전통 노제 방식에 따라 제의를 올림.	
15	작은도서관 운영	· 일시 : 상시 · 장소 : 아우내문화원 · 참석인원 : 무제한	양질의 도서를 비치하고 열람 및 대출을 통해 독서생활에 일조를 함.	



아우내 봉화제 광경



염창순 국악단의 공연모습



시상식 장면



제기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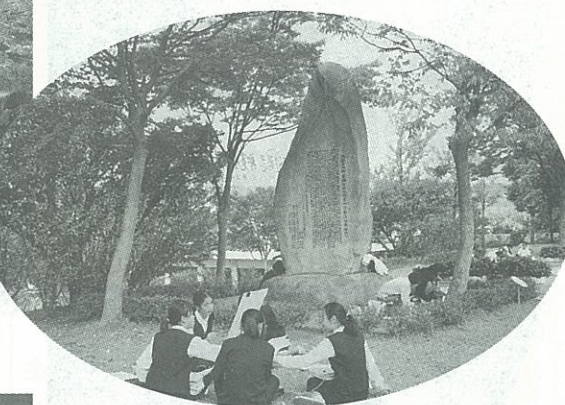
그네뛰기 장면



씨름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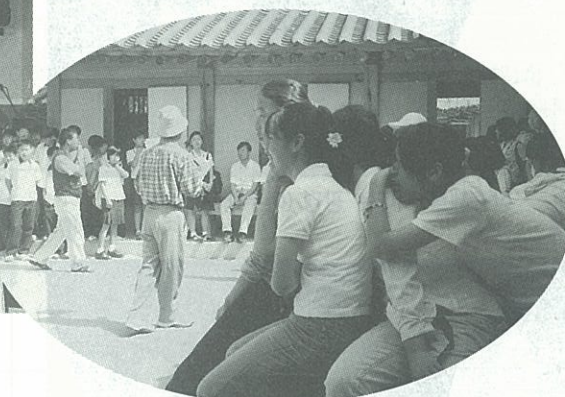
순국 제81주기 유관순열사 추모제 기념 초·중·고 백일장 및 사생대회 대회를 시작하기전 학생들이 등록 및 주의사항을 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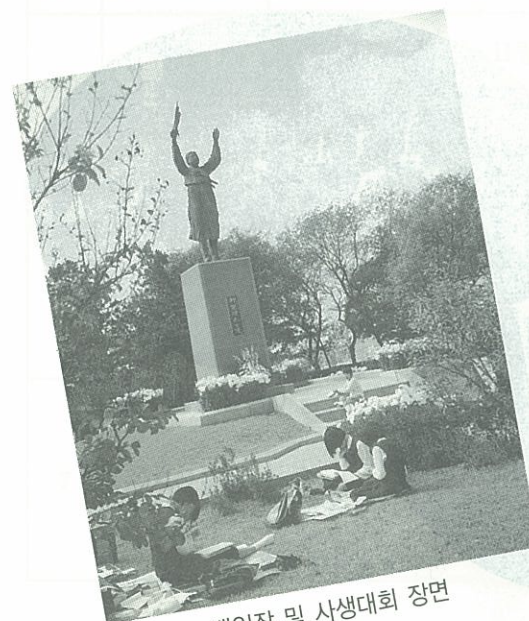
백일장 및 사생대회 장면



지역현장 문화시민교육강연회(한남대학교 교수 권연옥)



청소년 역사탐방(문화유산 해설사의 설명)



백일장 및 사생대회 장면



청소년 역사탐방(세종대왕 영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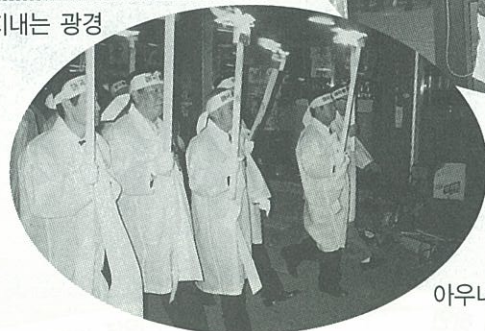
제물 배열을 하고 있는 광경



장승제를 지내는 광경 (아우내문화원장)



장승제를 지내는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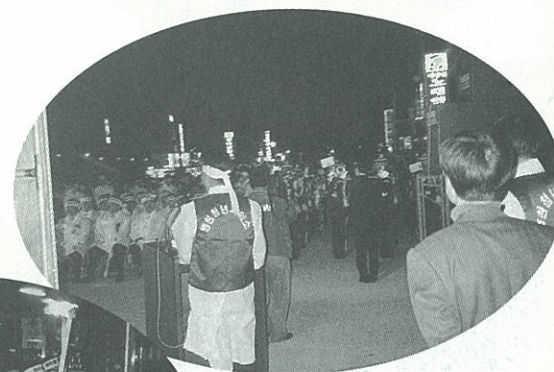
아우내 봉화제 광경



제를 마치기전 소지하는 장면



축문을 낭독하고 있는 장면



아우내 봉화제 광경

2001년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향토문화 17집 발간	· 발행 : 2001. 12. 15예정 · 발행부수 : 1000부 (4×6배판)	국역 직산 영소정 어제시 갯화첩	1000부
2	제11회 내고장 고적순례	· 일시 : 2001. 5/25 7/24 8/1 8/3 8/6 8/9 8/10 · 장소 : 천안시일원 · 참석인원 : 315명	초,중학생을 대상으로관내 유적지 답사를 통한 애향심 고취	년7회
3	컴퓨터교실	· 일시 : 2001. 6. 4-7. 10 · 장소 : 울트라킹PC방 · 참석인원 : 200명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보화 사업 및 정보화능력을 향상하기 위함	년24회 문화학교
4	여성취미교실 (꽃꽂이강습)	· 일시 : 2001. 8/28 9/4 9/11 9/18 9/25 10/9 10/16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140명	-생활꽃꽂이 지도 -수강생작품 전시회 (11/3 성환배추제 시)	년7회
5	노인교양강좌	· 일시 : 2001. 2월~11월 · 장소 : 성환노인학교 · 참석인원 : 1,800명	건강한 노인생활 및 레크레이션 강좌	년30회
6	시창작교실	· 일시 : 2001. 7. 26~9. 18 (매주 월,화,목,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480명	학생을 대상으로 독후감, 글짓기, 시창작 등의 운율, 수사법, 작문등	년24회 문화학교
7	향토사교실	· 일시 : 2001. 10. 9~12. 1 (매주 화,목,토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400명	청소년들을대상으로 우리고장의 역사 바로알기 강의 및 현장답사	년24회 문화학교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8	한문교실	· 일시 : 2001. 9. 10-11, 12 (매주 월, 수, 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480명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한자 과정	년24회 문화학교
9	서예교실	· 일시 : 2001. 10. 22-11. 23 (매주 월-금요일)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370명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 궁체지도	년24회 문화학교
10	제4회 향토작가 초대전	· 일시 : 2001. 10. 15-17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인원 : 600명	내고장 출신의 미술작가의 작품을 전시 (28작품)	년1회
11	바둑교실	· 일시 : 2001. 6. 13-9. 5 · 장소 : 성환바둑교실 · 참석인원 : 240명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끈기와 인내력을 증진 시키어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함 양	년12회
12	제19회 내고장자랑 글짓기	· 일시 : 2001. 11. 3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인원 : 307명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내고장 자랑에 관한 글짓기 공모, 시상	시상- 12월8일
13	제12회 애향의식고취 그림그리기	· 일시 : 2001. 11. 3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인원 : 433명	관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그림그리 기 공모, 시상	시상- 12월8일
14	제4회 경로효친 회화대회	· 일시 : 2001. 11. 3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인원 : 73명	관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경로효친에 관한 서예공모, 시상	시상- 12월8일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5	입상작품집 발간	· 발행 : 2001. 12. 5 · 발행부수 : 500부 217작품(국판칼라)	글짓기, 그림, 회화대회 입상작품집 발간	500부
16	세시풍속 웃놀이	· 일시 : 2001. 2. 6 · 장소 : 본원 · 참석인원 : 80명	민속놀이를 통한 화합 단결 및 친목도모	년1회
17	시민음악회	· 일시 : 2001. 11. 3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인원 : 5,000명	시민화합을 위한 음악회	년1회
18	국악의 대향연	· 일시 : 2001. 11. 3 · 장소 : 천안시문예회관 · 참석인원 : 800명	국악단 초청 공연	년1회
19	성환역지 발간	· 발행 : 2001. 8. 31 · 발행부수 : 500부 국판 102쪽	조선시대 도로교통의 중심을 이루었던 성환역에 관한 자료	
20	천안의 향토축제[4] 발간	· 발행 : 2001. 12. 10 · 발행부수 : 500부 4×6배판	내고장의 특산물인 성환배, 거봉포도의 관광상품화 전략 수록	
21	전입주민 우리고장 알리기	· 일시 : 2001. 10. 19 10. 31 12월중 · 장소 : 천안시 일원 · 참석인원 : 150명	우리고장으로 전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자 유적 지를 중심으로 탐방 홍보	년3회
22	해외문화교류	· 일시 : 2001. 6. 13-22 · 장소 : 러시아 외 3곳	고유문화의 육성 및 해외 문화의 견문을 넓히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지역문화 발 전을 도모	년1회
23	선진 생활문화 강연회	· 일시 : 2001. 12월중 · 장소 : 성환노인회관 외 2곳	· 올바른 생활규범 · 생활문화개선	





2001년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 향토자료조사 수집·보존			
	「보령의 동제」 책자 발간	· 일시 : 1월 ~ 12월 · 내용 : 보령의 동제 책자 발간	생활 양식의 변화, 외래 종교의 전파 등으로 인해 사라져 가는 보령지방의 동제를 조사하여 보존 자료로 이용하고 보령지방의 문화적 배경을 밝히는 민속 자료로 삼고자 함.	
2	◎ 향토민속발굴사업			
	「등불써기, 등바루 놀이」 책자 발간	· 일시 : 1월 ~ 12월 · 내용 : 「등불써기, 등바루 놀이」 책자 발간	보령지역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등바루 놀이, 등불써기 놀이를 기록 보존하여 이후 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3	◎ 향토축제개선사업			
	한내 12간 돌다리 밟기	· 일시 : 2001. 11. 12 · 장소 : 대천천 한내돌다리 현장 · 참석인원 : 단체, 기관장 및 지역주민 1,000여명	약 400년 전부터 대천천돌다리에서 행해져 내려오던 옛 풍속을 재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이 고장의 지년간 역사적인 민속을 널리 알리고 그 전통성을 되살려 영구히 민속축제로 보존코자 함.	
4	◎ 문화학교운영			
	지역 문화학교	· 일시 : 연중 · 장소 : 문화원 소강당 · 참석인원 : 지역주민 300여명	· 사군자 교실 (사군자 기초이론 및 실기지도) · 서예 교실 (서예 기초에서 창작까지 개별 지도) · 한국화 교실 (한국화 기초이론 및 실기지도) · 시민국악교실 (민요, 시조, 장구장단 지도) · 주부노래교실 (가요, 팝 등 주부노래교실 운영)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5	◎ 지역사회 교육			
	청소년 문화강좌	· 일시 : 2001. 7. 30 ~ 8. 3 (5일간) · 장소 : 문화원 대강당 · 참석인원 : 보령시 관내 초·중교생 300여명	방학기간중 향토사, 전통예절, 지역인사 특강 등 청소년 사회교양 교육 실시	
	우리문화 한아름강좌	· 일시 : 2001. 11 ~ 12월 · 장소 : 보령시 관내 중·고등학교 대강당 · 참석인원 : 보령시 관내 중·고학생 2,000여명	향토사 재인식 및 문화 강좌 학교 순회 교육 실시	
6	◎ 지역에향문화활동 전개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청소년 문화유적순례대행진 · 일시 : 2001. 8. 4 · 장소 : 보령시 관내 유적지 · 참석인원 : 100여명	청소년 보령시 관내 문화유적 탐방 · 보령읍성 · 도미부인정절사 · 오천성 · 갈매못성지 · 토정이지함묘소 · 성주사지 · 보령댐 · 삼사당 · 남포읍성 등	
		문화원 회원·문화가족 문화유적순례대행진 · 일시 : 2001. 11. 20 · 참석인원 : 90여명	문화원 회원·문화가족 문화유적지 탐방 · 청양 마곡사 · 공주 문화원 · 공주 무령왕릉 · 부여 박물관	
	소외지역 청소년 문화탐방	· 일시 : 2001. 8~12월중 · 장소 : 보령시 관내 문화유적지	산간벽지 및 섬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유적 탐방	
	향토작가 초대전	· 일시 : 2001. (7일간) 6. 25 ~ 7. 1 · 장소 : 문화원 2층 전시실 · 관람인원 : 2,000여명	향토작가 초대 보령예술인회전 개최 전시작품 : 한국화, 양화, 조각, 서예, 공예, 사진, 시화 등 35점	
	청소년 동아리육성	· 일시 : 2001. 5 ~ 12월 · 참여대상 : 보령시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우수한 문화예술의 인적양성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 육성 (문예창작, 연극, 댄스, 만화, 독서등)	
	문화원 농악대육성	· 일시 : 2001. 10~12월중 · 참여대상 : 지역 주민	문화원 농악대 육성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7	◎ 문화예술행사 개최			
	청소년 미술, 서예, 백일장 실기대회	· 일시 : 2001. 10. 18 · 장소 : 문화원 대·소강당외 · 참여인원 : 초·중교생 300여명 · 시상식 : 2001. 11. 13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활동을 북돋으며 실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 미술, 서예, 백일장 실기대회 개최.	
	주부 백일장 실기대회	· 일시 : 2001. 10. 25 · 장소 : 문화원 대강당 · 시상식 : 2001. 11. 13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여성 문화활동 저변확대를 위한 주부 백일장 실기대회 개최.	
	문화원 회원 작품 전시회	· 일시 : 2001. 12월중 3일간 · 장소 : 문화원 2층 전시실 · 참여대상 : 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	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서예, 한국화, 사군자, 사진 등 문화예술작품 전시	
8	◎ 기타사업			
	해외문화교류	· 일시 : 2001. (9박 10일) 6. 13 ~ 6. 22 · 장소 : 러시아,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 해외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교류증진 · 문화유적 현장 답사를 통한 문화재 보존 관리시책 및 실태파악	
	지역현장 문화시민교육 강연회	· 일시 : 2001. 10 ~ 12월 · 장소 : 문화원 대강당 외 · 참석대상 : 보령시민 및 학생 3,000여명	지역현장 문화시민교육 강연회 연중 3회 실시	
	가을뜨락 음악회	· 일시 : 2001. 11. 1 · 장소 : 문화원 대강당 · 참석인원 : 기관 단체장 및 문화예술인 300여명	문화예술인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이미지 예술단 초청 음악회 개최.	
	항일독립운동 애국지사 추모비 건립	· 일시 : 2001. 2월 · 장소 : 주산면사무소 내 · 제막식 : 2001. 3. 1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였던 우리고장 항일애국지사의 거룩한 희생과 의업을 기리기 위한 항일독립애국지사 추모비 건립.	
	김좌진장군 추모제향	· 일시 : 2001. 10. 22 · 장소 : 청소면 재정리 장군묘역	김좌진장군 추모제향	
	김성우장군 추모제향	· 일시 : 2001. 11. 2 · 장소 : 청라면 라원리 장군묘역	김성우장군 추모제향	



한내 12간 돌다리밟기 민속축제-제례



문화원 회원 · 문화가족 문화유적순례대행진



청소년 문화강좌-향토사 강의



보령시 청소년 문화유적 순례대행진



지역문화학교-사군자교실



향토작가 초대-보령예술인회전



지역현장 문화시민교육 강연회



청소년 미술 · 서예 · 백일장 실기대회



백야 김좌진장군 추모 제향



아미치(친구들) 초청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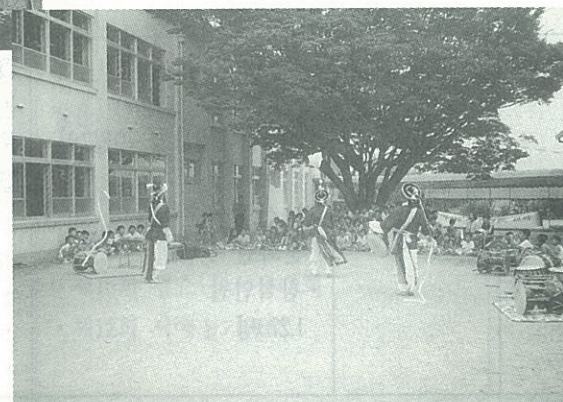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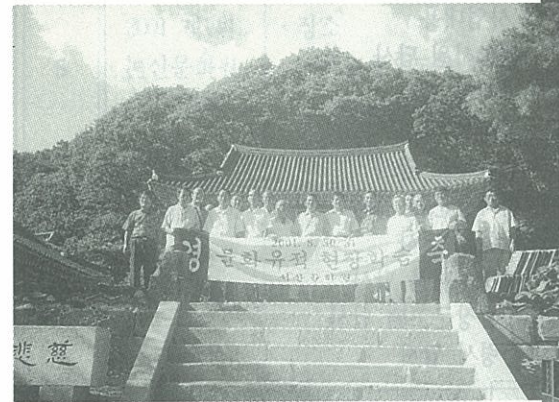
◆ 2001년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향토축제 개선사업	· 일시 : 9월~12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향토축제 개선사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문화관광산업축제의 개발을 위하여 서산 사계절 축제를 새로 개발함.	
2	승경도놀이	· 일시 : 10월 25일 · 장소 : 서산문화원 문화사랑방 · 참석자 : 문화학교 수강생 100여명	조선시대 서울이나 지방의 중류이상의 가정에서 젊은이들의 향학심을 자극함과 동시에 나라안의 이름난 곳과 관직의 이름 그리고 벼슬 승진에 대한 지식을 알리고 뜻을 세우는데 활용되었던 놀이로 이를 직접 재연함.	
3	전입주민 문화알리는날 운영	· 일시 : 1월~12월 · 대상 : 일반 전입 주민	충청남도의 시책에 부응하여 전입주민을 초청, 그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의 유래 및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파라 고향길」책자를 배부하여 전입주민들이 서산을 빨리 이해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4	향토사료 수집	· 일시 : 1월~12월 · 장소 : 서산을 중심으로 백제권역	2000년 사업에 이어 백제토기 사료를 중심으로 향토사료를 수집함.	
5	지육교실 운영	· 일시 : 연중 · 대상 : 초중학생 · 장소 : 지육교실, 강의실	지식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 학교 교육외에 영재교육에 필요함을 인식하고 개성과 능력과 특성을 살려 저마다의 소질과 소양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였음.	
6	문화의식 순회강좌	· 일시 : 3월~11월 · 장소 : 15개읍면동 회의실 · 대상 : 문화가족 · 회수 : 15회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문화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겨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문화의식을 제고하는 각읍면동 순회강좌를 실시	
7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	· 일시 : 3월~12월 · 장소 : 해당학교 · 대상 : 초·중·고교생 · 회수 : 43회	문화관광부의 특수 시책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예술을 접하고 익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문화를 이해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함.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8	서산의백제사 조사연구사업	· 일시 : 6~12월 · 내용 : 조사연구서 발간	서산과 관련된 백제사를 재조명하고 백제사에 있어서 서산의 중요성과 대중국 선진 문화유입 경로에 위치해 있어 문화적으로 선진지임을 밝힘.	
9	문화유적 현장학습	· 일시 : 8월30일~31일 · 장소 : 이천도자기 축제 · 대상 : 문화가족	우리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 현장을 답사하며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 보호의식과 우리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천 도자기 축제에 동참함.	
10	문화대상 시상	· 일시 : 12월 1일 · 장소 : 서산문화원 문화사랑방 · 수상자 : 김동익(박첨지 놀이)	향토문화 예술진흥에 공이 많은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이 고장의 명예와 후생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함.	
11	청소년 문화상 시상	· 일시 : 12월 1일 · 장소 : 서산문화원 문화사랑방 · 수상자 : 11여명	청소년 대상으로 효행, 예행, 선행 3개 부문의 청소년 문화상을 시상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	
12	청소년 영상문화제	· 일시 : 6월1일~3일 · 장소 : 서산시 문화회관 · 내용 : 한서대학교 영상 관련 학생들과 영화에 관심있는 고교생 대상으로 시행 · 참석자 : 500여명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의 변화에 발맞추어 영상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이 뜻하는 바를 알릴 수 있도록 스스로 영화를 제작하고 이를 상영함	
13	이달의문화 인물 기념행사	· 일시 : 매월실시 · 장소 : 해당장소 · 회수 : 12회	정부가 지정하는 이달의 문화인물의 업적을 가리고 숭고한 뜻을 조명해 보는 행사를 매월 실시함.	
14	문화사랑방 운영	· 일시 : 연중 · 내용 : 지역문화학교 강좌, 미술전시회, 회의장, 연극연습 장소등	정부가 설치해 준 문화사랑방을 문화애호 동호인들이 만남과 행사와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 음악감상, 강의, 회의장 등으로 널리 활용함.	
15	작은 도서관 운영	· 일시 : 연중 · 대상 : 일반시민 및 회원 · 장소 : 작은 도서관	정부가 지정한 작은 도서관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신간도서 구입, 문화원간 서적교류 및 각종자료 구비 등을 통해 내실을 확충해 가며 지식정보 제공의 산실로 널리 활용함.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6	사이버문화관 운영	· 일시 : 연중 · 인터넷홈페이지주소: soback.kornet21.net/~culinfo	문화원 고유 역할 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정보통신 체계를 활성화하고 각종 지역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지역문화 및 지역정보 센타로 운영함.	
17	전시홍보활동	· 일시 : 연중 · 장소 :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의 해당장소	정부가 보급하는 자료와 각종 문화예술 관련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전시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요청에 따라 순회강연도 실시함.	
18	향약관 운영	· 일시 : 연중 · 취전된 학자수 : 108명	파악된 서산출신 학자들이 해미읍성 역사 체험 축제시에 한데 모여 상호교류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저서, 논문, 작품등을 수집함.	
19	우리 문화 안내자교육	· 일시 : 10월 26일~12월 1일 · 대상 : 해당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10회에 걸쳐 교육과 현장답사로 시행	서산지역의 문화재 안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적 교육과 답사를 통하여 문화재 관리 및 안내교육을 하며 또한 문화재 사진을 올바르게 찍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가짐.	
20	신노인운동	· 일시 : 12월11일 · 장소 : 해당장소 · 대상 : 회원 및 자원하는 일반시민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실을 직시하여 노년에 있어 맡은 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노인 운동을 전개하고 봉사단을 구성하여 몸소 실천에 임함	
21	스산의 숨결	· 일시 : 1월~12월 · 대상 : 회원, 출향인사등 · 발행부수 : 2,500부	문화원의 소식지인 스산의 숨결을 2,500부를 발간하여 회원 및 출향인사, 전국문화원등에 보급하여 향토문화교향지, 향토사료지로 발전시킴.	
22	제3회 청소년문학제	· 일시 : 5월 20일 · 장소 : 서산시 문화회관 광장 · 대상 : 초·중·고생 500여명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문학을 접함으로써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글쓰기를 통해 사고력을 함양하며 이를 통해서 청소년기의 건전한 문화를 육성함.	
23	지역문화학교	· 일시 : 연 중 · 대상 : 주부 및 일반인 · 장소 : 문화사랑방, 강의실	정부가 지정한 지역문화학교로 2001년도에는 일어교실, 고려수지요법교실, 수채화교실, 플룻교실, 다종이인형교실, 재활용품 디자인교실, 요술풍선교실, 민요와 함께하는 장구교실, 지점토공예교실 개설하여 문화예술적 정서를 함양함.	
24	새해다짐대회	· 일시 : 1월 2일 · 장소 : 현대예식장 · 참석자 : 300여명	새해를 맞이하여 각계의 인사들이 한데 모여 새해인사와 이 고장 발전과 도약 그리고 화합을 다짐하는 신년하례식을 가짐.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25	해외문화 교류	· 일시 : 6월13~21일 · 장소 : 러시아 · 대상 :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주관으로 도지회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함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선양하는 해외문화 교류사업을 전국 문화원 연합회 충청남도 지회 주관으로 실시함.	
26	서산의 간행물 전시회	· 일시 : 1월27~29일 · 장소 : 서산문화원 문화사랑방 · 참석자 : 1,000여명	2001 지역문화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서산지역에 소개하고 있는 각급 기관 및 단체들이 발간한 간행물을 한데 모아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서산지방 지역문화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함	
27	지역현장문화 시민교육	· 일시 : 11월 6, 28, 29일 · 장소 : 서산문화원 및 해당 학교 · 대상 : 일반인, 해당 학교 학생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훼손되면서 생활문화규범의 해이가 도처에서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거점인 지방문화원이 지역주민들의 잘못된 생활규범을 반성케하고 올바른 생활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	
28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	· 일시 : 9월 30일 · 장소 : 서산문화원 · 참석자 : 400여명 · 대상 : 지역 주민들과 고향방문객 및 청소년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가 밀려드는 외래문화로 인해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요즘 민족의 오랜 체험속에서 이루어진 민속놀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겁으로써 한민족의 놀이문화를 되새겨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인사에게 고향의 정취와 추억을 되살려 애향심을 북돋움.	
29	작은 설 동짓날	· 일시 : 12월 22일 · 장소 : 1호 광장 · 대상 : 지역 주민들 · 참석자 : 500여명	동지절 행사를 통해 옛 선인들의 지혜와 여유를 새겨 보며 민속놀이와 민속공연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전통문화를 보급하는 계기를 마련했음.	
30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 일시 : 6월 8~10일 · 장소 : 해미읍성 · 참석자 : 18만여명	정부의 향토축제 개선 시책에 따라 문화관광 사업축제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킴.	
31	청소년상담실 운영	· 일시 : 1월~12월 · 장소 : 서산문화원	서산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함.	



2001년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제1회 강경옥녀봉 산신제	· 일시 2001년 3월 31일 · 장소 강경옥녀봉 · 참석인원 300여명	· 사업목적 논산8경중의 하나인 옥녀봉 산신제를 발굴하여 옥녀의 추모제를 올리고 논산시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대동제를 올리고자 함 ◎ 사업내용 · 주당물림 · 산신축원 · 제석, 불사축원	
2	중·고생 및 전입주민 유적지답사	· 일시 2001년 5월 8일 2001년 6월 26일 2001년 8월 25일 · 장소 논산문화유적지 · 참석인원 160명	◎ 사업목적 관내 중·고생 및 전입주민들이 내고장 문화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임 ◎ 사업내용 · 돈암서원 답사 · 개태사 답사 · 쌍계사 답사 · 성삼문묘 답사 · 계백장군묘 답사 · 견훤묘 답사 · 강경옥녀봉 답사 · 이삼장군고택 답사 · 충령사 답사	
3	여성문화학교 운영	· 일시 2001년 6월11일~9월7일 · 장소 논산공설운동장내 논산 문화원 수업실 · 참석인원 1,270명	◎ 사업목적 논산관내 주부들이 취미활동을 함으로써 문화혜택을 받도록 하기위해서임. ◎ 사업내용 · 장구강습 · 종이접기강습 · 요리강습 · 쉼트강습 · 에어로빅강습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4	지역현장문화 시민교육	· 일시 2001년 9월 19일 2001년 9월 21일 2001년 9월 22일 · 장소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논산중학교 논산대건고등학교 · 참석인원 1,500여명	◎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훼손되면서 생활문화 규범의 해이가 도처에서 발생.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거점인 문화원이 지역 주민들의 잘못된 생활 규범을 반성케하고 올바른 생활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사업내용 건양대학교 김동기 부총장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	
5	2001 제1회 논산문화원 장기대회	· 일시 2001년 9월 7일 · 장소 논산공설운동장내 논산문화원수업실 · 참석인원 100명	◎ 사업목적 전통민속의 계승과 이웃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임 ◎ 사업내용 개인대항 읍·면·동 15개지역 4명씩 60명	
6	2001 초·중·고 글짓기, 그리 기, 서예(일반 부도 있음) 실 기대회	· 일 시 2001년 10월 27일 · 장 소 논산공설운동장 · 참석인원 1,000여명	◎ 사업목적 청소년들에게 내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창작의욕을 왕성하게 해주며 내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하기 위해서임 ◎ 사업내용 · 제16회 청소년 백일장대회 · 제16회 청소년 사생대회 · 제12회 서예실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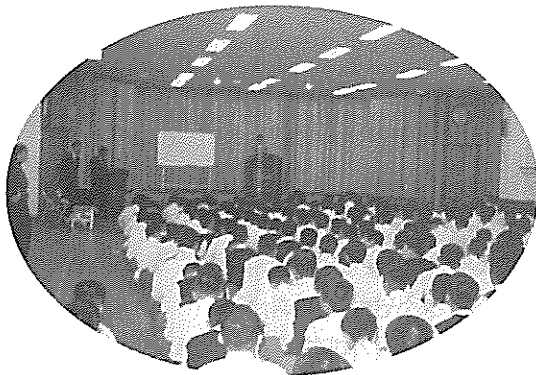
강경 옥녀봉산신제



중·고생 및 전입주민 유적지 답사



여성문화학교 운영 장구 강습



지역현장문화 시민교육



2001 제1회 논산문화원 장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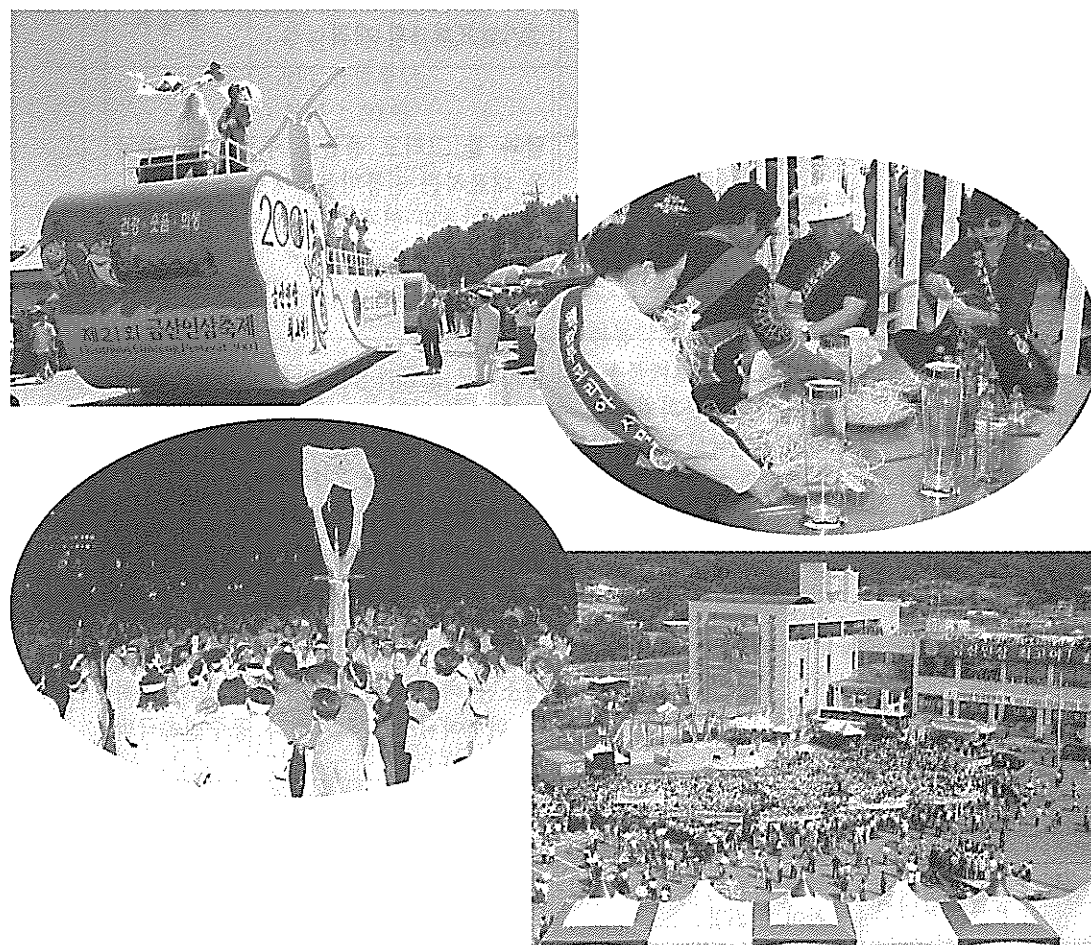
2001년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금산선사 문화유적 지표조사	· 선사유적지표조사 · 조사지역 : 금산의전지역 · 2차조사 : 유등천유역지 표조사	금산의선사유적지지표조사 2차년도 용역의뢰 (한남대백제박물관)	
2	금산의 송계보고서 발간	· 대상 : 금산의 전 마을 송계 · 부수 : 1,000부	산림축제조성을 위한 금산의 송계보고서 향토자료조사공모대상수상	
3	민속놀이 발굴사업	· 민속명 : 천내배건립굿 · 대상 : 마을주민 및 향 토사학자	민속놀이발굴성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회	
4	금산문화예술 무크지 "삶꽃" 발간	· 판형 : 46배판 · 부수 : 1,000부 · 대상 : 금산문화가족 및 금산문화를 사랑하는 사 람모두	금산의 역사, 문화인, 민속, 시, 소설, 수 필 등	
5	산안송계지계 놀이 발굴	· 산안송계지계놀이보고서 발간 · 산안송계지계놀이시연	산안송계지계놀이를 발굴 고증을 거쳐 산벚꽃축제 및 금산인삼축제 시연	
6	금산문화학교 운영	· 일시 : 3 ~ 8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강좌수 : 7개강좌 · 참여 : 148명	금산풍물, 문예창작, 생활공동체문화, 서 예, 청소년글짓기, 판소리·민요, 한국화강 좌 등을 통해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7	금강민속축제	· 일시 : 7.27~29일 · 장소 : 부리면 평촌리 · 주최 : 금산문화원 · 주관 : 물폐기농요보존 회, 농바우끄시기보존회, 금산농악보존회, 풍각쟁 이, 금산민속연보존회, 나아내풍물단 · 참여 : 15,000명	· 금산농악판굿, 물폐기농요, · 농바우끄시기등 등 공연 · 금산의 민속체험마당 (농바우끄시기, 돌무들리기, 풍물놀이, 민 요부르기) · 가족과 함께하는 추억만들기 마당 · 금산의 토속음식과 특산물 판매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8	금강풍류전	· 일시 : 5월26일 · 장소 : 금강일원 · 주최 : 금산문화원 · 참여 : 300명	금강의 소리, 몸짓, 노래, 서예, 미술 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예술 창출	
9	금곡서회	· 일시 : 1 ~ 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대상 : 서예동호인단체, 금곡서회회원	문화학교 초급반을 이수한 회원들로 구성된 고급과정 서예전시회 개최	
10	금산문화예술제	· 일시 : 10.19~21일, 11월 4일, 12.29일 · 장소 : 청산별관, 금산문화원 · 주최 : 금산문화원 · 주관 : 금동인회, 금목회, 인삼골합창단, · 참여 : 500명	문화의달을 기념하는 종합문화예술제로 시낭송회, 미술전시회, 서예전시회 개최	
11	금산농악단 운영	· 일시 : 3~12월 · 장소 : 금산군내, 자연마을 · 참여 : 2,200명	· 각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풍물마당」 · 인삼골농악경연대회 개최 · 각 마을에 금산농악 전수 · 금산농악 강습	
12	금산농악축제	· 일시 : 12월31일 · 장소 : 청산회관광장 · 주관 : 금산농악보존회	금산농악 메굿과 큰가을리기, 제야의복소리, 촛불켜기, 불꽃놀이, 초청공연	
13	금산사랑, 문화사랑, 자연사랑	· 일시 : 11월 25일 · 장소 : 금산학생체육관 · 대상 : 전입자주민 및 금산 방문객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의 중심에 있는 문화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문화사랑 회원 및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당잔치를 통해 화합의 도모함	
14	금산민속연보존사업	· 일시 : 1~12월 · 장소 : 장동달맞이축제 기타축제의 현장, 금산문화원 · 대상 : 금산민속보존회 회원	연 띄우기, 연만들기체험교실운영, 연전시회 등 연의 축제	
15	나아내풍물단	· 일시 : 1~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대상 : 동호인단체 나아내풍물단 회원	· 각종축제 금산풍물굿공연 · 금산문화학교 초급과정 이수한 회원으로 구성 고급반과정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6	비단골 산벚꽃축제	· 일시 : 4.21~22일 · 장소 : 군북면 산안리 · 참여 : 16,000명	100여만평의 산벚꽃자생단지에서 꽃길여행, 민속공연 등 자연친화적인 축제구성	
17	삶꽃생태문화교실운영	· 일시 : 1~12월 · 장소 : 금산의 자연공원 · 대상 : 초등학생	청소년들에게 생태탐구를 통하여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글쓰기교실	
18	생활문화예술제	· 일시 : 11.5~7일 · 장소 : 청산별관 · 참여 : 300명	문화가족동호인단체인 창현회와 금곡서회전시회	
19	인삼골합창단 운영	· 일시 : 1~12월 · 장소 : 청산회관 · 참여 : 600명	매주 목요일「군민과 함께하는 노래 모임」개최 정기발표회 1회 개최	
20	장동달맞이 축제	· 일시 : 2.6~7일 · 장소 : 금산읍 양지리 장동마을 · 주최 : 금산문화원 · 주관 : 금산농악보존회, 장동마을민속보존회 · 참여 : 15,000명	달과 불 그리고 풍물을 주로 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마을축제로 육성 인삼, 약초와 연계 겨울 관광문화축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21	창현회	· 일시 : 1~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대상 : 한국화동호인 단체 창현회원	문화학교 초급과정을 이수한 회원으로 구성된 고급과정 미술전시회 개최	
22	청소년 동아리활동	· 일시 : 1~12월 · 장소 : 금산문화원 · 참여 : 700명	매주 토요일 오후 문화원을 개방 버팀목 문화 동호인 운영 및 지도	
23	청소년 어울마당	· 일시 : 6.16일 ~ 11.4일 (2회) · 장소 : 금강, 공주 · 참여 : 200명	청소년 여가 활동과 탐구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금강탐사 기행과 공주민속극박물관 견학	
24	충남주부 풍물경연대회	· 일시 : 5.4일 · 장소 : 충남 당진군 석문면 · 참여 : 45명	충남주부풍물대회 나아내풍물단 참가 우수상 수상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25	제27회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 일시 : 11.2 · 장소 : 예산군 문예회관 · 참여 : 45명	충청남도합창경연대회에 금산을 대표하여 참가 금상 수상	
26	풍각쟁이 발표회	· 일시 : 7월28일 · 장소 : 부리면 평촌리 (금강민속축제장) · 참여 : 노래모임 풍각쟁이	금강민속축제 마당에 노래모임인 풍각쟁이의 국악공연	
27	대만페스티벌 축제공연	· 일시 : 11.9~11.16일 · 장소 : 대만성병동현 일원 · 참여 : 20명	대만에서 개최된 국제민속 페스티벌에 한국을 대표하여 금산농악단 참가	



2001년 조치원문화원 활동상황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제11회 민속한마당	· 일시 : 10. 18 · 장소 : 군민회관 · 참석인원 : 600명	군내 노인의 장기자랑, 유명 국악단 초청 공연 및 문화원 농악공연	
2	농악대운영	· 일시 : 3월~12월 · 장소 : 농악대사무실 · 참석인원 : 회원 58명	농악연습, 강사초빙, 악기구입, 농악대 견학	
3	향토사운영	· 일시 : 3월~12월 · 장소 : 연기군내 일원 · 참석인원 : 회원 24명	향토사료수집 문화재 보호, 고적답사	
4	노인학교 개강	· 일시 : 10. 19 · 장소 : 군민회관 · 참석인원 : 500명	어르신 500명을 모시고 강좌 및 공연	
5	문화가족 간담회	· 일시 : 12월경 · 장소 : 군민회관 소회의실 · 참석인원 : 150명	문화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 및 강좌	
6	신년교례회	· 일시 : 10. 19 · 장소 : 군민회관 · 참석인원 : 600명	2001년 맞이 신년교례회 개최	
7	효자효부 표창	· 일시 : 10. 18 · 장소 : 군민회관 대강당 · 참석인원 : 600명	8개 읍면 효자, 효부 표창	
8	연맥서화 전시회	· 일시 : 10. 25~29 · 장소 : 군민회관 전시실 · 참석인원 : 150명	연기군의 맥을 잇고 있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맥 서화전시회를 개최	
9	청소년문화 유적순례	· 일시 : 6월~8월(4회) · 장소 : 연기군내 일원 · 참석인원 : 450명	군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유적답사 및 강좌	
10	주부교양강좌	· 일시 : 10. 31 · 장소 : 군민회관 소회의실 · 참석인원 : 200명	군내 주부를 대상으로 유명인사 초청강좌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1	경로효친의달 행사	· 일시 : 5. 11, 5. 22 · 장소 : 왕건 촬영장 · 참석인원 : 350명	군내 65세 이상 영세 어르신 350명을 모시고 효도관광	
12	경로효친 응변대회	· 일시 : 5. 22 · 장소 : 군민회관 2층 · 참석인원 : 200명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군내 초·중·고생 경로효친사상 고취	
13	청소년 독후감 공모	· 일시 : 10월~12월 · 장소 : 군민회관 · 참석인원 : 100명	군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관한 글짓기	
14	군민친선 바둑대회	· 일시 : 11월 · 장소 : 군민회관소회의실 · 참석인원 : 150명	바둑기능인 양성 군민 상호 친목	
15	독서실 운영	· 일시 : 3월~12월 · 장소 : 향토사료실 · 참석인원 :	고서적 및 도서 구입하여 군민들을 위한 독서실 운영	
16	내고장 지표조사	· 일시 : 8월~12월 · 장소 : 전의면 금사리 · 참석인원 : 10명	연기군내 분청사기 발굴 및 지표조사	



백제대제



복사꽃아가씨 선발대회



신년교례회



경로효친의 달 행사



응변대회



청소년 문화유적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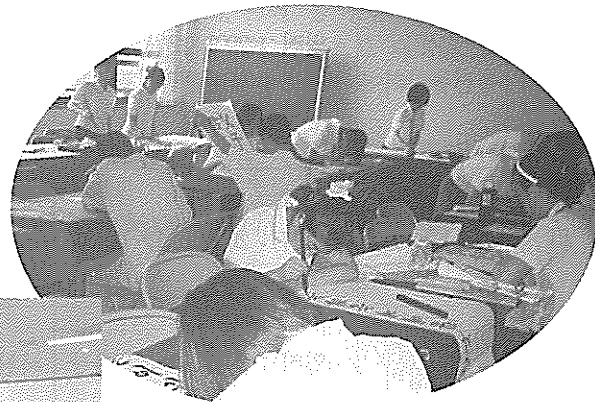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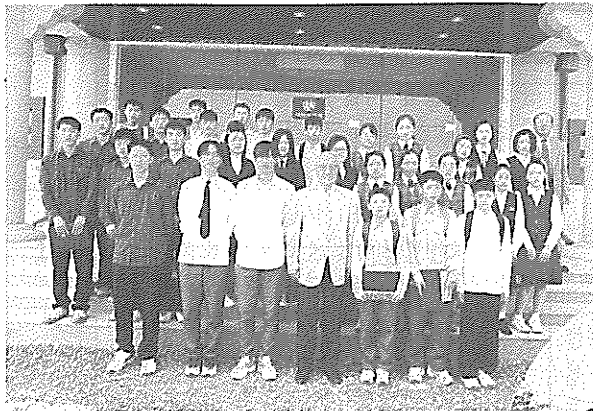


향토사 운영 (덕진 산성제)

◆ 2001년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신년교례회	· 일시 : 2001. 12 · 장소 : 서천군민회관 · 참석인원 : 200명	서천군내 기관단체장 및 지역유지들을 초청하여 신년인사 및 하례식	
2	기벌포 대보름제	· 일시 : 2001. 2. 3 · 장소 : 금강하구둑 일원 · 참석인원 : 2,000명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공동체문화의 지혜를 일깨워 전통적 가치관과 상실된 민족혼을 재정립시켜 우리 것 사랑을 통한 이웃사랑과 지역사랑을 실천케 함	
3	지역문화의해 기념행사	· 일시 : 2001. 4. 14 · 장소 : 조치원문예회관 · 참석인원 : 30여명	지역주민들과 문화원 회원들을 초청하여 지역문화의 해 기념으로 선진문화지역 견학	
4	중·고학생 경로효친표창	· 일시 : 2001. 5. 17 · 장소 : 서천문화원사 · 참석인원 : 30여명	중·고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효행 및 선행학생을 선별하여 표창장과 상품을 수여	
5	청소년 문예백일장	· 일시 : 2001. 7. 19 · 장소 : 서천문화원사 · 참석인원 : 160여명	글짓기, 그리기, 서예 등 공동으로 서천군내 중고학생들의 신청으로 대회를 열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 상장과 상품을 수여함	
6	하계문화강좌	· 일시 : 2001. 7. 23~8. 2 · 장소 : 서천문화원사 · 참석인원 : 50여명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0일간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충효에 교육을 실시함	
7	아동문예 백일장	· 일시 : 2001. 10. 24 · 장소 : 서천문화원사 · 참석인원 : 240여명	서천군내 초등학교 4, 5, 6학년별로 글짓기, 그리기, 붓글씨 등 대회를 통하여 기량을 넓히며 더욱 지역의 인재를 발굴키 위함	
8	중등미술교사 작품전시	· 일시 : 2001. 10. 27~31 · 장소 : 군민회관 · 참석인원 : 2,000여명	중등미술교사분과위원회의 주관으로 스물여섯번째를 맞이하는 뽕바위전을 통하여 지역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9	제10회 국악한마당 경로위안잔치	· 일시 : 2001. 11. 17 · 장소 : 서천군민회관 · 참석인원 : 800여명	서천군내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초청하여 국악한마당의 자리를 통하여 군민들이 노인들을 위로하며 하나의 화합의 자리를 마련함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0	동계문화강좌	· 일시 : 2001. 12. 24~1. 5 · 장소 : 서천문화원사 · 참석인원 : 100명	중고학생들을 겨울방학을 통하여 정서적으로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생활양식을 배움으로써 청소년들을 선도할 목적으로 강좌를 실시함	
11	동계사적지 순방	· 일시 : 2001. 12월중 · 장소 : 도내 유적지 · 참석인원 : 90여명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유적들을 통하여 선친들의 지혜와 삶을 통하여 앞으로의 발전된 모습의 삶을 위하여 교육의 장을 마련함	
12	학생모집	· 일시 : 2001. 12. 31	청소년문예백일장 입상작과 아동문예백일장 입상작을 수록하여 널리 보급함	
13	초중고작품 전시	· 일시 : 2001. 11월 말경 · 장소 : 서천문화원사 · 참석인원 : 800여명	청소년문예백일장과 아동문예백일장에서 입선한 회화 및 서예작품들을 전시하여 널리 알리고 자부심을 부여함	
14	송년음악회	· 일시 : 2001. 12월 말경 · 장소 : 서천군민회관 · 참석인원 : 1,000여명	중고학생들의 기악, 성악, 합창, 중창, 현악합주, 단소합주 등을 통하여 한해를 마무리하는 음악회를 열어 새로운 한해의 소망을 갖게 함	
15	향토민속 발굴사업	· 일시 : 2001. 6. 1~12. 31	제12회 서천한산모시문화제축제 결과 및 문제점, 앞으로의 과제 등을 연구한 보고서	
16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 일시 : 2001. 12. 31	서천군내의 향토사료조사 사업	
17	지역환경보존	· 일시 : 2001. 10. 27~31 · 장소 : 군민회관 · 참석인원 : 2,000여명	서천군내 환경보존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는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환경의 보존에 앞장섬	
18	선진지역 생활문화 강연회	· 일시 : 2001. 11월중 · 장소 : 미정 · 참석인원 : 3회 600여명	연합회 주최로 지역민들의 생활양식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코자 강연회를 실시함	



2001년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2001 신년교례회	· 일시 : 1. 2 11:00~12:00 · 장소 : 문화원3층 강당 · 참석인원 : 300명	· 신년사 · 축사 · 상호교례 · 풍물패공연 · 오찬	새해를 맞아 군내 각 기관 각 계 각층을 망라한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새해인사와 함께 지역사회의 단결을 다짐 하는 신년하례식
2	정월대보름맞이 민속웃놀이대회	· 일시 : 2. 7 10:00~18:00 · 장소 : 문화원3층 강당 · 참석인원 : 150명	· 읍·면대항 토너먼트 방식 · 단체전 개인전 각 금, 은, 동, 특별상 시상	읍·면 민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며 애郷심을 고취시키고 화투등 사행성놀이 억제 군민 정서를 순화하고자 민속놀이 재현
3	제8회 칠석맞이 민속장기대회	· 일시 : 1. 2 11:00~12:00 · 장소 : 문화원3층 강당 · 참석인원 : 300명	· 읍·면대항 토너먼트 방식 · 단체전 금은동 특별상 · 개인전 금은동 장려 특별상 시상	
4	문화학교운영	· 일시 : 1. 5~1. 30 · 수강인원 : 33명 · 일시 : 1. 12~1. 30 · 수강인원 : 12명 · 일시 : 1. 12~1. 30 · 수강인원 : 18명 · 일시 : 1. 13~1. 30 · 수강인원 : 37명 · 일시 : 1. 11~4. 30 · 수강인원 : 27명 · 일시 : 1. 12~10. 30 · 수강인원 : 33명 · 일시 : 4. 3~10. 30 · 수강인원 : 64명	· 한문교실(사자소학) · 서예교실 · 풍물교실 · 종이접기교실 · 수지침교실 · 민요교실 · 가요교실	문화학교를 통한 건전한 청소 년 지도육성과 주부들의 건전 한 여가생활과 자기개발 도모 장소 : 2층문화코너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5	2001 청소년음악회	· 일시: 9.13 17:00-19:00 · 장소: 문화센터 1층 대강당 · 참석인원: 400명	· 학생노래경연(87팀 참가) · 초청가수 프리즘 공연 · 한사랑 축하공연	청소년들의 건전가요 보급 화와 건전한 심성배양
6	씨클활동	회원수: 11명	· 음악씨클 한사랑	문화가족 씨클을 지원 조직 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문화활동 도모
		회원수: 12명	· 칠갑산 사진동우회	
		회원수: 10명	· 청무 풍물패	
		회원수: 29명	· 민요팀	
7	에향운동	· 일시: 11.23 11:00~ · 장소: 문화원 3층 강당 · 참석인원: 130명	전입주민내고장알리기	· 환영사 · 우리고장 문화 역사 소개 · 오찬 등
		사필 정상길	내고장 문화인물 발굴 홍보	· 독립운동가(건국애국훈장 수여)
8	문화코너운영	시간: 10:00~18:00	영화감상	영화 및 음악감상을 통한 청소년들의 취미생활과 정 서교육에 기여
		시간: 9:00~18:00	음악감상	
9	전시회	· 일시: 11.19-11.21 · 장소: 문화원 3층 강당 · 출품작품수: 40	제7회 칠갑산 사진동우회 회원 전	· 사진동우회 회원전 · 문화가족씨클
		· 일시: 9.13-9.16 · 장소: 문화원 3층 강당 · 출품작품수: 50	향토작가 서화전	· 출향작가초청미술작품전시
10	향토민속자료수집	민속용품 60여점 구입	민속자료수집	
11	문화유적지 순례	· 일시: 7. 12 · 대상: 청양초등학교 교학생 · 장소: 백제권문화순례 · 참가인원: 160명	청소년문화유적지 순례	홍성구백의총→갈산→김좌 진장군생가→해미읍성→운 산마애삼존불→꽃지 꽃박 람회현장→간월도간월암→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
		· 일시: 7. 19 · 대상: 청양중학교교학생 · 참가인원: 120명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1	문화유적지 순례	· 일시: 8. 29 · 장소: 백제권문화 순례 · 참가인원: 45명	문화회원 및 향토사 연구원 역사체험순례	가사문학관→소쇄원→한벽 당→식영정→송강정→면암 정→담양죽물박물관→단양 호→추월산→장승공원→내 장산→전봉준장군생가
		· 일시: 10. 23 · 장소: 담양 유적지 · 참가인원: 35명		
12	제12회 칠갑문화제	· 일시: 9. 15~9. 16 · 장소: 지천둔치, 복지회관, 문화체육 센터, 우산성 청무 정, 청양읍 십자로 등 · 참석인원: 30000 여명	산신제, 탑돌이, 농악시연회 읍면대향 민속경기대회 고추축제, 청양특산물전 향토음식 약선요리 한마당 향토작가서화전, 군민노래자랑 시조경향대회, 한사랑음악회 영화감상의 밤, 체험이벤트행사 칠갑산등반대회 등 다수	청양의 전통문화선양과 청 양인의 단결화합의 계기로 발전승화
13	제3회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 일시: 9. 15~9. 16 · 장소: 칠갑산장승 공원 및 지천둔치 · 참석인원: 2000여명	칠갑산 장승대제 장승그리기대회 장승만들기시연 창작장승전시 장승인형극 국악한마당 동양화전시회 고전무용, 현대무용 등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 승발전시켜 한국 제일의 장 승문화보존 지역으로 자리 매김하여 칠갑산을 연계한 관광문화축제로 육성
14	국제문화 교류지원 전국문화원 연합회 충청남도지회 해외문화교류	· 일시: 6. 13-6. 22 · 장소: 러시아,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 참가인원: 1명 · 일시: 7. 19 · 대상: 청양중학교교학생 · 참가인원: 120명	모스크바대학 세미나 모스크바 문화원 방문 부다페스트시의 문화원 방문 체코 프라하 문화원 방문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청 내의 문화 담당국 방문 우리고유전통문화 홍보 및 2002 안면도 꽃 박람회 홍보	지역전통문화 국내외교류 를 통하여 지역문화 활동의 주체인 도내 지방문화원장 의 전문과 안목을 높여 지 역문화 발전을 도모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5	영화의 밤	· 일시 : 9. 16 21:00-23:30 · 장소 : 지천둔치 · 관람인원 : 400명	영화제목 : 선물	
16	발간사업	· 발행일 : 12. 10 · 발행부수 : 1000부	청양의 구비문학	
		· 발행일 : 11. 10 · 발행부수 : 1000부	칠갑문화 제11호 청양의 민속편	
		· 발행일 : 7. 20 · 발행부수 : 500부	향토사료집 (청양의 사적지)	
17	지역현장문화 시민교육	· 일시:11.5 15:00-16:00 · 장소:청양농고강당 · 참석인원:200명	주제 : 청소년들이여 푸른꿈을 펼쳐라.	· 강사:이은집(방송작가)
		· 일시:11.12 14:30-15:30 · 장소:청신여중강당 · 참석인원:350	주제 : 청소년들이여 푸른꿈을 펼쳐라.	
		· 일시:11.16 11:20-12:20 · 장소:청양여상강당 · 참석인원:150명	주제 : 21세기를 위한 삶의 철학과 대화 기법	
18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 일시:10.5~매주 화.수 · 대상:동명중학교 학생 · 장소:동명중학교 강당 · 참가인원:20명	충청 옷다리 풍물 사물놀이강좌	· 강사:김중태(풍물학원장)
		· 일시:10.5~매주 목.금 · 대상:정산중학교 학생 · 장소:정산중학교강당 · 참가인원:26명		
		· 일시:11.15 · 대상:청신여중 학생 · 장소:백제권 문화순례 · 참가인원:120명	청소년 역사체험순례	홍성구백의충→갈산→김좌진장군생가→해미읍성→운산마애삼존불→꽃지 꽃박람회현장→간월도간월암→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
		· 일시:11. 20 · 대상:청양여상 학생 · 참가인원:200명 · 장소:백제권 문화순례		



2001 청소년음악회(9. 13) - 노래모임 한사랑 축하공연



제7회 칠갑산 사진동우회 회원전(11. 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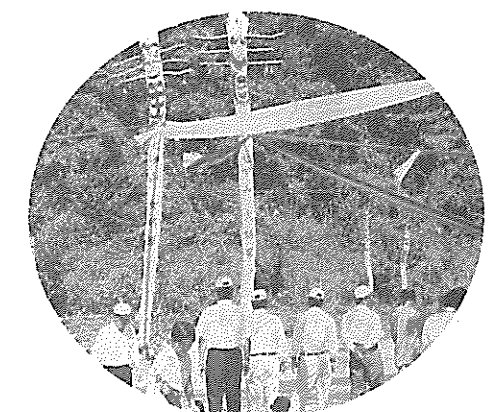
제11회 칠갑문화 축제 개막식(9. 15~16)



2001 전입주민 내고장 문화 알리기(11. 23)
전입주민 환영사



청소년 역사체험순례(11. 20)
청양여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제권 문화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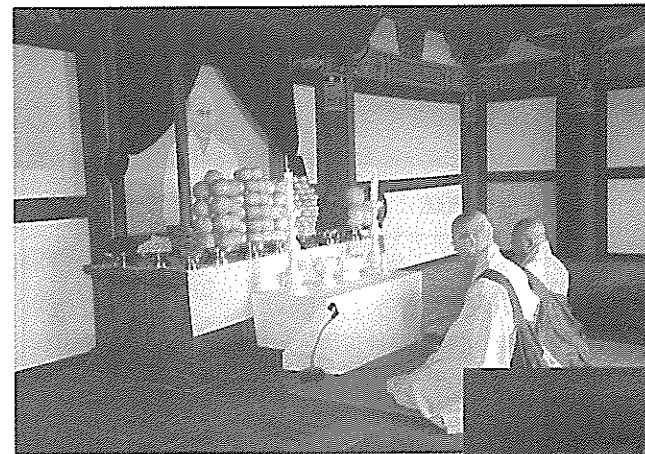


제3회 칠갑산 장승문화축제(9. 15-16)
장승대제

◆ 2001년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문화예술인 신년교례회	· 일시 : 2월 9일(금) · 장소 : 문화사랑방 · 참석인원 : 100여명	신년을 맞아 군내 각 예술단체 회원들간 에 상호인사	
2	지역문화의해 기념행사	· 일시 : 4월 13일(금) · 장소 : 홍주문화회관 대강당 · 참석인원 : 800여명	지역문화의해를 기념하기 위해 해설이 있는 음악회(봄의소리) 개최	
3	청소년문화 역사동아리	· 일시 : 5월 19일(토)~6 월 8일(금) · 장소 : 홍성군내 유적지 · 참석인원 : 140명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의 중요성을 일깨 우기 위해 홍성군내 유적지 답사	
4	우리문화 한아름강좌	· 일시 : 5월 19(토)~9월 24(월) · 장소 : 문화사랑방, 각 학교 강당 · 참석인원 : 450명	홍성에 남아 있는 문화유적지를 슬라이 드로 만들어 상영	
5	성년의식	· 일시 : 5월 21일(월) · 장소 : 혜전대학 노천극장 · 참석인원 : 400여명	만20세가 된 성년에게 우리나라의 전통 성년식을 올리게 함	
6	제7회 만해제	· 일시 : 8월 14일(금) · 장소 : 만해 생가, 홍주 문화회관 · 참석인원 : 2,500여명	만해한용운선생의 깊은 뜻을 기리는 추 모다례와 문학의 밤	
7	문화유적지 순례	· 일시 : 8월 31일(금)~9 월 18(화) · 장소 : 경복궁, 석탄박물관등 · 참석인원 : 95명	군민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신청에 의해 국내 유명한 유적지 순례	
8	영화제	· 일시 : 9월 27일(목) · 장소 : 삼일극장 · 참석인원 : 1,000여명	군민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9	지역문화축제 (제1회 한우리)	· 일시 : 10월 13일(토)~ 14일(일) · 장소 : 푸른섬터, 홍성거 리전시 · 참석인원 : 900여명	문화예술인과 군민이 참여하는 작품전시 와 노래자랑, 연극 등	
10	지역문화의해 기념행사	· 일시 : 10월 24일(수) · 장소 : 부여박물관, 무량사등 · 참석인원 : 45명	유적지를 찾아가 직접 보며 문화유적지 에 중요성을 인식시킴	
11	청소년문화 역사동아리	· 일시 : 10시 30일(화) · 장소 : 문화사랑방 · 참석인원 : 70명	주민을 대상으로 유적지 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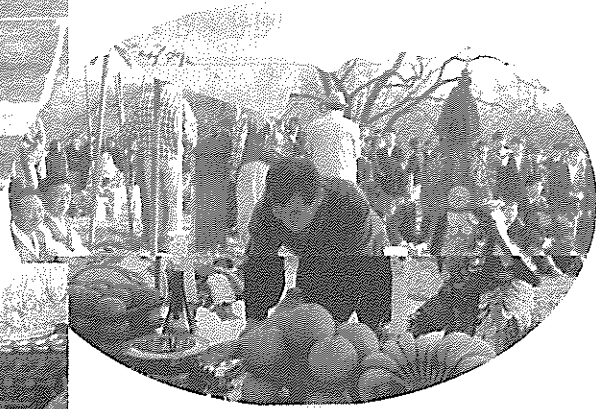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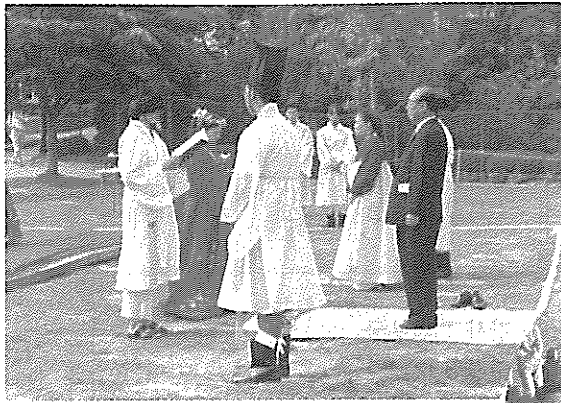


2001년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신사년 신년교례회	· 일시 : 1월 3일 11시 · 장소 : 군청회의실 · 참석인원 : 350명	· 예산군내 기관·단체 임원 및 지역인사로 구성 · 신년 인사회로 구성	
2	정월대보름 축제	· 일시 : 2월 7일 · 장소 : 산업대운동장 · 참석인원 : 1,200명	· 군내기관단체, 학생으로 구성 · 정월대보름축원제례 및 정월세시풍속놀이로 시행	
3	임존성백제 부흥군축제	· 일시 : 11월 23일 · 장소 : 임존성 · 참석인원 : 700명	· 군내기관단체 및 학생참가 · 백제부흥군 위령곡 및 성지순례 시행	
4	문화유적지 순례	· 일시 : 11월 4일 · 장소 : 경기도 이천 · 참석인원 : 90명	· 예산문화원 문화가족 참가 · 문화유적탐방 및 회원 친목활동	
5	갈신리 장승제	· 일시 : 1월 29일 · 장소 : 대흥면 갈신리 · 참석인원 : 200명	· 전승민속신앙의 맥을 계승 · 일년간의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	
6	조곡리 산신제	· 일시 : 1월 31일 · 장소 : 신암면 조곡리 · 참석인원 : 150명	· 전승민속제례로서 시행 · 한해의 무사태평을 기원	
7	교촌리 행당제	· 일시 : 1월 30일 · 장소 : 대흥면 교촌리 · 참석인원 : 150명	· 거목(巨木) 신앙으로 전승 · 일년간의 무사안일과 풍년을 기원	
8	제12회 추사회호대회	· 일시 : 10월 14일 · 장소 : 추사고택 · 참석인원 : 800명	· 추사문화제의 중심행사로 시행	
9	제7회 사생실기대회	· 일시 : 10월 14일 · 장소 : 추사고택 · 참석인원 : 300명	· 추사문화제의 일환으로 시행 · 예산군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0	제6회 풍물 겨루기대회	· 일시 : 10월 13일 · 장소 : 학생체육관 · 참석인원 : 300명	· 추사문화제의 일환으로 시행 · 예산군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11	제3회 학생서예대회	· 일시 : 10월 14일 · 장소 : 추사고택 · 참석인원 : 120명	· 추사문화제의 일환으로 시행 · 예산군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12	제3회 학생글짓기대회	· 일시 : 10월 14일 · 장소 : 추사고택(홍문) · 참석인원 : 700명	· 추사문화제의 일환으로 시행 · 예산군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13	문화학교 작품전시회	· 일시 : 12월 11일~13일 · 장소 : 예산군 문예회관 · 참석인원 : 500명	· 연1회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발표 전시회 개최	
14	분제전시회	· 일시 : 10월 13일~14일 · 장소 : 예산문화원 · 참석인원 : 500명	· 추사문화제의 일환으로 시행	
15	서예강좌	· 일시 : 매주 월, 수요일 · 장소 : 전시실 · 참석인원 : 연 1,000명	· 강사 : 전홍규, 홍우기 · 한글·한문서예	
16	노래교실강좌	· 일시 : 매주 금요일 · 장소 : 회의실 · 참석인원 : 연 800명	· 강사 : 윤세중 · 음정·박자·음치 교정 · 대중가요	
17	시조강좌	· 일시 : 매월 3,8,14,21,30일 · 장소 : 문화단체실 · 참석인원 : 연 700명	· 강사 : 김정태 · 연중 1회 시조경향대회 개최 · 내포제 시조	
18	문인화강좌	· 일시 : 매주 토요일 · 장소 : 전시실 · 참석인원 : 연 500명	· 강사 : 김준태 · 사군자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9	한국화강좌	· 일시 : 매주 화요일 · 장소 : 전시실 · 참석인원 : 연 1,000명	· 강사 : 정춘자 · 수묵화, 풍경화, 채색화	
20	한학강좌	· 일시 : 매주 화, 수요일 · 장소 : 회의실 · 참석인원 : 연 500명	· 강사 : 전용국 · 맹자집주	
21	전통관계례식	· 일시 : 5월 21일 · 장소 : 공주산업대 · 참석인원 : 100명	· 공주산업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인 이 된 남녀에게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줌	
22	학생 유적지순례	· 일시 : 7월 17일 · 장소 : 부여지역 · 참석인원 : 50명	· 예산군내 고등학생 참가 · 인접지역의 문화유적지 순례	
23	전국 rock festival	· 일시 : 8월 12일 · 장소 : 예당관광지 · 참석인원 : 1,000명	· 예산군민 대상 · 예당호를 중심으로 전국의 rock동아리 공연	
24	김득중 초청 학생강연회	· 일시 : 10월 5일 · 장소 : 삼교고등학교 · 참석인원 : 300명	· 우리문화 한아름 강좌	
25	양승학 초청 학생강연회	· 일시 : 10월 24일 · 장소 : 임성중학교 · 참석인원 : 100명	· 우리문화 한아름 강좌	
26	rock & metal live 공연	· 일시 : 11월 28일 · 장소 : 예산군 문예회관 · 참석인원 : 500명	· rock동아리 옥타브 공연 · 청소년 중심의 문화보급 확대	
27	제3회 EXIT 정기공연	· 일시 : 12월 21일 · 장소 : 예산군 문예회관 · 참석인원 : 700명	· 문화원 rock동아리 · 청소년들의 다양한 소질과 능력을 계발 하고 그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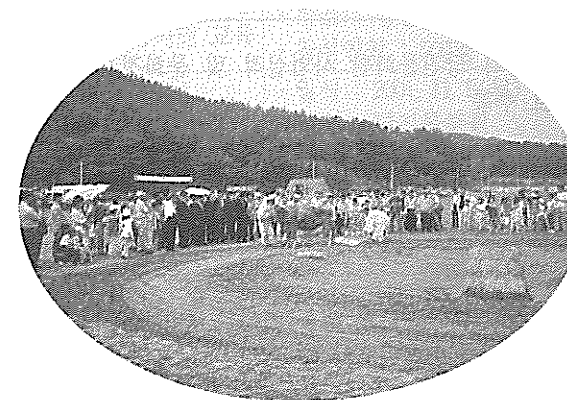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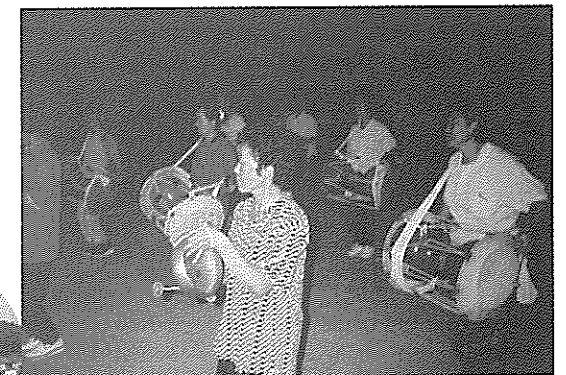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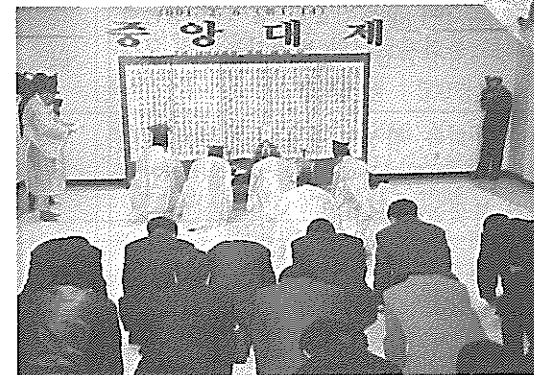
2001년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중앙대제	- 일시 : 2. 6(음1. 14) 19:00 - 장소 : 문화원 - 참석인원 : 각급기관단체장, 주민100여명	태안의 전통문화로 태안군 각급 기관장 및 지역주민들이 모여 국태민안 시화연풍등을 기원하는 대제	
2	이원면 벚가릿대놀이	- 일시 : 2. 23(음 2. 1) - 장소 : 이원면 관리 마을회관 - 참석인원 : 인근 기관단체장, 마을주민 100여명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정월 보름 전날에 긴 장대를 마당 한복판에 세우고 새끼줄을 꼬아 세갈래로 지지해서 세워두었다가 머슴의날인 음 2월 1일에 벚가릿대를 뉘인다. 이때 장대끝에 매달아 두었던 곡식을 가지고 한해의 풍·흉을 점치는 의식으로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민속행사	
3	움직이는 문화공연	- 일시 : 2. 7~12. 11(7회) - 장소 : 모항, 이원, 고남, 이원, 소원 남면, 노아의집 - 대상 : 태안군일원의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회 관등	비교적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의 복지원, 경로당,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문화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순회공연을 실시함.	
4	소성의향기7집	- 일시 : 연중 원고모집 - 발간부수 : 1,000부 - 배부처 : 문화가족, 전국 문화원, 군내 각 기관 및 단체	사진으로 보는 문화원 등경, 2001년도 학생 문예작품, 향토문화, 특별기고, 각종 문화예술계소식, 문학작품, 우리고장문화소식등	
5	한아름 교육	- 일시 : 6. 9~11. 17 15:00 매주토요일 - 장소 : 태안고등학교 - 주제 : '몸으로 체험하는 우리문화' 신나는 마당놀이	우리전통문화와 마당놀이, 연극등을 결합한 종합문화 예술교육을 실시함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6	청소년문화 체험캠프	· 일시 : 8. 6~8. 8 · 장소 : 원북면신두리야 영장 · 대상 : 태안지역 청소년 200여명	· 청소년 문화공간인 '우리동네' 등과 연 대하여 전통문화, 생활민속, 문예창작, 풍물등 프로그램을 진행.	
7	주말영화교실	· 일시 : 7. 7~9. 22 (매주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문화원 · 대상 : 태안군민, 학생	· 다양한 문화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 하여 문화원 강당을 이용하여 매주 토 요일마다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매주 자 료지를 발행하고 영화에 대한 토론을 할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함	
8	고인돌 설치작업	· 일시 : 연중 · 장소 : 태안문화원옆 공터	· 도로공사로 인하여 훼손될 뻔한 장산 리 고인돌을 옮겨와 고인돌 공원을 조 성함	
9	향토문화13집	· 일시 : 연중 · 대상 : 향토문화연구위원, 향토사학자등 · 부수 : 400부	· 매년 향토문화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우 리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발굴하여 체 계화 함	
10	고남면 조제부르기제	· 일시 : 11. 27 11:00 · 장소 : 고남면 누동리 바닷가 · 참석인원 : 인근 기관단 체장, 마을 주민 100명	· 누동리 1구 대동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민속행사로 제단올리기, 축문읽기, 조제부르기 한 마당의 순으로 진행된다.	
11	문화예술홍보 지원단운영	· 일시·장소 : 태안군 8 개읍면 상가및 기관단 체-연중실시	· 8개읍면의 중심상가와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홍보단을 조직하여 선정된 대상에 대하여 문화예술 홍보 지원단으로 위촉하고 깔끔하고 세련된 문화예술 홍보게시판을 부착하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예술행사 를 홍보할수 있게 함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2	초·중·고 미술실기대회	· 일시 : 10. 23(화) 14:00~18:30 · 장소 : 태안여고교정 · 참석인원 : 250명	·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를수 있도록 풍경, 구성, 한국화, 경 험화등 사상대회를실시함	
13	학생풍물 경연대회	· 일시 : 9. 23(목) 14:00~17:00 · 장소 : 군민체육관 · 대상 : 초·중·고등학교 · 참석인원 : 300여명	· 초중고별 풍물경연(앉은반, 선반), 과 물개팀 초청공연실시	
14	충남무형문화재 제24호 '설위설경' 시연회	· 일시 : 10. 7(일) 오후2시 · 장소 : 공주민속극박물관	· 충남무형문화재 제24호인 '설위설경' 발표로 독경시연, 설위설경, 작품전시 및 '퇴신거리' 행사실시	
15	문화총람 CD제작	· 발간부수 : 500매	· 태안의문화, 관광, 전설등을 총람하여 컴퓨터 영상 CD로 제작	
16	전시실 조명보완	· 일시:9월10~16일(7일간) · 문화원 전시실조명보완	· 각 유물에 맞는 조명을 선택, 패널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조명 을 배치함	
17	지역시민 현장교육	1차 · 일시 : 10. 16 / 15:00 · 장소 : 태안여자고등학교 · 참가인원 : 700명 2차 · 일시 : 11.3 / 11:00 · 장소 : 문화원 · 참가인원 : 1 00명 3차 · 일시 : 12. 7 · 장소 : 문화원	· 선진적인 문화의식으로 바꾸고 발전시 켜 품위있는 문화국민상을 만들기 위 한 시민 교육실시	
18	문화예술홍보 지원단운영	· 일시 : 9. 25 / 19:00 · 장소 : 태안예술회관 · 참가인원 : 700여명	· 태안예술회관 개관을 기념하기위한 수 원시립 합창단 초청공연으로 일반적으 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래를 선곡 하여 가을밤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감 수성을 충족시켜주는 공연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9	찾아가는 문화활동 『푸른음악회』	· 일시 : 10. 26 / 19:00 · 장소 : 태안예술회관 · 참석인원 : 1,000여명	· 태안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연 감상의 기회를 제공함	
20	해바라기 콘서트 【가을 그리고 사랑이야기】	· 일시 : 11. 8/ 19:00 · 장소 : 태안예술회관 · 참석인원 : 1,000여명	· 프로그램- 마음깊은 곳의 그대로를 내 마음의 보석상자 어서 말을 해 갈수 없는 나라 등	
21	지역문화학교	· 일시 : 4. 3~11.7 / 11:00 · 장소 : 문화원 · 참가인원 : 100명	· 프로그램 서예교실 : 4~10월 민요교실 : 4~10월 7, 8월휴강 종이접기 : 4~10월 7, 8월휴강 풍물교실 : 4~9월 짚 공 예 : 7~8월 사진교실 : 4~8월	
22	향토문화 유적답사	1차 · 일시 : 7. 6 · 대상 : 이원중(전교생) · 장소 : 논산, 부여 2차 · 일시 : 12. 7 · 대상 : 문화원 임원, 대의원, 향토연구위원 · 장소 : 예산지역문화유적, 한국고전출판박물관	· 다른지역의 유적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	
24	청소녀 어울마당 소성백일장 춤사랑 콘서트	· 대상 : 초·중·고학생 · 입상 : 258편중 114편 · 일시 : 12.22 15:00 · 장소 : 태안문화예술회관	· 소금, 바람등 태안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주제로 실시 · 태안지역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기획과 공연으로 이루어짐	
24	리지발간	· 기간 : 8월~12월 · 대상 : 소원면(시목리 2리)	· 마을의 유래, 구비전승문학, 민담, 전설 등 리단위의 향토문화를 중심으로 엮음	
25	자염생산재현	· 일시 : 5. 20 (14:00) · 장소 : 근흥면 냉금마을 · 참석인원 : 1,000명	· 우리나라와 태안지방의 전통소금인 자염을 옛방식 그대로 재현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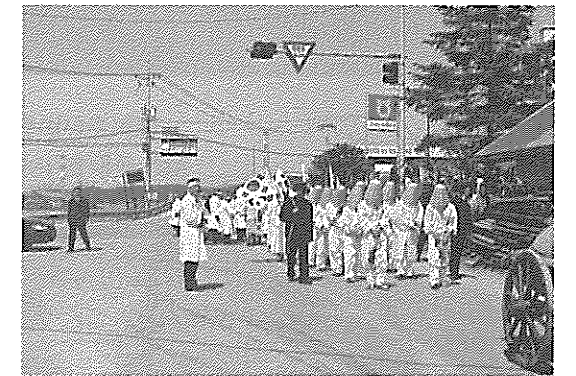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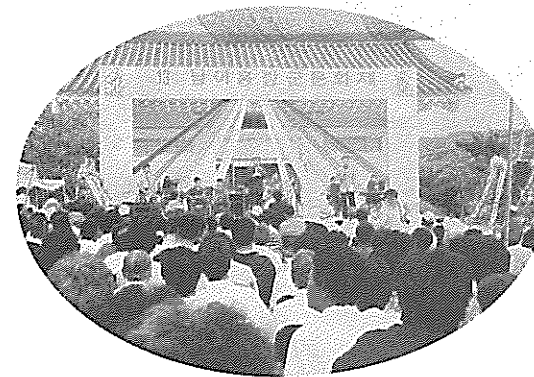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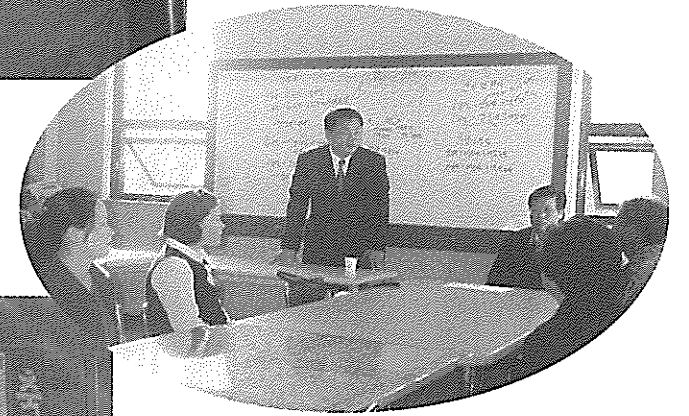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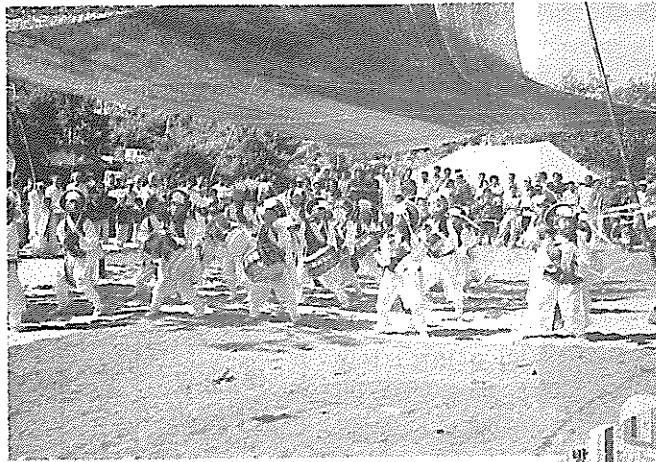
2001년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	정기총회 및 지역문화 발전 토론회	· 일시 : 2001. 2. 23(금)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150명	정기총회 및 문화발전 토론	
2	살풀이 춤 공연	· 일시 : 2001. 4. 4(수) · 장소 : 대호지면 조금리 창익사 · 참석인원 : 2,000명	대호지 44독립만세운동 기념 행사로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자 함	
3	44기념 학생 백일장대회	· 일시 : 2001. 4. 4(수) · 장소 : 대호지면 조금리 창익사 · 참석인원 : 2,000명	당진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44 독립만세의 정신을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백일장 대회를 실시함	
4	지역문화 컨설팅	· 일시 : 2001. 4. 25(수)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100명	우리 고장의 유명인물인 남이홍 장군을 소재로 문화제로서의 발전가능성을 모색함	
5	남산벚꽃 축제한마당 「문화뱅크공연」	· 일시 : 2001. 4. 28(토) · 장소 : 당진문화원 광장 · 참석인원 : 3,000명	가수 문희옥, 김성령 등을 초청하여 피로에 지친 지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야간 불꽃놀이를 펼침	
6	이사회	· 일시 : 2001. 5. 10(목)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15명	문화원 발전방향 토의	
7	러시아 학술세미나	· 일시 : 2001. 6. 13~22 · 장소 :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 참석자 : 원장	해외문화교류사업	
8	당진문화 18호 발간	· 일시 : 2001. 6. 30(토)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7,000명	상반기 당진문화원 사업실적 및 문화정보 수록	
9	물의문화 발간	· 일시 : 2001. 7. 1(일) · 장소 : 당진문화원 · 발간부수 : 500부	물의 근원과 일상생활에서의 물의 소중함을 재발견	
10	제3회 남이홍장군 문화제 기념 학생 백일장대회	· 일시 : 2001. 9. 10(월) · 장소 : 대호지면 도이리 충장사 · 참석인원 : 3,000명	살신위국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공의 희생정신을 드높이고자 함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11	향토축제 개선을 위한 과거 무과시험	· 일시 : 2001. 9. 9~10(월) · 장소 : 당진읍내, 충장사일원 · 참석인원 : 3,000명	과거 선조들의 모습을 현실감있게 재현함으로써 획일적인 축제의 상을 탈피함	
12	전통민속놀이 옛 씨름제현	· 일시 : 2001. 9. 10(월) · 장소 : 대호지면 충장사 · 참석인원 : 3,000명	전통민속놀이로서의 씨름을 해학적인 요소가 가미된 민속놀이로 발상 전환	
13	이사회	· 일시 : 2001. 9. 19(수) · 장소 : 황금릉 · 참석인원 : 12명	당진문화원 임원선거 준비	
14	이사회	· 일시 : 2001. 9. 21(금)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12명	선거관련 내부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5	2001 한가위 민속놀이 대회	· 일시 : 2001. 9. 29(토) · 장소 : 당진문화원 광장 · 참석인원 : 300명	널뛰기, 제기차기, 투호대회를 하며 전통민속놀이를 통한 이웃간의 친목을 다지는 기회제공	
16	충주시립국악단 초청공연	· 일시 : 2001. 10. 18(목) · 장소 : 합덕평생교육원 · 참석인원 : 500명	합덕평생교육원 개원 1주년 기념 및 노인위안잔치	
17	제1차당진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일시 : 2001. 10. 10(수)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10명	선거관련 제반사항 결의	
18	제2차당진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일시 : 2001. 10. 19(금)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7명	임시총회 준비	
19	향토민속자료 홍보책자 발간	· 일시 : 2001. 10. 30(화) · 장소 : 당진문화원 · 발간부수 : 5,000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행사에 외국인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보급	
20	2001 지역현장 문화시민 교육	· 일시 : 9월, 10월, 11월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500명	문화시민 교육 3회 실시	
21	임시총회	· 일시 : 2001. 11. 5(월)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165명	당진문화원 임원 선출	
22	중국문화참사관 강연 및 서화전시회	· 일시 : 12월중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400명	자매결연한 중국대사관과 교류하여 지역민들에게 중국문화를 한눈에 선보임	
23	제1회 당진문화원 영어말하기대회	· 일시 : 2001. 12. 9(일)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300명	21세기 정보고속화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 및 일반인들에게 영어 학습 의욕을 높임	

사업순위	사업명	세부사항	활동상황	비고
24	서예전시회	· 일시 : 2001. 12. 15(토)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300명	당진문화학교 서예반 수강생 작품 전시회	
25	당나라의 맥락 21집 「당진문화 유적총람」 CD 발간	· 일시 : 2001. 12. 30 · 발행처 : 당진문화원 · 발간부수 : 1,000매	관내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	
26	당진문화 19호 발간	· 일시 : 2001. 9. 19(수) · 발행처 : 당진문화원 · 발간부수 : 7,000부	2001 하반기 문화원 사업 및 기타 문화 관련 정보자료 발간	
27	문화학교 운영	· 일시 : 2001. ~12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여인원 : 1,000명	민요, 장구, 서예, 인물스케치, 일본어 초·중급, 한문, 영어회화, 고려수지침, 댄스스포츠, 가요(11개 강좌)	
28	시립국악단 초청공연	· 일시 : 2001. 4. 15(일) · 장소 : 면천정류소 광장 · 참여인원 : 3,000명	제1회 면천 진달래 축제를 경축하는 국악단 초청 공연	
29	지역문화의 해 문화예술인 잔치	· 일시 : 2001. 14. 27(금) · 장소 : 남상공원(당진) · 참석인원 : 3,000명	남산 벚꽃축제 행사	
30	사랑의 문화 봉사단 초청공연	· 일시 : 2001. 5. 15(화)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700명	뮤지컬 「양양 푸뚜꾸」	
31	한국기원 초청바둑 강연회	· 일시 : 2001. 6. 9(토) · 장소 : 당진문화의 집 · 참석인원 : 150명	바둑 애호가들이 모여 바둑대회	
32	군민노래자랑	· 일시 : 2001. 9. 10(월) · 장소 : 대호지면 충장사 · 발간부수 : 3,000부	지역가수 초청 및 군민노래자랑	
33	어린이 종합예술단 초청공연	· 일시 : 2001. 10. 31(수) · 장소 : 당진초등학교 · 참석인원 : 1,000명	사물놀이, 발래, 중창 등 공연	
34	유복성췌즈 「바로크 뮤직 축제」	· 일시 : 2001. 12월중 · 장소 : 당진문화원 · 참석인원 : 300명	보컬, 췌즈 공연	
35	찾아가는 이동 노래방	· 일시 : 연중(10회) · 장소 : 당진군내 경노당 · 참석인원 : 1,000명	연중행사로 소외된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노래방 운영	
36	무료 수지침 봉사대	· 일시 : 연중(96회) · 장소 : 관내경노당 · 참석인원 : 2,000명	지역 경노당을 찾아가 건강 복지향상을 위한 연중행사	





忠 南 文 化

2001 〈통권 제5호〉

- 발행일 : 2001년 12월 21일
- 발행인 : 김현구
-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356-020 충남 서산시 읍내동 516
전화 (041) 667-0417 팩스 (041) 669-4567
- 인 쇄 : 가야인쇄기획
충남 서산시 읍내동 466-10
전화 (041) 664-6400 팩스 (041) 667-7458

〈비 매 품〉

지 방 문 화 원 현 황

(2001. 12월 현재)

문 화 원	소 재 지	설 립 일	원 사 면 적	문 화 가 족			전화번호
				원 장	사무국장	직 원	
계	17개소						
전국문화원연합회 도지회	서산시 읍내동 268			김현구	한기홍	김영철	667-0417
천 안 문 화 원	성정동 694-9	54. 7. 10	800	민병달	이정우	이은미 정종현 최강덕 양혜정 민근홍	575-3004
아 우 내 문 화 원	병천면 병천리 172	58. 4. 20	161	조성민	조동준	이병민	564-1022
성 환 문 화 원	성환읍 성환리 449-66	68. 1. 25	84	지해두	신광식	김정선	581-2101
공 주 문 화 원	반죽동 184-2	54. 12. 16	303	정재욱	류재열	장미숙 김설희	852-9005
대 천 문 화 원	동대동 983-16	62. 2. 4	309	윤병배	김정원	임형숙	934-3061
온 양 문 화 원	온천동 206-24	64. 11. 24	285	박노을	장기승	지상미	545-2222
서 산 문 화 원	읍내동 268	57. 6. 15	233	김현구	한기홍	김기영 안지현	669-5050
논 산 문 화 원	논산시 내동 279-4	57. 11. 14	105	하기수	양순모	김현중	732-2395
금 산 문 화 원	금산읍 상리 176-43	68. 3. 5	138	신정교	안용산	석현숙	754-2724
조 치 원 문 화 원	조치원읍 교리 21-1	64. 10. 14	90	장 영	이원재	길말숙	865-2411
부 여 문 화 원	부여읍 동남리 722	54. 4. 1	145	장영석	김인권	전혜림	835-3318
서 천 문 화 원	서천읍 사곡리 62	65. 1. 26	300	노금래	정해성	최신희	953-0123
청 양 문 화 원	청양읍 읍내리 202-5	65. 2. 11	286	안종일	임두순	김현경 이경숙	943-4774
홍 성 문 화 원	홍성읍 오관리 412-13	65. 1. 26	150	이하영	김경식	한경원 서정일	632-3613
예 산 문 화 원	예산읍 예산리 433	55. 10. 15	145	이지호	김문희	이용남 윤선숙	335-2441
태 안 문 화 원	태안읍 남문리 53-11	90. 9. 15	250	이갑춘	정지수	이연숙	674-2192
당 진 문 화 원	당진읍 읍내리 529-9	58. 3. 5	70	민영근	김진식	김종선 박효영 김성아	354-2367